

북미주 기독학자회 1989 — 1992 연례대회 자료집

# 기독교와 주체사상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 기독인과 주체사상가의 대화

신앙과 지성사



북미주 기독학자회 1989－1992 연례대회 자료집

## 기독교와 주체사상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 기독인과 주체사상가의 대화

신앙과 지성사  
1993



## 차례

책 머리에 / 윤길상 .....	5
북미기독학자회의 지난 몇 년간을 회고하며 / 안중식 .....	9
Introductory Note / Kil Sang Yoon .....	20

### I. 제 23 차 연례대회

주제 : 민중신학과 주체사상의 통일지향 사상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1. 민족통일에 대한 신학적 과제 / 송기득 .....	31
2. 제 23 차 연례대회를 마치면서 (성명서) .....	50

### II. 제 24 차 연례대회

주제 :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위치

1. 형제애로 통일하자 (조국통일 기도주일 설교문) / 김운봉 .....	55
2. 한국 최근대사에 있어서 미국의 한국통일 정책과 기독교 / 강위조 .....	63
3. 기독교에 대하는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 박승덕 .....	80
4. 애국·애족은 그리스도인의 본분 (폐회설교문) / 리성봉 .....	87
5. 통일의 군병이 되어 (기도문) / 최옥희 .....	95

### III. 제 25 차 연례대회

주제 : 새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독인의 사명

1. 새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개방성, 포용성, 통일성 (개회 설교문) / 이상철 .....	101
2. 우리 민족주의의 새로운 전개 / 송건호 .....	108
3. 민족주의 이념의 재발견 / 지영관 .....	116
4. 통일신학 : 조국통일과 하나님 나라 / 박순경 .....	130
5. 민족주의의 재발견 / 이만열 .....	144
6. 주체사상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 박승덕 .....	160

7. 주체사상의 종교관／박승덕	182
8. 이질화 극복을 위한 통일교육방안／변홍규	195
9. 냉전의 종언과 한국 재통일의 역사적 전망／노명식	210
10.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식／한완상	214
11. 하나의 조국을 이루도록(기도문)／최옥희	218

#### **IV. 제 26 차 연례대회**

주제 : 민족통일을 위한 신학과 민족주의 재정립

1. 21세기를 바라보는 민족주의의 자세 (기조강연)／선우학원	227
2. 정신대 ; 역사와 민족의 고난 (특별강연)／윤정옥	249

■ 제1패널 : 민족통일을 위한 신학의 정립

1. Theology of Community／Andrew Sung Park	264
2. 민족통일을 위한 기독자의 과제／김근영	281
3. 한국 기독교 통일신학 운동의 사회전기／서광선	288
4. A socio – biography of a Theologian in the Divided Korea／David Kwang Sun Suh	299
5.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본 통일신학／김윤옥	316

■ 제2패널 :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자주성 확립

1. National Consciousness and Globalism／Han Shik Park	326
2.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는 민족주의의 정립을 위한 모색／박승덕	359
3. 조국통일과 민족의식／이삼열	386
4.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자주성의 확립／박명철	397
5. 신앙은 생명적이어야 (폐회 설교문)／장성환	407

• 부록	412
------	-----

---



## 책머리에

북미 기독학자회는 1967년 미국과 캐나다에 유학하고 있었던 뜻있는 기독자 대학원생, 신학생, 교수와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된 기독자들의 협의회이다.

본인의 기억으로는 1967년 가을이었다. 남감리교대학교 신학부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시던 손명걸 목사께서 뜻있는 기독자들의 친목과 상호협조를 위하여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 회합을 주선 했었다.

펜실바니아주의 서부 교육도시인 피츠버그에 있는 피츠버그 신학교에서 거의 30여 명이 모여서 관심사를 나눈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손명걸, 이승만, 서광선, 김병서, 김용복, 곽노순, 김동수, 백숙자, 신낙균, 최인순, 김상호 등이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참석자들이었다.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협의회가 70년대 초에는 회칙을 채택하고 본 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기에 이르렀다.

“북미주에 있는 기독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시대적으로 절박한 이슈들에 대한 기독자적인 관심의 증진 및 학문적인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회칙 제1장 2조 사역).

이상과 같은 목적의식 때문에 본회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북미주 안에서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 이민정착기의 교포사회에서의 기독자 및 교회의 역할, 남쪽 조국의 민주화문제 등을 연차대회의 주제로 취급하여 왔다.

1988년 로스앤젤레스 대회에서는 ‘분단시대와 이산가족’을 주제로 우리 민족의 절박한 문제를 다루었다. 그 이후 본회는 현시점에 있어서의 ‘시대적으로 절박한 이슈’는 역시 민족의 화해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하여 1989년부터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남과 북, 해외에 있는 기독자들을 초청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해 왔다.

---

---

이 책에 실린 논문, 설교, 기도문은 통일문제를 가지고 모였던 지난 몇 차례의 연차대회에서 함께 나눈 자료들이다. 이 기간 중 1989년, 90년에 걸친 연차대회의 논문들이 모두 글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존된 논문만을 살게 되었다. 1991년과 92년 대회의 내용은 개회·폐회 설교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관되었기에 이에 함께 출판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이 회의 책임을 맡아 일하여 온 여러 임원들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나누고 싶다.

첫째, 글로 표현된 발표자의 생각과 사상 이외에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독학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느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은 이 책에서의 활자화 된 논문이 다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매 연차대회 때마다 음악인들의 남북가곡 부르기와 뉴욕지역 기독 청년들의 민족문화활동의 일환으로서의 풍물놀이는 학구적이고 이론적인 논문과 주제토의에 정서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론과 견해, 사상과 이념의 차이는 분명하다. 그러나 같은 피를 나누고 언어와 문화의 오랜 전통을 함께 나누어 온 한겨레로서의 동질성은 고유한 우리의 음율과 장단, 춤과 노래, 우리 악기가 낼 수 있는 특이한 소리에 의해서 함께 어울릴 때 모두가 느끼고 감격할 수 있었다. 분명히 음악과 시, 춤과 노래는 사상과 이념으로 오랫동안 다른 정치·경제구조 안에서 살아온 우리들의 차이점을 초월하여 하나됨을 느끼고 깨닫고 감격하게 해주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모두 발표자의 원고 표현대로 실었다. 이를테면 구어체와 문어체의 경우와 하느님과 하나님 등의 표현, 그리고 북한의 발음과 표기도 그대로 두었다.

여기에 수록된 글들을 읽는 여러분은 글자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우리 민

---

족의 언어와 풍습, 한겨레로서의 동질성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사상과 이념, 정치 경제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한 바탕 위에 서 있고 살고 있다. 이 공통분모를 재발견 함으로써 반세기에 걸친 민족분단과 불신을 종식시키고, 상호이해와 존경을 통한 평화적인 통일에로의 길을 닦아가야겠다.

특히 이러한 뜻을 가지고 시간과 정열을 들여 애써주신 역대 회장단과 임원 및 이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1989－91년도 임원진, 안중식 회장, 정춘수 총무, 장화인 회계, 1991－93년도의 장화인 부회장(재정담당), 조현정 부회장(프로그램 담당), 이상성 총무(1991－92), 김혜선 회계(1991－92) 및 장재식 총무(1992－)와 구춘서 회계(1992－) 등 임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북미주에 있는 본회 회원들은 이 논문집 출판을 위하여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서울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한국기독자 교수협의회 회장 이삼열 박사와 여러 임원 및 전회장 김찬국 교수님의 조언과 자료제공, 출판사 알선 및 모든 실무를 기꺼이 맡아 처리해 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은희곤 목사의 헌신적인 봉사, 영문원고의 해독 및 교정을 위하여 바쁜 시간을 내어주신 감리교신학대학의 박충구 박사와 그 부인 강남순 박사, 그리고 영리적인 문제에 개의치 않고 이 출판을 맡아주신 신앙과 지성 사의 최병천 사장님의 열정적인 후원 등 여러분들의 도와주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인의 임기 중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미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 성직부 목회국 총무 도날드 H. 트리스(Donald H. Reese)박사의 후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린다.

물론 이름을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본회를 아끼시고 물심양면으로 본회

---

의 사업을 도와주신 여러 회원들과 독지가들의 후원에 감사를 드린다. 이  
분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아무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작은 책자가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어주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1993년 정월 통일염원 48년

윤길상  
(1991-93년 회장)

---

---

## 북미주 기독학자회의 지난 몇 년간을 회고하며

안중식  
북미주 기독학자회 직전회장

1986년 6월 29일 사태 이후 해외의 조국 민주화 운동은 운동의 촛점을 잊어 버렸고 그 힘도 약화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첫째, 제 5 공화국이 제 6 공화국으로 정권 이양되면서 민주화가 성취되었다고 국민들이 착각했다. 둘째, 해외 민주화 운동단체들의 운동방향이 흐려져 버렸다. 셋째,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민주화 운동은 뚜렷한 결과도 없이 탈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7·4 공동성명 이후 고개를 들지 못했던 통일운동이 1987년 11월 19일~21일까지 뉴욕 포레스트힐 수양관에서 모였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해외 동포회의’가 발기하여 해외거주 한인들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다. 동 모임에서 해외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지렛대의 역할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1987년 해외동포 통일

---

선언문'을 통해 해외의 사명을 결의하고, 통일운동에 임하는 기본자세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첫째, 통일운동은 남북한 민중의 과제임과 동시에 5백만 해외동포의 과제이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국내외 흑백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한 쪽의 논리만을 강요 당하는 방관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해외동포의 제 3 자적 위치, 통일논의의 자유, 많은 정보와 접할 기회 등의 유리한 재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통일의 광장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둘째, 해외동포가 주체적으로 통일논의에 기여하는 길은 분단선상에서 지렛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다. 이 길이야말로 통일논의가 더이상 집권세력의 전유물이나 남북한 체제유지를 위한 이용물이 되지 않고 민중이 주체가 되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돋는 길이다. 우리는 남북한 양측에 대해 이해와 비판의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남북한이 서로 평화와 양보를 경쟁할 수 있도록 자극함으로써 통일의 길을 재촉해야 한다고 믿는다.

셋째, 이러한 해외동포의 이해와 비판의 태도는 남북한의 민주화와 개방의 촉구라는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을 전제하지 않은 민주화가 허구인 것처럼 민주화를 동반하지 않는 통일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해외동포의 건설적인 비판의 자세가 남북한을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이 됨을 확신한다.

넷째, 우리는 북한 역시 우리 조국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며 또한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여 하나의 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

의미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불신해소와 상호화해를 위한 매개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남한과 긴밀한 혈연 지연관계를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로서는 남한이 양보와 화해의 노력을 주도해 주기를 희망한다.

다섯째, 해외동포의 지렛대적 역할은 교포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대중적인 통일지향 세력의 형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남북간의 화해를 위한 노력은 일부 소수가 아닌 교포사회 전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우리는 7·4 공동선언에도 나타난 자주통일, 평화통일 사상과 이념 및 체제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의 정신이 해외동포의 통일논의에 기본적인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지침은 통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통일의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해외운동에 힘을 입어 조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인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민족의 영원한 번영과 발전을 위해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조국땅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까?”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니카라과와 쿠바,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장로교 선교방문단 일원으로 방문케 되었다. 물론 그들에겐 38선이란 분단도, 6·25란 아픈 경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기독교와 그곳 체제가 몸부림치며 그들의 나라와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해 결속해 가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의 싸움은 교회와 공산주의 체제와의 싸움보다는 미국의 정치, 경제적 권력에서 자유롭기 위한 싸움이요, 빈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경

---

제적, 정치적 자유화의 싸움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우리 민족의 수난사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위해 1945년까지는 사상과 이념, 종교와 지방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 살아온 경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민족이 한겨레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없을까?” 하는 꿈을 가져본 것이다.

## 제 22 차 북미주 기독학자회 연례대회

제 22 차 대회가 1988년 6월 30일-7월 2일까지 L. A에서 ‘분단시대와 이산가족’이란 주제로 모여 분단의 아픔과 이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대회에서 결의하였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조국의 분단과 민족의 피흘림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 곧 인류를 희생시키기에 이르도록 자기 중심의 권익을 추구하는 탐욕과 교만과 증오의 소산임을 고백하며, 흩어진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하지 못한 죄를 고백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헤어진 가족을 찾는 일은 조국통일과 민족화해를 위한 최선의 길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1) 민족통일을 위한 제언

하나. 남북한 정부는 민족이 하나되는 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해야함을 인식하고, 우리는 한겨레임을 깊이 이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하나. 남북한 정부는 서로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민족이 하나되는 일을 위해 반민족적인 방법과 수단을 모두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국내에 흩어진 한국 교회는 민족이 하나되는 일을 위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민족통일의 역군이 되어 줄 것을 호소한다.

하나. 국내에 있는 한국 교회는 있는 자의 편에서 더 갖도록 축복하는 일이 아니라 못가진 자의 아픔에 동참하여 정치와 경제적 정의와 평등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한다.

## 2)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

하나. 이산가족의 아픔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며 기본인권의 유린이므로 이산가족의 상호방문을 최대한으로 협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남북한 정부는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줄 것과 판문점에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 ‘면회소’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한다.

하나. 남북한 적십자사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기구들은 가족이 만난 이야기의 순수한 감격의 경험을 그대로 온겨레에게 알려 줄 것을 호소한다.

하나. 국내외에 있는 교회들은 흩어진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

---

## 제 23 차 북미주 기독학자회 연례대회

제 23 차 연례대회는 1989년 6월 1일-9일까지 뉴저지에 있는 성 엘리자베스 대학에서 ‘민중신학과 주체사상의 통일지향적 사상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가졌다.

이 대회가 열리기까지 대회의 준비위원들은 손에 땀을 쥐며 긴장해야 했고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만남을 방해하는 민족분단을 만든 자본주의와 군벌주의의 장난 때문이었다. 대회 준비가 시작될 때부터 미국무성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오는 대표단의 입국허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전날 한 사람의 입국만 허락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무성이 대회 개최일을 이틀 앞두고 북쪽 대표들의 사진이 없다고 해서 김동수 교수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Piedmond Air로 공수해 Washington D. C에 있는 회원이 공항에서 사진을 받아 미국무성 직원집으로 밤 20시에 전달하는 일까지 했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박승덕 박사, 노철수 선생, 박영수 사회과학원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 이철 목사는 5월 27일부터 북경주재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고 5일 간 기다리다가 그대로 귀국하고 말았다.

대한민국에서 주강사로 초청되었던 안병무 교수는 신병의 이유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오지 못했고, 박형규 목사, 홍근수 목사는 출국정지가 되어 나올 수 없어 목원대학의 송기득 교수만이 개최되는 날에 겨우 도착하게 되었다.

---

아무리 악랄한 세력이 우리 민족의 분단을 영구하게 하려해도 한겨레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민족의식을 갖고 끈기있게 방해요소들을 헤쳐 나간다면 통일의 날은 오고야 말 것이며, 우리 민족의 얼은 뚜렷하게 살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회원 모두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해외에서 민족통일과 평화를 위한 신앙인으로서의 학문적 그리고 실천적 과업이 얼마나 귀중한 과제인가를 다시금 인식케 되었다.

논문을 준비한 학자들의 불참은 우리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다시금 깨닫게 했으며, 참석자들은 주체사상과 민중신학의 대화를 우리 민족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이념적 과제라는 것과 ‘민족’이란 공동체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둘이 겹혀히 만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했다. 또한 남북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민족사적 과업인지 새삼 실감케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란 특수한 환경적 조건을 근거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헬고, 적대감을 없애고 하나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보다 깊은 평화통일을 위한 학문적 노력과 신앙적 고백을 해야 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 ① 우리는 남북의 정부당국이 민족통일 노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 ② 우리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평화의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현재의 냉전정책을 전환시키기기를 촉구한다.
- ③ 우리는 평화와 신학적 관점에서 남북간의 대화공간을 확대하는 일에

---

---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 제 24차 북미주 기독학자회 연례대회

제 24 차 대회는 북경의 Shanglila호텔에서 1990년 8월 9일–11일까지 가졌다. 북경까지 오게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이유는 제 23 차 대회의 결의를 고려해서였다. 제 23 차대회가 끝나면서 참석자 전원은 다음 대회장소를 평양으로 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모임에 남쪽 학자들이 참석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을 제 2후보지로 결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서 본 기독교의 위치’란 주제를 정하고 우리의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전해 준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던 곳이 중국이라는 것과 민족의 수난기에 우리 겨레가 눈물을 뿌리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곳이 만주땅이기에 연변자치주를 회의장으로 택했다.

그러나 종교행사를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곳 국내외 교통편의, 그곳의 교회가 종교행사를 후원하기에는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경으로 장소가 정해졌다. 어려운 여건은 중국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여행사들이 기독학자회 연례대회에 참가하는 학자들의 수속을 맡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윤정옥 교수 한 분만이 겨우 홍콩까지 왔었으나 비자를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되돌아갔다.

지금까지의 기독학자회 연례대회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빈약한 모

---

임이었지만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교회 운동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크게 공헌한 바가 있었다는 것과 주의와 사상을 넘어서 우리 민족이 함께 일한 역사를 가졌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독학자들과 북의 학자들이 학술적 대화만이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의 인간적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 제 25 차 북미주 기독학자회 연례대회

대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민족이 하나되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이란 것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한편 우리에게는 만남을 위한 지혜가 생기게 되었다. 아니 이번 대회만은 남과 북, 해외가 함께 만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리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우리의 만남을 저지하려는 반통일세력이 국내외에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 해외가 함께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통일의지와 민족자주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구권 변화와 소련내부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는지도 모르지만 미국장로교 총회가 북조선 인민공화국 기독교연맹대표를 초청한 일과 북미주 기독학자회가 제 25 차 대회에 북쪽학자들을 초청한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북쪽의 대표 8명이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쪽에서 참석할 수 있는 학자들의 가능성에 자신이 없어 만일을 대비해 제 1, 제 2, 제 3순으로 초청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결국 모든 분

---

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주최측은 즐거운 비명을 올리게 되었다.

어떤 자세로 만났는가, 상대를 누구로 맞이하는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46년이란 긴 세월동안 만나지 못한 것은 물론, 적대관계까지 이른 남과 북의 관계이기에 만남 자체만으로도 기쁜 일이었다.

지나친 무비판적 감정만의 만남도 문제이거나 상처받은 감정과 분열로 인한 아픔에서 빚어진 예리한 비판만의 만남 또한 문제임을 알았다. 또한 상대편을 이기려는 경쟁적 목적에서의 만남이나 지나친 낭만적 꿈으로서의 만남도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자로서의 만남, 용서와 평화의 공존’을 생각하며 한겨레의 번영과 복지를 전제하는 만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독학자회가 지난 몇 년간 하려 했던 목적과 경위를 설명하려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 노력에 대한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드리려고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족의지’를 어떻게 바로 지켜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절규 그것뿐이다.

팔레스타인이 서남쪽 사회근처에는 Massada라는 산이 있다. 주후 70년 로마군이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예루살렘이 잣더미에서 쌓이고 말았을 때 민족의 명맥을 지키려는 이스라엘군은 Eleazar Ben Yair 장군의 지휘 하에 맛사다로 후퇴했다. 그리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게릴라의 근거지로 삼았다. 주후 72년에 로마군의 Silva장군은 이 근거지마저 부숴버리고 말 것을 결심했다. 그는 가장 잘 훈련된 10연대를 동원하여 산하에 8개의 진영으로 포위하고 돌로 3마일의 성을 쌓았다.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장기적으로 포위하고 자멸할 것

---

을 기대한 것이다.

맛사다 산정에 자리잡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임을 금방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Yair장군은 그곳에 남은 군인들과 가족들을 모아 연설을 했다.

“인생이란 재난의 연속이며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겁한 사람이든지 용감한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노예로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처자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 손에 쥐어진 칼을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사용토록 결심 하십시오. 우리의 처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유인으로 죽읍시다. 영원한 명성을 원수들의 손에서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죽은 시체외에 정복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립시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민족과 조국 앞에 민족의 정신을 지키며 존귀한 생명을 자기 백성의 손에 거룩히 바쳤다. 아무 저항도 없이 시체만 가득한 맛사다 산정을 로마군은 정복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의 정신은 정복하지 못했다”고. □

---

## Introductory Note

The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 in North America, inc. (AKCS) is a gathering of concerned Christian Scholars and Church people, who are engaged in the teaching, research and church leadership of both laity and clergy.

In the summer of 1967 when I finished the first year in my theological education at Southen Methodist University's perkins School of Theology, Myung Gul Son returned to his alma mater for the graduate study pursuing the Ph. D degree in theology. He had studied there in the late 1950. Then returning to Korea, he worked for Student Christian Movement as the Executive Director until he came back to the U. S. This time, as a concerned and experienced clergy in the area of student movement, it was very natural for him to see the need to pull together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graduate and theological schools in Canada

---

and the U. S. for mutual support fellowship and enhancement of academic progress.

Since the first gathering on the Thanksgiving weekend of 1967 at the Campus of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Pittsburgh Pennsylvania, the nature and purpose of this group came to emerge as follows

“..... the purpose is to provide a means whereby mutual assistance among Korean Christians in North America may be achieved. Its purpose is also to promote Christian concerns on the crucial issues of times and to encourage academic activities among Korean scholars.”

(Section 2, Article I. By-Laws of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 in North America, Inc.)

Because of such concerns and shared purpose, the Association from the beginning has dealt with various issues and subject matters with Christian and academic consciousness; the human right and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theologic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questions; the Korean immigration to the U. S. and Canada; and the role and ministries of the church within the immigrant community.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however, have never been too naive to look at those issues in isolation from the divided situation of their homeland.

---

It was the 22nd Annual conference of May, 1988 in Los Angeles, California where the Association met under the theme, "The Separated Families and the Era of Division." The Red Cross officials of both sides of the homeland were invited to share their perspectives.

But it was yet the kind of days when the North Koreans could not easily obtain the entry VISA to the U. S. while the North Korean delegates could not attend, a Red Cross delegate from the South Korea came to share its Position. Then the participantsof the conference were able the hear the stories of those who had worked to reunite the separated families.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by then could not avoid any longer to tackle the various socio-political and humanitarian issues derived from the division of their homeland.

Therefore, it began to deal with the issues related to reunification of the homeland. This volume is the compilation of the papers, sermons and some Prayers shared at the 1989-92 Annual Conferences. Unfortunately, not all the materials which were presented have been kept in writings Majority of the presentations, however, are included in this publication

The 23nd Annual Conference attempted to open a dialogue between Jucheans and Christians under the theme of "Minjung

---

Theology and Jusce Philosophy as a Viable Thought toward the Reunification," June 1-3, 1989, Elizabeth College, Convent station, New Jersey. However, the invited presenters from both sides of Korea were not able to attend the conference.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in the South dictated the invitees not to pursue and / or risk to attend this conference which dealt with possibly controversial, "dangerous," and "tabooed" subject. Even though four North Korean invitees came to Beijing to obtain the entry VISA to the U. s. at the U. S Embassy to china their application was denied.

In this situation professor song Ki Deuk of Mokwon University, Taijon, Korea, was willingly to come to take part in this first attempted Korean christian and Jucheian dialogue. At the unexpected absence of the North Korean delegates, professor Sunoo Hakwon and the Reverend Hong Dong Gun extemporarily shared their understandings of Juche philosophy Consequently, professor Song's paper was the only presentation in writings. In the first part you read the paper and the closing statement delivered by him.

Even though the conference was not carried out as planned, the participants were captured by longings and desires and deeply realized the urgency of reunification of their homeland. Especial-

---

ly, such a higher awareness of the issue was possible by the Poonmul Nori of New York Christian Youth's Cultural Group, and the songs – lyrics of both North and South sung by the choral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Music alumni.

This frustrated conference made a motion to hold the 24th Annual Conference in a neutral place where the delegate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could attend.

Therefore the 24th gathering, was held August 7-9, 1990, Shangri-La Hotel, Beijing, China. At this conference none of the South Koreans could attend. Yet this was the conference where the participants from North America and North Korea were able to have an intimate relation with each other, and to develop a deep sense of oneness, mutual understandings and trust as brothers and sisters who grew up so long in separation.

In the second part of this volume you read the papers, sermons and prayer shared at the Beijing Conference. For the participants it was a watershed event that we experience our oneness transcending the ideological differences under which our perspectives had been formed and shaped over forty Years.

The 25th Annual Conference took place May 28~30, 1991, stony point, New York, under the theme, "Christian Responsibility for the Formation of New National Community." This was

---

first the conference in history that the Korean Christians and Juche philosophers came together on the u. S. soil from both sides of divided homeland, Japan, Germany, Canada and the U. S.

Prior to this conference, of course some of the universities, research foundations and ecumenical bodies had invited some North Korean Christian leaders and government officials to the U. S. In those cases however the contacts between the North Koreans and Korean-Americans Were very much limited and restricted under the security concerns. But for the 25th Annual Conference of AKCS, the eight North Korean delegates and seven Christian Scholars were able to join us in this celebrative event without any official restriction.

In this historical gathering of Koreans,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reaffirm their oneness as Koreans, and to celebrate the sheer fact that they were together. In the third part of this volume you read those papers, sermons, and prayers shared at this event.

However, the words on the pages of this volume cannot convey the excitement, the celebrative mood of the gathering. It was a common and definite feeling for everyone to confirm “the blood is thicker than water.” Such feeling and climate were greatly enhanced by the lyrics of North and South sung by musicians

---

and all, and by the poong Mool Nori-Han Madang.

The final part of this volume consists of the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Conference, which were held July 9~11, 1992, Hofstra University, Hempsted, New York. The theme was "Formation of a New theological Paradigm and National Consciousness for Reunification" Except the sermon of the opening worship service delivered by Dr. Lee Sang Hyun, professor of theology a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all the papers were obtained for this publication.

Throughout the last four annual conferences, the Association has attempted to bring christians and Juche philosophers together for dialogue. The attempt was made in order to develop an environment and climate, in which the long imbedded distrust, suspicion, hatred and even fear among "us" might be overcome, making room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I am convinced from my personal experience that those of us, who could attend these events, have been able to overcome our negative feeling toward each other, to correct our preconceived notion against each other, and to experience our oneness as Koreans transcending our ideological differences.

Unfortunately only through the printed words on the papers, readers may not be able to catch the mood and spirit which I

---

describe here. However it has been so clear and evident that the ideological differences, which have divided us into two opposite sides can be easily melted away by the awareness of much deeper, wider, higher and older common cultural uniqueness which we Koreans have shared so long.

As we talked and had meals together, and as we sang and danced together by the rhythm and sounds of traditional folk music and instruments, the rigid feelings of last half a century were replaced with the rich feeling of mutual understanding and love as brothers and sisters.

It is our desire and hope that all, who are concerned about our present national predicament and the future destiny of our homeland, will be able to first find some viable means to recover our ethnic and cultural common ground upon which we can meet together, by which our distrust, hatred and fear can be dissolved and the wounds caused by the division can be healed.

In Such a spirit, we share this Compilation of papers, sermons and prayers of our compatriots from both sides of division and overseas. □

In Peace, Kil Sang Yoon

---



# 1

제 23 차 연례대회

1989년 6월 1일-3일

St. Elizabeth. college

Convent Station New Jersey

주제 • 민중신학과 주체사상의 통일지향  
사상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남과 북에서 민중신학자들과 주체사상가들을 초청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의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남의 신학자들이 참석치 못했고 또한 미국정부의 입국사증 거부로 북의 학자들이 미국입국을 하지 못한 채 진행된 연례대회였다. 송기득 교수 발표 이외에 이정용 박사 선우학원 박사 및 홍동근 목사의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의 강연 등이 즉석에서 이루어졌다.



## 민족통일에 대한 신학적 과제 인간화를 바탕으로

송기득  
대전 목원대학교 신학부 부장

### I. 통일의 당위성과 신학의 참여가능성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서 우리 겨레의 통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우리 겨레가 모두 통일을 열망하고 있고 통일은 우리 겨레의 역사적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우리 겨레는 살 것이고, 통일이 안되면 우리 겨레는 사실상 죽은 것과 진배없다. 그 만큼 통일은 우리 겨레에게 절실하다. 우리 겨레의 통일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통일의 성취는 우리 겨레의 역사적인 사명이요, 민족적인 과제이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은 통일의 이 당위성 앞에 터무니없는 것이 되고 만다. 통일을 해야 할 까닭을 아직도 묻고 있다면 그것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저의가 따로 있다는 것을 드러낼 때름이다. 통일이 된다면 많은 것을 잊게 될 계층들은 아마도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

이다. 오히려 통일이 될까봐 두려워 한 나머지, 통일을 막으려 들 것이다. 그 가진 것이 권력이든 재산이든 지위이든, 그것을 잃고 싶지 않는 계층의 사람이 “통일하자”고 나선 것은 자기 위장이고 자기 위선일 따름이다. 게다가 그런 계층의 사람이 통일을 도맡아서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통일을 실제로 열망하는 우리 겨레를 우롱하는 것이다 된다. 더구나 통일을 내세워서 자기 권력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겨레의 통일 염원을 배신하는 반민족적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통일의 당위성은 비단 한겨레가 하나가 되어 함께 살자는 민족통일에의 염원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남쪽과 북쪽의 갈라짐에서 오는 여러가지 모순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분단모순을 극복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남쪽과 북쪽이 갈라진대로 살아도 잘 살 수 만 있다면 굳이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할 까닭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서로 갈림으로 해서 우리 겨레가 안팎으로 잘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맞서있는 싸움마당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남쪽과 북쪽이 서로 맞섬으로 하여 우리 모두가 자체 안에서도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것은 단순히 남북대결 때문에 국민 전체가 많은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맞섬을 빌미로 삼아 우리를 억누르고 짓밟음으로써 마침내 사람답게 살 수 없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통일을 담보로 하여 권력의 이념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이면에는 분단을 빌미로 하여 권력의 현실성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분단상황인데 힘으로 좀 억누르고 조이면 어떠냐는 논리이다. 그래서 나타난 탄압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비인간화 현상은 결국 가진 쪽과 못 가진 쪽, 힘있는 쪽과 힘

없는 쪽 사이의 계급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보면, 결국 이 ‘계급모순’도 남과 북이 갈린 데서 생긴 결과이다. 따라서 계급모순의 극복은 남과 북의 통일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은 민족의 통일일 뿐 아니라 남북의 통일이고 이 통일에서 분단모순도 계급모순도 다같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지금도 우리 교회의 한 모퉁이에서는 통일의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므로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는 이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인데 어떻게 이들과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입장은 그리스도교의 참뜻을 잊어버린 데서 오는 소치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가 인간의 실질적인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정치적 영역을 배제한 인간구원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적 신학의 의미에서 보아 온 예수의 십자가가 지닌 화해의 참뜻을 망각한 소치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이 통일의 문제에 깊이 관여해야 한다는 것은 그 본질상 너무나 당연하다. 만일 그리스도교 신학이 민족통일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자신의 시대적인 사명과 책무를 저버리는 신학은 하느님의 심판, 곧 역사적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그의 존재이유를 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통일과 그리스도교 신학의 관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우선 가장 기본적인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겨례의 한 사람이다. 우리는 겨례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통일의 성취가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때, 민족공동체의 일원인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학이 통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교는 이 일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에서 일으키고 있는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그리스도교 신학은 구체적으로 ‘통일신학’이나 ‘민중신학’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학의 참여는 단순히 그리스도교 신학이어서가 아니라, 신학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본질적 기능 때문이다.

신학의 본질적 기능은 첫째,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참됨을 밝히고 둘째, 그 메시지가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하는 일이다.(P. tillich)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인이다”는 명제로 집약된다. 예수는 어째서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것인가? ‘그리스도’란 짤은 ‘해방자’를 뜻하므로 예수가 해방자임을 밝히는 것이 신학의 첫 과제가 된다.

예수의 삶의 이념은 소외계층의 인간회복, 곧 그들의 인간화를 실현하는 데 있었다. 예수는 소외계층의 해방을 위해 실제로 그의 운명을 걸고 싸우다가 죽었다. 예수는 민중해방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것이다. 우리는 이 민중해방 운동을 예수의 말을 따서 ‘하느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부른다. 예수가 맨처음 선포한 메시지는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마르코 1:15)는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소외계층의 인간화가 실현된 세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소외계층 가운데서도 예수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자기 민족인 유대의 소외계층이었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앓은 양에게 가라”고 언명한 것은 그가 자기 민족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졌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예수의 민족의식은 결코 유대의 민족주의에 머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민중해방자로서의 예수가 지난 오늘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인가? 오늘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신학의 과제라면, 오늘의 한국 신학은 우리의 역사적 민족적인 해방의 과제와 연대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한국의 민중신학이다. 왜냐하면 민중신학은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해방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민족성 회복의 과제와 어떻게 연대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해방을 갈망하는 오늘의 현실을 퀘뚫어 보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인간해방이 인간소외의 극복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 상황에서 인간 자체를 소외시키는 근본원인은 궁극적으로 남북분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남북분단의 극복은 곧 우리 민족의 인간해방과 직결된다. 그런데 남북분단의 극복은 통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의 인간해방 역시 통일로써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시대의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그리스도교 신학은 우리의 해방을 성취하는 민족통일을 그 주요과제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족통일에 대한 신학적 과제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신학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II. 통일논의를 위한 신학의 특성

통일논의에 대한 신학의 역할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통일을 과제로 삼을 수 있는 신학은 어떤 성격의 신학이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분단극복과 통일성취를 위한 신학으로서 먼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입장은 적어도 분단세력을 합리화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역할을 거부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선교 초기의 신학은 선교사들과 그 동맹세력이 교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선교사들이 전한 근본주의 신학은 한국 민중의 민족성을 억누르고 왜곡시키면서 식민지, 반봉건사회에서 제국주의 세력과 야합했고, 그 사상적·문화적 예속성을 교회에 확산시켰다. 이러한 예속성은 민족사회 운동을 적대시함으로써 교인들로 하여금 민족의 문제와 계급의 문제를 외면하게 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민족분단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족분단을 굳히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것은 분단세력을 정당화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구실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큰 숙원인 자주화, 민주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쳐사이다.

이러한 신학은 통일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오히려 통일논의에 있어서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신학은 어떤 신학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민족통일과 민중해방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민족·민중지향의 신학이어야 한다. 그것은 오늘 날 우리에게서는 통일신학과 민중신학으로 대표된다.

그런데 분단극복과 통일성취에 참여할 수 있는 신학의 전제는 원칙적으로 프라시스(praxis)의 신학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이론이 그렇듯이 신학도 참된 신학이 되려면 ‘실천’(praxis)에서 창출되어야

하고 또 ‘실천’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실천성을 지니지 못한 신학은 사실상 죽은 신학이다. 우리는 “신학이란 프락시스(실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고 말한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스의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오늘의 프락시스는 분단극복과 통일성취로 집약된다고 할 때,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 신학은 참신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진정한 프락시스의 신학은 단순히 그 실천성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실천성을 구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프락시스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에 참여하는 신학은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성취를 이론적으로 밀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실천성을 강조할 경우 신학은 저절로 편향성(당파성)을 떨 수밖에 없다. 분단극복과 통일성취는 사실상 인간해방에 그 목적이 있는데, 해방을 필요로 하는 계층은 억눌리고 짓밟힌 민중이다. 그래서 통일을 실천하는 신학은 민중 편에 서서 민중의 인간해방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민중편향성을 지닌다는 말이다. 그리고 민족의 실체는 민중이라는 인식에서 민족해방을 민중해방으로 구체화한다. 민중에 대한 신학의 편파성은 프락시스 신학의 당연한 성향이다. 여기에 신학은 ‘민중신학’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중의 인간해방을 목표로 하는 신학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억압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신학은 정치,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현실분석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사회과학적인 현실분석이 없이 민중해방을 실천한다는 것은 공허하고 환상적이다. 특히 우리의 계급모순과 분단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인 현실분석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그것을 모르는 신학에서는 현실변혁의 역동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신학의 올바른 방향설정은 정확한 사회인식에서 가능하다. 통일논의에 참여하는

신학이 되려면 신학문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분석을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통일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신학은 적어도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종교비판을 견디어내는 신학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의 종교비판에 견디지 못한 신학은 통일논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지배계급의 이익에 이바지해 온 신학은 ‘민중의 아편’ 이상 다른 구실을 못한다. 부르주아의 탄식이나 대변하는 신학으로서는 통일성취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다. 신학은 민중을 탄식하게 하는 지배세력에 맞서 싸우는 민중신학이어야 한다.

마르크스의 종교비판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생활상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유물론적인,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불렀다. 만일 종교가 인간화를 지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비인간화를 놓는 데 동참했다면 그 종교는 비판과 부정의 대상이 된다.

신학이 억압받는 계층의 인간화를 지향한다면 그것은 마르크스의 이념과 일치한다. 마르크스의 이념은 궁극적으로는 인간 자체의 소외가 극복되는 인간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마르크스가 예수의 민중해방운동의 참뜻을 알았다면 그는 예수의 후예를 자처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종교비판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화를 지향하는 신학이라면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은 커녕 오히려 마르크스와의 이념적 통일성을 형성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통일에 참여하는 신학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마르크스주의의 북한적 토착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주체사상과 통일성을 갖지 않는 신학이라면 그런 신학은 우선 북한과의 통일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제까지 우리는 통일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신학이 지녀야 할 몇 가지 특징을 더듬어 보았는데, 이것은 통일에 대한 신학적 과제가 무엇인

가를 알아보는 데 하나의 전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제는 민중신학의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민중신학의 과제는 무엇일까?

### III. 통일에 대한 민중신학적 과제

신학의 기본적인 과제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인간화의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고 할 적에, 오늘의 한국 신학은 우리의 역사적 현장에서 인간화의 의미를 밝히고, 그 실천성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민중신학은 오늘의 우리 겨레와 나라에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 민족·민중해방사건에서 예수의 민중해방 전통을 읽어내는 작업이다. 예수의 민중운동은 그대로 인간화를 실현하는 데 귀결된다. 오늘 우리의 역사적 현장에서 묻는 인간화는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성취에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서 신학적 과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신학적 과제는 저절로 분단극복과 통일성취의 문제와 직결되는데, 우리는 이 논의의 방향을 비록 간접적이지만 ‘7·4 남북 공동성명’과 연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까닭은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발판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남과 북의 유일한 합의사항으로서 그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한 신학이 실천성을 중요시한다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까닭이 있다.

통일을 위한 신학의 첫 과제는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는 서슴지 않고 비판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것이 정치적 세력이든, 경제적 체제이든, 종교적 이데올로기든 통일을 거부하거나 방해가 되는 실체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반통일적인 이

데올로기나 그 실천적 행동도 포함된다. 물론 반공이데올로기도 예외는 아니다. 반공이데올로기가 통일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인 쪽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쪽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리 남한에서는 지금 상식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통일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을 ‘이적행위’로 몰아세운다. 이것은 우리의 통일논의의 상대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한 데서 만이 가능하다.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아니면 통일을 함께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나의 상대가 동시에 적도 되고 동반자도 되는 관계를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적어도 통일논의가 가능하려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노대통령의 7·7 선언’에서는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환으로 선언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선언을 역전시켜버렸다.

만일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통일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무력에 의해서 통일하자는 것밖에 다른 것이 아니다.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든 어느 한 쪽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그때는 통일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같이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합의했다. 그렇다면 통일의 물꼬를 트려는 모든 노력은 적어도 ‘이적’이란 범주로 처리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을 내세우면서 반통일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실제로 통일하려는 뜻이 없고, 오히려 통일을 막자는 저의가 들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기득권자의 자체안보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득권자의 자체안보가 통일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것이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 이 탄압에는 통일꾼들에 대한

탄압은 물론, 반체제 세력에 대한 탄압까지도 포함된다. 인간화를 지향하는 민중신학은 이 비인간적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인간화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비판하는 것은 예수를 해방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학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한국 신학은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둘레에는 화해니 사랑이니 하면서도 북한 동포를 원수로서 정죄하고, 무신론자로 심지어 적그리스도로 매도하고 마침내 분단세력을 정당화함으로써 억눌림과 수탈을 방임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구실을 자행하고 있는 신학이 벼짓이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하느님의 뜻과,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함으로써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예수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반그리스도적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어쨌든 통일에 참여하는 신학은 예수의 아님인 인간화를 파괴하는 세력이나 체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비판을 서슴지 않아야 한다. 신학은 이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는다.

그러나 통일에 참여하는 민중신학은 이러한 소극적인 쪽에서 보다는 적극적인 쪽에서 그 과제를 찾는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민주화와 통일의 지향이며, 그것을 이를 수 있는 자주성의 확립이다. 신학은 그 바탕을 우선 예수가 선포한 ‘하느님의 나라’의 의미에서 제시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통일을 위한 신학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세계일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민주화와 통일이 실현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나라는 민주화와 통일이 실현된 세계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의 나라’라는 상징이 얼마만큼 적합한가는 그 의미를 밝힌 데서 잘 드러

난다.

예수가 그의 이념으로서 선포한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세계일까?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풀이해서 하느님의 주권이 실현된 세계라고 말한다. 하느님의 주권이라고 할 적에 그것은 신정정치의 이데올로기 가 아니다. 신정정치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지배자가 신의 화신으로 또는 신의 아들로 군림해서 민중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합리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의 해방사나 예수의 해방사건에 나타난 하느님의 주권은 결코 그러한 신적 지배이데올로기가 아니다.

하느님의 주권이 정치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초기 이스라엘이 지파동 맹에서 나타난 이른바 모노 야훼이즘(Mono-Yahwism), 곧 ‘하느님만 이’의 이념이었다. 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야훼 단일신앙을 공동체 의 이념으로 삼았다. ‘하느님만이’의 이 이념은 왕권지배 체제를 철저 하게 거부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왕권지배 체제는 전체주의적, 제국 주의적 통치를 통해 모든 민중을 노예화하여 비인간화하는 악의 실체 였다.

원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주로 ‘합비루’라는 노예출신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노예출신들이 노예제 사회를 용인할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 온상인 주권체제를 거부하고 그 대안으로서 ‘하느님만이’우리를 다스린다는 모노 야훼이즘을 이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이것은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보장하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이라는 해방공동체의 이름이 “하느님 이여,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이것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야훼신’은 히브리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해방의 신’ 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야훼신이 다스린다고 할 적에 그 바탕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소외계층의 보호법이다. 모든 억눌림과 빼앗김으로부터

민중을 보호하는 법이다. 민중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 것을 이른바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이란 다름아닌 민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도대체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민중의 해방공동체의 질서이다. 그것은 민중을 억누르는 지배질서가 아니라 민중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질서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민중중심의 체제, 민중을 기초로 하는 체제, 민중의 자주성에 근거한 체제였다. 우리는 모노 야훼이즘을 이념으로 하는 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 나타난 민족자주의 원칙과 유사한 점을 발견한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첫번째 합의가 그것이다. 원 이스라엘의 모노 야훼이즘의 해방운동을 그 전기로 삼고 있는 민중신학은 통일을 위한 민족자주성을 철저하게 내세우게 된다. 민중신학에서 민족의 자주성이라고 할 때 사실 그것은 민중의 자주성을 일컫는다. 왜냐하면 민중신학에서는 민족의 주체를 민중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중이란 역사의 주체이므로 민족의 자주성도 사실은 민중의 역사주체성에서 그 본뜻을 갖는다.

그런데 하느님의 주권이 민중해방의 법에서 잘 드러났다고 할 적에 그것의 역사적 표출은 다름아닌 ‘정의’와 ‘평화’였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이 해방공동체의 질서라면, 정의는 이 질서를 실현하고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만들어내려는 방편이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주권체제에서 정의를 외쳤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러한 예언자적 정의는 플라톤적인 정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플라톤은 폴리스(도시국가)의 귀족지배 체제에서 각 계급이 자체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도시국가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것을 정의라고 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닫혀진 사회의 전형적인 정의이다. 그러나 열려진 사

회의 정의는 권력이나 소유의 공정한 분배라고 할 수 있다.

예수가 권력자나 가진 자에게 도전한 것은 그들이 독점한 권력이나 소유물을 민중에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예수의 정의는 민중으로의 공정한 분배라는 데 그 참뜻이 있다. 만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갈라놓고 굳이 예수에게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예수는 사회주의를 선택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도교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리고 권력자나 부자에 대한 예수의 날카로운 비판과 항거, 그리고 공동분배를 내세운 예수의 경제적 입장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하느님의 주권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평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평화’는 정의와 함께 하느님의 나라의 역사적 현존이다. 이 평화는 이스라엘의 해방사나 예수의 해방사건에서 나타난 ‘하느님의 평화’이다. 그것은 팍스(Pax)가 아니고 살롬(Shalom)이다. 팍스는 원래 로마제국의 무력적 통치 아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종속관계에서 유지된 평화이다. 권력이 지배하는 평화, 그것이 ‘팍스’이다. 식민지 민족들의 자주성을 박탈한 종속상태, 식민지 민중들의 정의를 짓밟는 억압상태로서의 평화(Pax)는 ‘거짓 평화’이다.

이른바 팍스 로마나(Pax Romana)가 그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그것을 대신한다. 미국과의 정치적·경제적 종속관계가 이것을 잘 말해 준다.

그러나 살롬은 팍스와는 달리 하느님의 법과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정의가 실현된 상태가 진정한 평화이다. 이것이 성서가 말한 평화이다. 그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예수가 “내가 준 평화는 이 세상이 준 평화와 다르다”(요 27:14)고 했을 때, 이 평화는 팍스가 아니고 살롬이다. 이 하느님의 참평화도 지배세

력을 종속시키기 위한 냉전체제의 평화가 아니고 민중의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민족공동체의 평화(Shalom)이다. 분단현실이란 평화의 차원에서 보면 ‘팍스’와 ‘샬롬’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통일의 세계는 ‘샬롬’이 팍스 속에 뚫고 들어가 팍스를 ‘샬롬’으로 변혁시키는 세계이다.

오늘의 상황에서 한국 신학이 해야 할 역할은 통일의 샬롬이 분단의 팍스를 변혁시키는 원리를 증언할 뿐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이러한 신학의 과제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나타난 들째 합의와 부합된다. “통일은 쌍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위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신학적 과제는 저절로 외세의 거부, 평화협정, 군비축소, 반전반핵 따위의 구체적 운동으로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느님의 나라의 역사적 현존인 정의와 평화의 세계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되는 것일까? 한 마디로 끓어 말해서 정의의 실현은 민주화로, 평화의 실현은 통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하느님의 정의와 한국의 민주화는 하나이며, 하느님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은 하나이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민주화를 실현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 위에 이루려는 하느님 나라의 실천이다.

끝으로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인 민족공동체, 곧 통일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신학이 해야 할 과제는 남과 북의 이념(Idea)의 동일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물론 서로 다른 체제가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뜻한 바가 같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다. 뜻이 맞지 않을 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기호적 경험이다.

뜻한 바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이념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이념의 일치가 없는 통일이란 실제로 불가능하다. 남북의 두 정권이 통일을 위해

자체권력을 포기하고 중립을 선언하고 나선다 할지라도 통일국가는 하나의 이념 아래서 세워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때 우리 역사 가운데서 상해 임시정부 때 언급된 체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정치는 민주주의 체제로 하고, 경제는 사회주의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 체제야 어떻게 표현되든 신학이 관심을 가져야 할 초점은 통일의 이념으로서 인간화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이 통일의 이념은 모든 이데올로기를 초월한다.

이 초월성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와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의 거점이 된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와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의 거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인간화의 실현, 바로 여기에서 남북의 통일가능성을 본다. 오늘의 남북체제가 인간화를 '이념으로' 삼아서 그것을 실천한다면 통일의 길은 쉽게 트일 것이다. 민족의 이질성을 운운하는 것은 '인간화'라는 이념 앞에서는 문제될게 없다. 신학은 바로 이 인간화에서 남북의 이념의 공통성을 찾아 그 접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의 핵심은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따라서 사람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명제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람중심의 사상은 사람의 자주성, 사람의 창조성, 사람의 의식성에서 사람의 본질을 본다. 이러한 인간의 철학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적인 세계를 인간의 힘으로서 건설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화의 주체적인 실현에 주체사상의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 그들이 이념으로 삼는 이른바 '인민의 인간화'가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남한에 있는 우리는 제대로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실현이야 어떻든 북한은 인간화를 정치적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에서도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가능성의 유일한 근거인 인간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도, 자유도, 평화도, 소유의 공정한 분배도 인간화의 실현에 그 참뜻이 있다고 한다면 남한의 체제 역시 인간화를 지향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장담하고 있다.

이때 남한의 그리스도교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교 신학의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남한에서 ‘인간화’를 촉진하는 일이다. 그럴 수 있으려면 남한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예언자적 입장에 서서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고 반인간적인 세력과 맞서 싸우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신학은 바로 그것을 실천적 이론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화의 실현이란 그리스도교의 본질적 사명이다. 그동안 그리스도교가 역사적으로 지배세력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의 구실을 해온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분명히 반그리스도교적 행위이다. 그래서 오늘의 신학은 오도된 그리스도교를 그 본래의 정신과 사상으로 돌아가게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공동체는 예수에게서 해방의 원리를 파악해야 한다. 그 원리가 다름아닌 민중해방을 위한 인간화의 실현이다. 이것은 예수의 민중해방운동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 있다. 남한의 그리스도교 신학이 남북통일의 가능근거를 인간화의 실현에서 찾는다고 할 적에 그 전거는 다름아닌 예수의 인간화 운동이다. 또한 이것을 전거로 삼아 민중해방을 주제로 한 신학이 민중신학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을 위한 신학의 중대한 과제를 발견한다. 그것은 남한의 민중신학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교·연구함으로써 이념적 공통성을 찾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의 문제에 부딪친다. 북한을 대표로 한 사상은 ‘주체사상’인데, 남한을 대표한 사상으로서 어떻게 민중신학을 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민중신학이란 하나의 신학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의 사상으로서 남한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반문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민중신학은 단순히 하나의 신학에 그치지 않고 남한의 모든 민중론, 이를테면 민중문학, 민중사학, 민중경제학, 민중사회학, 민중문화 전체를 대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굳이 민중신학이란 말이 싫다면 ‘민중사상’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중신학은 이미 하나의 ‘사상’으로 격상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남한의 사상을 실질적으로 대표한다고 보아도 잘못이 없다.

문제는 사상으로 격상된 민중신학이 남한을 대표할 수 없다면 남한을 대표할 수 있는 사상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있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는 남한을 대표할 수 있는 사상으로서 민중사상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북한에 대응할 만한 철학이 남한에는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남한의 민중신학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교할 때, 우선 지적 할 수 있는 점은 둘 다 우리 민족에게 토착화된 사상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에 토착화한 ‘민족적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남한의 민중신학은 남한에 토착화한 ‘민족적 정치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사상이 모두 서구사상의 ‘한국화’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성을 갖는다. 어떤 사상이든 같은 민족에게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것은 두 사상이 통일의 성취를 위해 대화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신학과 주체사상이 다같이 인간화의 실현을 서로의 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이념의 동일성에서 남북통일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것은 단순히 대화상대로서가 아니라 협력상대로서 통일을 성취하는 데 공동으로 참여할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민중신학은 바로 이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인간화’야말로 남북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중신학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셋째 항을 이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민중신학과 주체사상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간화의 지향에서 협력을 위한 대화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의 지성인들은 서로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할 것이다. □

## 성명서

## 제 23 차 연례대회를 마치면서

북미주 기독학자회는 1989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뉴저지에 있는 성 엘리자베스 칼리지(St. Elizabeth College)에서 ‘민중신학과 주체사상의 통일지향사상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제 23 차 연례대회를 가졌습니다.

북미주 기독학자회는 북미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독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여 년 간 조국의 평화문제를 비롯 이민사회가 당면한 특수한 문제 등 각 시기의 상황적 요구를 신앙적 양심과 학문적 성실성으로 응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토대 위에서 볼 때 이번 23차 연례대회의 민족사적 의미는 특히 북미주 기독학자회가 기본적으로 견지해 온 평화(샬롬)의 신학을 보다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대화의 공간을 확대하는 데 일정한 공헌을 했다는 데서부터 찾아지리라 믿습니다.

초청했던 남북의 민중학자, 주체사상학자들 가운데 남한의 송기득

교수를 제외하고는 현실적 제약과 제반여건으로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남·북·해외가 통일을 지향하는 사상적 모색의 장을 함께 마련해 보려는 기초적 구도를 갖기 어려웠던 점을 우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현실적 출발점으로 인식하면서, 해외에서 민족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신양인으로서의 학문적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랍니다.

‘통일’이라는 현단계 민족사의 과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이번 ‘민중신학과 주체사상간의 대화’는 실로 획기적인 상호이해의 계기를 여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것이 북미주 기독학자회의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예정된 남북학자들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이었으나 참석자들의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북의 역사와 체제를 이념적으로 받치고 있는 주체사상이 통일의 장에서 민족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민중신학과 상호 의미있는 사상적 대화의 가능성은 갖고 있음이 이번 대회에서 실증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의 단계에 불과해서 제기되는 문제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상당한 논의의 축적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의의 축적이 보다 단단한 학문적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묶이지 않은 애정어리면서도 진지한 비판정신이 끊임없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 역시 강조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과제가 해외교포사회와 특히 교회에 제기되고 있음을 주목하는 바입니다. 남북학자들이 예정했던 참석을 이루지 못한 것에서 우리는 해외에서 남북대화의 장을 여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민족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 반증되고 있음을 실감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대화의 공

간을 조국의 남북 모두가 절실히 희망하고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주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북미주 기독학자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하여 해외교포사회가 갖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리한 공간에 활력을 부어나가는 노력을 한층 더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해외교포사회 나름의 특수한 환경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물고 적대감을 해소하여 하나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학문적 노력과 신앙적 고백을 보다 심도있게 만들어 나가는 데 부족한 힘이나마 바치고자 합니다. 이 작업은 북미주 기독학자회만의 특정한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교포사회 전체의 동참과 성원이 주축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아울러 확인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남·북 전체동포와 정부당국이 민족통일 노력에 보다 진지한 관심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현대의 냉전체제유지에서 정의로운 평화의 건설이라는 차원으로 전환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는 평화(샬롬)의 신학적 관점에서 남북간의 대화공간을 확대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교포 여러분과 조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 2

제 24 차 연례대회

1990년 8월 9일-11일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샹그리라 호텔

주제•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위치

북쪽 대표단 미국입국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북경에서 연례대회를 개최, 남쪽 대표들의 참석을 기대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조국통일 기도주일 설교문

## 형제애로 통일하자

요한 1서 4:20~21

김운봉

평양 기독교도련맹 부위원장

방금 전에 봉독한 성경말씀은 예수의 제자인 요한이 수신자를 밝히지 않고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 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같은 차원에 놓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온 민족의 일구월심 간절한 소망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어서빨리 성취시키려고 1988년 11월 북과 남,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교계대표들이 스위스 글리온에서 모임을 가지고 일치하게 결의한 8·15 직전 조국통일기도주일에 즈음하여 “형제애로 통일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을 열렬히 사랑하라고 간곡히 가르치고 있으며 그 빛나는 력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는 형제애, 동족애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군데의 대목만 추려

본다고 하더라도 로마서 9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혈육을 같이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라고 하면서 형제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요 13:15~16).

특히 예수께서는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으며(마 5:22),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형제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마 18:21~11).

성서에는 또한 애국애족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두 가지만 예거한다 하더라도 야곱의 아들 중 레위가 문에서 태여난 모세는 애굽왕 바로의 딸인 공주의 양아들로서 권세를 잡고 호의호식할 수도 있었으나 그것을 마다하고 자기 동족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으며 자기 겨레가 고역의 공사장에서 애굽사람 감독에게 억울한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그 감독을 쳐죽였습니다.

그후 모세는 하느님의 소명을 받고 노예살이로 신음하던 자기 동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유대사람 모르드개의 4촌 녀동생으로서 파사왕 아하수에로의 황후가 된 에스더는 자기 동족을 물살시키려던 그 나라의 총리대신 하만의 흉계를 대담하게 폭로함으로써 겨레를 전멸의 위기에서 구출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한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우동선 선생은 을사보호조약을 반대하고 나선 의병대장으로서 일제와 맞서 싸우다가 장렬한 죽음을 마쳤으며, 감리교의 홍태순 목사님은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는 일제에 항거하여

대한문 앞에서 원한을 품고 자결하였습니다.

애국적인 기독교인들인 김하원, 김홍식, 차병수 선생들도 같은 시기  
에 서울 종로에서 ‘사수국권’이라고 쓴 경고문을 추켜들고 시위를 단  
행하다가 일제경찰의 칼에 맞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10년의 105인사건과 1919년의 3·1 운동 때 33  
인 발기자 중의 16명이 기독교인이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후세에 길이  
빛나는 애국적 장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남과 해외의 많은 성직자들과 신도들이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이로운 활동을 힘차게 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  
년 봄과 여름 늦봄 문익환 목사님과 바울로 문규현 신부님, 수산나 림  
수경 학생의 격동적인 이북방문은 통일도상에 금실로 수놓아진 불멸의  
아름다운 대화폭이였습니다. 저는 이제 문익환 목사님께서 1989년 정  
월 초하루 0시 30분에 지으신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의 몇 구절  
을 읊어드리고자 합니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거야. 기어코 가고 말거야…… 나는 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거라고, 가기로 결심했다구. 시작이 절반  
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아?

모란봉에 올라 대동강 흐르는 물에 가슴 적실 생각을 해보라고 거리  
거리를 거닐면서 오가는 사람손을 잡고 손바닥온기로 회포를 푸는거  
지. 룽라도 벼들 홀날리는 봄바람으로 얼어붙었던 마음 풀어버리는거  
지…….

된다는 일, 하라는 일을 순순히 하고는, 충성을 맹세하고 목을 내대  
고 수행하고는 훈장이나 타는 일인 줄 아는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구……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넋만은 살아 자유의 기발로 드높이 나붓기는 일이라고……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나는 걸어서라도 갈테니까. 림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죽는 날이면 그야 할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거지”(경향신문 89. 3. 27).

아! 이 얼마나 자기의 십자가를 진 애국충정의 불같은 토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겨레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찌 하여 그처럼 자기 조국과 자기 형제를 극진히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동족과 형제가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며 같은 사활적 운명을 지닌 민족공동체 안의 한 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체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으며 어느 하나의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고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성경도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아파하지 않겠는가.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는가?”(고전 12:26)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형제와 동족은 운명공동체이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하나님의 몸뚱아리입니다. 그런고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곧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며 형제를 해치는 원쑤는 곧 자기를 해치는 원쑤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 어떤 민족 리기주의나 배타주의와는 인연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마는 자기 형제가 귀한 것처럼 남의 형제도 귀중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이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형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고 간곡히 가르치

셨습니다.

이웃, 즉 남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제에 대한 사랑은 우선 참다운 것으로, 희생적인 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성경도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존경하는 일에 앞장서라”(롬 12:9-10)고 가르치고 있거니와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랑을 위해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거니와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뜨거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된 조국을 위해서, 조국도 민족도 하나라는 것을 온누리에 과시하기 위해서 혈혈단신 수룩만리 사선을 헤치고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의 기치 밑에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 평양축전에 용약 참가하여 ‘통일의 꽃’으로 활짝 피여오른 애어린 림수경 학생의 애국적이며 현신적인 장거는 우리 모든 북녘 남녀로소의 가슴을 격동시키고 있으며 영원한 추억으로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불같은 통일의지, 애국열정, 불타는 그 쟁쟁한 목소리를 이제 다시 잠간 들어보십시오.

“화학숙제도 제대로 안해오고, 대수공식도 외우지 않아, 선생님의 애를 태우던 나를 용서하시라. 그러나 통일의 길에서 주저하며, 순간이나마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한다면, 또 나의 가슴을 겨눈 탄알이 동지의 가슴을 뚫게 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라.”

오 – ! 림수경, 림수경, 분단의 혐난한 도상에 불쑥 피여난 향기롭고 아름다운 통일의 꽃이여 ! 그녀의 이름은 우리 조국청사와 더불어

세세무궁토록 휘황찬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제를 참답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성경도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라”(롬 12:9),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짹이 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겠는가”(고후 6:14)라고 가르치고 있지마는 선을 해치는 악한 것을 그대로 두고서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진대 형제를 해치는 자들을 결단코 미워하여야 하며 그러한 세력들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현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형제와 겨레에 대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와 통일이야말로 오늘 우리 민족 앞에 나선 사활적인 과제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세에 의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어언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온 겨레는 해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 허리를 끊기운 채 몸무림치고 있으며 생리별한 부모처자 형제자매가 생사 여부조차 알길없어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처절한 현실을 외면하고서 어떻게 민족애, 형제애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도의 습격을 받아 쓰러진 불쌍한 사람을 본체만체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사람처럼, 분렬로 하여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는 동포형제자매들을 모불관지하면서 어찌 하느님의 소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어이 분단의 참극에 종지부를 찍고 갈라졌던 동포형제 부모처자가 통일의 광장에서 얼싸안고 춤추며 한가정을 이를 그날을 앞당기는 데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랑과 화해로써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서로 물어뜯고 삼키고 하면 피차 멸망하며(갈 5:15),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기 마련입니다(마 12:25).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공동의 성업에서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할 그 어떤 근거도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동포는 지금 비록 갈라져서 살고 있지만 한 피줄을 타고난 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이에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민족공동의 사활적인 성업을 위해 그것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다같이 조국통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애큐메니칼 공동체가 일치하게 결의한 오늘의 8·15 직전 공동기도주일은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는 데 커다란 추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같이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고 통일성업에 적극 동참하며 이제 곧 열리게 될 범민족대회의 성공과 문의환 목사님, 팀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님을 비롯한 전체 애국인사들의 석방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거룩한 제단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애국적 사제이신 문규현 신부님께서 작년 8월 15일 이남으로 돌아가기 직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 발을 모두고 서서 눈물로써 기도드린 몇 구절을 되새기는 것으로 설교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는 5천년 역사를 통해서 한 민족으로 이끌어주신 이 강토이건만 분단의 설움으로 44년을 지낸, 오늘 이 시각 이 분단을 넘고자 합니다. 이 비극을 당신은 보고 계시지요? 우리 7천만 동포의

아픔을 당신은 아시고 계시지요? 이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우리는 이 장벽을 우리의 작은 몸으로라도 우스러뜨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평화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고, 세계에 흐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단 44년의 8·15 오늘이 민족통일의 새로운 날이 되도록 이 분단을 없이하여 주십시오.

누구나 다 제 고장, 제 부모형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선을 넘나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래일을 축복해 주소서. 진정 당신의 축복만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아니고 당신의 축복의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몸을 다 바쳐 당신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와 자유가 그리웠습니다. 당신께서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그날까지 용기를 잊지 않고 함께 꿋꿋이 나아가며 7천만 동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계의 량심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진정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시매 감사드리며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 한국 최근대사에 있어서 미국의 한국통일 정책과 기독교

강위조

미국 아이오와주 듀복 wart eary 신학교 교수

## I. 한미관계의 역사와 미국의 통일정책

콜롬부스가 아메리카로 항해하기 100년 전 1392년에 설립된 조선은 유교사대사상과 봉건쇄국주의로 19세기 말엽 세계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중국에의 사대예속관계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때 이웃나라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明治唯新)으로 서양문화를 받아들이고 서양국가의 본을 배워 이웃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침략할 야망으로 조선과 접촉하여 1876년 조·일조약(朝日條約)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조선에서의 중국의 세력을 물리치고 일본의 영향을 넓히려는 이 조일조약은 중국을 당황시켰고 조선 왕조에게 일본 외 서양국가들과도 통상외교관계를 가질 것을 격려하였다.

중국의 격려와 알선으로 1882년 조선은 미합중국과 통상외교관계를

형성하였다. 조미조약 체결 2년 뒤 미국의 장로교는 첫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이렇게 1884년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늦게 시작된 개신교 선교는 19세기 말 정치, 경제, 군사적 사정의 불안 속에 서양의학, 통신, 교육 등을 소개 발전시키고, 새 것을 찾아보려는 젊은 지성인들을 쇄국정치에서 깨우치고 그들의 동조 속에 “근대 선교역사에서의 기적”이라고 할 만치 개신교 기독교는 조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많은 조선의 애국 지성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기독교 운동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고 외세, 더욱이 일본세력을 배척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민족과 나라를 위한 운동으로서 기독교복음 운동이 조선의 젊은 지성을 자극할 때 일제는 기독교 운동을 배타시하고 탄압하였다.

그리고 1911년 105인 사건 이후 기독교는 조선에서 일본 식민지정책을 배격하였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체포되고 5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또한 제 2 차 세계대전중 선교사들은 추방당하고 조선의 기독교인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노예처럼 끌려가 일본의 광산으로, 군수공장으로 심지어 전쟁의 최일선으로 동원되었다. 1941년 12월 이후 일본과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뒤 대부분의 선교사는 조선을 떠났고 마지막 남아있던 몇 명의 선교사는 1942년 6월에 철수하였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떠난 선교사들은 3년 뒤에 미국에서 종전을 맞이하였고, 7명의 선교책임자들은 1946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 그해 10월 2일 서울에서 한국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첫 집행위원회의를 가졌다.<sup>1)</sup>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 다시 돌아오기까지 세월은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의 새 역사와 사회에서의 교회위치는 현저하게 변하였다. 일제 하 교회는 외세 일제의 식민지 하에서 많은 탄압을 받았고 순교자

의 피를 흘리면서 이 암담한 고난의 역사에서 기독교는 한국인에게 구원의 믿음과 해방과 독립의 소망을 안겨 준 등불이었다.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고 주일에 교회에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찬송하였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은 일제의 동화정책을 반대하였고 신사참배를 거절하였고 교회에서 민족의 말들을 살리고 민족의 글, 한글로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노래하였다.

기독교 지도자들인 선교사들 중에 일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가진 분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였다. 또 많은 선교사들이 애국독립운동가를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고 2차대전이 일어난 뒤 한국 교인들과 감옥살이도 같아하였다.

한국을 떠난 지 5년도 되기 전에 다시 돌아온 선교사들과 또 미국으로 유학가서 공부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탄압에서 해방되었고, 한민족의 새 역사와 새 나라의 건설에 으뜸가는 위치를 차지하였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선교사와 미국에 유학갔던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돌아옴을 눈물로써 환영하였고, 선교사들의 고국 미합중국을 천국 다음으로 좋은 나라로, 그 나라의 군대를 해방의 은인으로 맞이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아울러 한국민족은 38선으로 인한 남북의 분단을 맞게 되었고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국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것을 알았다. 9월 8일에 오끼나와를 점령한 미 제 24 군단은 하지 중장을 사령관으로 인천에 상륙하는 그 다음날 하지 장군이 발표한 공문이 중요도 시의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그 공문은 38도선 이남은 미군의 점령지가 되고 군정이 실시되며 공용어는 영어가 사용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강압적인 미군정의 실시는 한국을 미국의 군사전략적 교두보, 그리고 2차대전 직후부터 동트기 시작한 냉전시대에 있어서 공산

권 국가들에 대한 반공보루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외교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극동에 있어서의 대 소련 반공보루기지로서 한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한국의 미 군사외교정책의 위치에 대해 2월 4일 <뉴욕 타임즈>지에 이러한 기사가 실렸다. 이 당회에서 미 극동사령관 맥아더장군은 “난 언제나 한국을 무한한 군사적 가치가 있는 전초기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또 그같은 <뉴욕 타임즈>의 기사는 한국은 “북부 아시아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 있는 태평양 상에서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초적 전략기지”라고 언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방 후의 한미관계의 역사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외교정책의 중요한 전초기지로서 유지되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초점에서 남한 미군의 군사기지의 교육·문화·경제적 발전도 새로운 한미관계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군사기지화로서의 한미관계는 한국에 있어서 각종 군사기지의 수에 잘 나타나고 있다. 1898년 서미전쟁(西美戰爭) 이후 미국의 식민지가 된 필리핀의 경우 1946년 독립된 후 미국의 군사기지는 4개밖에 없다. 그러나 남한에 설립된 미군의 각종 군사기지와 시설은 200여 개에 달한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나라와 맷은 상호방위협정은 언제나 유한부로 되어 있지만 한미 방위조약은 무한정으로 되어 있다.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제 2차대전 이후의 한미관계는 미국이 한국을 미 군사기지로서 유지하겠다는 군사외교 정책의 내용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외교정책은 미군정을 비롯하여, 1948년 5월 10일의 UN감시하의 단독 선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설립과 장면, 박정희, 전두환, 심지어 현 노태우 정권 하에서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한미관계의 역사

이다.

이러한 한미관계의 역사가 한국 근대사의 성격, 더욱이 조국의 통일 문제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 아래 통일할 수 없는 한 분열을 고정화하고, 우리 조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엄청난 민족의 비극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대한정책이며 통일정책이기도 하다.

그러한 실례는 1946년 11월에 이승만 박사를 대변하며 올리버 박사가 <뉴욕 타임즈>에서 했던 말에 잘 증명된다.

“우리(美國)는 미군정을 폐지하고 38선 이남에 진정한 한국정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의 군대는 하지 장군 사령 아래 그대로 들어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침략을 막아야 한다.”

We should disband our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set up a genuine Korean government south of 38th parallel in its place. We should leave troops there, under the command of General John R. Hodge, as a barrier to further Russian aggression against Korea.<sup>2)</sup>

이렇게 이미 1946년에 대한민국이 설립되기 2년 전에 미국은 38선 이남에 한국을 주둔시키고 한국에 대한 소련의 침략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통일되지 않는 한 남과 북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세계 국가들이 그 두 개의 나라를 상호인정(Cross Recognition)해야 된다는 것을 이승만 박사의 비서였던 알렌 박사가 쓴 아래의 글에서 잘 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두 한국의 통일

또는 두 개 한국의 상호인정이다.

(중략)

1953년에 미국은 ‘한국의 자유, 독립, 통일에 대해서 회담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미국은 한국의 현상유지와 여러 나라의 상호인정에 그 중요성을 두고 있다.”

그 원문은 아래와 같다.

“Another significant iss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s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or the cross – recognition of the two Korea by the interested powers – in the way that the two Germanies have been recognized by each other as well a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spite the 1953 American pledge to “consult further regarding the attainment of a united, free, and independent Korea,” the United States has been committed to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and to the policy of cross – recognition of the two koreas by the interested powers. So long as North Korea would not attack South Korea, the division into two hostile camps would hurt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Japan, nor the Soviet Union, nor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In fact, the division has prevented any power’s domination of the whole and has minimized international friction over the two Koreas.”<sup>3)</sup>

한 걸음 더 나가서 알렌 박사는 한국의 분열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사실상 한국에서의 분열상태가 어느 강대국이 한반도 전체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국제적 마찰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한국 분열의 긍정적 입장에서는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한 정책은 이 분열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1959년 11월 1일자 연구보고는 말한다. “한국은 재통일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발견할 수 없다. 사실상 두 개의 정부가 장차 존속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현상유지를 계속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여 1960년 4·19 학생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에서 대학생들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부르짖으며 1961년 5월 20일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5월 16일에 회담을 앞질러 쿠데타가 일어났다. 5·16 군사혁명 이후 박정희 소장은 미국을 방문하고 1961년 11월 14일 ‘박-캐네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 지도자는 양국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굳은 우호적 유대를 지킬 것과 강한 반공대세를 위해 군사·경제원조 등을 약속”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군사세력과 박정희 사망 이후 다시 정치세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1월 6일 미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곧 축전을 보내어 “각하의 재임기간 중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상호이해, 그리고 협력유대가 더욱 강고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한미관계의 불변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11월 10일 레이건은 〈한국일보〉와의 기자회견에서 “한미양국의 동맹관계와 대한 외교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계속하여 주둔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러한 한미관계는 민주화 과정에서 출범한 노태우 정권 하에서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북의 분열을 고정화 시켰다. 또한 이 분열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북과 남의 정부가 동시에 UN에 가입할 것과 남북정부를 자유

세계와 사회주의 국가가 서로 교차승인하여,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불변을 이 냉전종말시대에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노태우 정권은 한국이 미국 군사가지로서 또는 극동 반공보루기지로서의 미국정책에 기인한 한미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나갈 것을 더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과 그리고 1989년 UN 연설 이후 귀국 전 하와이에 들러 말한 ‘호놀룰루 담화’에 두 개의 나라를 국제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분열교차승인정책을 숨기지 않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하지 않는 한미관계와 미국의 통일정책에서 한국의 기독교세력은 변하고 있다. 민족의 분열을 고정화하려는 미국의 대한국외교정책에 기초를 둔 한미관계에 한국 기독교세력은 도전하고 있다. 또한 45년의 엄청난 민족의 비극을 끝내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민중 속에 살고 있는 신앙운동으로, 통일을 위한 민족의 새 소망의 횟불로서 기독교세력은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 Ⅱ. 한국 기독교의 도전

제 2 차대전을 전후해서 식민지로 존재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화하였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 식민지 유지에 공헌을 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을 식민지화한 제국주의 침략세력은 이웃나라 일본이었고, 우리 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왔었고, 또 이미 지적한 것처럼 선교정책에서 일본 식민지 정치에 대한 선교사들의 애매한 태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은 일제하에서는 우리 민족의 편에 서서 자유, 해방과 독립될 날을 기대하였고 많은 독립투사들을 동정하였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 기독교인들은 뜨거운 눈물로 이 선교사들을 맞이하였고, 그 선교사들의 사업에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한 한국 기독인의 태도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에서 한국 기독인들은 미국이 한국에서 추구하는 대한 정책과 한미관계를 미국시민으로서의 선교사들이 추구하는 기독교 선교운동과 동일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은 어디까지나 한국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은 충실했던 미합중국의 시민으로서 자기들 조국의 이익을 위한 한미관계의 유지에 충실했었다.

1945년 미 군정이 실시되자 한국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정식 선교사업은 아직 재개하지 아니했는데도 전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은 군정의 중요한 행정을 담당하고 군정의 요인들로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 일하였다.

선교사들은 한국말도 알고 또 한국의 사정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정관들은 선교사들과 자주 회합하여 선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한 사정을 미연합장로교 한국 선교역사에서 아래와 같이 잘 기술하고 있다. 그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Soon after the occupation of South Korea in September, 1945, a number of the members of the mission accepted positions as advisors to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 Mr. D. N. Lutz in agriculture, Dr. J. D. Bigger and Dr. R. K. Smith as medical advisors, Miss Ella Sharrocks and Miss Edith Myere as nurses, Dr. H. H. Underwood and his son, Horace, in education, and so on.

American Government officials welcomed the help and enlisted the cooperation of all missionaries in the task of reorganization. Twice, in December, 1946, and in March, 1947, the military government called all-day conferences with all missionaries, Protestant and Catholic, who could attend.

The missionaries were told that since they knew the Koreans, the Korean language and conditions in Korea, their assistance and advice in establishing a stable government in Korea would be welcomed. For some six months until his death in September in 1947, General Lerch, the Military Governor set aside an hour at 10:00 o'clock each Friday morning for a conference with the missionaries.

They (missionaries) ate at the Army mess, were allowed to buy at the Army port-exchange and commissary, were furnished with billets in former mission property, technically owned by army as spoils of war, using household equipment and provided with transportation facilities, APO mail service, hospitalization and so forth.”<sup>4)</sup>

그리고 군정요원으로서 채용된 한국인들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았고, 1946년 한국의 군사정부의 50명 중 35명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임시 입법위원 중에 21명의 위원이 기독교인이었고, 그중 7명은 안수받은 목사님들이었다. 1948년 8월에 형성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또한 190명 중 38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중 13명이 안수받은 목사님들이었다. 그러한 사실들은 이미 인용한 장로교 역사문서에 또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Fortunately, many of the Korean officials in the new government were Christians. The four outstanding political leaders who returned to Korea from China and America after the war were all professing Christians and gave a Christian message in their public addresses and private conversation.

(These four were Dr. Syngman Rhee, Dr. Kyusik Kim, President of the Interim Korean Assembly, Elder Kim Koo, and Dr. Philip Ja Shou)

When the Koreans were placed in charge of governmental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in September, 1946, many of the heads of departments, governors of provinces and members of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were professing Christians and some of them prominent Christian leaders.

In 1946, of fifty Koreans who were in official positions in the Korean Government, 35 were professing Christians, of the ninety members of the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in 1946, the number of professing Christians was 21, including seven ordained ministers. In the first Korean Legislative Assembly, of 190 members (from August, 1948), the number of Christians is reported to 38, of whom thirteen were ordained Christian ministers. A Vice - President of the Assembly was elder Kim Tong Won, who for many years was a prominent Christian layman in the city of Pyongyang. In Syngman Rhee's second term, the Rev. Ham Tai Young, a Presbyterian Minister, became Vice President."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 민족을 위한 신앙운동이라기 보다 미국 선교사들의 지도 아래 미국을 위하고 미국의 군사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한미관계의 유지에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는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1965년 미국의 극동정책으로 이루어진 한일조약에 한국 교회는 해방 후 처음으로 미국에 의한 한미관계를 유지하는 정치권력에 저항하여 나섰다.

전 한국신학대학 학장이시던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일조약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리고 1971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의 한미관계의 유지와 미국의 반공전초기지로서의 한국의 유지를 위한 삼선개헌이 발표됐을 때 다시 김재준 박사 박형규, 문동환 목사 중심으로 한 교계 지도자들은 그해 4월 19일 서울 종로 YMCA에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의 자주적 정치 발전을 위한 운동에 앞장섰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기독교는 크나큰 정치세력으로 대두하였고, 한국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책임을 자각하였다. 더욱이 남북분할로 인한 비극을 해결하고 전쟁의 원인을 해소하는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책임도 확인하였다. 물론 이러한 민족적 자각은 기독교세력 안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여러 사회층에서 일어난 민족자결의식과 한미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는 민중들의 자주화 의식의 발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많은 민중들의 자주화 의식은 통일에 대한 욕구로 나타났고 그 민중들의 통일의 욕구에 응하기 위해 1972년 ‘7·4 공동성명’이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민중의 통일의욕으로서 이루어진 이 ‘7·4 공동성명’은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해 1972년 10월 미국의 대한 정책과 한미관계의 유지를 위한 권력집중과 민중탄압을 위한 유신체제

가 형성되었다. 이 유신체제 하에서 많은 기독인들이 탄압을 받았고, 심지어 1972년 12월 13일 전주시 남문교회에서 수요예배를 인도하며 기도하시던 은명기 목사를 구속하고 연행하였다.

1973년 4월 22일 부활절 합동예배에서 반정부 유인물을 배부하였다 고 하여 박형규 목사와 4명의 교직자가 체포되었다. 1973년에 들어와 기독교세력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지는 때에 교회는 ‘한국 기독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일제하 한국 교회는 해방을 원하며 독립을 바라보면서 일제에 저항한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적 전통을 계속 할 것을 약속하고, 해방 후 한국의 기독교가 권력의 편이 되어 사회의식이 결핍되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현재 한국 정치세력은 법과 설득에 의한 정치를 무시하고 권력과 위암만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과감히 비난하였다.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하면 교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였다.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호와 제2호가 발표되어 유신체제를 반대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반자는 영장도 없이 체포되고 비상군법회의에 회부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긴급조치가 발표되어 곧 11명의 교직자가 체포되고 6인의 교직자가 10년에서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의 양심적인 교수들이 교직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세력은 더욱더 강압적인 정치세력에 반대하며 한국의 민주화와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정치운동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과감한 한국 기독교의 정치참여는 1976년 3월 1일 서울 명동천주교 성당에서 천주교 평신도 지도자 김대중씨와 장로교 목회자 문익환 목사가 주동이 된 ‘민주구국 3·1 선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독교운동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과감히 반미운동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미군사기지로서 영속하고,

갈라진 남과 북의 현상유지를 지키려는 한미관계로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자각한 기독양심인들은 과감히 반미운동으로 그 화살을 내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한국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기독교운동은 1982년 3월 18일에 일어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이었다. 이 문화원에 불을 지른 문부식 학생은 한국 기독교 보수신학의 본산인 고려신학대학 학생이었다. 이것은 현 한미관계를 반대하는 반미운동이 에큐메니칼 진영에 속한 한국 기독교만이 아닌 보수진영의 기독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하여 준다.

이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있던 다음 달 한국 교회 연합기관인 ‘한국 교회사회 선교협의회’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사기지화된 한국의 대미관계를 비판하고 새로운 한미관계를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현 한미관계를 비판하고 반미운동을 끌고 나가는 기독교세력은, 그 해 4월 16일 1,000명이 넘는 기독교 청년학생들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반미시위를 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4월 22일엔 춘천시에서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우며 “양키 – 고 훔”을 부르짖던 학생데모가 있었다. 이제 기독교세력은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유지하려는 세력을 반대하고 자주화 운동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국내 자주화 운동에 호응하고 이러한 호응이 기독교의 평화 운동과 통일운동으로 1980년대에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1981년 11월 해외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이북의 교회 지도자들과 오스트리아(Austria) 빈(Wien)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 기독자의 대화’가 모였고, 이 첫번째 모임 이후 이 대회는 계속되고 있다. 1983년에는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기독교가 조국의 통일운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형성하였고, 이 교회협의회는 세계 교회협의회 산하 조직인

아시아 교회협의회 지도자들과 일본에서 한국 통일문제를 토의하는 회의를 열고 세계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이 통일에 이바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1985년 11월에는 세계 교회협의회 대표자가 북을 방문하였고, 세계 교회협의회의 주선으로 1986년 9월 스위스 글리온에서 북의 기독자들과 남에서 직접 온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공부시간과 기도, 예배, 성찬식을 같이 하였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5년 5월, 1986년 8월, 그리고 1988년 2월의 회의에서는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은 조국의 해방과 남북분할 50주년이 되는 1995년을 구약 레위기 25장에 의거한 희년으로 지키기로 결정하였다. 레위기는 말한다. “오십년이 되는 이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레위기 25:10-12). 그리고 이 레위기는 “너희는 동족끼리 서로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는 희년 그해가 통일의 해가 되기 위하여 한국의 기독교는 매진하고 있다. 분열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고정화하려는 분열주의 정책을 반대하고 한국 기독교는 통일의 희년을 향한 크나큰 사상, 사회, 경제, 정치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1988년에 두번째 남북 기독자 지도자들이 스위스 글리온에 모였고, 1988년 저물어가는 그해 한국의 수원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국내의 통일 신학 지도자이며 서울 향린교회 목사 홍근수 박사, 한국 성공회신학교 교수 손규태 박사, 제3세계 신학연구소 소장 홍성현 박사 그리고 문익환 목사와 박형규 목사 등을 중심으로 국내 신학자들과 해외 통일신학자들의 한국통일에 관한 3일에 걸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 독일의 이영빈 목사는 해외에서 통일운동을 한다고 한국을 방문 못하다가 30

년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홍동근 목사는 18년만에, 미국 루터교회 신학대학원 교수로 있는 강위조는 10년만에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이해 1988년 10월에는 광주에 있는 지방신학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신학대학 학생들이 반미시위투쟁을 전개하였고, 그 신학대학생 100여명이 모여 그 학교정문 앞에서 “조국 통일 가로막는 군부독재 타도하자”고 외치면서 시위하였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서울의 연세대학교에서 한국 교회여성연합회가 AIDS추방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면서 반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반미 자주화 운동은 통일운동과 직접 연결되고, 이 통일운동에서 특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1989년 3월 성경학자이며 시인이며 민족의 양심인 문익환 목사님의 평양 방문과 그해 7월 평양에 있던 제 13 차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한국 전국대학생 협의회 대표로 갔던 임수경 학생과 그를 동반한 문규현 신부님이 8월 15일 평화의 사도로서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건너온 사건이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는 사랑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을 온 민족에게 증명하고 세계만방에 공포하였다. 이 통일을 위해 어려운 일을 한 양심적인 기독인들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과 통일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두 감옥에 갇혀있다(지금은 문익환 목사는 가석방으로 나와있음). 반통일 분열세력은 아직도 정권을 쥐고 있고 그 탄압은 너무도 강력하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 시민들의 기독교가 아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의 군사외교정책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선교사들이 갔다 준 어떤 외래 종교이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소망의 빛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암담한 상태에서 화해와 통일을 위한 빛이 되고 있다. 그 빛은 하나님

으로부터 오는 빛이고 누구도 그 빛을 끄지 못할 것이다. 그 빛이 점점 더 밝게 그리고 뜨겁게 타오를 때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대결상태에서 유지되는 불행한 한미관계도 끝장나고 통일은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

\* 주 \*

- 1) Harry A. Rhodes and Libald Campbell, eds., History of the Korea Un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Vol II, 1935 – 1959 New York: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1965, p. 28.
- 2) In One Hundred Years of U. S. Korea Relations (University of Alabama Press) p. 910.
- 3) Yur-Bok Lee and Wayne Patterson, eds., One Hundred Years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882 – 1982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6), p. 106.
- 4) Harry A. Rhodes and Archibale Campbell, ed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vol. II, 1939-1959. pp. 379 – 80.

## 기독교에 대하는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박승덕

평양 사회과학원 주체사상 연구소 소장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대화하는 새로운 사상사를 펼치며 북의 학자들과 이남과 해외의 기독교인들이 민족통일성업에 공동으로 이바지하려면 기독교에 대하는 주체사상의 태도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기간 민족분렬세력이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데서 기독교를 리용하는 책동을 계속해 온 결과 적지않은 사람들 속에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적대되며 공존할 수 없다는 그릇된 이해가 자리잡았습니다. 이남과 해외에 있는 일련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주체사상을 잘못 파악한 데로부터 기독교에 대하는 태도에서 주체사상과 맑스주의를 동일시하거나 주체사상이 맑스주의보다 기독교를 더 배타적으로 대한다는 론조를 펴뜨렸습니다. 이러한 론조는 기독교의 일부 교직자들과 신학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대화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하는 주체사상의 태도를 리론적으로 밝히는 것은 주체철학과 기독교 신학의 대화의 문을 열며 우리 민족과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사상 신봉자들과 기독교인들의 공동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됩니다.

김정일 비서께서는 1986년 8월 5일 문헌에서 기독교를 대하는 주체사상의 일관한 관점에 대하여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습니다.

김정일 비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적 지배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배격하시었지 종교와 종교신자를 배척하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 189쪽).

주체사상은 새로운 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 위에서 기독교의 본질과 그 변화의 역사적 경향성을 해석하고 현대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분석하며 기독교와의 대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본질을 새롭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종교를 포함한 사회적 의식형태들이 본질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객관세계의 어떤 측면을 어떠한 형식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데 기초하였습니다.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세계를 형상적인 형식으로 외곡되게 반영한 환상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세계관이라는 데서 기독교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맑스는 초기저서인 「헤겔 법철학 비판」 서론에서 종교를 ‘전도된 세계관’(맑스, 엥겔스 전집, 제 1권, 466쪽)으로 규정하였으며 엥겔스도 원시 기독교에 대하여 그것이 고대희랍 철학자 필로누스와 로마 스토아

학파의 대표자인 세네카의 신비주의 철학에 기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종교를 포함한 사회적 의식형태들이 객관세계를 반영한 지식의 면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담은 사상의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는 과학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의식형태로서 객관세계의 본질과 운동법칙을 해명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내세우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일정한 생활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기원 1세기에 로마제국의 예속지역인 소아세아와 근동지방에서 로마통치배들을 반대하고 로마국가의 멸망과 평등이 지배하는 새로운 생활을 념원하였던 노예들과 빈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기독교는 자기 존재의 전 기간 사람들에게 생활의 목적과 리상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설교하였으며 가치관, 윤리관을 심어주는 데 주되는 주의를 들였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구약의 기본사상은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 창조신앙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전개되는 애굽의 통치로부터의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도 신론이 기초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인간론이며 그 특징은 인생관화된 인간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기독교의 본질은 세계관에서가 아니라 압제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을 념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식의 삶의 길을 제시하는 인생관이라는 데서 그 본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리해로부터 과학적 세계관이냐 비과학적 세계관이냐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간구원, 인간해방을 위한 삶과 투쟁의 공통된 방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와의 대화

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역사적 형태들을 구분하고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맑스 – 레닌주의에서는 기독교의 특정한 역사적 형태인 부르죠아지에게 복무한 기독교를 주로 분석하고 기독교의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폭로·비판을 하였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맑스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단죄하였으며 레닌은 그것을 ‘래세에서의 행복’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값싼 정신적 브랜디 술’로 규탄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의 단계에 와서 기독교의 역사적 형태들을, 첫째로 원시 기독교, 둘째로 국교화된 기독교의 자본가 계급에 복무한 기독교, 셋째로 현대 기독교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시 기독교는 민중을 위한 종교였으며 노예와 빈민들에 대한 노예소유자들의 억압과 학대를 반대하였습니다. 당시 민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매우 미약하였던 조건에서 기독교는 노예소유자적 착취사회의 멸망과 리상사회의 도래에 대한 민중의 넘원을 소박한 구세주 신앙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원시 기독교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기독교이며 기독교의 사명을 전형적으로 체현하고 있습니다. 착취받고 압박받는 민중을 구원하고 해방할 사명을 지닌 기독교와 그것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배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에 대하여 기독교가 국교로 된 후 노예소유자 국가와 봉건국가의 국교화된 기독교와 부르죠아지에게 복무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이 역사적 형태는 한 마디로 말하여 착취계급의 리익에 복무하고 민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예소유제 시기와 봉건적 중세기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근세 자본주의 시기에 이

르러서도 기독교는 착취자들과 야합하고 그들의 착취와 압박에 민중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만적인 설교와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자본주의 시기 부르죠아지의 착취를 변호하고 근로민중의 사상적 각성을 가로막는 기독교의 해독적 역할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기독교인 자신들에게까지 인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규정한 첫 사람이 바로 기독교 사회주의자인 찰스 킹스레이 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기독교도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 후 기독교신학에서는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국교화되였던, 기독교나 부르죠아지에게 복무하였던, 기독교와 적지않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그 변화의 주도적 방향의 견지에서 볼 때 기독교 본연의 자세와 사명에 맞게 점차 민중의 편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기독교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세계 종교로서의 특성을 강화하면서도 매개 민족의 토양에 뿌리박고 민중문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기독교의 세속화 운동과 토착화 운동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 혁명신학 등 현대 기독교 신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래세천당으로부터 현세천당으로, 현실도피로부터 현실참여로, 개인구원으로부터 집단구원으로 자기 주장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현대의 기독교 신학의 전진적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 있는 기독교 교단들과 교파들, 교직자들과 신학자들, 평신도들은 민중과 민족, 인류를

위하여 적지않게 긍정적인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악을 폭로·비판하고 비인간화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동원하며 반핵평화, 공해반대 투쟁과 반제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은 모두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대 기독교에 대하여 지난 시기 국교화 되었거나 부르죠아지에게 복무하였던 기독교에 적용하였던 평가를 기계적으로 연장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주체사상은 현대 기독교와 그 신학이 부정적인 점과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민중과 민족,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긍정적인 점과 가치 있는 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원래 주체사상은 사상분야에서 편협한 배타주의를 결정적으로 반대합니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사상이라면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 의하여 창조되었든지 관계없이 그 가치를 공명정대하게 평가하고 자체의 사상체계 안에 포함해 나가고 있는 것은 주체사상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입니다.

사랑과 평화, 사회정의와 애국·애족 등 기독교 교리에는 긍정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신학의 종말론과 구원론에서도 가치있는 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기독교 사상과의 공통점을 모색하고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공동의 방도를 탐구하는 것을 주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남조선에서 창출된 민중신학, 이남과 해외의 기독교 신학자들 속에서 제창되고 있는 통일신학과 주체사상의 대화를 시작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문제, 민중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주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체사상과 민중신학, 통일신학은 첫째로, 민족통일 민족해

방의 차원에서, 둘째로 민중구원과 민중해방의 차원에서, 셋째로 인도주의와 평화의 차원에서 적극 대화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은 알찬 결실을 가져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시기 서구라파에서 맑스주의와 기독교의 대화가 오랜 역사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심중한 교훈을 남겨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관심사로 되는 운명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시켜 대화를 벌려 나가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개인과 민중, 민족의 운명문제를 떠나서 추상적인 론의만 거듭하여서는 주체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대화를 전진시킬 수 없으며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개척하는 데 이바지할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과 기독교, 주체철학과 기독교신학이 인간의 운명문제를 축으로 하여 진지하게 대화를 해 나간다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인민과 인류의 밝은 장래를 열어나가는 데 응당한 기여를 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이번의 모임이 주체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대화를 위한 전환적 계기로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

### 폐회 설교문

8·15 45주년을 맞으며

## 애국·애족은 그리스도인의 본분

누가복음 13:34, 19:41~42, 23:28

리성봉

평양 봉수교회 담임목사

오늘 봉독한 성경말씀은 자기 민족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 성경말씀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숭고하고 열화같은 높은 차원의 민족애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들은 이 성경말씀을 통하여,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을 무한히 사랑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받게 된다. 오늘은 이 성경본문에 기초해서 ‘애국·애족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신구약 성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한 역사적 사실들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먼 옛날 구약시대에 일찌기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여호와의 소명을 받고 자기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였으며 시나이 광야에서 40년간 류랑생활 과정에 자기 민족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였는데 그는 기도에

서 다음과 같이 간구하였다.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당신께서 손수 쓰신 기록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출 32:32).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래 침략자들에 의하여 자기 조국과 민족이 치명상을 입었을 때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내 땅, 내 백성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전들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앞은 캄캄하고 마음은 떨립니다. 길르앗에 약이 떨어질리 없고 의사가 없을리 없는데 어찌하여 내 땅, 내 백성이 상처를 치료하지 못 합니까?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땅,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

그 외에도 에스더나 우리아와 같은 열렬한 애국자들도 있었고 아모스, 미가와 같이 불의를 공격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자기 민족의 풍성과 번영을 바란 정의의 예언자들도 있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자기 동족을 열렬히 사랑한 사도들이 적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나는 혈육을 같이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롬 9:3)라고 하였으며, 사도 요한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요 1:40:20)

- 21)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지녔던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의 승고하고 사려깊은 민족애를 우리 주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들, 곧 성자이면서도 인성을 지니시고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자비심을 가슴 속 깊은 곳에 품고 계시였다.

오늘 성경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장차 외세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될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 예루살렘아 !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누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는 응하지 않았다”(눅 13 : 34)라고 하시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시였다.

주님께서는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사형장으로 걸어가시던 그 고통스러운 길에서도 자신을 따라오면서 슬퍼 울고 있는 녀인들을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려인들아 !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아들 팔 들을 위하여 울어라”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님의 이 고결하고 사랑이 넘치는 풍모를 통하여 자기 자신 보다도 형제를, 나아가서 민족을 더없이 사랑한 그의 열렬한 민족애와 심원한 애국심을 가슴 뜨겁게 받아안게 된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지니셨던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승고하고 무한한 사랑과 모세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과 사도바울, 요한이 지녔던 열화같은 민족애를 되새겨보면서 우리도 그이처럼 자신들의 애국충정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

구약성경 잠언 27장 8절에는 “고향없는 사람은 보금자리 잃은 새와

같다”고 하였으며 우리 나라 속담에는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이 성경구절과 속담은 다 자기 조국과 민족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적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조국과 민족을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인 동시에 민족공동체의 한 성원이라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인들은 민족 밖에 있거나, 민족 위에, 민족과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안의 한 성원이라는 데로부터 민족의 이해관계와 우리 교인들의 이해관계가 공통되고 민족의 운명 속에 우리 교인들의 운명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곧 그 나라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하며 백성의 한 사람인 우리 교인들의 운명도 좌우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날 일제식민지 통치 하에서 나라없던 백성으로서 피눈물 뿌리던 수난에 찬 생활체험을 통하여 력력히 증거할 수가 있다.

우리 교인들은 일제통치의 36년간 온 민족과 더불어 망국노로서 온갖 억압과 천대, 좌취와 랙탈을 당하였다.

왜놈들의 등살에 견디다 못해 우리 겨레들이 남부녀대하여 정든 고향을 되돌아보며 북으로는 두만강, 남으로는 현해탄을 건너가던 그 날들을 추억하면 지금도 가슴 아픔을 금할 수 없다(나는 네 살 때 할아버지 등에 업히여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에 들어가 산설고 물설은 타향에서 잔뼈가 굵어졌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였으며 이에 항거한 수많은 성직자들과 교우들이 철창 속에서 피를 흘리였다. 1941년부터 45년까지 소위 대동아전쟁을 구실로 24만 2천여명의 조선청년들이 전

챙터에 끌려갔다(최근 일본에서 명단 발견 – 실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심지어 군기헌납운동으로 교회당의 종까지 다 빼앗겼다. 또한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도 자유로이 부르지 못하였다. 우리 교인들이 왜 이러한 수난과 억울함을 당하여야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족적 자주권이 없었기에 망국노의 운명을 면 할 수가 없었고 신앙의 자유도 마음껏 누릴 수 없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온 민족과 더불어 의병운동, 애국문화 계몽운동, 3·1 인민봉기와 그 이후 시기에도 조국광복을 위한 의로운 투쟁에 떨쳐 나섰으며 일제의 감옥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조선독립만세!’를 소리높이 웨쳤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었던 안중근 열사는 할빈역두에서 침략자의 괴수 이등방문을 사살하고 그 몸뚱아리를 짓밟고 서서 두 손을 높이 추켜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웨쳤으며 기독교신자였던 우동선 선생은 왜놈들이 강요한 소위 을사보호조약을 반대하여 나선 의병대장으로 일제와 싸우다가 장렬한 죄후를 마치였다.

8·15 해방 후에도 그리스도인이었던 백범 김구선생과 봉양 려운형 선생들은 나라의 분별 – 남조선에서의 단선, 단정을 반대하고 통일 독립된 조국을 건립하기 위하여 3·8 선을 넘나들며 한 몸 바쳐 싸웠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역사적 사명과 하느님의 소명에 충직한 사도적 본분을 다하는 의로운 행위이다.

그러면 현시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별의 담을 헐고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동강 난 강토와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다. 8·15 이전 일제식민지 통치시기에는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 한 몸 바쳐 나서는 것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

에서 최고정점이였다면 오늘은 분렬된 강토와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에서 최고정점을 이룬다.

왜 그런가? 그것은 통일만이 민족분렬의 비극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7천만 겨레가 3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 자유와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토량단과 민족분렬로 인하여 천만의 리산가족들이 눈물을 뿌리고 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들 사이에 편지 한 장 전할 수 없고 생사여부조차 몰라 안타까이 살고 있다.

작년 6월 서부 베를린에서 두 녀성을 만났는데 한 녀성은 부모가 함흥에 있다고 하고 한 녀성은 황해도 옹진에 부모가 있다고 하면서 18세 때 전쟁으로 인하여 헤어진 후 오늘까지 부모들은 나의 생사여부도 모를 것이고 서독에 와서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며 부모를 그리워하였다.

전쟁 때 남녘땅에서 의용군으로 들어온 홍안의 소년이 환갑고개에 올라 아들, 손자까지 보았으나 아직도 그리운 어머니품에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 뿐만 아니다. 지금 수많은 리산가족들과 해외동포들이 고향땅을 그리워하면서도 민족의 분렬로 인하여 선조들의 백골이 묻혀있고 귀여운 후손들이 자라고 있는 고향땅에 묻히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화급한 것은 민족분렬로 인한 북남간의 대결과 긴장격화로 우리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검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엄혹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만일 우리 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열핵전으로 번져질것이고, 그 참화는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참혹상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최고·최대의 애국, 애족은 갈라진 강토와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문의환 목사가 이 길을 걸었고 림수경(수산나) 학생이 또

한 이 길을 걸었으며 문규현(바울로) 신부가 그와 뜻을 같이 했고 별걸  
음을 함께 하였다.

그들은 우리 겨레가 당하고 있는 45년간에 걸친 민족분렬의 고통과  
민족의 수치를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으려고 천만리 사선을 헤치고 평양을 방문하  
였다. 그들은 평양방문 전기간 민족의 부활인 조국통일에 대하여 말하  
였고 통일의 시를읊었고 노래도 불렀으며 통일을 그리며 눈물도 흘  
렸다.

문익환 목사는 우리 봉수교회에 와서 부활절 축제와 성찬례전에도  
참석하여 부활과 통일의 찬송도 불렀으며 주님의 살과 피로 되는 떡과  
잔도 함께 나누었고 우리 함께 손잡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 힘쓰자고 굳  
은 맹세도 다지였다.

립수경 학생과 문규현 신부는 평양에서, 백두산에서, 판문점에서  
“백두에서 한나까지 조국은 하나다！”, “7천만이 하나되어 조국통일  
이룩하자！”고 웨쳤으며 분단의 장벽, 원한의 장벽에 돌파구를 열었고  
판문점을 뚫고 돌아갔다.

참으로 그들의 웨침과 노래와 눈물, 결단의 장거는 진정 통일의 의지  
와 열망의 뜨거운 발현이였다. 그들은 오늘도 통일을 지향하는 자신들  
의 의지와 신념의 정당성을 자부하며 높은 궁지를 안고 철창 속에서,  
재판정에서 굳세게 싸우고 있다. 얼마 전에 문규현 신부는 심판정 최후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절절하게, 또 기운차게 웨쳤다.

“나는 분단의 가시철조망에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낮은 포복  
으로, 온몸으로 기여서라도, 통일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결의가 되어  
있다. 7천만 겨레의 절절한 염원을 자신의 사목중심으로 삼아 분단의  
십자가를 지고 통일의 부활 새벽까지 기꺼이 나아갈 것이다. 수경이가

받은 10년을 내 형기에 더하여, 기꺼이 내가 18년을 살겠다. 분단에 죽고 통일에 사는 4천만 민중과 함께 문 목사님을 앞세우고 수경이를 앞세우고 걸어보는 꿈을 …… 나는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렇다.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정의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통일의 사절들은 반드시 철쇄를 바수고 7천만 거례의 조국통일 진군서열에 함께 서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애국과 애족은 하느님의 소명이고 기독의 복음이다. 어머니 조국이 두동강난 채 어언 반세기 가까이 몸부림치고 있으며 사랑하는 동포 형제자매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고 있는데 이 처절한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고서 어찌 하나의 민족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사상과 정견, 리념과 신앙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 통일의 성업에 헌신함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자. □

## 개회 기도문

**통일의 군병이 되어**

최옥희

평양 신학원 학생, 전도사

민족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 주신 출애굽의 하느님, 마침내는 독생자까지 보내시여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공의와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헤아릴 수 없는 깊고 오묘한 하느님의 역사섭리의 손길에 이끌려 여기 북경에 통일의 뜻을 모은 우리 겨레가 함께 모였습니다.

“형제가 련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신 주님. 통일하자고 웨치는 우리의 목타는 소리가 그대로 우리 조국강산에 메아리되어 울려퍼져 가는 이 땅, 이 역사의 시작에 서서 분단 반세기라는 서럽고 고통스러운 그것도 남이 들씌운 명예. 외세에 의해 강요된 이 원한의 명예를 벗으려고 우리 혈육들이 북미주 기독학자의 제 24 차년차대회에 참가하여 주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일찌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북통일의 경륜을 보여주시고 남북이 하나로 통일 되기를 원하신 하느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주님의 자

비하신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듣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들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토록 모질고 가슴아픈 분별의 이 명예를 벗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쉽고 가벼운 주님의 명예를 원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이 뜻을 측은하게 보시고 우리의 이 목적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실로 반세기에 이르는 남북분단의 그칠줄 모르는 오늘의 이 비극은 우리 단일민족의 의미있는 삶과 번영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조국의 아픔, 민족의 고통으로 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해묵은 병자의 고통을 치유해 일으켜 주신 자비하신 주님. 이 분별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처방을 우리도 진실로 주님 앞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권능에 의지하여 무엇이 막혀 있는지 모두 토해 놓고 우리 서로 사랑과 화해의 원리로써 의론하고 대화하고 담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지의 대주재이시고 새 역사창조의 통력이신 하느님, 우주사와 인간역사의 모든 뜻과 계획과 목적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그 일은 꼭 이루어 주시는 미쁘신 하느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수억군의 별을 놓아 일호의 착란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정확한 수학적 법칙으로 운행하시는 이 광활한 피조세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조화된 하나의 통일을 봅니다.

하느님의 피조세계가 이토록 통일되고 조화되어 아름다운데 우리 조국은 분단의 가슴아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함으로써 인간의 참생명과 화해와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느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들의 이 성회를 이끌어 주시여 주님의 화해와 통일 의지가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으로 고백되는 데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신앙고백이 성령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실천

으로 옮겨지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로써 죄에 빠져 하느님과 분별되고 사람들 사이가 분별되어 고통 당하는 세상을 통일시키려고 가로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주님 우리 위해 젖기시고, 상하시고 피흘리신 희생의 대가이옵니다.

하느님의 통일의지를 오늘 우리들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 신앙을 실천하는 데 주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가 앞에 있음을 자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과 땅 밭에 쇠못을 박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당하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야 하는 자기 희생의 길. 만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오늘의 갈보리산 처형장을 내가 피해 간다면 우리 민족이 사는 통일의 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70고령의 문익환 목사님이 이 길을 걸어 지금 고난중에 있으며 문규현 사제와 통일의 꽃 림수경이 “하느님 우리 조국은 하나입니다. 결코 갈라질 수 없습니다”라고 몸으로 이 길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께서 5천년 역사로 통하여 한민족으로 이끌어 주신 한 강토일진데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이다지도 가슴아픈 고통을 주시옵니까? 우리들의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둘이 되여서는 아니 될 하나의 몸, 둘이 되여서는 아니될 하나의 집, 둘로 갈라질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는 하나의 피, 우리 민족은 하나, 산맥도 하나, 혈맥도 하나, 우리 민족은 영원히 하나이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갈보리 처형장 가신 길을 바로 이들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길 피해 갈 수 없기에 오늘 여기 역사의 시점에 북에서 멀리 이역만리 해외에서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조국 땅은 사나운 광풍이 부는 대결전장과도 같이 통일과 분별의 아마겟돈이 되

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과 거세인 폭풍우는 갈라진 우리 조국의 모습으로 될 뿐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심령 속에서 이 광풍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먼저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깊은 밤이 새벽을 잉태하듯이 분명히 주님 원하시는 통일의 려명은 오고야 만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창조를 위해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한 손에 복음의 희불을 비추고 또 한 손에 통일의 희불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하는 주님의 물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십자가 군병, 통일의 군병이 되어 백두에서 한나, 한나에서 백두까지 우리 앞에 막힌 담을 헐고 넘으며 서슴없이 진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함께 해 주시고 인류를 사랑과 화목일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고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시여 그의 아픔을 함께 하여 주시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오늘의 분렬된 이 고통을 주님께서는 하느님 우편에 서시여 아니, 우리들 속에 오시여 이 아픔을 함께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외세와 그 분렬세력이 우리들의 허리를 동강내고 사정없이 던지는 돌에 맞아 지금 우리 혈육의 살과 뼈가 부서져 가는 이 고통을 감당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하여 기어이 통일을 성취하도록 강건한 믿음과 사명감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고문당하신 주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

# 3

제 25 차 연례대회

1991년 5월 28일-30일

Stony point center

Stony point New York

주제 • 새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독인의 사명

미국정부가 여덟 명의 북쪽 대표단에게 입국을 허락, 분단이래 최초로 민간협회인 북미주 기독학자회의 초청으로 이북시민이 미국을 방문한 역사적인 해가 되기도 했다. 또한 대회 처음으로 북미주의 기독학자 및 교회지도자들과 남쪽에서 온 대표단이 북쪽 대표단과의 대화가 있었던 연례대회였다. 미국 장로교회 및 연합 감리교회의 후원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 개회 설교문

## 새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개방성, 포용성, 통일성

이사야서 65 : 17 – 25 시 편 133 : 1 – 3

이상철

캐나다 연합교회 증경총회장

우리 민족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민족분단의 현실 하에서 너무도 어리석고 비극적인 상호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강대국들의 탐욕에 의해 강요된 분단을 마치 당연한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상호 불신과 증오와 비방과 저주와 심지어는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연출한 역사는 대대손손에 이르러 부끄러운 일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우리 민족 양심에 새로운 각성을 일으켜 화해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여 대화와 교류와 통일 스포츠팀의 형성 등이 성사된 것은 크게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기독교지도자들의 교류와 학계인사들의 교류가 수차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번에는 ‘새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남과 북, 혹은 북과 남의 식구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분단에 책임있는 미국에서 이 모임을 갖게 되어 더욱 뜻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번에는 또 하나의

분단책임국가인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모이면 당신들은 분단했지만 우리는 통일한다는 힘찬 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인 기독교의 가르침과 이해를 소재로 이 특정한 역사의 시점에서 우리 민족에게 바라는 몇 가지 희망과 꿈을 생각하는 것으로 개회설교의 책임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 민족이 활짝 열린 개방정신(Openness)을 가져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거하는 방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문을 열고 새 공기를 받아 들여야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방을 밀폐시켜 놓으면 점차적으로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개방되어 있어서 새 것을 계속 호흡하면서 살아야 건전해집니다. 또 인간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도 같습니다. 계속 흘러야 썩지 않고 그 신선한 맛을 지속할 수 있고, 반대로 고인 물이 되어 버리면 썩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인간이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마음의 문을 닫게 된 현실에 대한 책임은 그 당사자만이 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이 서로 닫힌 마음으로 대하게 된 것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까지 가담하여 불신과 공포분위기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문을 닫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정력과 돈을 써 온 셈입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중요한 비밀은 어느 쪽도 지켜 올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이테크의 탐지기와 기타 방법으로 상대방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적으로 호칭한 사람들은 비밀을 다 알고 있었고 각각 자기 국민들만을 속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서 국가간의 비밀보장도 결국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어 동서 냉전 체제에 해빙 무드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개방정책을 채택한 셈입니다. 폐쇄정책은 결국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상실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식이 높아진 셈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형성도 마음 속에 그어져 있는 38선을 지워 버리고 피차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내놓고 함께 비전을 그려가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닫힌 상태가 된 현실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책임을 지려는 태도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38선을 지운 후 지리적인 38선을 철폐하고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진 민족이 되면 비로소 전세계를 환히 내다보는 격조가 높은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포용성(Inclusiveness)이 넓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이고 좁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소아병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애기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집안 식구만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고 낯선 사람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모유외의 젖은 마시거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영양보충을 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사귀고 우정을 맺어가게 되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 반세기 동안 피차 배척하고 거부해온 현실은 우리 민족의 정신성장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차 용납하고 포용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한 펫줄을 이어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포용 못할 근본

적인 이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반세기 동안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불신과 분단의 요소들만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서로 열싸 안고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와같은 몇 가지 실례는 벌써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애국자 임수경, 문규현, 문익환 같은 분들이 조선인민공화국 인민들 앞에서 그들의 민족을 사랑하는 충정을 털어놨을 때 모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과 감격을 일으킨 일은 좋은 예가 됩니다.

또 최근 구성돼서 승리를 거둔 통일 탁구팀의 얘기도 생생한 증거로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싸워 한 민족의 대표로 거둔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함께 훈련받고 경기에 임하고 승리를 거둔 그들이 북과 남으로 흩어져 갈 때 서로 이별을 슬퍼하고 끌어안고 울면서 헤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민족은 하나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서로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민족의 이와같은 포용성을 양성화시키고 키워가면 우리 민족은 전인류를 포용할 만한 큰 도량을 가진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비전과 다양성을, 통일성 위에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영어로는 unity in Diversity라고 표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unity는 uniformity와 구별되는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기계적이거나 강압적인 획일성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화합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특이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 인간의 주체의식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서로 다른 점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고 나눠주고 받으면 우리의 삶이 상호보충의 원리에 의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같아야 뭉쳐지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것을 같은 목적을 위해 바치고 더 위대하고 폭넓은 인간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결단이 생길 때 참된 동침과 단결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반세기 동안 각각 다른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한 쪽도 다른 한 쪽을 향해 자기들과 꼭 같아져야 한다고 강요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호 만남과 대화와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누고 배워가면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동구라파에서 일어난 공산주의 정권들의 붕괴가 사회주의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공산주의 정권들의 붕괴가 곧 사회주의 종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가서 공산주의 정권들의 거듭된 실수의 그늘에서 은폐되어 온 자본주의의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인류는 이 두 개의 이데올로기의 장점과 단점을 공평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에는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다 종합적이고 건전한 제3의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탄생하지 않을까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인류는 현재 어느 하나의 기성 이데올로기에 자기들의 미래를 내맡겨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unity in Diversity* 같은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작년 5월과 9월에 동독과 서독을 방문하고 기독교 지도자들과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통일될 독일이 이런 제3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조해 주면 인류전체에게 큰 공헌이 되겠다는 기대를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통일 잔치 직전에 가서 같은 분들을 만났더니 결국 서독에게 삼킴을 당했다고 유감의 뜻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 나도 그들의 생각에 동감한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국가인 우리 나라가 두 개의 다른 이념과 체제를 지혜롭게 종합해 가면서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낸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행복과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역사에 커다란 공헌을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큰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민족이 그런 과업을 성취해내면 지난 반세기 동안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다 씻고 자랑스러운 민족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과업의 성취를 위해 우리는 서로 대하고 만날 때 상대방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대회가 그런 과업을 수행하는 데 뒷바침이 될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해 주시면 큰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은 유태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약화돼서 바벨론이란 강대국에게 강점을 당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간이나 강제노동을 하다가 석방되어 자기들의 고국에 돌아와 나라의 재건에 힘쓸 때 한 예언자가 그들에게 전해 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유태민족을 위해 폐허가 된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고 이 새 나라에는 기쁨과 행복과 장수와 평화와 자유와 정의와 안정이 충만하고 질병과 기근과 약탈과 억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축복이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새 민족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에는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롭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끼리는 서로 돋고, 사랑하고, 남에게는 자랑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 형제를 남들 앞에서 비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에 갈라져 살고 있지만 한 팽줄인 형제자매들이고 가

족성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하루라도 속히 통일되어 함께 어울려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민족 공동체 형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비는 바입니다. □

## 우리 민족주의의 새로운 전개

송건호

한겨레신문사 회장

### I. 근대적 민족주의의 등장 (3·1 운동의 근대민족운동성)

민족운동이라고 하면 투철한 민족의식을 갖고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여 의식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민족주의 운동은 나라와 역사에 따라서 운동의 목표와 주역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 의식과 투쟁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3·1 운동 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3·1 운동 하면 일반적으로 33인을 연상하기 쉬우나 33인은 여러가지 시비가 없지 않았다. 가령 항일투쟁의 정도가 약했다든지 또는 그후 변절한 사람이 많다든지 해서 일부 시비가 없지 않지만 여하튼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 전국적인 항일투쟁으로 번지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3·1 운동이 우리 민족의 근대적 민족주의의 발생 시초라고 보는 까

닭은 이들의 대부분이 사회계층적으로 중인 출신이라는 점이다. 33인은 거의 전부가 종교인이었다. 즉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도가 2명, 이렇게 33인이다.

당시 전통적인 지배계층인 양반은 유교 출신이 많았으며, 기독교나 천도교, 불교신자는 대부분이 중인 출신이었다. 3·1 운동보다 좀 앞선 의병투쟁에서 지도자급은 대부분이 복벽운동가로서의 양반 출신으로 전통적인 민족주의 지도 구실을 했다. 그런데 3·1 운동에 있어서는 지도자급이라고 볼 수 있는 33인이 대부분 중인 출신인 종교계 인사이며, 따라서 이들은 그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지배층이 아니라 당시의 새로운 신흥계층인 부르주아 출신이라고 일단 볼 수 있다.

투쟁에 참여한 민중이 전국적 규모였다는 점도 이유의 하나가 되겠으나 3·1 운동에서 표방한 민족적 목표가 조선왕조를 복위시키자는 것 이 아니라 자유·민주·평화를 내세운 것을 보아도 3·1 운동의 근대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도 1919년의 3·1 운동을 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Ⅱ. 일제하의 좌우대립과 협조

그런데 3·1 운동 후에 우리의 민족주의 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3·1 운동의 주동자들이 두 파로 갈라지고 있었다. 한 파는 해외로 망명했으며, 나머지 한 파는 국내에 잔류했다. 해외로 망명한 인사들은 국내의 민중과 연대를 갖지 못했으며, 일제에 대해서 조직적인 항일투쟁을 하지 못했다. 국내에 잔류한 인사들은 그후 일제의 강압과 회유를 이기지 못하고 주도적 인물이 변절하여 친일로 전향하였다. 그러나 3·1 운동 후 일제의 유화정책으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였다. 일제는 한국에 근대적 교육시설을 다소 확장하였고 이에 청년학

생충이 새로 등장하였다., 토지조사사업 후 근대적 계층인 소작층이 발생하였고, 1차대전 후 돈을 번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여 공장을 부분적으로 세워 노동자라는 계층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1920년부터 우리 사회에는 학생층, 소작인 그리고 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식민지 교육과 착취에 견디지 못하고 학생들은 민족교육을 위해서, 소작인들은 소작쟁의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노동쟁의를 통해서 타협없는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물론 이들의 투쟁은 식민치하의 노예정책에 반항하고 직접 독립을 위해 싸운 것은 아니지만 일제와 타협없는 투쟁을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또 이제까지 주동적으로 참여했던 전통적인 항일투쟁에서 새로운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1920년대에서 45년 8·15 해방 때까지 기복은 있었으나 하여간 민중에 의한 항일투쟁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해외로 망명한 3·1 운동 당시의 항일 지도급 인사들은 국내의 민중과 조직적인 연대를 갖지 못하고 심한 파벌싸움으로 제대로 투쟁을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합국으로부터 교전국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했다. 다만 그들은 간간이 몇 사람에 의한 일제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테러로 그 존재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제에 대한 항일투쟁을 제일로 삼고 독립을 어떻게 건설하느냐는 미래에 대한 견해차이는 심하지 않았다. 더욱이 해방된 우리 민족이 분단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으며 원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좌우익의 대립은 있었지만 이러한 사상적 대립은 항일 투쟁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았으며 때론 협조까지 하면서 항일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결론을 말한다면 일제 36년간의 항일투쟁은 사상적 차이는 있었지만

좌우의 대립이 오늘날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같이 1945년까지의 항일투쟁을 제 2기라고 친다면 제 3기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 III. 8·15 후 45년간의 민족주의

제 3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미·소 등 외세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같은 동족이면서도 불구대천의 적으로 서로 대립되어 적대하는 두 나라로 갈라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 4기의 우리 민족주의의 과제는 분열된 동족을 하나로 통일하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45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이것이 제 4기의 민족주의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이와같은 민족적 과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단이 가져온 여러가지 문제점이 장애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으로 진주한 미·소는 한 쪽은 자본주의 체제이며 한 쪽은 공산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북은 통일보다도 분단·대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쪽에 진주한 미군은 물론 처음부터 한국을 분단하겠다든지 단독정부를 세울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3·8 이남에 진주한 목적은 군사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국을 자주적 민족국가로 독립시킨다든지 침략자인 친일요소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진주하면서 일제 잔재인 친일파들을 숙청하기보다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등용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통치를 편리하게 하고 반공의 보루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군진주와 더불어 해방된 우리 사회에는 민족정기가 존중되

지 못하고, 민족을 배신하더라도 일신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번지게 되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제에 협조한 이른바 부일 협력자들은 어제까지 “대일본제국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이었으나 8·15 후에는 ‘미국식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반공’을 외침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보호를 꾀하려 했던 것이다.

우리는 2차대전 후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고는 하나 이때부터 국토는 분단되고 동족은 서로 적이 되어 남북이 반목하게 되었다. 그 반목, 적대의 정도가 이민족에 대해서 보다도 더 철저하였으며, 아무리 동족이라해도 사상이 다르면 침략자인 의적보다도 더욱 증오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8·15 해방 후 우리 반도는 때마침 불어닥친 냉전의 최전방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동족이면서도 남북이 사상을 달리하는 까닭에 가장 증오스러운 적이 되어 매일같이 반공을 외쳐야 했으며,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여건이 못되었다. 1950년대 이승만 통치시대에는 민족주의라는 말조차도 불온한 사상으로 보이기까지 했었다.

분단 45년 동안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서로 증오·반목한 나머지 민주주의는 성장하지 못하고 일제 친일잔재는 활개를 쳤고, 도덕적인 타락과 군사적 안보를 강조한 나머지 동족을 적대시하고 사상이 같으면 외세하고도 결탁하는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졌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민족의 에너지가 낭비되어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 만약에 민족이 통일되고 남북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대국이 될 자신이 있다. 지난 45년간 우리 민족은 이 분단 때문에 민족의 양심이 마비되고 우수한 재질이 유린되어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민족주의의 최대과제는 1945년 분단 전으로 돌아가서 민족이 단결되고 국토가 통일되는 것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 IV. 민족운동의 당면과제 (제 4 단계)

1990년대에 들어와서 주로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고 남북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게 된 것은 민족사적 입장에서 보아 당연한 발전이라 할 것이다. 지난 45년간 분단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고초를 주었는가를 알고 있는 그들은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고 남북을 다시 통일시키는 일이야말로 민족이 당면한 가장 절실한 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주의의 제 4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주의 제 4 단계 과제는 지난 45년간 사상을 제일로 삼고 같은 민족끼리 불신·반목한 이제까지의 자세를 청산하고 우선 민족이 제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북이 통일되고 외세개입을 배격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주적 국가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민족주의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명한 민족주의 과제에 왜 오늘 이처럼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사회세력이 있다. 첫째는 기득권층이며, 둘째는 일반 기성세대이며, 셋째는 젊은 세대, 특히 학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들이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세력은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기득권층은 사회안정을 내세워 남북 관계를 독점하여 권력의 허가받지 않은 어떠한 남북교류도 이를 반대하고, 만약 정부의 허가없이 교류를 하면 가차없이 처벌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이와같은 남북교류관계 독점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성인들은 수수방관하고 굳이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들

은 8·15 후 40여 년 간 격화된 국제냉전과 엄격한 반공정책으로 기가 죽을대로 죽어 북쪽의 공산주의자와 접촉하는 문제에 관한 한 결코 정부의 시책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조심성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지난 40여 년 간의 온갖 억압 속에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응적 분위기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국내에 번지고 있는 냉전 분위기와 강경한 반공정책을 거부하면서 공공연히 미국을 비난 공격하고 우리 민족은 이제 더이상 냉전과 분단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과거에 정부의 강경한 반공정책의 영향도 받지 않고, 미국이 우리의 내정에 안보를 이유로 이리저리 간섭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며, 또 간섭을 미국의 제국주의의 성격 탓이라고 비난하고 “미제는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먹은 기성인들은 젊은 세대의 이같은 공공연한 반미 반정부 통일정책에 대해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방관만 하고 있을 뿐 말을 못한다. 따라서 지금 민족의 절실한 당면과제인 통일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층인 권력당국과 전대협 등 젊은 세대인 학생들이다.

물론 지금 동구를 비롯해 소련과 중국이 크게 변했으므로 50년대와 같은 냉전의 반목대립의 시대는 아니다. 밖의 세상은 많이 변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외부세계의 이같은 변화에 순응하여 남북 정상회담을 제창하기도 하고 총리회담을 열기도 하며 심지어 탁구, 축구의 국제경기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정도에까지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도 냉전에 몰들고 군사적 반공에 젖은 세력이 남아있어 이들이 기득권과 결탁하여 엄중한 반공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오늘날 통일의 방향으로 나가는 국제정세를 거역하고 반공과 자

유를 외치며 통일 지향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이들 기득권층이다. 지금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반대하고 공산주의의 위협성을 강조하는 세력도 그 본거지가 기득권층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주변의 기득권층은 지난 40여 년 간 분단을 전제로 형성된 사회 세력이기 때문에 통일은 곧 이들의 기득권 유지의 커다란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입으로는 어떠한 주장을 하든 통일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남북이 하나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상태에 있다.

따라서 남북 통일문제는 현실적으로 보아 기대한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또 동서독의 예에서 보듯이 통일실현이 의외로 경제·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남북의 체제가 서로 다르며 경제·정치체제도 지난 40여 년 간 이질적인 길을 걸어왔는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루 아침에 남북을 통일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 서둘면 실망도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외세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문제는 우리들의 주체적 힘과 노력으로 해결한다는 자신을 갖고 대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주적 노력여하에 따라 그만큼 통일도 앞당겨 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 민족주의 이념의 재발견

지명관

일본여자대학 역사학 교수

헤겔이 1806년 예나전투 때 마상의 나폴레옹을 바라보면서 “나는 황제, 이 세계정신이 거리를 지나서 진지 정찰을 위하여 말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친구 니트만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여기에서 그의 ‘정신현상학’도 나왔다. 그는 그 시대와 더불어 사색을 전개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국가에 있어서 역사는 종언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오늘 격동의 현대사에 있어서 그와같은 통일국가, 즉 국민국가의 종언을 보려고 하고 있지만.

젊은 헤겔이 프랑스 혁명과 그 직후의 역사 속에서 사색했다고 한다면 젊은 니체는 국민국가를 그처럼 멀리 전망한 것이 아니라 현실로서 그것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을 때 사색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바로 근대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니체가 「비극의 탄생」을 탈고하고 나서, 즉 고전연구에 몰두한 후에 그 눈으로 1872년에서 73년에 걸쳐서 현대를 향하여 「반시대적 고찰」을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제시해 준다고 하겠다. 그는 ‘고전 언어학’이 현대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는 ‘반시대적으로’, 즉 “시대에 반항하여 바라건대 이제부터 다가올 시대를 위하여 작용한다”는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니체의 철학적 방법이나 그의 역사관에 대하여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반시대적 고찰」도 1870년에서 1871년에 걸친 보불전쟁에 있어서의 프러시아의 승리라는 상황 속에서 그 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여론은 전쟁의, 특히 승리로 끝난 전쟁의 위험한 악영향을 운운하는 것을 거의 금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반시대적 고찰」의 첫머리에 쓰여진다. 그리고는 프랑스와의 전쟁에 있어서 거둔 승리의 결과 ‘가장 심한 것’은 “이번 전쟁에서 독일의 문화도 승리하였다”는 “널리, 아니 어디에나 퍼져 있는 착각”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독일문화를 “영광의 왕관으로 장식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은 냉전에 승리하였다는, 그리고 걸프 전쟁에 승리하였다는 미국에 대해 할 말일런지 모른다. 미국은 그 모든 승리가 미국적 가치나 체제 또는 문화 혹은 서구 자유주의(Iiberalism)의 승리라고 구가하고 있으며, 그 “여론은 전쟁 특히 승리로 끝난 전쟁의 위험한 악영향을 운운하는 것을 거의 금지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이상 논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는 헤겔과 니체와 같은 많은 철학자가 격동의 시대 속에서 사색하였다는 사실만을 회상하기로 하자. 아마도 그 시대에 있어서는 오늘과는 달라서 역사를 정치·경제적으로 해

석하기보다는 좀더 사변적인, 자칫하면 형이상학적인 사고로 나아갔을 것이다.

## I. 시대의 풍경

‘민족주의 이념의 재발견’이라고 한다면 먼저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민족주의를 사상사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의 상황이 띠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는 몇 가지 상징적인 사실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소련과 대만에 관계된 것을 들어보자.

금년 4월에 일본을 찾은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제 2 차 세계대전 때에 “내려진 결정은 다른 세대의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채택된 것”이며, “우리들이 그것에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이른바 ‘신사고 외교’를 제창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후 수십년 동안에 새로운 현실이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을 계산에 넣지 않고서 경솔하게 수정하려고”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리하여 그는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인 접근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은 “당시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해서 교전한 양국이 금후 두 번 다시 상대를 ‘적’, ‘승자’, ‘패자’의 범주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말이야말로 오늘 한반도의 남북의 정치권력에 향하여 호소하여야 할 말이라고 생각된다.

4월 30일에는 대만의 이동휘 총통이 극적인 선언을 했다. 대만은 지금까지 43년간 중국공산당을 ‘반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반란평정 시기’라고 오늘의 역사를 생각해 왔지만 이제 이 시기가 종료됐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간의 무역은 작년에 총액 40억불에 달했으며,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업은 2,503건, 투자액은 7억 5,400만불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만해협 경제권’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적대관계의 종료는 한반도의 현실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다.

다음에는 일본 신문에 나타난 두 가지 작은 기사를 언급하겠다. 하나는 형가리 주요신문의 논설위원이 말한 것이다. 형가리는 지금까지 형가리의 최대 무역국이었던 소련이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지에 빠져 있다. 소련에 수출되던 버스나 의약품의 생산이 정체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실업자가 또 수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방 여러나라의 원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동유럽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상징 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지난 5월 2일자 신문기사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날짜 신문에 이번에는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미국 주변국의 상황을 상징하는 조그마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서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유엔신탁통치령 베라우 공화국 주민들이 베라우가 ‘저개발’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미국이 ‘경제기반의 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워싱턴에 있는 연방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베라우를 관할하고 있는 워싱턴 정부 내무부를 고발하면서 농어업, 통신 시설 등의 개발을 요구한 것이었다.

‘미국의 앞뜰’이라고 하는 중남미의 경제나 사회 또는 정치를 보면 미국 지배 하의 중남미도 동유럽 여러 나라와 같은 상태 또는 그 이하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나라들은 소련체국내의 소수민족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군사적 위협 아래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56년 쿠바는 미국의 지배 하에서 이탈하는 결단

을 하였지만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보고 그 운명의 앞날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는 반미주의의 세계최대의 온상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미소의 강대국 지배란 무엇이었는가, 냉전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경제적 번영이 없는 이데올로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등의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남북에 대하여 이데올로기의 관사가 붙은 민족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는 한국 국내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북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4월 6일에 명지대 강경대군이 전투경찰에 의하여 살해된 이래 소위 공안통치라는 것에 따라서 치사정국, 시위정국이라는 것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의 분신자살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치밀어 오는 비애 때문에 이 정국에 대한 해석도 어려울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지적해 주고 싶다. 전경이라는 것은 징병으로 입대한 젊은 군인으로 편성된 부대다. 사복 전경은 ‘백골단’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들은 군인으로서 적을 섬멸하는 훈련을 받아왔다. 그리고 전경이 되고 나서는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은 ‘용공분자’, ‘이 사회의 암적 존재’이므로 제거되어야 하는 자들이라고 교육을 받아왔다.

원래 경찰이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고, 시민의 자유의사의 표시로서의 데모는 경찰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게, 또한 다른 세력과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도 다른 시민들도 그 생명과 재산이

경찰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비록 의견을 달리 하여도 적이 아니라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시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경찰이 군인화되어 왔다. 시위를 벌이는 젊은이들과 경찰은 적대관계에 있었다. 전경은 최루탄을 퍼부으면서 젊은이들을 공격하고, 만약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이 전경에게 맞아 타오르기라도 하면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그것은 바로 내전의 상황이라고 해야 한다. 권력측은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대자, 비판하는 자는 모두 섬멸해야 할 적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1980년 5월의 광주사건이고, 여기에서는 데모하는 시민이 대량으로 학살되었다.

젊은 마르크스의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헤겔 법철학 비판 서설」에 있어서 그는 “독일의 제정부는 우리가 그 장점에 참여할 수 없는 근대국가 세계의 문명적 결함을, 우리가 넉넉하게 향유하고 있는 구체제의 야만적인 결함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 있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지금 한국정부는 낡은 전통적인 야만적 결함과 현대의 문명적 결함을 하나로 해서 국민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경대군의 죽음이 일어났고, 젊은이들의 분신자살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그같은 시가전에서 인명의 살상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전환기를 매듭짓고 새로운 질서를 이루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 가슴아프다”라고 하면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고 국민 누구나가 그러한 것을 예상하고 두려워했던 것이다.

권력측의 그러한 현실인식, 정치의식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경질되었지만 새로운 내무부장관이 역시 보안사령부와 안기부를 거친 군 출신, 경상도 출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의 밑에서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쟁터 같은 적대관계에 따르는 치사정국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보여진다.

적과 아군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어떻게 자유, 정의, 인간의 존엄, 민주주의 등이 가능하겠는가? 바른 의미의 민족주의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탈이데올로기, 탈적대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한 민족주의도 그 존립의 마당을 잊어버린다. 민족주의가 정치적 리얼리즘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좀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에 있어서의 두 가지 결정적인 역사를 들어보고 싶다.

## II. 동유럽 혁명과 걸프 전쟁

나는 우리 한국민족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실패를 거듭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사를 반성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가장 이성적인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현대사에 있어서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싶다.

먼저 동유럽 혁명과 냉전체제의 붕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유럽 대륙에 있어서의 최후의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냉전이 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리하여 뜨거운 전쟁, 열전은 세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데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근대라는 전쟁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가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에 있어서는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정복하려고 하였다. 그것을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라고 했고, 약한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만 하였다. 부국강병을 하여 힘이 생기면 전전의 일본처럼 침략국가의 대열에 참가하였다. 이와같은 역사 속에서 민족주의가 제창되었다.

민족주의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19세기 초에 유럽에서 일어나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성행하게 된 민족의 독립을 제일가는 목표로 삼는 사상 또는 운동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향으로 나뉜다.

첫째는, 19세기 후반의 독일이나 이태리에서 볼 수 있는 분열된 민족을 통일하고 독립시키려는 이른바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다. 둘째는, 일본통치하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처럼 이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독립을 구한 반제국주의의 저항적 민족주이다.

셋째는, 국가를 통일하고 밖으로부터의 위협을 배제하고 나서 제국주의적 침략에 가담한 독일, 이태리 또는 일본과 같은 후진 제국주의 여러 나라의 경우다. 그것은 군국주의적 민족주의로서 전제주의, 초국가주의의 길을 치달렸다. 국가나 민족에다 지상의 가치를 두고 그 권위와 의사에 절대우위를 부여하였다. 거기에서 정권은, 즉 국가였다.

어쨌든 민족주의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적대관계에 있었던 국가 시대의 산물이다. 그것은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한 운동이고 이데올로기였다. 그것은 약육강식의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단체 신채호 선생도 「조선상고사」(1931년) 첫 머리에 있어서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라고 민족주의의 사관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러한 근대적인 적대관계는 드디어 냉전에 의하여 세계적인 규모를 확대하였다. 각 국가마다 미소 어느 진영엔가 소속되어야 한다고 강요당했다. 이 냉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었으며 그것은 냉전이 가장 침예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분열은 한층 강화되었다. 남북이 함께 이데올로기적인 관사가 붙은 민족주의를 심하게 주창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지금까지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민족주의 이념을 재발견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 앞에서 말한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에 수록되어 있는 제 2 편 “생에 대한 역사의 공죄” 속에서 전개된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중요한 시사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니체는 “역사의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잉해서는 안된다. 역사의 망각도 필요하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문제는 오늘의 삶에 있다. 역사의식도, 역사의 망각도 오늘의 삶을 위해서고, 오늘의 삶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라고 하여야 한다. 역사의 망각이란 용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하려고 하는 민족주의도 전후 수십년 사이에 새로운 현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계산’에 넣는 정치적 리얼리즘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깊은 현실감각을 수반해야 한다. 거기에는 역사의식과 더불어 역사의 망각이 필요할 것이다. 역사의식이 과잉하면 행동이 억제된다. 무거운 과거를 짊어지고는 전진할 수 없다. 아픔이 있어도 잊어버리는 것, 용서한다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또는 그것을 망각하고 용서할 수 있는 세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서도 지나간 역사를 역사의식을 가지고 반성도 해야 한다.

왜 우리는 근대사적인 적대관계를 그처럼 우리 민족 속에 내재화시켰는가? 비록 그것이 밖에서부터 강요되어도 왜 그것을 최소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최대의 것으로 하였는가? 이데올로기라는 수단을 절대화시키고 목적으로 화한 것이 아닌가?

다음에 제기하여야 하는 현대사적인 사건은 걸프 전쟁에 있어서 소위 다국적군 또는 미국이 승리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전쟁은 패배한 측만 아니라 승리한 측에도 손상을 주는 법이다. 냉전도 전쟁인 이상 마찬가지고, 걸프 전쟁에서도 그렇다. 기원전 5세기 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있어서

승리한 스파르타도, 17세기 초 한반도에 있어서 임진왜란에 승리한 명나라도,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영국, 소련도 그랬다. 미국도 승리하였다고는 하여도 상처투성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프 전쟁 후에 있어서의 미국의 세계에 대한 일국 지배체제가 군사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들 말한다. 이 환상이 도리어 세계에 많은 불행을 가져다 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걸프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하이 테크놀로지 전쟁 6주간, 지상전투 개시부터 100시간으로 걸프 전쟁은 끝났다. 이라크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구입한 무기류는 160억 5,000만불 또는 296억불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도 하이 테크놀로지의 무기 앞에 이라크는 전혀 무력하였다. 대국들은 이라크에 무기를 팔아놓고는 대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자 저항하는 이라크를 전멸시켰다.

그렇다면 이라크의 민족주의 또는 범아랍민족주의란 어떤 것이겠는가? 그것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했었다. 실제로는 빙국강병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외신상담하면서 국가 또는 권력자에 귀일하는 강력한 군사국가 또는 병영국가를 만든 것이었다. 민족주의를 내걸고 반제국주의 투쟁을 해온 것이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와같은 민족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상실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패배주의자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민족해방전쟁은 종언을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1973년의 베트남에서의 승리가 그러한 민족주의적 투쟁의 최후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그후 18년간의 역사가 그러한 전쟁과 승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반제국주의 투쟁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반외세를 내걸고 민족적 독립과 번영을 찾는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략과 전술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전쟁에 패배

했을 때는 언제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제부터의 민족주의 투쟁은 군사적 강국을 만들어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할는지 모른다. 그것은 국민의 민주적인 양식과 행동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개방적인 사회가 요구되고 자유주의가 필요해진다. 이데올로기의 강압이 없는 부드러운 민족주의, 강병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주적인 민족주의가 요구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강병적 민족주의에 의하여 분열 대립하여 온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러한 부드러운 민족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화 투쟁은 참으로 의미깊은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강한 통일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냉전하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냉전시대를 넘어선 민족주의다.

이것은 전쟁이 없는, 국민탄압이 없는 평화적인 민족주의다. 그것은 ‘민주체제와 인권에 대한 공동의 자세’라는 보편적인 가치 위에 서있는 민족주의다. 이것을 ‘인간의 얼굴을 한 민족주의’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이미 발트 3국이나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부터 한반도의 상황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1945년에 해방될 때, 한국민족의 정치적 역량은 거의 무에 가까웠으므로 우리 민족은 냉전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이 성장한 민족적 역량에 의하여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극복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민족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인 실천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 마르크스의 말을 빌린다면 어떻게 이론을 ‘물질적 힘’으로 화해가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 Ⅲ. ‘인간의 얼굴을 한 민족주의’의 실천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보고 싶다. 낡은 사고를 해체할 때 우리의 사고는 생산적이게 된다. 근대의 대립과 전쟁의 시대에는 여러 국가가 각기 그 국가의 목표나 목적을 제시하였다. 독일은 순수한 게르만 민족의 피 위에 선 독일지상의 국가를 내걸고, 소련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를 내세운 것처럼 민족주의는 그것이 이상으로 하는 국가상을 그렸다. 그러나 이상적 국가상에는 배제의 원리가 작용하였으며, 언제나 그것은 폭력적이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있어서 한국내외의 민족주의자들은 그 노선에 있어서 대립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1945년 이후의 해방된 조국에 있어서는 개인적 당파적 이해관계까지 겹쳐져 노선의 대립은 한층 격렬하였다. 나는 젊었을 때 그많은 고난을 견디어 온 훌륭한 애국자들이 왜 저처럼 차마 볼 수 없을 만치 대립하고 싸우는가 몇 번이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였다.

그것에 대답해 준 것이 한나 아렌트였다. 억압되었을 때 생기는 동지애나 휴머니티 같은 것이 해방되고 자유스러워졌을 때 수포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유의 날에는 동지애적인 ‘우의’(fraternity)보다는 생각을 달리하고 이해를 달리하여도 협력할 수 있는 ‘우정’(friendship)이 필요하다고 아렌트는 생각하였다. 억압하에서는 ‘스트렌그스’(strength)의 힘은 생겨도 ‘파우어’(power)의 힘은 생겨나지 않는다. ‘우의’는 열려진 사회가 결여돼 있는 일종의 ‘무세계’, ‘비문명적인’ 상황 속에서 생기는 것이라고까지 그는 말했다.

지금 분열 대립되어 있는 민족주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정치 심리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정’이 자라지 못한

곳에서 민주적 민족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철저한 독선, 타자배제의 민족주의 하에서 자란 악유산을 우리 모두가 이어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인간이 아니라 언제나 전투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반성 위에 서서 ‘인간의 얼굴을 한 민족주의’는 지금까지와 같은 목적의지에 있어서의 충돌을 극복하고 행동의지의 일치에 의하여 민족주의에 있어서의 합의를 이룩해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계획이 그대로 달성된 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의 동유럽 혁명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느낌이 아닐까? 후세인이나 부시 대통령의 경우도 그럴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요인이 나타나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결코 실험실이나 실험관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예수의 십자가상의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눅 23:34)를 인용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살해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역사는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다. 렌닌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결국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서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의 일치를 구하는 것을 그만두자는 것이다. 이 제안에 저항을 느낀다면 적어도 그것을 당분간만이라도 괄호 안에 넣어두자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오늘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선해서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이 지금 참다운 민족주의가 택할 수 있을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치적 목표를 내걸고 지금도 전통하고 있는 민족의 아픔을 언제까지 방치해 두자는 것인가? 45년 이상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과연 정치적 목표가 실현되

었다는 것인가? 도리어 그 목표는 더욱 멀어지고 민족 사이의 갈등은 한층 증대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이 아픔은 이제는 끝없는 한으로 응결되어 폭발 전야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의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라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지금의 이 민족의 아픔을 고치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날이 온다. 기독교적인 역사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찾아오는 것,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를린의 벽이 무너진 것처럼, 인간이 힘을 다하여 그 것에 저항하여도 그것은 오고야 마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인간의 얼굴을 한 민족주의’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행동 또는 행동의지에 있어서 우리는 민족주의의 일치를 구해야 한다. 여기에 기독교의 본래적 자세는 민족주의와 일치하게 된다. 오늘의 한국에 있어서의 교회는 남북의 정치세력에게 이러한 민족주의를 호소해 가야 한다. 이처럼 한국의 교회, 남북의 기독인은 역사에 참여하고, 그 고통을 견디어 내야 한다.

최대의 혁명은 우리의 의식의 변화에 있다. 냉전에서 분열된 민족주의에서 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로 향하고 분열된 민족의 힘을 하나로 해야 된다. ‘인간의 얼굴을 한 민족주의’에로 우리 모두의 의식을 변화 시킬 수 있다면 한반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서 구해가지 않으면 안된다.

□

## 통일신학 ; 조국통일과 하나님 나라

박순경

서울 전 이화여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 I. 시작하는 말

카톨릭 교회이든 개신교든 한국 교회가 민족통일 혹은 조국통일의 과업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 전반이 민족분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며, 기독교의 복음선포 · 선교 · 사역이 민족사와 민족 문제에 직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민족사 – 세계사 안에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신학은 민족분단을 넘어서서 통일된 새로운 민족사회 건설을 성서적 근거에서 신학적으로 정초하려는 특수신학적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말적 궁극적 구원에로의 민족사 – 세계사의 길을 밝히려는 보편신학적 과제를 가진다.

## II. 민족분단에 대한 기독교의 책임

1945년 이래의 민족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자 연합국, 특히 미국에 의해서 결과되었으나, 분단의 예비과정은 마르크스 – 엥겔스의 기독교 비판과 이에 반립한 서양세계 · 기독교 문명에서 시작되었으며, 저들의 비판은 전 역사적 기독교를 문제화시킨 것이다. 기독교는 본질상 서양세계와 동일시될 수 없으나 서양문명의 종교적 · 정신적 지주로서 작용해 왔으며,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과 기독교의 유착관계도 그러한 서양 · 기독교 유착관계의 일환이다.

마르크스주의 역사 · 사회비판은 근대 자본주의 발달과 체제에 집중되었으며, 기독교는 그 체제의 옹호 이데올로기로서 비판될 수밖에 없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기독교적 신관념이나 신앙이 본질적으로 이념의 차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종교적 이념이 사회체제에 있어서의 특권층 · 지배층을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데올로기라고 규정된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상 서양문명의 이념과 체제 이데올로기와 동일화될 수 없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구원과 같은 신앙내용이 서양문명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내용이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러시아혁명 이래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본래 마르크스 – 엥겔스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기독교와 이것을 근간으로 한 서양 관념론 전통에 대한 비판이다(「독일 이데올로기」, 1845/46).

20세기의 신학은 기독교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역설하지만, 지배

자 편에 서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기독교는 이데올로기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주의적 무신론은 그러한 이데올로기 비판의 필연적 귀결이다. 역사적으로 작용하는 이데올로기 이상의 하나님 실재란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관심 밖의 일, 즉 추상적 형이상학적 이념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한 기독교 비판에 직면해서 기독교는 대체로 반공으로서 반혁명적 지배자, 자본주의 체제의 편에 서서 세계분단과 민족분단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이바지해 왔다.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은 신은 관념 혹은 이데올로기 이외의 다른 것이다. 때문에 이 무신론을 극복하는 길은 반공이 아닌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기독교를 극복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물질론은 ‘유물론’으로 번역되어서는 안된다. ‘유물론’이라는 말은 물질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또 인간역사를 궁극적으로 결정한다는 결정론으로 귀착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마르크스 – 엥겔스의 지론도 아니고 관심사도 아니다. 우주의 근원이 물질이니,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형이상학적 사상에 마르크스 – 엥겔스가 관심한 것이 아니다. 현실세계에 그들의 생각이 집중되었다.

그들의 역사적 물질론은 자연물질, 경제구조가 역사변혁의 기초동력이라는 것을 제창한 철학이며, 그것은 종래의 서양 기독교의 정신우월주의(Spiritualism) 혹은 관념적 세계관, 혹은 이데올로기적 정신우월주의에 반립해서 제창된 것이다.

기독교적 영성개념은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신앙에 뿌리박고 있음에 틀림없으나, 자연물질 · 생산경제구조와 분배에 있어서의 불의를 외면하고 신의 이름 아래서 이 체제를 옹호하면서 영적인 삶과 구원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작용했을 때에 이에 반립하여 마르크스 – 엥겔스의 혁명론은 물질론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무신론·물질론은 기독교적 관념론 전통에 있어서 도외시되어 온 물질세계의 정의로운 새 질서 창출을 위한 철학이다. 성서에 의하면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자연물질·육체세계의 창조자이고, 이 물질세계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영이다. 그러므로 그의 의는 물질·경제구조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그러한 성서적 신앙은 저 무신론·물질론적 기독교비판에 직면해서 이것을 성서적 의미에서 수용·재해석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잘못된 영성주의를 넘어서서 마르크스주의 물질론의 핵심을 수용함으로써 무신론은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서양 기독교는 저 무신론·물질론에 반립하여 자본주의적 세계 팽창세력과의 유착관계에서 세계으로 전파되었으며, 바로 그러한 기독교 선교가 한국 교회의 찬미·반공의 모체이며, 이것이 1945년 아래의 민족분단을 예비했고 밑받침해왔다.

민족분단의 세계정치적 발단은 일본의 식민주의 통치에서 비롯되었으며, 1945년 아래의 분단은 미·소를 비롯한 세계의 지배세력들에 의해서 결과된 것이나, 미국의 팽창주의와 반공 봉쇄정책과 남한의 반공 정권들에 의해서 견지되어 왔으며, 한국 기독교는 이에 편승해 왔다. 민족적 통일의지와 운동은 45년 아래 중단되지 않았고, 1948년 제주도 4·3사건, 여수·순천에서의 무장봉기, 6·25 전쟁과 같은 엄청난 유혈의 역사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지는 1960년 4·19 혁명과 더불어 되살아났으나 다시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좌절되면서도 명맥을 유지해 왔다. 분단에서 빚어진 그 모든 유혈사에 있어서 기독교는 반공세력들에 편승해 있었으므로 그러한 역사에 대한 자체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민족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존재의 이유를 사실상 상실했던 것이다.

80년 광주항쟁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유혈진압을 겪은 후에 통일논

의와 운동은 서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기독교계 인사들과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통일논의도 공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자체의 역사적 오류와 민족적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철저한 반성과 회개를 수행하지 않고는 한국 기독교가 민족사를 변혁하고 민족에 봉사할 수 없다. 통일의 과업이 민족과 민족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지향하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와 신학은 자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 III. 복음선포와 조국통일

초대교회에 있어서 선교와 사역은 바로 복음선포와 동일한 형식이었다. 복음선포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그의 죽으심과 부활사건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종말적 구원을 세계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행위이며, 이것이 사역·목회이다. 복음선포는 언제 어디서나 주어져 있는 현재의 세계상황에 직결되어서 행하여져야 하고 들려져야 한다. 예수는 긴박하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세계의 철저한 회개를 요청했으니(막 1:15; 마 4:17 참조), 하나님 나라는 종말적 새 나라를 의미하므로 여기에서 요청되는 회개는 철저한 세계변혁에 해당되는 행위이다.

그 나라는 사후(死後)에 들어갈 어떤 극락세계와 같은 관념적 환상이 아니라 땅 위에, 즉 세계역사에 도래할 새 하늘, 새 땅, 새 인간의 탄생을 암시한다. 그 나라의 도래는 예컨대 로마제국에 대한 어떤 부분적·상대적 반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종말적 부정을 함축하고 있으며, 동시에 로마제국을 넘어서 세계의 모든 통치권을 창조자 하나님에게로 돌리라는 종말적 요청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의로운 주재권을 의미하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계의 불의한 통치자들의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청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도래는 언제 어디서나 세계와 역사 전체의 변혁의 궁극적 동력이 된다. 그리하여 그 나라를 선포한 예수는 세계의 기존세력들에게 배척받고 십자가에 처형될 수밖에 없었다.

그 나라의 도래에 상응하는 예수의 행태는 종교적으로 규정받던 죄인, 세리나 사회정치적으로 가난하고 권력 없는 민중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실천·확증하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 아래 세운다. 철저한 종말적 회개를 요청하는 예수는 그와같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선포·실천한다. 예수의 회개요청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로 이끄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없이는 누구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그의 아래서 죄된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 삶을 살게 하는, 피조물의 삶의 원천인 그의 사랑이다. 세계의 절대적인 종말을 결정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회개요청은 그와같이 죄된 인간의 역사를 새로운 빛 아래서 존속하게 한다. 이 빛을 갈구하는 자는 사로잡힌 자, 눈먼 자, 억압받는 자, 민중이니 하나님 나라는 이들의 해방의 빛이다(눅 4:18). 그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는 세계의 종교·정치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에게 배척받을 수밖에 없고, 그는 결국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십자가 사건에서 이들의 지배세력은 불의한 사망의 권세라는 심판이 내려진다. 예수의 부활은 그러한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하나님의 승리요, 새 인간의 탄생을 대표한다. 새 나라, 부활의 새 인간의 도래는 모든 인간과 전 세계의 종말적 구원의 미래이면서 역사적 상대성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 놀린 자, 민중의 해방의 능력으로서 선포된다. 종말적 하나님 나라는 역사를 존속하게 하고 종말적 구원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래서 19, 20세기의 유럽의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 선

포와 동시에 가난한 자, 노동자의 해방과 사회·경제변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스위스 종교 사회주의자들(H. Kutter, L. Ragaz, K. Barth)은 ‘하나님의 혁명’을 역설했다.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기도문은 새 땅의 질서, 즉 자연물질·육체의 경제적 삶 전체의 새 질서, 그의 자유와 의와 사랑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복음선포는 마르크스주의적 물질·역사변혁론을 성서적 근거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그 무신론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은가. 교회가 물질구조에서의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이 정의를 증거한다는 말인가? 불의한 물질구조의 변혁의 실천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 인간의 도래에로 행진할 수 없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서의 ‘야훼의 백성’, 즉 하나님과의 계약의 백성이라는 신앙을 전제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 계약의 백성, 교회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새 인간의 종말적 미래의 역사적 표징이다. 즉 교회는 새 하늘, 새 땅, 새 인간의 궁극적 미래의 역사 내적 현실이다. 역사적 표징이라는 것은 교회공동체가 새 나라, 새 땅, 새 인간의 완전한 현실이 아니라 그 실현 혹은 도래를 향하여 세계역사와 더불어 행진하는 상대적 현실이라는 뜻이다. 이 역사적 행진이 바로 변혁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그 종말적 미래는 역사의 변혁없이 도래하지 않는다. 변혁의 과정은 교회와 세계가 자유한 결단에 의해서 그 종말적 미래의 도래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지도는 곧 그 나라의 도래에 참여하는 역사변혁의 실천행위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계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의 변혁과정의 선두에 서서 역사로 하여금 그 나라의 도래에로 지향하도록 증언하는 예언자이다.

새 하늘, 새 땅, 새 인간의 표징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모든 민족국가들을 초월하며 역사의 최전방에 서있는 역사변혁의 예언자적 파수꾼이다.

동시에 역사 내적 현실로서의 교회는 모든 민족국가들의 삶과 운명에 함께 하고, 이들에게 이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미래를 증언하고 지시해야 한다. 교회는 초민족이며 동시에 교회가 처해 있는 특수민족과의 불가분적 유대성을 가지며, 민족교회 혹은 지역교회로서의 성격과 특수과제를 가지게 된다. 예컨대 한국 교회는 민족·조국통일의 한 특수과제에 동참해야 한다.

새 하늘, 새 땅, 새 인간의 도래의 빛 아래 있는 교회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같은 불의한 정치적 지배세력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하며, 약소민족을 침탈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으로서의 경제구조를 비판하고 변혁하는 계기를 세계에 열어놓아야 한다.

교회가 종말적 새 나라를 역사 밖의 추상적 하늘나라로 상상하고 선포한다면 그 나라는 역사변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교회는 주어져 있는 기존체제와 동화되어 그 체제이데올로기로 둔갑하게 된다. 예컨대 중세기 서양교회가 봉건지배 체제를 옹호한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했고, 현대의 세계 교회는 대체로 자본주의 체제와 유착되어 반공이데올로기를 표방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기독교는 복음의 종말론적 성격, 즉 세계와 인간의 철저한 변화를 요청하는 진리를 상실한 것이다.

교회는 새 나라, 새 인간의 도래를 역사의 최전방에서 선포하면서 동시에 역사의 변혁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새 나라, 새 인간은 변혁없이 성취되지 않는다. 변혁의 필연성은 세계질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데 역사의 변혁운동의 동력은,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오늘의 역사적 자각에 의하면 정치·경제적으로 억압당하는 민족·민

중에 의해서 대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역사의 과정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역사의 밑바닥에서부터 부단히 제기되는 변혁의 소리를 듣고 이 동력을 선택하고 이에 동참함으로써 새 나라, 새 인간의 도래를 선포해야 한다. 물론 새 나라, 새 인간의 도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이며 역사의 변혁운동을 능가하고 초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래는 역사로부터 철저한 회개와 응답을 요청한다.

세계의 정치·경제질서에 있어서 지배권력과 부를 소유한 자는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없으니, 이는 기득권과 체제옹호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의 변혁을 대변하는 민족과 가난한 민중도 권력자와 부유한 자의 패권주의를 반복 연장시킬 수 있다. 역사의 최전방에 선 교회는 바로 역사의 그러한 오류를 지켜보는 파수꾼이다.

교회는 역사의 죄악과 오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회개를 요청하면서 역사변혁의 동력으로 하여금 새 나라, 새 인간의 도래에로 지향하도록 그래서 끝내 역사의 의미를 성취하도록 해야 하는 예언자적 파수꾼이다.

우리의 민족·조국통일은 역사의 변혁운동의 일환이다. 통일은 온 민족, 민족사의 명맥과 의미를 결정하는 과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놓는 과제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통일운동 참여는 온 민족사에 참여하는 일이다. 분단극복과 통일운동에의 참여없이 교회는 민족의 교회일 수 없다. 반공의식을 청산하지 못한 교회는 통일운동 참여도에 있어서 아직도 저조하고 통일의 방향설정에 있어서도 오락가락하고, 현재 통일신학 작업도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교회는 우선 복음, 즉 새 나라, 새 인간의 도래의 의미를 새롭게 듣고 새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자체를 갱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는 민족·민족사의 종말적 미래를 증언하지 못하고, 따라서 민족·

민족사와 유리된 채 새 나라, 새 인간의 도래의 역사적 표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변질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회가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계 인사들이 통일운동의 선봉에서서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가 새롭게 탄생할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 IV. 조국통일의 구원사적 의의

‘구원사’(Heilsgeschichte, salvation history)라는 말은 19세기 유럽의 구원사신학의 주요개념이다. 그것은 주로 성서 전체를 구원의 역사로 파악하려는 시도로서 특징지어져 있다. 20세기 신학에서는 주로 쿨만(O. Cullmann)이 19세기 구원사신학과는 좀 다르게 구원사신학을 대변하고 있으며, 남미의 해방신학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구원사신학을 수용하고 있다.

불트만(R. Bullmann)의 종말론은 구원사신학을 비판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적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는 모든 역사의 종말적 시점에서 파악되며 따라서 구약 – 신약 – 교회 – 세계사라는 쿨만의 연대기적 역사 도식에 의해서 파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종말적 하나님 나라, 새 인간성은 그러한 연대기 속에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의 종말로서 새로운 가능성으로서만 파악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종말적 새 나라, 새 인간은 서양기독교사, 민족사, 세계사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불트만은 새 나라, 새 인간성의 도래가 세계사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고, 그 도래를 다만 개인의 신앙결단과 실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는 종말적 순간으로서 파악한다. 여기서는 새 나라, 새 인간의 도래가 역사변혁의 동력으로 파악

되어 있지 않다. 쿨만에게서도 그렇게 파악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는 그 종말적 도래를 세계사에 직결시키려고 시도하면서 구원사신학의 타당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서양 기독사 위주의 구원사적 도식을 넘어서서 그것을 종말적 새 나라, 새 인간의 도래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피억압 민족·민중의 현실과 역사변혁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종말적 도래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해야 하며, 여기에서 민족사·세계사의 의미가 새롭게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사’라는 말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역사에 오신다”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성서적 신앙을 나타낸다. 그가 역사에 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관련해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민족·민중의 현실에 오신다고 선포되어야 한다. 그가 역사에 오신다는 선포가 바로 그의 새 나라, 새 인간의 도래를 증언하는 일이다. 그 선포가 어느 때에 일어나든, 우리는 그 순간에 온 민족, 민족사를 종말적 구원의 빛에서 파악할 수 있다.

바로 이 순간에 민족, 민족사는 구원의 빛 아래서 파악되고 구원사적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사건, 새 나라·새 인간 도래의 사건이 모든 역사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민족·민중의 현실에 오신다는 것은 이 현실을 그의 종말적 구원의 빛에서 규정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민족해방과 조국통일, 민중해방과 평등한 생존권을 위한 현재의 민족·민중운동이 구원사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우리의 분단상황은 19세기 이래의 서양 자본주의적 세계팽창과 지배, 일본 침략세력, 미·소의 대립 냉전구조, 민족내부의 반공·친미 정권들에 의해서 지탱되어 왔다. 교회가 이러한 반민족적 세력들과의 유착관계에서부터 해방되는 일이 곧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일이다. 민

족·조국통일은 민족·민중과 더불어 교회가 성취해야 할, 민족사의 가장 큰 과제이다.

통일은 첫째로, 민족·민족사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과제요, 미·일과 같은 세계의 지배세력들로부터의 민족해방의 확립이니, 민족의 자주성 혹은 주체성의 실현이다. 둘째로, 통일은 불평등한 사회 경제 구조의 극복과 피억압 민중의 해방과 평등한 생존권 확립, 즉 새로운 통일된 민족사회 창출이라는 과제를 가진다. 민족해방, 자주성 확립은 민중해방, 생존권 확립의 민족사적 모체이며, 후자는 전자의 목표이다. 오늘의 민주화, 통일운동은 통일의 그러한 이중적 과제의 불가분성을 요청하는 민족, 민중의 소리이다.

민중해방과 평등한 생존권 확립을 고려하지 않는 통일논의란 민족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놓을 수 없는, 역사의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이며, 남한 자본주의 체제에로의 북한 흡수통일을 함축하는 것이다. 사실상 남한당국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도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통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분단상황에서 야기된 모든 유혈, 제주도 4·3 사건, 6·25전쟁, 광주항쟁에서 흘려진 유혈의 의의는 무효화되어 버린다. 민족·민중의 해방을 위한 항일 유혈사와 분단의 유혈사는 세계의 지배세력들의 죄악과 민족사 내부의 죄악 때문에 초래된 것이며, 따라서 세계와 민족의 변혁의 필요성을 확증해 주는 역사이다. 현대사에 있어서 사회주의 혁명이 그러한 변혁의 필요성을 대변하지 않았던가.

남한에로의 북한의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근·현대의 민족, 민중의 유혈사 희생제단을 무효화시키는 일이며, 미·일과 같은 자본주의 열강들과 민족독점자본가들의 지배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민족잠재력을 상실하는 일이다. 자본주의 발달은 어디까지 이를 것인지 예상할 수는 없으나 인류평등을 위해 자체의 견제세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북한에로의 남한 흡수통일은 가능한가?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세계상황이다.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남북 7·4 남북공동성명은 민족동질성이라는 근거에서 어느 한편의 흡수통일을 배제하는 공존의 길, 자본주의·사회주의 체제들의 협동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어떻게 양 체제들이 협동하여 제3의 새로운 민족 국가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민족의 슬기와 창의력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는 민족들의 평등, 인류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규정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자체를 변혁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그러한 변혁과정의 동력으로서 새로운 민족·세계질서 창출의 이념적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동유럽의 변화에 있어서 현실 사회주의권이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통일되었다고 해서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이 몰락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권이 서양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되어 버린다면, 역사는 그동안 엄청난 희생대가를 치루고 무의미하게 다시 퇴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역사의 새로운 미래를 상실해 버리게 된다. 독일은 연방제 통일의 길을 선택했어야 했다.

그러나 독일의 사회주의도 사라지지 않았다. 사회주의권은 자체의 관료체제의 민주주의적 개혁, 냉전 군비체제 해소와 경제개혁과 기술개발을 필요로 했던 것 같다. 그러한 개혁의 필요성은 사회주의권 자체의 한계와 결함에 의해서 야기되었겠지만, 이 한계와 결함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서양 정치·경제·군사적 막강한 압력과 관계된 상대적 실패이며, 개혁의 필요성은 이러한 세계판도에서 야기된 것이다. 그러한 판도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양 진영들의 교류와 경제협력은 역사변혁의 필요성과 새로운 미래의 방향을 상실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오늘의 세계역사의 새로운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은 1민족 1국가 체제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세계역사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민족의 그러한 역할은 종전의 서양 자본주의적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를 극복한 것이다.

세계역사의 변혁의 단위로서의 민족개념은 피억압 민족경험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민족사·세계사의 변혁의 주체성을 함축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민족개념과 역할은 하나님 나라·새 인간의 도래에 비추어 언제나 새롭게 규정되면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족사·세계사는 구원사적 의의를 획득하게 되리라.□

## 민족주의의 재발견

이 만 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역사학 교수

분단 46년째를 맞아 우리는 금수강산으로 불려졌던 조국이 제 2차 세계대전과 냉전체제의 마지막 산물로서 아직도 분단국가로 남아 있어야 하는 뼈아픈 현실을 절감한다. 분단의 원인이 세계사적 도구와 관련된 외세적인 것이든, 민족 내부의 분열에 의한 내적인 것이든 분단 해소(통일)는 한반도와 온 세계에 흘어져 있는 7천만 겨레의 책임이다.

민족통일이 우리 세대의 지상과제로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분단현상을 통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국내외의 분단고착화 세력을 설득, 극복하는 한편 현재 뜨겁게 달아오른 통일열기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온 겨레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운동의 사상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남북의 기독교계 학자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민족주의가 새삼스럽게 거론되는 것은 한반도内外에 산재하고 있는 민족 구성원이 각자의 현실적인 미묘한 입장을 어떻게든 초월하여 최소한의 사상적 공감대나마 마련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민족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민족이라는 성원의식, 또는 국가의 힘과 자유 및 번영을 촉진하려는 열망”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민족주의는 분단현실에서 본다면 그 다양한 성격의 하나인 통합력으로 하여 분단극복, 통일성취의 대안적 사상으로 간주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를 우리의 현재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우리가 민족주의를 세계사적 관점과 한국의 근대 민족운동사의 관점에서 검토한 외에 통일운동에서의 관점을 특히 강조한 것은 이때문이다.

## I. 민족주의의 양면성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민족주의는 개성화와 통합화, 침략주의와 거기에 맞서는 반침략 이념의 양면적인 성격으로 나타났다. 근대 민족주의는 중세 카톨릭적 보편주의에서 벗어나 근대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추동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출발하였다. 이때 민족주의는 카톨릭적 보편성에 대해서는 민족적 개별성을 강조하는 한편, 같은 민족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봉건제후국가로 분리되어 있던 영주세력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통합하여 민족국가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카톨릭의 보편주의로부터 민족적 개별성을 추구하는 데는 지리적 지역성이나 인류학적 체질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언어, 전통, 습속 등 개성적 문화가 그 기반이 되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과 관련, 종교개혁 당시 루터(M. Luther)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 보급하여 독일어를 독일문자로 정착시켜 중세 라틴어적 보편질서로부터 독일어적 개성문화를 시도하였고, 따라서 독일 민족주의가 멀게는 이런 데서부터 싹텄다고 설명되는 것은 주목된다. 이

점은 뒷날 한국에서 기독교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 보급하여 한글을 민중의 문자로 정착시켜 가고 있을 때 마침 그 무렵 한국을 방문하여 이를 목격한 비숍(E. Bishop) 여사가 한글이 근대한국의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그러한 관점과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근대 민족주의는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개별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다. 서구에서 민족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를 지나면서부터이지만, 나폴레옹 전쟁으로 프랑스의 혁명이념이 유럽 각국에 전파되면서 자유·평등사상에 기초한 근대 민족국가는 문화·경제·정치적 통합을 통하여 성립되어 갔다. 여기서 민족주의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근대 민족국가는, 카톨릭의 보편적 질서에 대해서는 개별성을 의미하지만, 중세 봉건적인 제후국들을 통합하여 민족국가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통합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 뒤 서구가 산업화를 통해 축적한 힘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때 ‘국가의 힘과 번영을 촉진하려는 열망’으로 서의 민족주의는 서구의 침략을 정당화해 주는 사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적어도 2차대전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여진다.

그들은 초기에 사회진화론을 원용하여 그들의 약육강식적 힘의 논리와 식민지화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는 동양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일종의 화이론(華夷論)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19세기 말 백인들에 의한 기독교의 선교가 백인 우월주의와 일부 관련되고 있는 점이라 할 것이다.

서구의 민족주의는 1차대전 후에 국수주의적 선민의식과 결합하면서 무서운 광란성을 나타내었다. 독일·이탈리아 등지에서 보인 것처럼, 힘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가 그 개방성과 절제성을 상실했을 때 폭력마저 정당화했고, 그로인해 수많은 유대민족을 학살하고 세계를 살상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심지어는 일본의 경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민족주의’의 탈을 쓴 군국주의는 타민족에 대한 민족말살정책까지 뻔뻔스럽게 감행하고서도 조금도 그 과오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주의가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쇼비니즘적인 폐쇄성을 가지고 타락하게 되면, 세계사에 얼마나 부정적인 충격을 주게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약소국가들에 의하여 치열하게 고양된 민족주의는 서구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민족 에네르기를 내재적으로 동원하여 민족 독립을 쟁취하는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서구 제국주의 혹은 그 대행적 침략기능을 수행하던 침략세력에 투쟁하면서, 피침략·약소국가들은 그들의 민족독립을 위하여 민족주의 의식을 고양하였다. 그것은 역사·종교 등 문화 민족주의와 경제·정치 등 각 방면에 걸쳐 전개되고 있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들이 소위 반제운동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고양했던 것은 20세기 전반기, 바로 침략적인 강대국들이 광란성을 띤 ‘민족주의’로 세계를 비인간화시키고 있을 그때였다. 따라서 20세기 전반기까지의 민족주의는 한편으로는 침략주의적인 성격을 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침략주의에 맞서는 자주 독립주의의 성격을 띠는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여기서 광란성을 띤 군국주의적 ‘민족주의’를 굳이 민족주의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는 논외로 하겠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미·소 양대국에 의한 냉전체제로 돌입했다.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추구하였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자국 위주의 이데올로기를 넓은 의미의 민족주의로 볼 수 있겠으나, 종래에 보였던 동족의식과 동일문화를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는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은 다민족국가였고, 소련 또한 다민족국가에다 민족보다 계급을 우선시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사를 움켜쥐고 있던 미·소는 냉전체제 속에 있던 약

소국가들이 민족주의를 내세워 냉전구조를 이탈하는 것을 철저히 저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해방 후 충청했던 민족주의 의식이 6·25를 전후한 시기에 급속히 냉각되었고, 민족주의자가 남북 다같이 발붙일 곳을 잊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냉전체제 아래에서 전개된 민족주의는 그 체제의 벽을 깨뜨리려는 노력에서 확인된다. 1950년대에 태동된 인도·인도네시아 중심의 소위 비동맹회의는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적 세계구조에 대한 도전으로서 거기에 대항하려는 일종의 집단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말하자면, 미·소 중심의 세계적 보편주의에 저항하고 개별성을 추구하려는 민족주의였다.

제3세계의 민족주의적 경향은 제1세계의 영향력 때문에 그 자주성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했으나, 제1세계와의 관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때로는 제1세계의 경제·사회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하기도 하였으나, 끝내는 동서 냉전체제를 깨뜨리는 데에 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한반도가 한때 냉전체제의 극단적인 대결장으로서 기능했으면서도 자신의 주체성 회복에 눈뜨게 되는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 II. 한말 반봉건·반외세의 민족주의

한국의 근대 민족운동사에서 민족주의가 태동하는 것은 19세기 말이다. 이때 우리는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민족주의의 양상을 접하게 된다. 척사위정사상, 개화사상 및 민중사상이다. 앞의 두 흐름이 양반지배층의 것이라면 민중사상은 말 그대로 피지배층의 것이다.

척사위정사상은 조선후기의 화이사상의 맥을 잇는 것으로, 정학으로 인식한 성리학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시 물밀듯이 들어오는 위양의 사학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항로, 기정진, 김평묵을 거쳐 최익현에까지 이른 이 사상은, 1876년의 개항을 계기로 운동화하기 시작하여 1881년의 ‘영남 만인소운동’, 1882년의 임오군란을 거쳐 병오(1896)의 병과 정미(1907)의 병에 이르기까지 폐쇄적인 주체성을 과시하였다.

개화사상은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이 가졌던 근대지향성과 개방성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초기의 박규수, 오경석, 류대치, 이동인 등을 거쳐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등에 이르러서는 개화당이 형성되어 그 운동성이 제고되었다. 급진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1884)은 그 민중적 토대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급진개화파와는 달리 윤치호, 유길준 등의 온건개화파는 광무개혁과 독립협회운동, 애국계몽파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사상 자체의 자주성의 취약점에다가 국민혁명으로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개화운동의 한계성마저 노출하고 말았다.

민중사상은 19세기에 이르러 성장한 농민세력과 1860년대 초에 최제우에 의해 창도된 동학사상이 점진적으로 결합하여 이룩된 것으로 그 사상성보다는 운동성이 돋보인다. 1862년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37건의 소위 ‘민란’을 비롯하여 1910년에 이르기까지 56건이나 더 일어난 ‘민란’이 그 운동의 지속성을 보여 주었으며, 그중 반봉건·반외세의 가치를 높이 들고 봉건왕조를 뒤흔든 동학혁명과 그후의 홍학당, 활빈당의 의거는 그 사상성과 운동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말 민족주의의 세 흐름은 각각 반외세 혹은 반봉건을 핵심사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에 따라 운동성의 폭과 깊이가 결정되었다. 세 흐름을 반봉건·반외세 근대국가건설이라는, 당시의 민족적 과제와 관련시켜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도표화할 수 있다.

	반봉건	반외세	근대국가건설
위정척사	소극적	적극적, 그러나 구질서 수호에 역점	소극적
개화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민중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 그러나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경륜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한말의 이러한 민족주의는 주관적으로는 당시의 민족적 과제에 충실했으나, 세 흐름은 시대인식이나 운동방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심지어는 서로 반목·질시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의 침략 앞에서 그들의 역량을 연대·강화시키기는 커녕 서로 상쇄·소진시켜 버리고 말았다. 척사위정계와 민중계가 의병운동에서, 민중계와 개화계가 독립협회운동에서와 애국계몽운동에서 한 때 제휴한 것 외에는 이들 민족주의의 흐름은 적전(敵前)투쟁의 추태를 노정하여 반봉건·근대화와 반침략·근대자주국가설립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이때 나라가 망한 것은 침략세력인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의 폭력성에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민족주의 흐름들의 이러한 서로의 갈등이 나라멸망의 내재적인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II. 일제하 항일독립, 민주공화국 설립의 민족주의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은 일제하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것을 3·1 운동을 전후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보자.

3·1 운동은 그 원인론으로, 민족 자결주의와 러시아 10월 혁명의 영향 등 외인론이 거론되었으나, 오히려 일제강점 후의 수탈정책으로 생

존권마저 송두리째 빼앗긴 한국인의 항일민족의식에서 찾으려는 내인론이 자연스럽다. 종래의 3·1 운동의 이해에서는 점화단계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마치 몇몇 지도자들에 의한 것으로 안이하게 인식함으로써 민중의 역할이 배제되었고, 따라서 운동의 민족공동체적 인식 또한 차단된 것이 사실이다. 왕조 중심, 지배자 중심의 유교사관에서 민중이 배제되었듯이 지도자 중심의 역사인식도 민족사의 공동체적 인식을 차단시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3·1 운동에는 일제의 축소·조작된 통계에 의해서도 그해 6월까지 2백여만명이 참가하였다고 보고되었고 박은식에 의해서는 1년간 1천만명이 참가하였다고 할 정도로 거족적인 항일민족운동이었다. 여기에는 한말에 서로 갈등하던 민족주의의 세 흐름이 하나로 합류되었을 뿐 아니라 종교와 이념, 계급과 신분, 지역과 직업을 뛰어넘어 독립운동의 큰 흐름을 창출하였던 것이다. 목적은 민족독립이었다. 외세의 질곡을 타파하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 주도층이 영성하였지만 거족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3·1 운동에서 목표로 했던 민족독립은 운동과정에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고귀한 이념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해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헌법은 3·1 운동에서 확인된 그 이념을 도입하여 ‘민주공화제’를 제도적으로 장치했던 것이며, 3·1 운동 후에 평민 지도자가 다수 활약하게 되고 농민·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이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3·1 운동은 1915년경까지 계속되다가 중단된 국내의 의병(민족독립) 운동을 다시 활발하게 국외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성·블라디보스톡 및 상해에서의 임시정부운동은 물론 만주·노령 등지에서 항일무장운동이 격화되었고 국내에서는 무실역행운동 등이 3·1 운동을 계기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3·1 운동에서 보여진 거족성과 자주독립성은 그 전에 지지부진했던 항일독

립운동을 새롭게 발흥하게 만든 큰 분수령이었다.

3·1 운동 후 한성정부와 해삼위정부와 함께 1919년 4월에 상해에서 창건된 임시정부는 한때 민족적 여망을 받으며 독립운동의 구심적 역할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임정은 곧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졌고, 1930년대를 전후하여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와 1940년대에 연합전선의 형성과 광복군의 창설이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국권회복의 여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그것은 임정이 자리잡았던 위치와 독립운동 전략전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1920년대에서 1940년대에 이르는 기간은 3·1 운동을 통해 표출된 항일독립의지를 기초로 수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활약하였다. 그 하나하나에 대한 고찰은 전문가들에 의해 속속 연구·소개되고 있다. 우리는 당시의 흐름을, 이 주제와 관련, 민족주의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여기서 좌파는 사회(공산)주의 계열, 우파는 민족주의 계열을 의미하는데, 두 계열을 민족주의 선상에서 파악하려 한 것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일제하 민족운동의 일차적인 목표를 민족독립, 국권회복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위에 민주국가 건설이 강조되었다.

좌파계열의 민족주의는 국외에서 조직된 고려공산당(1921)의 한때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국권회복운동이나 민주공화국 건설의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920년대의 신간회운동과 1930년대 후반기의 ‘연합전선’에서 이 점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재만한인 조국 광복회’(1936)가 계급, 당파,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서 연합전선을 추구한 것이나 연안에서 조직(1941)된 ‘조선 독립동맹’이 민주공화국 건설을 표방한 데서도 짐작된다고 지적된다.

우파계열은 ‘민족혁명당’(1935)계를 계승한 ‘전국연합전선협회’(1939)가 내놓은 정치사회정책이나 임정의 ‘건국강령’(1941)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그 이념은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했는데, 민주공화제를 기본으로 하고 사회정책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한, 일종의 민주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민중을 우롱하는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며 무산자 독재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닌, 범한민족을 지반으로 하고 범한국민을 단위로 한 전민적 데모크라시”를 지향했으며,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유로 하는 국민생활권의 균등화”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식민지 말기의 우파 민족주의 계열이 도달한 민족독립운동의 최종목표인 민족국가 건설론의 결론으로, 당시 좌파의 주장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지적된다.

그러나 민족주의 좌·우파가 모두 민족독립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한때는 민주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독립운동의 최종적인 목표로 하였으며, 또 1920년대 아래 몇 차례 ‘연합전선’을 구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전략·전술면에서는 거의 연대하지 못했고, 거기마다 이러한 주장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거나 실천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항일민족운동이 민족통일국가로 열매맺지 못하고 조국은 외세의 강점에 의한 분단국가로 전락되고 말았다. 여기에서 한국 민족주의는 또 다른 시련의 고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 IV. 해방 후 통일지향의 민족주의

해방 후 한국 민족주의의 지향점은 민주적 민족국가를 건설하고 일제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며 외민족 지배하에서 무참히 파괴되었던 언어·역사·전통 등 민족문화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소 양군에 의한 국토의 분할점령은 우선 민족통일국가의 성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일제 잔재의 철저한 청산과 민족문화의 재건

또한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를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해방 후의 민족주의의 일차적 목표는 민주적인 통일국가 건설이었다.

해방정국에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은 분단고착을 통해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려는 외세와 친일세력 및 특정 계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몇차례에 걸친 좌우합작과 군정반대, 남북협상이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미소 공동회의가 열렸지만, 제2차대전 후에 재편성되기 시작한 국제질서로서의 냉전체제와 거기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려는 무리들에 의하여 민족통일국가 건설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사적 시각에서 볼 때, 민족주의는 개별성과 통합성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 해방 후 한국의 민족주의는 미·소가 세계질서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려 한 냉전구조를 깨뜨리는 일과 냉전구조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통합해야 할 사명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구조에 편승하여 민족·민주화 문제에 소극적인 세력이 존재하는 한이 사명은 실현될 수 없었다.

4·19 혁명은 그러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한국 민족주의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사의 한 분수령이다. 4·19로 동족이 정복의 대상에서 대화의 대상으로 되었고 무력통일론이 평화통일론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4·19를 계기로 민족사학이 부활되고 민족문화가 기지개를 켜게 되었으며, 민족경제론이 논란되기 시작한 것은 여기서 굳이 부언하지 않겠다.

그러나 4·19 이후의 여러 경험들은 민족통일의 문제가 그것만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국가 자주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민주적인 세력만이 국내외의 반통일세력을 극복할 수 있고, 자주적인 정권이라야 통일지향의 민주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분단고착을 획책하는 강대국에 대결하여 통일국가를 이룩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의 민족주의는 민족통일을 지상 목표로 하고 자주화(자주독립)와 민주화(민중해방)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세 과제는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본다. 자주·민주·통일은 뒷날 민족사에서 우리 세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주·민주·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민족의 ‘인간화’를 성취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한국 민족주의의 흐름을 시대별로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한말에는 반봉건·반외세의 이념이었고, 일제 강점하에서는 항일독립을 추진하는 한편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이념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해방 후에는 조국통일을 토대로 하여 민주화·자주화의 이상을 추구하는 이념으로 발전되어왔고 또 발전되어가야 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민족주의의 흐름은 대내적으로는 반봉건–민주공화제 국가건설–민주화의 이념으로, 대외적으로는 반외세–항일독립–자주화의 이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분단조국의 현상태에서 종래의 대내외적인 민족주의 이념의 실천을 담보하면서 해내외의 7천만 겨레의 민족사적 과제와 염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민족주의 이념의 핵심은 ‘민족통일’에 있음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V. 민족주의와 기독교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민족주의를 초월한 보편적 종교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신의 보편원리에 역행하는 듯한 민족주의를 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를 본다. 그

것은 민족주의가 기독교적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족주의가 기독교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일본 등의 폭력화된 민족주의가 보였던 광란성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인 인권과 자유·정의·평화를 짓밟았다. 그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인간을 살해했고, 전쟁의 폭력성을 정당화했으며, 다른 민족을 말살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조차 민족주의에 봉사해 주기를 강요했다. 독일과 일본의 어용화된 기독교단은 이 요구에 충실히 순응했다. 그 이후 민족주의는 물론 민족이란 단어조차 우상시되고 금기시되었다. 2차대전 이후 한동안 민족주의가 퇴색해진 것은 민족을 강조할 수 없었던 소련과 미국이 냉전 논리를 심화·확산시킨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지만, 그 못지않게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수백만을 학살한 2차대전 때의 저 만행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때문에 과거 독일과 일본이 보여준 ‘민족주의’는 반기독교적이었다고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기독교와 민족주의는 공존할 수 없으며, 기독교인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반민족주의 노선에 설 수밖에 없다.

민족지상을 부르짖으며 민족을 수단시하여 그 이름으로 갖은 만행을 저질렀던 저 ‘민족주의’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타기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민족은 중요한 가치와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한 물음이 주어질 수 있다. 즉 과거의 민족(지상)주의가 분명히 거부되어야 할 이념이었다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민족주의의 실체인 민족도 함께 거부해야 할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것이지만,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이 일 반은총으로 주신 민족의 범주 속에서 생을 영위하도록 하였기 때문

이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을 발견토록 하기 위해 민족을 두셨다고 하였다. 즉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행 17:26-27)고 써 놓았다. 필자의 소박한 기독교적 민족관은 바로 이러한 말씀에서 출발하고 있다.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면, 하나님이 각 민족에게 부여한 자질과 개성을 살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의 질서 속에서 부여받은 그 개성을 계속 살려나가자면, 민족적 개성을 말살하려는 침략세력에 대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약소민족을 자기 민족에게 동화시키려는 세계의 강대민족(국가)의 질서에 대하여 굴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민족(지상)주의자는 아닐지라도 항상 민족의식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이듯이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인종적 모습과 문화적 전통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족적 개성도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보배로운 그릇들인지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민족이나 민족적 개성의 가치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되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참위치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은 우상적인 존재로 교만하게 취급될 수도 없거니와 반대로 멸시의 대상으로 비굴하게 될 수도 없으며,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되지만 반대로 침략을 받으며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민족적 개성과 관련, 민족문화의 문제도 여기서 새로운 기독교적 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각 민족에게 적당한 양과 질의 문화

적 은사를 주었다. 문화적 은사의 목적은 그 민족이 개성에 따라 풍부하고도 질좋은 삶을 영위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의 향락과 욕심에 따라 그 문화적 은사를 낭비하였고, 그 결과 창조 때의 그 순수성이 파괴되고 오염된 것도 사실이다. 파괴되고 오염되었다고 해서 문화적 은사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치유·정화함을 받아 문화 본래의 사명에 복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민족적 개성으로서의 문화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기독교인으로서 민족문화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좀더 분명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기독교인은 이제껏 외면했던 민족문화의 창달에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족과 민족문화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즉 기독교와 민족주의는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독일·일본에서 보았던 것처럼 침략·배타적이며 인권·자유·평화에 역행하는 민족주의에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공존할 수 없다. 그것은 차라리 민족의 이름을 내걸고 위장한 폭력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보인 민족을 정당하게 회복하기 위해 수립된 민족주의 이념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필자에게 오랫동안 던져진 물음이자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질문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적 가치에 역행하는 어떠한 민족주의도 기독교인에게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대로 기독교적 가치에 합치되는 민족주의는 기독교와 공존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된다는 뜻도 된다.

끝으로 민족주의와의 관계에서 기독교가 취하고 있는 일반적 관점을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기독교가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사상이나 체제도 절대화하지 않고 항상 그것들을 상대화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사상과 체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절대성이 부정되고 자신의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게 되는, 말하자면 상대적 가치만 갖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와 거기에 기반한 사회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되어져야 하고, 통일국가의 기반으로서의 제 3의 이념과 체제가 모색되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민족주의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민족주의도 기독교의 복음에 조명되어 상대화하는 작업이 계속될 때, 자신의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그 건전성이 더욱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족주의가 빠지기 쉬운 배타성과 폐쇄성 대신 개방성이, 경직성 대신 유연성이 주어질 것이며, 민족의 이름으로 왜곡되고 있는 정의와 사랑도 교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 주체사상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박승덕

평양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 I. 머리말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과제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실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조선로동당이 견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도리념이기 때문이다.

최근 시기에 해외와 이남에 있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주체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공통점을 모색하는 글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이남민중과 해외동포들 속에 북의 실상을 바로 전달하는데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남과 해외동포들 속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주체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을 보다 깊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주체사상이 선행사상의 테두리를 벗어난 새로운 사상이라는 데 대하여, 둘째로 주체사상이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애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보편적인 세계관이라는 데 대하여, 셋째로 주체사상이 조선에 국한된 사상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세계적 사조라는 데 대하여.

나는 주체사상에 대한 우리들의 공동의 이해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오늘 강의에서 주체사상이 기성의 모든 리론을 넘어서 새로운 사상이며 보편적 진리성을 가진 세계관으로 모든 민족과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강유력한 무기라는 데 방점을 찍으려 한다.

## II. 주체사상의 운명관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은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문제를 철학상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삼아왔다. 일찌기 헤겔과 포이에르바흐는 사유와 존재의 관계문제가 각이한 철학 학설들을 구분하고 철학사가 회전하는 축으로 된다는 이해에 접근하였다. 엥겔스는 1886년에 쓴 저서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에서 철학 전체, 특히 근대철학에서 중대한 기본문제는 “존재에 대한 사유의 관계, 자연에 대한 정신의 관계문제, 즉 무엇이 1차적인가, 정신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인가 하는 문제”(맑스 엥겔스 전집, 제 2권, 427~428쪽)라고 정의하면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철학자들을 유물론과 관념론의 2대진영으로 나누었다.

헤겔과 포이에르바흐 특히 맑스와 엥겔스 아래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물질과 의식의 관계를 철학의 최고 문제, 궁극적인 문제로 인

식하고 모든 세계관적인 문제들을 물질과 의식 가운데서 어느 것을 1차적인 것으로 보느냐 하는데 귀착시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에서는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가 철학의 영원한 기본문제로 인식되고 물질이 1차적이며 의식은 2차적이라는 원리가 유물론 철학체계의 불변한 근본원리로 파악되었다. 모든 정신현상은 물질의 반영이고 의식은 물질에 반작용한다는 견지에서 모든 것을 보고 대하는 것이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사고방식으로 되었다.

그런데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 다시 말하여 세계의 시원문제는 인류의 세계개조 능력과 철학적 사유발전의 일정한 역사적 단계와 결부 되여있다. 물질적 생활조건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정도가 높은 시대에는 인간과, 그 활동을 제약하는 객관세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로 철학적 탐구가 집중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세계의 시원문제도 생겨나게 되었다.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는 사람들이 의식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했던 인식발전단계와 관련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질이 1차적이라는 원리도 역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만 유물론철학의 근본원리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의식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확립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철학의 최고문제로서의 역사적인 타당성과 의의를 일정하게 가졌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는 철학의 최고문제로서의 완벽한 징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대하여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는 인간을 육체와 정신으로 구분하고 사람의 모든 것을 시원과 발생의 견지에서 고찰하는 데 머무르게 하며 현실적인 인간 자체를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지 못하게 한다는 점

이다.

둘째로,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는 세계가 의식 밖에 독립해 있다는 본질을 밝히는 데 머무르게 하고 인간의 생활이 개척되어 나가는 현실적인 과정과 결부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를 주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는 세계의 본질을 밝히는 견해의 기본문제로는 되지만 세계의 운동발전에 관한 견해의 기본문제로는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체사상은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와는 구별되는 인간의 운명문제를 철학상의 최고문제로 내세우고 그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 진리를 기초로 하여 전개된 새로운 세계관이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주체사상의 진수이며 여기에 주체사상의 혁명적 본질이 있습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제 8권, 473쪽).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사활적인 것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서나 대중에게 있어서나 민족에게 있어서나 인류에게 있어서나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운명은 현재의 사회적 처지와 그 전도를 표현하며 인간의 현재와 미래를 포괄한다. 인간의 생활을 반영한 개념들 가운데서 운명개념은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인간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개척된다.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는 인간이며 운명개척활동의 대상은 세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운명문제는 사람과 세계의 관계문제로 된다.

사람은 세계를 개조하는 역할을 통하여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지위를 높여나가야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인간의 운명이 개척되어 나가는 과정은 세계를 지배하는 지위를 높여나가고 세계를 개조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행정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로 된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운명문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상의 최고문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을 철학의 기본문제로 정식화하였다.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상의 최고문제로 내세운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주체사상의 독창적인 판단이 놓여있다.

그것은 첫째로, 철학이 단순히 세계의 본질과 운동법칙에 대한 인식을 주거나 인간과 인생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앞길을 밝히는 데 사명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만이 인민대중이 세계사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들의 주동적 역할에 의하여 역사가 개척되어 나가는 새로운 시대, 우리 시대에 상응하는 철학의 최고문제로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개별과학과 유물론 발전의 전력사에 의하여 세계의 시원문제가 과학적으로 해명된 조건에서 철학적 인식발전의 필연적 요구를 구현하여 온 기본문제가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기본문제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에 올바른 해답을 준 철학적 원리를 발견하였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주체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적 원리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지배자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세계의 발전과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사람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세계를 지배해 나가야 자기 운명의 지배자로 될 수 있고 세계를 개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여야 자신의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할 수 있다. 주체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적 원리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의 올바른 기초로 된다. 이 원리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명을 준다.

다음으로 세계의 본질에 대한 견해와 변화발전에 대한 견해, 간단히 말하여 세계의 존재론과 운동론의 근본원리를 통일적으로 밝혀준다. 또한 인간의 근본요구를 담은 사상과 세계의 보편적 합법칙성을 밝힌 지식을 통일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진리가 주체사상의 진수, 핵심으로 되며 이 사상의 혁명적 본질을 이룬다. 주체사상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한 사상이며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한 혁명적 방도를 밝혀 준 사상이다. 인민대중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과 의지를 가지게 되며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목 적의식적으로 투쟁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운명개척의 방도를 외곡하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숙명론과 주의설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마비시키는 온갖 반동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 전일적인 사상이다.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해명하고 주인으

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한 관점과 입장은 천명한 주체의 세계관, 인민대중이 자신의 투쟁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길을 명시한 주체의 혁명리론,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입장은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주체의 령도방법이 주체사상의 3대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운명문제를 기본문제로 내세우고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내용과 구성 체계에서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은 첫째로, 운명개척의 주체인 사람을 고찰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둘째로, 인간의 운명문제에 직접 해답을 주는 방향에서 모든 내용이 전개되고 전반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개인과 인민대중, 민족과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필요 한 풍부하고 다방면적이며 독창적이고 심오한 사상리론을 집대성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명확히 내세우고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는 가장 올바른 길을 밝힘으로써 인류의 진보적 사상의 발전과 인민대중의 혁명 위업수행에 특출한 기여를 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음으로써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확고한 자각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길을 독자적으로 개척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빛나는 성과와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선혁명의 역사적 경험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온갖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인으로서의 독자적 사고력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자기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줄기차게 벌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힘있게 실증하고 있다.

### III. 주체사상의 생명관

철학사에서 생명에 관한 문제는 적지않은 철학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유물론과 관념론 사이의 쟁점의 하나로 되었다.

지난 시기에 관념론자들은 고급한 물질에만 있는 성질인 생명을 비 물질적인 것으로 외곡하면서 그것을 신비화 하였다. 생명에 대한 관념론적 외곡을 반대한 유물론자들은 생명이 물질적인 현상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신비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대하여 주되는 주의를 돌렸다.

누르죠아 인간철학인 ‘생의 철학’의 첫 재창자 쇼펜하우에로부터 시작하여 니체, 베르크송 등은 생물학적 생명을 유지확대하려는 ‘생존의지’나 남을 지배하려는 ‘권력 의지’ 비물질적인 ‘생의 충동’ 등으로 사회적 인간의 생명을 비속화하고 외곡하였다.

맑스주의 유물론은 생명을 비물질적인 것으로 외곡하는 관념론을 비판하면서 생명현상이 특수한 물질의 존재방식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엥겔스가 「반듀링론」에서 ‘생명이란 단백체의 존재방식이다. 그리고 이 존재방식이란 본질상 단백체의 화학적 성분이 부단히 자기 갱신을 하는 데 있다(맑스, 엥겔스전집, 제 20권, 90쪽)고 한 데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생명을 신비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그친 맑스 – 레닌주의 철학은 생명을 생물학적 생명으로만 인식하는 한계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주체사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생명을 발견하고 개인적 생명과 집단적 생명의 통일에 관한 새로운 리해를 밝혔다.

김정일 비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가운데서도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있고서야 개인의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23쪽).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산 존재이다. 사회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생활력으로 실현해 나가는 존재가 사회적 생명을 가진 존재, 사회적 생명체이다.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이루는 것은 자주성과 창조성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주적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적 요구를 창조적 능력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데 사회적 생명의 특성이 있다. 사람이 사회적 생명체라는 것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사회적 생명은 사회적 집단과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이 지니게 된다. 사람이 사회적 생명을 지니려면 사회적 집단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회적 의식으로 무장하고 집단과 조직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근로인민 대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혁명조직의 한 성원이 되여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혁명투쟁에 몸바쳐 나설 때 사람은 참다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하며 제일 생명으로 된다. 사람에게는 개인의 육체적 생명과 관련된 사생활이 없어서는 안되며 그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생활은 어디 까지나 사회정치생활에 복종되어야 하며 육체적 생명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가기 위한 생물학적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 혁명가들은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하기 위하여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하기 위하여 먹고 살며 자기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집단을 배반하고 사회발전을 가로막아 나섬으로써 집단의 버림을 받는 사람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비록 목숨은 붙어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못 가지고 육체적 생명만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의 생명은 육체적 욕망의 노예로 되여 사는 동물적인 생명이다.

육체적 생명은 개인의 육체와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크기에 있어서나 시간적 속성에 있어서 사회정치적 생명과는 비할 바 못되는 제한성을 가진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그 크기에 있어서 무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적 속성에 있어서 영원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면 끝없이 귀중하고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으며 비록 육체적 생명은 죽어도 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한다.

개인의 생명의 모체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며 개인적 생명과 집단적 생명은 통일되어 있다. 인간생명을 재현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람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서로 결합되어서만 존재한다. 사람의 생명이 존재하려면 적어도 낡은 세대와 새 세대가 연결되고 남성과 여성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생물학적 견지에서 보아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것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사회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넓은 사회로부터 새 사회에로의 끝없는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개인은 고립적으로는 살 수 없고 사회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만 살 수 있다. 개인은 그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발전해 나가는 사회의 한 성원으로 태어나 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의 모체로 된다.

개인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사회적 집단의 생명은 무한하다. 개인의 생명은 그의 개인의 일생과 결부되여 있으나 사회적 집단의 생명은 사회역사적으로 변화발전하는 사회적 집단과 결부되여 있다. 사회적 집단은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세대들의 산수적인 중화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관계를 맺고 역사적으로 계승발전되고 있는 여러 세대들의 유기적인 총체이다. 개인의 생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유한한 개인의 생명과는 다른 영원한 생활력을 가진 집단의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가지고 살며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생명의 주체가 집단이며 개인의 생명은 집단의 생명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주체사상은 집단의 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개인의 생명을 서슴없이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집단적 생명을 지닌 사람의 사업은 집단의 발전을 위한 사상이며 이러한 사람이 일생을 바쳐 싸워 온 위업은 집단의 위업이다. 이런 사람은 집단과 조직적으로 뿐 아니라 사랑과 신임의 끊을 수 없는 뉴대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집단적 생명을 지닌 사람의 인생은 끝나도 그의 위업과 업적은 집단의 위업이 계속되는 한 그 집단과 더불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집단의 사랑과 신임은 대를 이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심장 속에 영원히 남아 있게 된다. 여기에 바로 영생의 넘원이 실현되는 참된 길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첫째가는 생명으로 보는 생명관,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가지고 살며 발전하는 사회주의 사회가 가장 우월한 사회이며 여기에서 실시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부르죠아 민주주의에 비할 바 없이 우월하다는 것을 새롭게 밝혀준다.

김정일 비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 제도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된 사회적 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회적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개인의 육체적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가 하는 데 있는 것만큼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의 본질적 차이는 결국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과 개인의 육체적 생명의 차이에 귀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만 부르죠아 민주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우월성도 근본적으로 해명할 수 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 173쪽).

사회제도도 사람을 위한 것이며 사람에게 복무하여야 하는 것만큼 그 본질적 우월성은 그것이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 집단의 어떤 요구와 리익을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가장 자주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은 모든 사람들이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바로 로동계급의 이러한 요구를 구현한 사회이다. 사회주의 제도만이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맞게 살며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사회 제도의 우월성은 그것이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간의 요구를 실현하고 그들의 창조적 능력을 발양시키는 데 얼마나 잘 이바지하며 사회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위와 창조적 역할을 높이는 데 얼마나 잘 복무하는가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집단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고 서로 돋고 사랑하며 사회적 집단의 생활력을 늘려나가는 창조적 활동의 보람을 마음껏 누린다. 그러나 남을 착취하는 자본가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더라도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없기에 보람찬 생활을 누릴 수 없다.

사회주의 사회를 그 집단주의적 본성에 맞게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한다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의 생명력은 더욱더 커지게 되며 그 본질적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양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제도를 그 본성에 어긋나게 자본주의적 방법이나 소부르죠아적 방법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그것은 점차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변질되게 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도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 민주주의에서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세계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사는 생활이 쇠고 리상으로 되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라야 동지적인 사랑과 호상 협조에 의하여 원만하게 실현되는 참다운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되며 사회와 집단, 자기 자신을 위한 보람찬 생활을 개척해 나가게 된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사회주의 사회만이 온갖 사회악을 모르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믿음이 오가며 온 사회가 일심단결하여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사회라는 것을 뚜렷이 보

여 주고 있다.

#### IV. 주체사상의 역사관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관, 주체사관을 천명하였다. 주체사관은 맑스주의 유물사관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사회의 본질과 역사적 운동에 대한 심오하고 독창적인 이해를 확립하였다.

유물사관은 사회와 역사에 대한 관념론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견해를 비판 극복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역사적 제한성을 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회의 본질과 인류역사 발전에 대한 견해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서 맑스주의 사관은 사회관계를 기본으로 보았다. 유물사관은 사회를 개인들의 기계적인 집합체로 본 형이상학을 반대하면서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만 사람들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인간 자체가 사회관계에 의하여 제약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관계를 사회의 본질로 본 것이 맑스주의 사관이다. 맑스는 1857－1859년 「경제학 수고」에서 “사회는 개인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놓여있는 련관과 관계의 총체를 표현한다”(맑스, 엥겔스전집 제 46 권 제 1 부, 214쪽)고 단적으로 썼다.

유물사관은 사회관계 가운데서도 경제적 관계가 이데올로기적 관계를 규정하는 1차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를 본질상 경제적 관계의 총체로 이해하였다. 맑스는 「임금로동과 자본」에서 “생산관계는 그 총체로서 사회라고 불리우는 것을 형성하며 그것도 일정한 역사적 발전단계에 있는 사회,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회를 형성한다. 고대사회, 봉건사회, 부르죠아 사회는 생산관계의 그와 같은 총체이다”(맑스, 엥겔스전집, 제 1 권, 75쪽)라고 쓰고 있다. 역사발전에 대한 유물사관의 견해

는 인류역사에 물질적 기초와 동떨어진 리성이 지배한다고 본 관념론적 역사관을 반대하는 데로 지향되었으며 이와 결부되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로, 사회발전을 자연에서와 같은 필연적인 과정, 간단히 말하여 자연사적인 과정으로 본 것이다.

둘째로, 사회발전과정에서 경제로부터 정치와 문화가 파생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셋째로, 생산력의 수준에 생산관계가 적응하고 경제적 토대에 상부 구조가 적응하는 필연성 간단히 말하면 경제적 필연성을 사회발전의 근본적 필연성으로 보고 인류역사를 생산방식의 교체의 역사로 해석한 것이다.

력사발전에 대한 막스주의의 이러한 관점은 막스의 「정치경제학비판서문」에서 전개된 유물사관의 도식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유물사관의 도식은 한 마디로 말하여 사회와 그 발전과정에서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 물질적인 사회관계와 이데올로기적인 사회관계, 생산력과 생산관계, 토대와 상부구조를 구분하고 이러한 양자관계에서 전자의 규정적 역할에 의하여 인류역사를 해석한 것이다.

유물사관은 사회력사에 관한 리론을 과학의 토대 위에 올려 세우는데 커다란 공적을 남겼지만 사회의 본질과 력사발전을 해명한 견해에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심증한 제한성이 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유물사관에서는 사회의 기본적이며 능동적인 구성요소인 사람이 사회생활의 객관적 조건에 매몰되고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유물사관은 사회가 사람들의 유기적인 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이루는 독자적인 구성요소로 사람을 내세우지 않았다. 인간생활의 물질적 조건을 사회적 존재로 보고 거기에 생산력과 생산관계, 인구,

자연지리적 조건을 포함시킨 유물사관에서는 사회의 어느 중요구성부분에도 산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생산력은 사람 자체가 아니다. 인간의 로동력이 생산력에 포함되지만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지 요구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자신은 아닌 것이다. 생산관계는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인 것 만큼 그것이 물질적 실체인 사람으로 될 수는 없다.

유물사관이 사회적 존재에 인구를 포함시켰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수효, 인구밀도를 넘두에 둔 것이지 사회의 능동적 구성요소로서의 사람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맑스주의 사관이 설정한 상부구조에 포함된 정치제도나 사회사상도 산사람은 아닌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 운동을 자연의 운동과 공통한 객관적인 면에서만 파악하고 그 주체적인 면을 보지 못한 것이다.

유물사관이 사회발전을 자연사적 과정으로 본 것은 사회적 운동을 자연의 운동과 공통된 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물론 맑스주의 창시자들이 인간이 역사를 창조한다고 하였지만 엉겔스가 말한 것처럼 “그것을 극히 규정된 전제와 조건하에서 만든다”(1890년 9월 요제프 블로흐에게 보낸 편지, 맑스, 엉겔스전집, 제 2권, 570쪽)는 방점을 주었던 것 만큼 어디까지나 인간과 그 활동을 객관적인 면에서만 파악하였던 것이다. 유물사관은 주체인 인간이 자기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주체적인 면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셋째로, 정치와 문화가 경제와 함께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 사회생활 분야라는 것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

유물사관의 창시자들은 사람이 정치나 과학, 예술에 종사하기 전에 먼저 먹고 입고 쓰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연개조사업인 경제가 사회생활의 다른 분야를 규정하며 정치와 문화는 경제에서 파생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사람과 생활수단과 사회관계는 사회가 존

재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시원을 같이 하는 것만큼 자연을 개조하는 사업인 경제와 사회관계를 개조하는 사업인 정치와 사람 자신을 개조하는 사업인 문화는 서로 의존하고 제약하지만 하나가 다른 것을 전적으로 규정한다거나 그 어느 하나로부터 다른 것들이 파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경제·정치·문화는 서로 의존하고 제약하면서도 독자성을 띠는 사회생활분야이며, 사회적 운동의 형태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에 대한 새로운 리해를 확립함으로써 유물사관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과학적인 역사관을 보다 높은 단계으로 옮려 세웠다.

김정일 비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 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는 다 사람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발전하는 데 상응하게 사회적 재부가 창조되고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어 나갑니다”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7쪽).

사회의 본질을 깊이있게 파악하려면 사회를 이루는 중요구성부분들과 그 본질적 특성이 무엇이며 이러한 구성부분들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해명하여야 한다.

사회를 이루는 중요구성부분은 첫째로 산사람이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가장 발전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기 육체에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는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체현한다.

사회를 이루는 중요구성부분은 둘째로 사회적 재부이다. 사회적 재

부는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체현하고 있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단들이다. 이러한 수단들은 산사람들과 결부되어 사람의 요구와 힘의 작용을 돋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를 이루는 중요구성부분은 셋째로 사회적 관계이다. 사회적 관계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주제하는 통일적인 체계이다. 통일적인 사회관계의 공고한 체계가 사회제도이다.

자주성과 창조성을 체현한 산사람들과 사회적 재부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결합되어 유기적인 통일체인 사회를 이룬다. 사회는 그를 이루는 구성부분인 개별적인 사람들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로서의 사회 자체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고급한 물질적 결합체이다.

사회를 이루는 세 가지 구성부분 가운데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산사람이다. 사회적 재부와 사회관계는 다 사람의 창조물이다. 사회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산사람이며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사회를 움직이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산사람을 떠나서는 사회의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도 사회제도도 다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의 구성부분들을 가르고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과 결부시켜 그 구성부분들의 본질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사회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이 인민대중의 사회적 처지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구성부분들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개면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주체사관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적 성격과 사회역사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을 준다. 사람이 객관적 존재인 동시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인 것만큼 인간의 사회적

운동은 객관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주체적 성격을 가진다. 사회적 운동의 주체적 성격은 두 면에서 나타난다.

첫째로, 사회적 운동이 사람의 일정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된다는 데 있다.

둘째로, 사회적 운동이 목적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추진된다는 데 있다.

사회적 운동의 객관적 성격은 자연의 운동과 공통되는 면이라는 사회적 운동의 주체적 면은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사회적 운동의 고유한 본질적 특성을 이루는 면이다. 사회력사적 운동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객관적인 면보다 주체적 면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회적 운동의 주체적 성격을 해명한 주체사관은 근로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원리를 내세웠다. 이 원리는 사회력사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것으로서 사회적 운동, 혁명운동의 근본원리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원리는 사회발전의 근본원인과 동력이 생활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주체적인 관점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원리는 역사의 주체를 반동적 착취계급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으로 보는 철저한 로동계급적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

사회력사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위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그들의 창조적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높아져 왔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미약했던 옛날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객관적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 더욱기 반동적 착취계급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인민대중은 자기 뜻대로 혁사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류력사는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

국 인민대중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인류력사는 한 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장성강화되는 역사이며 그에 따라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자주적 지위와 창조적 역할이 높아지는 역사이다. 사회발전의 근본필연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증대하는 필연성이며 역사적 진보의 규준도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수준에 있다.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장성이 그 사회력사적인 축적인 사회의 사상·기술·문화의 발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면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자주적 지위와 창조적 역할의 증대는 그것을 규제하는 사회관계의 공고한 체계인 사회제도의 발전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주체사관은 사회적 운동을 자연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으로 구분하고 그것들을 통일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사회발전의 중요한 합법칙성으로 된다는 것을 창조적으로 천명하였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개조와 인간개조, 사회개조사업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 대중의 창조적 활동의 3대분야이며 따라서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다같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과업으로 됩니다”(「주체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10쪽).

자연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은 주체인 사람의 어떤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인가 하는 데 따라 갈라지는 사회적 운동의 세 가지 기본형태이다. 자연개조사업은 자연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한 사람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사회개조사업은 사회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인간개조사업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한 사람의 요구를 실현하는 운동이다.

자연개조사업이 사람들의 생활수단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면 인간개조사업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워 역사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사회개조사업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사회적 운동이 주체인 사람의 운동이며 사회생활도 역사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의 생활인 것만큼 자연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이라는 세 가지 사회적 운동과 경제·문화·정치라는 사회생활의 세 가지 분야는 각각 서로 상응한다.

사람은 자연과의 물질대사와 사람들 호상간의 물질대사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사람들 호상간의 관계는 사람의 존재와 그 시원을 같이한다.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관계를 떠나 사회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자연개조사업과 사람자신을 발전시키는 인간개조사업과 함께 이러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활동을 지휘하는 사업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생활과 사회발전에서 자연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은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다. 물질적 재부를 생산하는 사업인 경제가 없이는 사회 자체가 생존할 수 없고 정치가 없이는 사람이 사회를 이룰 수 없으며 문화가 없이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없다.

생활수단을 창조하는 사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운동의 주체 자체를 직접 개조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주체 자체가 병든다면 생활조건을 마련할 수 조차 없다. 사회생활, 사회발전에서 3대개조사업이 다같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간개조

사업은 다른 개조사업에 앞세워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인간개조사업을 선행하지 않고 3대개조사업을 통일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는 것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온갖 사회악의 원인이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특징을 이루고 있는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부의부, 빈의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없앨 수 없을 뿐 아니라 높아지는 물질생활과 빈궁하여 지는 정신문화생활 사이의 불균형, 인민대중의 증대되는 자주적 요구와 악화되어가는 정치생활 사이의 불균형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없애고 근로대중의 물질생활과 정신문화생활, 정치생활을 다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면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력사적 경험은 인간개조, 사상개조를 앞세우는 기초 위에서 정치적령도의 우위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그와 병행하여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관의 원리를 빛나게 구현하여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우여곡절과 편향이 없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광명한 미래에 대한 락관과 신심에 넘쳐 공산주의에로의 진군운동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다. □

## 주체사상의 종교관

박승덕

평양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종교에 대한 과학적 인식은 심화되고 있으며 종교인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태도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게 된다. 공산주의 운동 안에서는 오랫동안 맑스－레닌 주의의 창시자들이 내놓은 종교관이 유일하게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지난 시기 종교인들을 다룬 쏘련의 경험이 본받아야 할 유일한 모델인 것처럼 간주되었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관을 밝혀주고 있으며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당이 견지하여야 할 종교정책의 올바른 리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맑스주의의 종교관은 종교를 비판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지만 시대적, 역사적 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본질적인 부족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사람을 중심으로 종교를 고찰하고 평가하지 못한데 맑스주의의 종교관이 가지고

\* 본 논문은 7장 주체사상의 종교관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발표자가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부한 논문임.

있는 근본약점이 있다. 맑스주의의 종교관은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고 그와 결부하여서가 아니라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을 위주로 하여 종교를 해석하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맑스주의 종교관의 역사적 제한성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극복되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종교의 본질적 내용, 역할에 대한 심오하고 전면적인 리해를 준다. 종교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종교관에서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맑스주의에서는 모든 정신현상을 객관세계의 주관적 반영으로 보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종교의 본질을 해석하였다. 특히 생산방식을 사회적 존재로 보고 종교도 포함한 사회의 정신현상들을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 사회적 의식이라는 범주로 고찰한 데 맑스주의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맑스주의 철학은 객관세계, 사회적 존재의 어떤 측면을 어떤 형식으로 반영하였는가에 의하여 사회적 의식의 형태들을 구분하면서 객관세계를 형상적으로 반영한 의식형태, 「전도된 세계관」(맑스, 「헤겔 법철학비판 서론」) 외곡된 사회인 초취사회의 피상적 반영이라는 데 종교의 본질이 있다고 보았다.

종교가 객관세계를 외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종교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일면적인 견해이다. 종교는 그 발생의 동기와 목적에서 보나 교리의 핵심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세계보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종교는 압박과 착취,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적 인간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나왔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종교인 천도교는 19세기 60년대를 전후한 시기 부패무능한 리조 봉건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천주교의 침입과 구미 자본주의 침략을 반대하려는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발생하

였다. 세계의 3대종교의 하나인 기독교도 기원 1세기에 로마제국의 예속지역인 소아세아와 근동지방에서 로마통치배들을 반대하고 로마국가의 멸망과 평등이 지배하는 새로운 생활을 념원하였던 노예들과 빈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다. 불교와 회교의 발생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람들을 온갖 죄악과 고통, 불행에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등하고 화목한 생활을 보장해 주려는 념원으로부터 교리를 내놓았기 때문에 후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객관세계를 반영한 지식을 얻으려거나 세계에 대한 견해를 내세우기 위해서보다는 압제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길을 밝히려는 데 종교가 나오게 된 동기와 목적이 있다. 종교는 교리의 핵심을 놓고 볼 때에도 인간의 본성적 요구와 결부시켜 전지전능한 절대자라고 하는 신을 내세워 그에 의한 인간의 리상을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관되여 있다.

천도교의 ‘한울님’, 불교의 ‘부처’, 기독교의 ‘야웨’, 회교의 ‘알라흐’ 등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종교가 숭상하는 신은 결국 인간의 리상을 완전무결하게 체현한 성스러운 존재, 사람의 우월하고 가치있는 속성을 가장 완성된 형태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면에서 “인간은 인간에 의하여 신으로 되며”, “신이 인간을 자기 모양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자기 모양대로 만든 것이다”(포이에르바흐, 「기독교의 본질」)라는 포이에르바흐의 지적은 매우 적중하다.

발전된 종교인 일신교들의 교리에 의하면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선행하는 원인이 없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독자적인 존재이며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물질세계와 인간을 창조하고

그 변화발전을 주관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교리에 의하면 신은 또한 지식과 의지, 감정을 다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며 별을 내리는 최고의 인격이다. 이것은 일신교의 신이 비록 환상적이고 가상적인 인격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완전한 형태에서 가지려는 사람들의 요구와 지향이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는 모든 것의 창조주, 주재자로서의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무조건 믿고 그에 의존하여야 인간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교한다. 종교에서 인간의 종국적 리상으로 내세우는 ‘극락세계’나 ‘하느님 나라’도 사람의 모든 뉘원과 지향이 완전히 실현된 신성한 세계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 자기의 리상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신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사상의식의 형태라는 데 종교의 본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을 중심에 놓고 신에 의거하여 인간의 운명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세계관이라는 의미에서 종교를 신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말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서 신중심의 세계관인 종교와 질적으로 구별된다. 사람을 고찰의 중심에 놓고 사람의 운명문제를 푸는데 사명을 두는 것이 주체사상의 근본특징이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가 주체사상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이 신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의 운명과 세상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신이라고 보는 종교와 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것은 주체사상이 종교에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비록 신중심의 세계관이지만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인간의 본성적인 요구를 구현하고 있고 신과의 관계에서나마 그러한 요구를 실현하는 길을 밝히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종교적 세계관은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길을 밝히려 하는 것만큼 세계의 시원문제를 기본으로 다루었던 지난 시기의 관념론이나 유물론 철학에 비하여 인간의 운명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을 직접 취급하는 긍정적인 점을 가지고 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의 신관념에 환상적으로나마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낮은 역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는 종교가 긍정적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천도교는 환상적 형식으로나마 조선민족의 자주정신을 체현한 ‘한울님’을 믿고 숭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자각하게 하고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도 사람들을 나서도록 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좋은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17세기에 크롬웰의 지도 밑에 전개된 영국 부르죠아 혁명이 기독교 신교의 가치를 들었으며 호메이니의 령도하에 벌어진 우리 시대의 이란 혁명이 회교의 깃발 밑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종교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종교관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문현집, 「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 189쪽).

맑스주의는 종교를 비과학적 세계관으로 락인한 데로부터 그 신비주의적이며 관념론적인 성격을 폭로비판하는 데 주되는 주의를 돌리였다.

엥겔스는 원시 기독교에 대해서 조차 그것이 고대 희랍철학자 필로누스와 로마 스토아 학파의 대표자인 세네카의 신비주의 철학에 기초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레닌은 종교를 ‘조잡한 관념론’으로 특징 지었다.

맑스주의 철학은 무신론과 유물론에 기초하여 종교의 교리가 담겨진 신학적 형상이 사실이 아니라 허구라는 것을 밝히면서 종교가 근본성격에 있어서 신비주의적이고 관념론적이라는 것을 론증하는 데 힘을 집중하였다. 이로부터 맑스주의에서는 종교가 허위이며 그 모든 내용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런데 무신론에 기초하여 종교가 신비주의라는 것을 밝히고 유물론에 의거하여 종교가 관념론적이라는 것을 론증하는 것으로써 종교의 내용에 대한 해부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에서는 한편으로는 신관념 자체가 인간의 본성과 결부되어 있으며 다른 편으로 유물론과 관념론을 가르는 세계의 시원문제,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보다 신과 인간의 관계문제가 기본으로 되여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고찰하여야 신비주의에 의하여 가리워지고 관념론에 의하여 흐려진 속에서도 인간의 본성적 요구와 결부된 종교의 풍정적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종교에 나쁜 점만 아니라 좋은 내용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것을 응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종교는 사회적 인간의 본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공동의 리상인 사랑과 평화, 사회정의와 평등, 영생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공동적인 리상은 착취와 압박, 침략과 전쟁,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며 정의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된 사회를 건설하며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종교들은 그 구체적인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다 사랑과 평화, 사회정의와 평등, 영생을 기본교리로 내세우고 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특히 ‘억눌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평화를 들며 그러한 공동체의 화목과 단결,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교리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적인 종교들의 교리에서는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보호하고 악한 세력을 심판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 교리들은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교는 영생하려는 사람들의 넘원에 착안하여 영생문제를 중시하면서 신을 믿고 그 의사에 순종해야 영생할 수 있다는 교리를 내세우고 있다. 영생의 넘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종교가 내세우는 방도는 비현실적이지만 영생에 대한 종교의 교리는 인간을 소외시키는 착취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전도와 영생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의 안정을 누리게 한다.

사랑과 평화, 정의와 평등, 영생에 대한 종교교리는 인류의 보편적 리념을 구현한 좋은 사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며 사람들 사이의 반목과 적대를 배격하고 인민들의 친선을 강조하며 사회생활에서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에서도 사랑과 평화, 정의와 평등, 영생은 중요한 리념으로 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평화롭게 살려는 것을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로 본다. 사람은 사회적 생명체인 만큼 서로 결합하여 보다 큰 사회적 생명을 지니고 살며 발전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회적 집단에 결합하게 되며 집단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게 된다. 사

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고독에서 오는 고통이며 가장 큰 기쁨은 생명과 생명이 결합되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고 사람의 복리와 발전을 제창하며 사회정의를 구현하려 하며 그 현실적인 방도를 밝혀주는 참다운 인도주의 사상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바와 같이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면 정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질서가 세워지고 발전되어야 한다. 주체사상은 영생하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길을 밝혀주는 사상이다.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산존재인 인간은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가지며 이러한 요구는 영생에 대한 염원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함으로 육체가 사멸된 다음에도 무한한 생명을 지니는 것이 인간의 절실한 관심사로 된다.

주체사상에서는 천상의 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지상에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가진 영원한 생명체인 인민대중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민대중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발전하는 영원불멸의 사회적 생명체이다. 때문에 개인은 인민대중과 운명을 같이 하고 그들의 자주위업에 헌신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견결히 반대하고 사람들이 동지적 사랑과 의리에 기초하여 서로 도우며 이끌어 나가는 평화롭고 화목한 사회, 정의와 평등의 원칙이 완전히 구현된 사회를 건설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주체사상은 인간이 유한한 개인의 육체적 생명만을 지니고 살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끊임없이 번영 발전하는 인민 대중과 더불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살 것을 요구

한다.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은 종교교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사상들을 포섭하고 그것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종교가 내세운 영생의 리상 까지도 현실세계에서 실현하는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가장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류공동의 요구와 념원을 가장 리상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종교도 포함하여 인류가 창조한 모든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다 포섭할 수 있으며 민족의 단합과 인류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무제한의 포용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종교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은 종교관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맑스주의는 종교의 본질과 내용을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이라고만 본 데로부터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맑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단죄하였으며 레닌은 그것을 ‘래세의 행복’으로 인민을 기만하는 ‘값ぬ은 정신적 브린디 술’로 규탄하였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맑스주의의 이러한 평가는 종교의 나쁜 점을 그 본질과 전반내용으로 해석한 것과 함께 종교의 계급적 근원을 일면적으로 절대화한 것과 관련된다. 맑스주의에서는 종교가 유지되는 근원이 계급사회의 생산관계와 계급들 사이의 적대적 모순에 있다고 보면서 종교교리에는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반동통치계급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로부터 맑스주의는 모든 종교교리를 착취계급에게 복무하는 반동사상으로 보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도 인민대중에 대하여 해독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물론 기독교나 회교, 유교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교에는 봉

건왕권을 신성화 하는 왕권신수설을 비롯하여 착취계급에 복무하는 교리들이 있다. 이러한 교리들이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반동적인 착취제도를 옹호하는 해독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종교교리의 부정적인 면으로부터 훌러나오는 그 반동적 역할을 종교의 전반적인 사회적 역할에 기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일면적인 견해이다. 종교에는 그 교리의 좋은 점으로부터 훌러나오는 긍정적 역할도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종교들의 역사를 보면 원래 종교의 고유한 사명과 역할은 초기종교에 체현되어 있다. 초기종교는 거의 다 인민을 위한 종교였으며 노예와 빈민들에 대한 노예소유자들의 억압과 학대를 반대하였다. 당시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매우 미약하였던 조건에서 초기종교는 노예소유자적 착취사회의 멸망과 리상사회의 도래에 대한 인민의 혐원을 소박한 구세주 신앙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초기종교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종교이며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대중을 구원하고 해방할 사명과 역할을 전형적으로 체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예소유자·국가와 봉건국가의 국교화된 종교와 착취계급에게 복무한 종교는 초기종교의 타락되고 개악된 역사적 형태이다.

국교화되었거나 착취계급에게 복무한 종교가 고대 노예소유자 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착취와 압박에 인민대중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만적인 설교와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고 엄중한 죄행을 감행했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자본주의 시기 부르죠아지의 착취를 변호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적 각성을 가로막는 종교의 해독적 역할에 대해서는 별씨 적지않은 종교인 자신들에게까지 인식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한 첫 사람이 바로 기독교 사회주의자인 찰스 킹스레이였다

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맑스 – 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착취계급 특히 부르조아지에게 복무한 종교를 주되는 비판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착취계급에게 복무한 종교의 반동적 역할을 종교의 본래적인 역할과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였다.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종교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종교신학에서는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종교는 그 본연의 사명에 맞게 점차 민중의 편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가 빚어내는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현대종교는 매개 민족의 토양에 뿌리박고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 기독교의 해방신학, 혁명신학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하고 있다. 래세천당으로부터 현세천당으로, 현실도피로부터 현실참여로, 개인구원으로부터 집단구원으로 자기 주장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현대 기독교신학의 전진적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 있는 종교의 교파들과 교단들, 교직자들과 신학자들, 평신도들이 민중과 민족, 인류를 위하여 적지않게 긍정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종교인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악을 폭로 비판하고 비인간화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종교인들의 공동체를 동원하며 반핵평화와 공해반대투쟁, 반제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사실은 모두가 공인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현대종교가 부정적인 점과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민중과 민족,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응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원래 주체사상은 사상분야에서 편협한 배타주의를 결정적으로 반대

한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사상이라면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 의하여 창조되었는지 관계없이 그 가치를 공명정대하게 평가하고 그러한 사상들과 적극 대화해 나가는 것은 주체사상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을 통일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인류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현대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투쟁에서 종교인들과의 련대와 협작을 강화 발전시킬 것을 주장한다. 주체사상은 종교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확립한 데 기초하여 종교인들을 포섭하고 그들과 단결해 나갈 것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일찌기 항일 혁명투쟁 시기부터 시종일관 종교인들과의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이 사업에서 홀륭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량심적인 종교인들을 따뜻히 포섭하고 그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 당이 견지하여온 일관한 정책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종교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종교의 좋은 점을 살려 그들이 민족 공동의 위업,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 적극 나서도록 고무해왔다.

종교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공격하거나 종교인들에게 사상적 개변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과의 단합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방침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종교의 우점을 긍정하고 그것을 더욱 조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종교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순진한 마음으로 종교를 믿는 선량한 대중과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적 지배계급들을 엄격히 구별하며 종교교리의 긍정적인 면과 종교교리를 지배계급의 요구에 맞게 외곡된 반동사상을 갈라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종교인들에게 하느님을 믿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믿을 바에는 미국의 하느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조선의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종교인들이 종교의 탈을 쓰고 침략적 만행을 감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리용물로 될 것이 아니라 자기 인민과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종교적 량심을 바쳐가는 참다운 애국적 종교인으로 되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부터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여 주었으며 이와 함께 종교를 침략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단호하게 투쟁하였다. 오늘 여러 나라들에서 종교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정부의 종교정책이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종교로 하여 제기되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없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종교정책은 민족의 통일과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는 성업에서 앞으로도 더욱 큰 생활력을 발휘할 것이다.□

## 이질화 극복을 위한 통일교육방안

변홍규

전주 전북대학교 교육심리학 교수

### I. 들어가는 말

1990년대는 통일의 연대임을 우리는 확신해 가고 있다. 이것은 독일의 통일과 동구권의 민주화가 우리 남북간에도 화해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축구선수와 음악가들의 내왕 경기나 공연이 있었고, 탁구선수와 축구선수의 단일팀 구성 출정과 남북 총리회담의 계속, 그리고 그밖에 종교계·학계·여성계의 남북교류 등이 잦아지면서 통일의 분위기와 통일논의가 확산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 그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군사·경제 분야 못지않게 교육분야에서도 비중있고 진지하게 통일에 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깨닫는다. 왜냐하면 교육은 남북의 국민을 지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나 정신, 가치관, 태도 또는 기능면에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과정이

기 때문이다.

지난 45년간 남측에서나 북측에서 공히 통일을 위한 교육이 시도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불행하게 서로를 타도해서 그 목표를 실현하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반통일적 통일교육이었다. 남쪽의 멸공통일 또는 반공이데올로기 교육과 통일안보 교육이나 북쪽의 남침통일 또는 남조선인민해방 교육과 같은 표현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화해적 통일 분위기 속에서는 이러한 통일교육관은 지극히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쟁취하는 선상에서 새로운 통일교육관과 그 실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을 부러워하고 있다. 흔히 거론되는 바와 같이 독일의 통일은 ①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그가 주도한 개혁과 개방, 즉 폐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영향에 의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② 동독국민들의 자유와 부에 대한 열망, 그리고 ③ 확고하고 안전하게 뿌리를 내린 서독의 정치와 경제사회체제 등 세 가지 커다란 요인에 힘입어 이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동서독을 막론하고 그들은 일찍부터 “독일은 하나다”라는 단일민족의식을 지키려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였고, 그러한 의식 고수를 위해 교육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독은 1978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동독과 그 국민의 생활에 관해 소개해 왔으며, 동서독 교육자들간에도 직접 간접으로 끊임없이 교류가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비교적 순탄하게 통일의 뒷마무리를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믿는다.

사전에 이렇듯 건전한 통일교육을 실시해 오지 못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고 효율적인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겠다. 이 글은 오

늘의 상황에서 남북 양측이 대결이 아닌 통합을, 그리고 우월이 아닌 평등을 지향하는 원칙에서 평화통일을 실현함에 있어서 남북간 여러 측면에서 심화된 이질화 현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이를 위한 통일교육 전략을 세워 본다는 의도에서 작성한 것이다.

## II. 통일교육의 차원

통일교육의 기본 조건은 오늘 남북이 처한 엄숙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해야 할 것이다. 지난 45년간 남북한은 인간관이나 국가관 또는 역사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하에서 살면서 교육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먼저 이질화된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독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정치·경제 또는 군사적으로 힘 있는 쪽에서 약한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통일하려는 우월주의적 통일교육관은 고려할 수 없거니와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대시켜 결국 반통일적 교육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남북측의 교육이 지닌 장점이나 양측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부분만을 적절히 선택 취합해서 실시하는 절충주의적 통일교육관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남북 각각이 대립하여 판이하게 다른 이념과 내용 그리고 제도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따라서 적절하다기보다는 기형적으로 발전해 온 교육이었으니 양측이 공감하여 수용할 만한 우수한 부분이 있기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체계나 맥락을 무시한 채 부분만 가지고는 하나의 전체적 통합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과업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남북교육회담을 개최하여 통

일교육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할 교육이념과 목적 그리고 영역을 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 과제를 추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남북이 협동적으로 실천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합의된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남쪽이나 북쪽에서 개별적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서로가 자극을 주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데 통일교육의 차원 또는 단계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반통일적이고 통일 장애적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이고, 둘째는 통일된 민족국가에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 이념이나 태도, 기능을 훈련하는 차원이다. 셋째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통일 지향적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이 요구되며, 끝으로 장차 우리 나라가 통일된 민족국가로 세계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 거시적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이 있어야겠다. 그런데 이들 네 차원이 개념적으로 선후가 분명한 단계이지만 실제는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동시적으로 수행될 수 있겠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첫째로,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실현 정도만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제적 교육의 실현은 쉬울 것이다. 6·25를 통해 겪은 동족상잔의 비극과 함께 남북은 서로 끝없는 감정적 대결과 경쟁, 그리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서로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적대국 또는 적대국 사람으로 인식해 왔으니 이 감정적 양상은 이제 성격화의 단계에까지 고착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대결되는 각종 운동경기에서 우리는 서로 가장 큰 경쟁대상이며 절대로 지면 안될 대상으로 보고 적개심에 불타면서 이기는 데 혈안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적대감은 무엇보다 이데올로기나 역사관, 국가관, 심지어 언어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질화를 심화하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게 했음이 분명하다. 그 밖에 작금 거론되고 있는 기득권 포기와 냉전의식의 청산과 같은 장애요소 등도 적극적으로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무엇보다 양측 국민들의 이질화 심화요인과 풍토 또는 자세를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소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모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이러한 통일의 이질화 요인을 극복하는 교육의 목표달성을 후 또는 그와 동시에 통일의 기반조성에 관련되는 교육에 있어서는 온 국민에게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기본적 신념을 강하게 심어 주어야 하겠다. 그것은 남북양측 백성에게 모두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족동질성 의식을 강력히 갖게 하며, 거기에 따르는 태도를 길러 주는 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수용하고 신뢰하는 자세를 길러야 하겠다. 민족통합은 단순히 물리적 힘으로 영토를 종합한다고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의식 확립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통일의 기반형성을 지향하는 교육은 특히 남북동질성 회복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국가관, 역사관, 언어 등에서 공통적 또는 합의적 요소를 적극 추출·발전시킴으로써 그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단계에서는 민주시민적 차원의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양측 국민은 모두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면서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의 시민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길러야 하겠다.

이 영역에서는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문제해결력을 훈련하고, 시민성 교육은 물론 법과 경제에 관한 교육과 심지어 평화의식의 확립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 여기에는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이념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인간이 체제유지의 도구가 되거나 정치·경제·종교적 목적에 이용되는 수단으로 이

용되지 않는 신념과 자세를 길러 주어야 하겠다.

셋째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통일교육은 먼저 남북의 모든 국민이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부 엘리트에 의해서 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필요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그 길을 찾아 가지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교육목적과 내용을 확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통일문화와 통일실현에 직결되는 의식과 태도, 기능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교육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문화는 통일지향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통일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지와 힘을 동원하는 정신을 기르고, 통일논의와 국가정책을 수렴하는 지도이념을 구축하며, 통일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성격 및 그 방향을 분석 평가하는 평가기준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센터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능률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인 교수－학습자료를 충분히 개발, 보급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통일대비 활동을 선도해야 하겠다.

다행히도 지난 5월 24일 남측의 교육부는 1996년까지 비무장지대에 이러한 센터 세 곳을 세워 실천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학생교류나 공동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을 위한 전문가도 많이 양성하여 효율적인 통일교육의 주도자가 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 생각한다.

넷째,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이란 통일된 우리 나라가 오늘 또는 오늘 보다 더 급격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미래세계의 변화에 뒤지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차원이다. 따라서 이 차원의 교육은 통일 이후 우리 민족공동체가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한 일을 대비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크게 평생교육적 영역과 전문영역의 교육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다.

이미 오늘과 같이 학문과 기술 그리고 사회가 급변하는 시대에도 학교위주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학교교육 못지 않게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이 중시되어 그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 이외에 기업체나 사회 각 단체 및 지역사회 또는 주민 스스로가 학습활동을 하는 학습관과 제도가 촉구되고 있다. 즉 세계의 선진국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평생교육적 학습사회를 조장하여 다른 나라나 사회에 뒤지지 말자는 것이다.

전문영역에서의 이러한 발전지향적 통일교육은 최첨단 과학기술뿐 아니라 현대의 정보화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요구되는 다른 전문분야의 학문이나 기술도 남측과 북측 모두가 상부상조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해야겠다. 이 영역의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남북간 격차가 있는 분야를 해소하는 노력을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이다. 만일 남측의 과학기술이나 지식에서 북측보다 앞선 분야가 있다면 과감히 북쪽 국민에게 그것을 이전시키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 III. 이질화 극복을 위한 통일교육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위기 네 가지 차원 중 무엇보다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엄숙한 장애요인인기 때문이며, 이 과업수행은 다시 둘째의 통일기반 학립교육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이질화 극복의 문제는 특히 세 가지 영역에서 심각하며 그것은 언어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역사 등 영역의 교육일 것이다. 오늘의 남북대결적 자세는 이들 세 영역에 대한 통일교육이 능률적으로 그리고 긴급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통일실현의 여건조성에 그만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1. 언어이점화 극복을 위한 교육

남측에서는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매주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북측 동포의 생활상을 보면서, 또 최근 남북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북측 대표나 선수, 기자, 그 밖의 많은 북측 동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어구와 역양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안타깝게 느끼고 있었다.

어느 국민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하는 북측 아나운서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라고 물었을 만큼 언어 이질화는 심각하다. 언어는 의사소통뿐 아니라 사고를 좌우하고 심지어 우리의 정서정화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45년의 남북단절이 오늘과 같은 언어현실을 초래하였다.

언어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남측에서는 우리말을 ‘한국어’라 부르면서 1933년 제정된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55년만인 1989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개정하였고, 이 개정은 자율적으로 이미 변해 버린 어휘나 발음 등을 정리하는 이른바 관용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측에서는 지나친 외국어 흥수 속에서 언어혼란이 지극히 염려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주체성이 약한 탓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북측에서는 우리말을 ‘조선어’라 부면서 1949년에 한자폐지를 단행한 이후부터 ‘조선어 철자법’(1954),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 ‘조선말 규범집’(1966), ‘말다듬기 운동’(1960년대 후반) 등 몇 차례의 인위적, 처방적 언어정책 시행을 통해 언어변화 내지 언어순화 운동을 시도해 왔고, 평양중심이며 민족적 특성과 주체사상을 심는 새

로운 ‘문화어’로 오늘의 언어현상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의 북측언어는 ① 한자어나 외래어를 고유어로 다듬게 되었고, ② 남측과는 다른 어휘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으며 ③ 단어는 남측의 것과 같으면서 그 뜻이 판이한 언어들이 생성하게 했으며 ④ 방언들 중에서 문화어로 격상시킨 용어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가 하면 ⑤ 북측에만 사용하는 독특한 낱말도 많이 창조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이질화된 오늘의 남북간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측 정부 또는 민간단체들에서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것은 첫째로, 서로 쉽게 이해하고 쉽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양측의 특색있는 낱말들을 정기적 혹은 특별한 시간에 방송이나 신문 또는 학교에서 소개하여 이해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요망된다.

둘째로,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민족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공동협의나 협력, 교류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장하고, 남북 각각이 현재의 언어정책에서 지니고 있는 독단이나 단점을 찾아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명표기에서의 이질화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엔(UN)동시가입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언어이질화 극복의 노력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다.

셋째로, 언어가 정치도구화되는 것을 탈피하고 언어개방정책을 적극 실시하며, 그리하여 우리 언어 고유의 문화성을 되찾기 위해 각별한 조성정책을 쓸 것이 요망된다. 남측에서는 무엇보다 외래어 범람사태를 시정하고, 적극적이고 일관된 언어정책과 언어교육을 실시할 결단을 내려야만 하겠다.

## 2. 이데올로기 이질화 해소를 위한 교육

오늘날 남북 양측 국민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를 서로 다른 민족처럼 느끼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의 하나는 바로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서 연유되었다. 이데올로기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 생활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이념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체계는 사회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 국가적·민족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집단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넓게 삶의 이념에까지 연결되는 광범위한 이념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국가관에서 뿐 아니라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등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남북 양측에서는 이 이데올로기를 주로 정치적 이념에 한정하여 고려하면서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를 위한 범위에서만 그 교육을 시도해 왔기에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남측에서는 여러 정권들이 자유민주주의란 이름 아래 부정한 정권의 안보 또는 정당화를 위해 이데올로기 교육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북측에서도 공산주의 혁명, 또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주체사상에만 치우친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여 그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남북간 이러한 편협되고 반통일적인 이데올로기 지향성 때문에 양측 백성의 삶이 남측은 ‘제동된 개인주의 이념’에 지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반해, 북측에서는 ‘집단주의적 이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측의 이념이 집단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거기에선 사회주의 교육의 지도사상을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즉 유일사상)이라는 일원적 신념체계에 입각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로, 김일성 수령을 정점으로 하여 당과 노동계급으로 이어지는

단선적이고 단일한 사회구성을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체계에서만 조국의 번영과 인민대중의 행복이 있다고 믿으며, 수령의 의도와 구상을 관철한 크기는 바로 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로, 북측에서는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 충실성과 동지애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의 선’, 더 분명하게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최고의 요청으로 삼는 나머지, 개별적 이해 관계는 이 집단을 위해 희생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하고 있으니 집단 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측이 개인주의적 이념에 입각해 있다고 보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적 이데올로기 교육에 있어서 많은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유연하게 활용되는 각양각색의 판단준거에서 보편과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하는 신념 체제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남측에서는 사회적 실체를 중충구조로 수용하여 ‘이익집단’, ‘압력집단’, 각양각색의 주의와 주장, 요구와 거부 등의 대립 속에서 살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당제와 대의제, 또는 여와 야 등이 견제와 균형, 마찰과 타협을 통해 공존을 도모하면서 다양성이 있는 삶과 다원적 의사결정을 중시하고 있어서도 그렇다.

나아가 셋째로, 남측은 개별적 선을 최대 가치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소질과 치지를 기초로 하고, 아울러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근거로 하는 바탕 위에서 공공의 선을 실현하려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남북간의 이데올로기적 이질성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 양측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노력해야 하겠다. 이 협의체에서는 이데올로기 교육 방향이나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협의체에서 발전시킬 이데올로기는 넓

게 삶의 이념과 관련시켜야 하며, 거기에는 여러가지 대책들이 강구될 수 있겠다.

무엇보다 먼저 ‘한국적 고유 이념’을 정립하는 일을 우선해야 하겠다. 이것은 현존하는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넘어서 장차 남북 모든 국민에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민족적 미래상을 확립하기 위한다는 전제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의 인간교육을 위해서는 다시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첫째, 탈이데올로기를 지향해야 하는데 상대적이며 국부적이고 편향적인 성격의 ‘이데올로기’ 대신, 보편적이고 총제적이며 부단히 진리추구적인 방향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해야 할 것이 요망된다. 둘째로, 이러한 이념은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이 이념의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지향하고, 외형적 가치보다는 내면적 가치를 중시하며, 거시적이며 주체적 사고력과 강한 의지력이 있는 삶을 설계하도록 훈련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나아가 그 인간에게는 준법정신과 공익우선, 그리고 협동정신을 훈련하여 공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신뢰, 공경, 규칙준수, 질서유지, 전통사랑, 애국 등의 제 행동특징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역사교육의 이진화 해소

어느 나라에서나 역사교육이 중시되는 이유는 선조들이 물려 준 문화유산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왔다는 이유와 과거의 생활 풍습과 가치관이 후손들의 오늘과 내일의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행위 준거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교육이 어떤 역사관에서 이루어 지느냐에 따라 이른바 ‘국가적 정체성’이 결정되고 나라의 모습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일은 역사교

육이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특색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측의 역사교육은 대개 세 단계에서 고려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마르크스-레닌의 공산주의적 계급혁명사관과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입각해 기본적으로 재편성되고 재해석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조선통사」나 「세계사」또는 「조선교육사」 등 우리가 접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위의 처음 두 책자의 목차는 거의 비슷하게 ①원시공동체 사회 ②노예 소유자 사회 ③봉건사회 ④자본주의 사회 ⑤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등의 순서와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로, 북측은 1930년대의 이른바 ‘혁명전통교양’에 기초하여 역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일성 주석이 민주별에서 민족독립을 위하여 일본 관동군과 투쟁한 항일빨치산 활동이 조선독립의 결정적 원동력이며, 따라서 김일성만이 조국독립의 주체라고 결론하고 있다. 이러한 김일성 혁명의 전통사는 가계사적으로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셋째로, 1970년대 이후에는 다시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한 주체사관이 추가되면서 혁명실천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북측 역사교육의 관점과 내용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편 남측의 역사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자들의 자주적이고 학구적 노력에 의해 사실적 바탕과 그에 관한 다분히 주관적 해석에 일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5년간 부당한 정치세력에 의해 역사 교육이 이따금 왜곡되어 왔으며, 특히 5·16 같은 군사정권의 성립이 대단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처럼 교과서에 수록되어 역사교육을 잘못 시행한 사례도 지니고 있다.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과 그에 대비하는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역

사교육에 있어서 양측의 이질화 해소가 대단히 절실한 과제가 된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남북 양측의 역사교육은 우선 북측에서는 김일성 수령과 그의 가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내용을 시정해야겠으며, 설사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역사관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재하지 않는 역사기록이 있다면 삭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측에서도 그 동안의 비민주적 군사정권의 역사를 준엄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반사회주의적 가치관 교육도 객관적으로 재인식하려는 작업도 용납되어야 한다고 본다.

#### IV. 맷는말

우리는 오늘과 같은 통일실현을 향한 남북 양측의 열기가 반드시 결실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비록 독일의 우월주의적 통일방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 나라가 경험한 바를 통해 우리가 시사받아야 할 것이 많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독일통일에 있어서 교육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을 주도 또는 보완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동서독인이 “독일은 하나다” 또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진실한 민족정체감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서로 미워하거나 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 도우려 했으며 협력 하려 했고 함께 잘 사는 삶에 대한 공통된 소망 등의 정서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힘이 컸다고 인정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남북을 막론하고 이러한 교육적 기능을 능률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대비해야겠고, 최우선적으로 남북간의 이질화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이질화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객관적 실상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고 불가피한 작업으로 수행되어야 하겠으며, 적어도 언어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역사 등 세 영역의

이질화 해소가 가장 시급한, 즉 이 과제를 위해 남북이 함께 이에 관련된 통일교육의 목적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고 대비할 것을 동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질화 해소를 위한 통일교육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 성과는 낙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 백성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우리는 한 땃줄이다”라는 민족의식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1991년 2월 ‘기독교와 통일운동’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기독자 교수협의회 제 24 차 총회에서도 확인되었고, 다른 많은 통일관련 조사나 집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남북간 오늘의 이질화 현상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이고 후천적인 것으로 더 선천적이며 내면적인 민족의식보다 우위에 설 수 없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

## 냉전의 종언과 한국 재통일의 역사적 전망

노명식

춘천 한림대학교 역사학 교수

냉전의 불길은 무엇이며 그것은 왜 끝장나게 마련이냐 하는 문제는 시간의 제약상 불가불 논의할 수 없으니 그 문제는 생략하고 – 그 문제에 관해서는 〈씨알의 소리〉 1990년 12월호의 졸고 「냉전의 종언과 타역사의 도전」 참조 – 냉전의 퇴조와 함께 이제 시간문제로밖에 남지 않은 한국 재통일의 전망에 관해서만 내 생각의 일단을 피력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재통일은 독일 패턴도 월남 패턴도 아닌 제 3의 패턴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분단의 원인과 분단고착화의 과정 – 특히 6·25 전쟁 – 이 다르고 주변의 국제환경이 다르니 재통일의 방식과 과정 및 형태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남한과 북한은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지금도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러므로 통일의 당위론만으로는

\* 위 글은 제 25 차 북미기독학자회 연차대회 참가보고 논문요약이다.

통일은 실현되지 않는다. 거기서 다음 몇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데, 첫째는 현대 과학기술문명이 만들어낸 지구촌에서는 분단의 벽이란 아무리 높고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철저한 인식과 자각이 필요하다. 거기서 벽의 문들을 가급적 열어 놓고 상호교류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극히 어려운 만큼 상호교류의 보장을 위해서 상호 불가침조약의 체결이 필요하다. 남북 불가침선언이 총리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었으나 최근의 독소 불가침조약이나 일소 불가침조약 같은 것도 한낱 휴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조약도 아닌 선언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 자못 의아스럽다. 거기서 남북의 상호불가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불가침조약을 우리의 주변 4대강국이 보장하는 방법이다. 여기 통일한국의 영세중립의 문제가 신중히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셋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변 4대강국의 보장하에 남북 불가침조약이 체결되어서 남북이 서로 침략받을 우려가 사라진다면 거기서 일어날 변화는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것이다. 과감한 군비축소와 거기에 비례하는 소비재의 생산증대 및 분배구조의 민주적 변화이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변화는 과감한 개혁조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 개혁의 주체는 과연 어떤 그룹이겠는가? 최소한 그것은 냉전의 혜택으로 권력과 지위와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계층-소련에서의 예를 들면 노멘클라투라는 계층-은 아니다. 그 계층은 냉전의 후퇴와 거기서 오는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 세력은 반통일세력이다.

거기서 그 변화에 대해 저항세력이 과감한 개혁을 지원시키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개혁의 필연에 저항하는 자는 그 필연의 수레바퀴에 치어 죽게 마련이다. 즉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개혁이 최선의 방법이고 혁명은 차선의 방법이지만 최선의 길이 막혔을 때에는 차선의 길이 불가피하다. 원래 20세기의 우리 민족의 비극은 통학의 실패 아래 진정한 민중혁명이 없었던 데 있었다. 8·15 해방은 혁명의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국토분단은 남에서도 북에서도 진정한 시민혁명의 기회도 사회주의 혁명의 기회도 빼앗아 갔다. 남도 북도 제 손으로 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점령군에 의해 뒤집어 씌워진 것이었다. 그것은 사이비 혁명이었다. 그러기에 그것은 새 역사를 창조할 만한 새 역량의 새로운 유형의 민중을 탄생시키지 못하였다.

남에도 북에도 진정한 혁명이 있을 수 없었던 근본원인은 서로 상대방의 침략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를 구실로, 냉전의 덕택으로 쉽게 얻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극단적인 반혁명세력으로서 혁명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적 보장하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된다면 안보를 구실로 하는 반혁명의 구실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과감한 개혁 아니면 혁명 둘 중의 하나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이건 혁명이건 그것이 실현하려는 가치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자유와 함께 평등을 똑같은 비중에서 요구하는 혁명일 것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의 세계민중은 이제 자유를 평등에 우선시켰던 시민혁명도 평등을 자유에 우선시켰던 사회주의 혁명도 결국에 가서는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유와 평등을 똑같은 무게에서 동시에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있다.

평등없는 자유도 자유없는 평등도 결국은 허구이고 엉터리라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똑같이 동시에 실현시키는 개혁이나 혁명이 남과 북에 일어날 때 그 남과 북은 이미 통일을 이룩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재통일은 자유와 평등의 두 가치의 값을 똑같이 매

기는 제 3의 혁명을 통해서만 달성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구성원 개개인과 민족공동체 전체의 물질적·도덕적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고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그것은 동시에 세계사의 방향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

\* 주 \*

※ 이 발표는 지난 5월 29일에 행한 것인데, 내 예견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은 사건이 바로 지난 8월에 일어난 소련의 60시간 쿠데타이다. 그 쿠데타의 주동세력이 어떤 종류의 그룹이었던가는 내 주장을 증명해준다. 그러한 반동세력은 이 반도의 남에도 북에도 도 존재한다.

##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식

한 완 상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91년 6월말 뉴욕 Stony Point Center에서 열린 북미주 기독학자대회에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자 한다. 먼저 「조국 남쪽 백성들의 냉전의식과 통일의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대회 사흘째는 북한 주체사상 연구소 소장 박승덕 박사와 「주체사상과 기독교」라는 제목 아래 토론했었다. 이 토론은 그 다음 달 월간중앙에 자세히 게재되었기에 본 보고서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곳에서 발표한 논문의 요지만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한에서 지베이데올로기로 굳건히 자리를 굳힌 냉전의식(가치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약화되고 있다. 마치 느브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신상이 무너지듯 탈냉전의 세계사 흐름 속에서 남한 백성들의 냉전가치관도 균열과 약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학교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가 세 차례 실시한 국민

\* 위 논문은 제25차 북미기독학자회 연차대회 참가보고 논문요약이다.

의식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조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분단의 원인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에서 냉전의식의 퇴조현상을 보게된다. 여러 원인 가운데 분단을 ‘북한의 책임’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냉전적인데 이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6%에 불과하다. 연령에 따라 이 가치관은 확연하게 다르다. 20대의 8%, 30대의 13%, 40대의 18%, 그리고 50대와 그 이상에서는 27%에 이른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수준이 낮을수록 더 냉전적이다. 국졸의 32%와 대졸의 6%가 각각 냉전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중간체계층보다 농어민들이 훨씬 더 냉전적이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냉전의식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국방비 지출이 분단고정비용으로 볼 때 이것이 많다고 비판하는 견해는 탈냉전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견해도 연령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국방비지출에 대해 비판적으로 나타난다. 이 문제와 함께 5·16에 대한 평가를 보면 20대의 62%가 비판적임에 반해 50대와 그 이상은 28%만이 비판적이다.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꽤 의미가 크다 하겠다.

셋째, 통일 문제와 연관해서 냉전의식을 살펴보면 통일이 안되는 이유 가운데 북한의 혁명전략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믿는 사람들이 냉전적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세대차, 교육차, 직업차 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20대의 18%만이 북한의 혁명전략 때문에 통일이 안된다고 보는 데 반해 50대와 그 이상은 39%, 그러니까 20대 보다 2배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 결국 여기서도 냉전의식의 수용자는 구세대의 교육수준이 낮은 농어민들에게 있어 뚜렷하다.

넷째, 냉전론자들을 소극적 냉전론자(自足的 反統一論者)와 적극적 냉전론자(북한을 자유민주주의로 흡수통일해야 한다고 믿는 자)로 구분해

본다면, 소극적 냉전론자들은 4%에 불과하고, 적극적 냉전론자들은 26%에 이른다. 이들을 합치면 30%에 이르지만, 놀랍게도 과반수에는 이르지 못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반공의식이 국시(國是)로 격상될 정도로 지배이데올로기화 되었었지만, 그것이 응답자의 30%에게만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이중 적극적 냉전론자들은 주로 구세대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요, 농어민임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즉 50대와 그 이상의 42%와 20대의 17%가 각각 적극적 냉전론자들이다. 대졸의 12%와 중졸 이하의 42%가 각각 적극적 냉전론자들이다.

다섯째, 북한에 대한 호감도에서도 냉전의식을 측정할 수 있다. 1990년 1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동구를 대표한 헝가리를 포함한 여섯 나라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북 한 44%
- ②헝가리 40%
- ③미 국 37%
- ④중 국 33%
- ⑤소 련 26%
- ⑥일 본 12%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과 미국보다 북한을 가장 좋게 본다는 것은 그간 이정도로 국민들이 냉전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같은 탈냉전의식은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뚜렷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욱더 확실하다.

여섯째, 북한에 대한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미국축구 선수팀과 북한팀이 시합할 때 어느 팀을 응원하겠는가를 물었다. 이 질문은 냉전의식과 함께 민족의식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질문이다. 미국팀 보다 북한팀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커질수록, 이것은 탈냉전적 가치관과 더불어 민족가치관을 더 소중하게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지난 네 차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87년 1월	88년 5월	90년 1월	91년 1월
미 국	77%	30%	28%	16%
북 한	21%	58%	71%	83%

\* 합이 100이 안되는 까닭은 까닭은 응답을 기피한 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친북한의식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냉전적으로 북한을 보면 초전박살 내야 할 적국인데도 88%를 기점으로 해서 과반수의 국민들이 이같이 냉전적 인식을 버리고 있으며 이제 절대다수인 83%가 북한에 대해 호감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우방’ 미국보다 북한을 더 선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북한인식에 있어 냉전가치관은 느브갓네살 꿈에 나타난 신상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여기서도 짚고 교육받은 국민일수록 더욱 탈냉전적임이 분명하다.

위의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탈냉전이라는 세계사 흐름과 함께 냉전의식에서 급속하게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문제는 아직도 남북의 지도층과 당국이 여전히 냉전적이고 호전적이라는 데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에서 지도층의 자성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

개회 기도문

## 하나의 조국을 이루도록

최옥희

평양 신학원 학생, 전도사

네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소명해 주시고 고난과 축복을 함께 주신  
주님, 고향을 떠난 첫 이민자, 해외생활개척의 첫 사람 아브라함이 하  
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조건 떠나간 그때, 이민생활로부터 믿음의  
력사는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첫 체계가 되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참보배를 안겨 주신 하느님,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는 이미  
고향을 떠나 북미주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인 북미 기독학자  
들이 주님 앞에 대성회를 마련하고 조국에 있는 우리들과 다른 해외 여  
러 지역의 형제들을 초청해 줌으로서 지난 해 북경회의에 이어 또 한  
차례 북미의 이곳에 모여 뜻깊은 성회를 이루었습니다.

력사의 주체이신 하느님,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조국의 현실을 놓고  
하느님의 구속사적 은총 속에서 하느님의 참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러하오니 우리들의 간절한 뜻을 헤아려 주시고 조국을 위한 우리들의 성회가 하느님의 창조섭리에 맞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비록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이지만 우리 동포형제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뜨거운 혈육의 정을 느끼며 이구동성으로 우리 조국을 기억하고 하느님께 기도하며 눈물로서 울부짖게 되었음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국을 떠나 올 무렵 우리 조국의 유연한 산하에는 5월의 신록이 유난히 밝고 푸른 하늘에 조화를 이루며 하느님께서 주신 천하제일 강산의 수려함이 하느님의 창조솜씨로 수놓아 보였습니다.

이런 전경 속에 지금까지 분단 46년의 긴긴 고통과 리념대결의 희생물로 짓눌려 오던 북남의 젊은 아들 딸들이 서로 뜻을 모아 탁구 유일팀을 구성하고 일본에서 세계 여러 나라 선수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개가를 올려 조국통일의 열망을 만천하에 시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떠날 직전에는 축구 유일팀 평가전을 위해 우리 조국의 억센 젊은 아들들이 원한의 38선을 넘어 오고 가면서 서울과 평양에서 경기가 진행되어 조국통일의 우뢰소리가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메아리쳐 갔습니다. 이것이 전능자이시고 평화통일의 근본자가 되시는 하느님의 성품의 손길임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일찌기 어린 야곱이 뱃단아람으로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벨엘에서 만나 주신 하느님은 그가 로년에 가나안 땅이 흥년들어 애굽으로 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리라”고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느님이 되어주셨나이다.

이처럼 외지에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압복 강가에서도 함께 하시고

늙은 로구를 끌고 애굽으로 갈 때도, 이민생활의 마지막 길에도 함께 하신 하느님, 미디안 망명자 모세를 호렙에서 만나 주시고 그를 불러 민족해방의 대업을 맡겨 칼 한 자루 없는 노예살이 민족을 그 강한 팔로 이끌어내며 해방자의 성품을 보여주신 하느님, 하느님이 만일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서글픈 실향자, 이민의 고달픈 운명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며 애굽의 압제치하에서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오늘 멀고 먼 북미주땅에서 우리 겨레가 함께 모여 조국의 현실을 눈물로써 울부짖으며 하느님의 역사섭리의 뜻을 간구하는 이 자리에 하느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회는 폐허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자폭해버린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호렙의 동굴 속에서 세미한 음성 속에 하느님이 현존하신 것과 같이 오늘의 우리들을 불들어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국에서 언제나 향수에 젖어있는 우리 동포들과도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1910년 8월 22일, 민족이 일본식민지로 수탈되었을 때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리 동포들은 정든 고향산천을 떠나 이국땅으로 정처없이 떠나갔습니다. 이때 거치른 이국땅 령하 40도의 혹한 속에 맨발로 헐벗은 우리 어머니들이 어린이를 등에 업고 새파랗게 얼어 붙은 살을 서로 의 치하며 말 없이 뼈를 지어 정처없이 몇백 몇천 리를 가고가다가 지쳐 쓰러져 얼어 죽으면서 국경을 넘어 이국땅으로 이민해 갔습니다.

이 실향자의 참상을 어떻게 표현하리요만 합병 이후 실향이민의 수는 25만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필설로 형언키 어려운 민족비운 속에 하느님, 오늘도 그 성격과 각자 사연은 다르나 우리 동포가 해외 모든

지역 동서남북으로 이민해 갔고 지금도 조국을 떠나 이민해 가고 있나이다. 이런 이민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하느님 뜻에 물어 보는 뜻깊은 성회를 이루었나이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느님, 이곳 북미주를 비롯하여 해외에 사는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언제나 하느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하느님의 현존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확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회가 개회되고 진행되는 이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들의 뜻과 모든 실천·행동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들리며, 우리 조국의 가장 간절한 과제인 조국통일의 매듭을 푸는 데 크게 기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자면 우리가 우리 민족 앞에 놓인 고난의 십자가를 남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죽고 희생하는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걸어져야 하겠나이다. 하느님,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낚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죄에 얹매인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자기 격하의 성육신 하실 때 그것도 남의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것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를 둘 곳 조차 없다고 하시며 남을 위해 섬기며 불행한 곳을 다 찾아다니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다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량발에 쇠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까지 받으셨습니다. 하느님, 우리도 이와같이 종으로 섬기고 고난받으신 고난의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믿습니다. 궁晡히 여겨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구원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괴롭 흘리시며 하느님 뜻대로 하옵시기를 기도하며 심정이 메도록 우신 주님, 십자가 도상에서도 조국을 위해 우신 주님, 우리도 이 주님을 신앙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 갈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고백하옵니다.

하느님, 다니엘이 이국에서 조국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나이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조국을 위기에서 구원하였나이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조국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읊며 결단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믿음과 함께 애국심을 주시옵소서. 하느님, 오늘 우리들의 조국현실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라는 운명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골리앗이라는 핵으로 무장한 거인 외세가 가로놓여 있사온데 이것을 해결하여야 할 우리들은 물매들 다섯개밖에 없는 어린 다윗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의지한 다윗의 신앙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다윗의 애국심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느님, 오늘 우리들이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애국심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현실 앞에 주저앉는 우유부단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히브리 노예민족이 탈애굽 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놓고 바란 광야에서 결단의 행진을 멈추고 신앙을 저버린 교훈을 이 시간 상기합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바니아에까지 신고의 행진을 해오기까지 하느님은 사랑과 은총으로 쉽게명을 주시고 레베의 은혜를 주시고,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해 주시고, 만나까지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건만 배운망덕으로 더는 전진못하고 후대에 못다이룬 그 기업을 물려 준 불행한 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역사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현실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조국의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대에 반드시 하나의 조국을 이루도록 하느님 이끌어 주

## 옵소서.

지금 우리 조국의 모습은 분렬의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통일을 이룩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옵니다. 그 모습은 찢기고 상한 채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옵니다. 진실로 분렬, 이것은 하느님 앞에 죄의 현실임을 오늘 조국의 이 모습을 통해서 통절히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울부짖는 중에 오늘은 강경대 렐사가 공권력의 쇠몽치에 맞아 꽂다운 청춘으로 무참히 쓰러졌습니다.

하느님, 그의 어머니가 제 아들의 조객이 되자고 그를 이날까지 길렀나이까? 정다운 학우들과 벗들이 그의 령구를 메고 비칠거리자고 사랑과 우정에 웃고 울었나이까?

하느님, 그도 이렇게 죽자고 살지 않았습니다. 한강 여울의 슬픈 호곡을 들으며 갈라진 강토의 오늘이 아파서 그 나이에 눈물도 많던 청춘이였습니다. 구천에 사무친 그대의 원한, 하느님, 조국남부에서 터져 나오는 의문에 찬 이 함성을 들어 주시옵소서.

북과 남 온 겨레가 몸서리치며 절규하고 있는 울부짖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이 가슴아픈 고통의 명예를 이제 벗고저 하오니 주여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성회를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한 말로 리치를 어둡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륜이 깊으신 주님, 북경 제 24 차 총회 때 만나뵈옵고 헤어졌던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다시 만나는 감격 속에 이 성회의 한 자리를 차지한 우리는 기쁘고 은혜롭습니다.

하느님, 오늘 여기에는 북과 남 해외의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분렬의 고통을 안은 채 나왔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다시 모여 앉을 때에는 이 분렬의 명예를 벗고 한숨도, 눈물도, 갈등도

없이 나을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일기월심 통일소망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빌린 마구간에서 태어나 빌린 무덤에 묻히기까지 33년 생애가 이민자로서 섬기시고 십자가 지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 4

제 26 차 연례대회

1992년 7월 9일-11일

Hofstra University  
Hemstead New York

주제• 민족통일을 위한 신학과 민족주의 재정립

제1 패널 민족통일을 위한 신학의 정립

제2 패널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자주성 확립

북·남·독일·일본에서 북미주 기독학자회의에 참석 발표된 논문, 설교 및 기도들이 수록되었다.



## 기조강연

# 21세기를 바라보는 민족주의의 자세

선우학원

미국 미주리 중앙감리교대학 정치학 은퇴교수

## I. 머리말 – 민족주의의 요소

오랜 인류 역사상 민족주의란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된 사상의 하나라 하겠다. 민족 자체의 존재는 오래 전부터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 국제정치학에서 사용하는 민족주의(Nationalism)란 말의 발생은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다. 편의상 민족주의 사상을 구라파 민족주의, 아시아 민족주의, 신민족주의 등 세 종류로 나누어서 토론해 볼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발생된 구라파 민족주의는 당시 봉건제도에 반발하면서 18세기 자본주의 발생을 중심으로 민족국가 형성의 발생과 동시에 시작됐고, 민족경제 이권을 보장하는 데서 그 시초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영국 상품이 구라파 대륙으로 진출할 때 나폴레옹이 꿨던 대륙봉쇄정책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부르주아

혁명과 동시에 발생한 구라파의 민족국가 형성에서는 단일한 민족시장의 획득을 추구한 신흥 부르주아지가 민족주의의 가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던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상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경제적 갈등만으로 민족주의가 발생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밖에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구라파 각지에서는 자기 민족의 공통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특히 독일민족은 19세기에 독일 연방국기를 모색하면서 독일민족의 공통점으로 독일어를 강조했다. 독일 민족주의의 선구자인 요한 고트리브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와 어니스트 모리츠(Ernest Moriz)는 독일어가 불어, 이태리어, 서반아어, 영어, 또 슬라브어보다 우수한 것을 주장하면서 독일 민족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들은 독일어만이 전통을 지킨 변함없는 순수성을 간직했고, 그 우수성이야말로 독일민족이 구라파에서 정치적 패권을 장악할 조건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언어 다음으로 민족주의 정표요소로 중요한 것은 민족문화이다. 독일민족이 언어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만큼 프랑스인들은 자기들의 문화야말로 구라파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유람하는 미국 사람들의 행동을 미개인의 행동으로 취급하고 문화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금도 비난한다. 문화의 전통이야말로 미개한 사회와 문명한 사회의 표준을 결정케 한다.

그리고 문화는 예외 없이 민족의 생활을 담은 것이며, 민족단위에서 창조된다. 민족의 고유한 정신적 특성과 감정을 반영함으로써 민족적 형식을 갖추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테네를 여행할 때 고대 그리스의 고적지를 보게 된다. 그들의 건축물의 특징은 대리석 조각이었다. 그것이 그들 민족문화의 특징이었다. 그들의 고적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 민족문화의 생활모습을 알게 된다. 그들의 지혜와 기술의 창조력은 오늘의 서양문명의 바탕이 될 만하다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그와 반대로 자기들의 말과 글과 문화를 지키지 못한 만주 민족은 대중국을 점령하고 청국을 수립하여 수백년간 정치적으로 통치 하여 왔으나 결국은 중국, 즉 한족문화에 동화되어 만주족의 형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자기의 민족성을 잊고 결국은 망국 민족이 됐다.

다음으로는 영토의 공통성을 지적할 수 있다. 민족은 같은 영토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라 하겠다. 이스라엘 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에 유대민족은 공통적인 영토없이 장구한 시일을 지냈으나 하나의 민족으로 남았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예외이다. 한 지역에서 같이 살지 않고서는 생활의 공동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단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영토에서 밀접한 연계를 맺고 공동생활을 해야 민족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영토야말로 인간 생활의 터전이고,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기본 여건이라 하겠다. 민족의 피와 땀이 속속들이 배었고, 민족의 정기와 의지가 호흡을 하고 뛰는 곳이 자기의 조국 땅이라 하겠다.

네번째로 민족주의 징표요소를 든다면 민족의 단일성을 증명하는 한 핏줄을 말할 수 있다. 한 핏줄로 이어진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취미와 심리작용 등 정신적 공통성이 굳어지고 발전되는 것이다.

이처럼 혈연의 공통성은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나치스’운동은 독일민족의 혈연을 강조했고, 민족운동에 부정적이나마 큰 성과를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게르마니 인종과 독일민족을 동일시하면서 육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사람의 능력 등이 유전된다고 주장했다. 그 전통적 유전에 의해서 독일민족, 즉 ‘아리안’족, 특히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허설은 독일민족에게 전쟁의 패전국으로 쓴 잔

을 마시게 했던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 이론도 나치스의 입장과 비슷했고,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혈연의 공통성은 민족의 단일성을 지적할 뿐이고 우월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두고 하나의 조상, 한 땃줄을 이어받은 단일 민족이다.

이상 민족의 요소로 언어, 문화, 영토, 혈연 등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어느 민족국가나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국가를 수립할 때 이와같은 요소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구라파 민족주의의 경우나 아시아 민족주의의 경우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구라파 민족주의는 초기 근대 민족국가 형성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서구국가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침략적인 부정적 측면으로 바꿔진 것이다. 즉 현대 제국주의 발생이 그것이다. 구라파 제국주의 민족주의와 그들의 피해자인 식민지에서 발생한 아시아 민족주의의 차이가 있음을 물론이다.

## II. 아시아 민족주의

그러면 구라파 민족주의와 아시아 민족주의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18, 19세기의 구라파 민족주의 발생에 비교해서 20세기 초에 발생된 아시아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제기했다. 프랑스 혁명이나 이태리 통일은 국내 투쟁과 동시에 외세침략에 항거 투쟁한 것이 사실이다. 그 당시에는 신흥 부르주아지와 인민대중의 이익이 기본적으로 상치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시아 민족주의,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발생된 아프리카 민족주의는 19세기 구미 제국주의(일본 제국주의 포함)의 침략 속에서 민족국가 수립을 주장하면서 제국주의 국가에 항거하는 저항적 민족해방운동에서 찾게 된다.

그 당시의 제국주의는 오늘의 신제국주의와 달리 경제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 영토를 점령하여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데서 시작했다. 그후 영토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헐값으로 사고 인민을 착취하는 탄압 정책을 실천했고, 시장을 독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들은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국가 독립을 모색하는 민족해방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구라파 민족주의와 아시아 민족주의의 성격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국주의 시대에 와서 민족주의는 선진국에게는 부정적 심볼이었고, 식민지 민족들에게는 긍정적인 이념과 운동으로 나타났다. 우리 민족주의 역시 저항적 민족주의에 속한다 하겠다. 국제정치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의 차이는 심한 것이다.

### III. 신민족주의

그런데 요즈음,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는 새로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민족주의 사상이 민족국가 독립이란 막연한 테두리 속에서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분명히 파악치 못하고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는 민족운동 한계 내에서 머물게 되었음에 불만을 가지고 민족해방에서 전세계 인간해방까지 확대된 정치사상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같은 새로운 사상은 현재 제 3 세계 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대한 사상과 세계적인 인간해방 운동이념은 어디서보다 우리 조국 북녘에서 발생된 주체사상이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새로운 민족주의 이념의 발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 국제정세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간단히 정세 배경을 소개하면서 민족주의 이념을 토론코자 한다.

20세기 후반기, 즉 제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10여개 선진국가의 압

도적인 지배 밑에서 백수십개 국가(개발도상국들)가 착취를 당해 왔고, 결과적으로 세계인구의 절대 다수인 제 3 세계의 수십억 인민이 빈곤생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의 차이는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다.

이와같은 세계 사정은 여러 국가 속에서도 비슷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를 보면 지난 10여 년 간 레이건 – 부시 공화당 정권 밑에서 부자는 더 부해졌고 가난한 국민들은 더 가난해진 것이다. 레이건 8년 정권의 세금정책은 미국인구의 1%에게는 막대한 도움을 줬고, 그 나머지 국민에게는 세금을 증가시켰던 것이다. 결과로 3천 5백만의 빈민들, 실업자의 수가 1천 3백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선진국가 중 유일하게 국민건강 보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되고, 마약문제 해결은 하나의 실망상태에 빠졌고, 거주지 없는 홈레스(Homeless) 국민의 수는 매일 증가되어 미국의 큰 도시는 인도의 캘커타나 봄베이와 흡사하게 되고 있다. 금번 L. A. 시가 불바다로 변한 사건은 미국 현실의 상징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세계의 경제강대국으로 등장한 일본은 미국의 전후 지원으로 시작하여 한국전쟁의 혜택으로 활발해진 후 아시아 각 국가에서 저임금 조건을 이용하여 근로대중을 착취하여 갑작스럽게 부강국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가혹한 착취 밑에서 헤매이는 아시아 근로대중은 아직도 기아선상에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과로 일본과 아시아 제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 빈부의 격차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이와같은 일본의 아시아 경제침략은 미국의 지원 밑에서 진행된 것이다.

일본은 경제대국의 한계를 넘어서 정치적, 군사적 대국의 실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지속케 하면서 미국과 동맹자임을 강조하고 조심스럽게 무력 준비에 박차

를 가하는 형편에 있다. 일본은 21세기의 세계대국으로 등장코자 맹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신민족주의 사상이고, 그 사상의 원산지가 한반도라 해도 과장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민족주의 사상이 발생되기까지 어떤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 민족이 계승해 온 민족주의의 주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 근대사에 나타난 민족운동의 주류를 찾아봄으로써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 IV. 우리 민족주의의 주류 – 역사적 배경

이제 우리의 경우를 토론하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근대사에 나타나고 있는 반외세 자주독립을 위한 역사 배경을 간단히 진술코자 한다. 이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는 오늘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란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이념인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언제나 정당한 사상이 필요하다. 민족문제란 본질적으로 민족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과거 우리 선조들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전개시켰는가?

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 문제가 우리 민족에게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는가 하면 우리 나라는 지형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의 계속적인 침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 역사, 전통을 사수했고 생존 경쟁을 치뤘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역사는 민족자주성을 지키는 독립정신과 대국에게 예속을 지원하는 사대주의와의 투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이조 봉건사회의 기초적인 이념은 중국의 주자학(朱子學)을 맹신하면서 중국을 섬기는 사대주의 정책의 일색이었다. 주자학의 특징은 ① 보수적이었고 ② 추상적 교리를 기초로 했고 ③ 배타적이었다. 이와 같은 정통론이 이퇴계(李退溪)를 중심으로 최고봉을 이루었다. 세청 주리파(主理派)란 것이다.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율곡(李栗谷)을 중심한 주기파(主氣派)가 생겼다. 이 두 보수세력을 반대하고 시작된 것이 실학파(實學派)였다. 즉 실학파는 보수적인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촉진한 현대사의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다.

당시 이조 봉건사회는 정치의 부패, 경제적 파산, 사회도덕의 파괴로 국민들이 막대한 곤경에 빠졌다. 실학파는 민족구원의 구호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그들의 이념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었으며 민족적이었다. 현실문제를 파악하고 사회제도의 개조를 주장했다. 이 실학사상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이념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이란 이념이다. 그 뜻은 국민의 이권을 존중하는 복지사회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다. 즉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선진기술을 배우고 발견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킨다는 뜻이다.

둘째 이념은 ‘격물치지’(格物致知)란 것이다. 자연과 가까이 하고 자연에서 배우라는 것이다. 즉 자연과학의 중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주자학의 핵심인 추상적인 이념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이다.

다음으로는 ‘기’(氣)의 학설을 내세웠다. ‘기’란 말은 자연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상징하는 ‘기력’을 의미한다. 즉 요즈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電氣), 증기(蒸氣)의 술어가 여기서 나온 것은 물론이다. 이 말은 물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대표적인 실학사상이 정약용을 비롯하여 ‘지구설’을 주장한 홍태용, ‘이용후생설’을 주장한 박재가 등 홀륭한 학자들에 의해

서 주장되었다. 17세기 중국이나 일본에 이와같은 진보적인 학설이 없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열띠게 토론된 것이다. 불행히도 그들의 주장은 이조 봉건사회에서 보수적인 사대주의 유교도에게 진압을 당하여 출세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실학파의 민족주의 정신은 김옥균의 개화운동을 뒤따라 ‘독립협회’에서 계승케 됐다. 서재필 박사, 이상재, 윤치호 등의 지도 밑에서 대중토론이 공개됐고, 유명한 〈독립신문〉이 출판되면서 반외세 자주독립의 정신이 보급되었다. 그들은 봉건제도, 계급제도를 비판하면서 남녀 평등주의, 현대자유사상을 보급했다. 그들의 혁신운동의 생명은 짧았으나 우리 현대사에 중요한 페이지를 점령했다.

다음으로 독립정신을 계승한 대중운동은 이조 봉건제도에 항거한 대표적 민중운동인 ‘동학농민혁명운동’이었다. 이 역사는 중국의 ‘태평 운동’ 모양으로 외세의 간섭으로 실패했다. 반외세 민족자주성을 주장한 민족운동은 17세기의 실학사상운동, 19세기의 개화파의 갑신정변과 독립협회운동 등의 엘리트 중심운동, 그리고 갑오농민혁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866년 여름 대동강에 나타난 미국의 ‘셔먼’호에 반항한 것이나 같은 해 가을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 함대에 반항한 것이나 국제강도단의 충청도 아산만 침입에 항거한 것 등은 현대 민족주의의 발현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 계속해서 의병투쟁이 전개됨으로써 일본의 침략 이전 근대 한국 민족주의 운동에 공헌하기도 했다.

나라와 주권을 상실한 이 시기의 민족운동도 역시 주권회복, 자주독립을 위한 저항적인 민족운동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3·1 애국운동’인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3·1 애국운동은 참으로 우리 민족해방운동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요즈음 소수 진보학자 중에서 3·1 애국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설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는 3·1 애국운동의 역사적인 특징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고 싶다.

첫째, 운동 지도자들은 비폭력운동을 주장했다. 운동 지도자들이 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아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일본 군국주의의 성격을 무시한 결과 막대한 국민희생자를 배출하는 비극을 만든 것이다.

둘째, 독립선언서에 표현됐듯이 그들의 독립정신은 ‘휴머니즘’에 근거했었다. 제국주의 앞에서 ‘휴머니즘’을 강조했다는 사실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자세였다.

셋째, 민주주의 이념을 주장했다. 물론 서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당시의 유행이라 할 수 있지만 지도자들은 왕정복고가 아니고 현대적인 민주공화국을 생각한 것은 반봉건적이었고 시대적이었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놓고 볼 때 지도자들의 부족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정당한 비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3·1 애국운동의 본질은 지도자들이 월슨 대통령의 민족자결론을 따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의 무자비한 침략에 항거한 민중운동에서 찾아야 한다. 지도자들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한 바 없고, 우리의 훌륭한 전통 역사, 문화, 언어에 대한 독립의 자격에 대한 언급도 없었지만, 민중은 지도자들보다 앞섰던 것이다. 그 위대성을 무시하고 지도자를 중심한 3·1 애국운동에 대한 해설은 바로 본 것이 못 된다.

전국 211개 도시에서 전 인구의 20%가 되는 2백만의 대중이 참가했고, 7,500명이 살해당했고, 16,000명이 부상했고, 47,000명이 감금 투옥되었다. 그외 물질의 파괴는 말할 것도 없다. 교회당만 해도 49개, 일반주택이 700채 이상 불탔던 것이다.

3·1 애국운동의 주력은 농민, 노동자, 도시 소시민, 청년 학생, 여성인, 종교인 등 각계 각종의 광범한 민중이었다. 민중을 중심한 3·1 애국운동이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 후손에게 남긴 교훈은 막대하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세기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우리 민족의 기상과 애국 정신을 뚜렷하게 증명하고도 남는다. 특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의 민족주의는 만주 벌판에서 발생된 항일투쟁의 폭풍 속에서 빛을 뿐였고 민족해방 후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민족통일 운동 역시 그 당시의 민족대단결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

당시 민족주의자들 중에는 주의 주장만 내세우고 공산주의자들과 이데올로기 투쟁에 몰두되어 좌우를 막론하고 교조주의적인 ‘운동’을 위한 운동으로 기울어 민중으로부터 이탈되었고, 조국해방과 민족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전 민족적 운동을 저해할 위험에 봉착했었다.

그러던 중 1930년대에 모든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민족해방투쟁에 주류를 이루는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대의 항일무장투쟁의 정신은 우리 민족주의 재정립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하겠다.

그 중심인물은 김일성 장군이었다. 1930년 12월에 조선혁명군 및 혁명조직자 회의를 열고 두만강 연변 동만주에 투쟁전략기지를 설치키로 하고, 31년 5월 공청간부회를 가지고 역사적 연설을 하게 된 것이다. 그후 운동은 간도로 이전됐다. 왜 청년 김일성 장군이 이처럼 중심역할을 하게 되었던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구구하지만 1992년 3월에 출판된 일본 도쿄대학 와다하루키 교수의 「김일성과 만주 항일전쟁」이란 책 속에서 한 구절을 볼 수 있다.

“선배들과 달리 다음 시대로 살아나가는데 30년대에 두각을 나타나게 했다. 국민부(보수파)와 ML파(좌익파)의 대립도 이 당시는 일본의 만주침략으로 의의를 잊고 강대한 적(일본)과의 투쟁 중에서는 도리어 동맹협력으로 전환을 일으키게 됐다”(p. 72)라고 해명했다.

하여튼 이때부터 ‘조선혁명군 사령부’가 시작됐고, 그 지도역할을

젊은 김일성 장군이 하게 된 것이다. 때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기 시작한 1931년 가을이 지난 12월이었다. 당시 김일성은 19세였다. 1932년 4월에는 리영배, 김철희 등과 안도현의 반일유격대를 조직했다(p. 100). 중국영토 내에서 활동하리만치 중국의 반일 군사력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은 물론이었다.

젊은 김일성은 공산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조주의적 입장을 떠나서 민족대단결을 목표로 하고 당시 민족주의자 중의 거물인 ‘조선혁명군사령’ 양세봉을 찾아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항일투쟁에 있어서 연합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김일성은 연합전선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여 대원을 모집했다. 그 수는 18명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민족 혁명적 통일전선을 집행하고, 광대한 대중적 일상정치와 경제투쟁을 발전시킨다”란 것이었다.

젊은 김일성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좌우 정치세력의 압력에 반항하면서 민족의 연합전선을 주장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주의를 끌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의 소년시대의 가정배경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직하다. 김일성의 부모는 크리스천이었다고 생각된다. 부친 김형직 선생은 충실학교 졸업 후 교사직을 가지고 있을 때, 즉 1917년 3월에 비밀정치결사인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였다. 당시 충실학교 재학생인 배민수 청년도 회원이었다. 이 사실을 나는 배민수 목사에게서 직접 들은 바 있다. 회원 25명 중 대부분은 충실학교 관계 인사들이었고, 크리스천이었다. 배 목사는 김형직 선생과 혈서로 ‘대한독립’이란 글을 남기기도 했다.

3·1 애국운동 후 김형직 가족이 만주로 이주한 후 김성주(김일성)의 민족교육을 위해서 외가로 보내게 된다. 소년 김성주는 교회에 속한 창덕학교에서 외조부 밑에서 성서공부를 했고 민족교육을 받았다. 외조

부를 따라 교회(고평면 하리교회)에도 나갔다. 그때 김성주의 나이는 11~13세로 의식발전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그는 14세 때 외가를 떠나 다시 부모를 찾아서 만주로 가서 국민학교 마지막 학년을 끝냈다.

때는 1926년 국민학교 졸업 후 민족주의 단체 정의부의 학교인 화성의숙에 입학했다. 부친이 속한 단체의 학교에 가게 된 것이다. 화성의숙의 숙장은 천도교의 최동호 선생이었다. 3월에 입학하여 3개월이 지난 후 부친 김형직 선생이 급사했다. 화성의숙을 떠나 모친의 권고로 길림중학교에 입학했다. 그 당시 15세였다. 여기서 공부하면서 소년 김성주는 손정도 목사가 시무하는 길립교회에 나갈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내의 소년회 회장이기도 했다.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당시 소년회 회원이며 손 목사의 차남인 손원태 박사에게 여러 번 인터뷰하면서 들어봤다. 손원태 박사는 현재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은퇴생활을 하고 계신다.

여기서 김일성 주석의 소년시대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가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여 소년시대까지 신앙생활한 역사를 소개하면서 그가 받은 기독교 사상은 그가 공산주의자로 변하면서도 그의 사상과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주체사상을 연구해 보면 기독교적인 이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가 공산주의자 이면서도 주체사상에서 정신생활이 인간생활의 핵심이란 것을 강조한 것이나 궁극적으로 인간사회는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은 우연한 결론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그의 소년시대에 받은 기독교 교육의 영향이 크게 숨겨 있다고 믿는 바이다. 우리 민족주의의 주류를 이야기할 때 김일성주의 또는 주체사상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V. 신민족주의

그러면 현 역사적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민족주의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가 다음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우선 현 민족주의는 지난 구라파 민족주의나 아시아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20세기의 파쇼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이 주장한 민족주의와도 다르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파쇼 민족주의는 침략적이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신민족주의는 평화적 공존의 위치에서 민족의 단결과 민족자주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현시대 전세계 민족이 갈망하는 시대의 요구의 핵심이며, 가장 정당하고 이성적인 우월한 사상이라 하겠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의 신민족주의를 다음 몇 조목으로 나누어서 해설할 수 있다.

첫째는 민족의 대동단결 정신이다. 민족의 대동단결에 대한 선포는 이미 7·4 남북공동성명의 3대 강령의 하나로 명시됐다. 민족대동단결의 뜻은 민족 안에서 각이한 계층과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핏줄과 공통된 언어와 문화, 역사와 전통에 근거하여 하나로 단합하고 통일하자 는 것이다.

이남에서 제의한 민족공동체의 형성도 이런 정신에서 출발했어야 했을 것이다. 연전에 김학준 교수와 이야기하는 중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물음에 김 교수는 민족공동체의 정신이 북의 연방제 통일정신과 거리가 멀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축배한 적이 있다. 국민 하나하나가 민족의 성원으로서 각 개인의 생명이 전 민족에 속한다는 이념 속에서 단합하게 되면, 또 다양한 계급과 계층으로 구성된 민족성원이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할 때 민

족이 하나로 단결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민족주의를 수립키 위해서는 남과 북이 우선 통일되어야 한다. 이처럼 민족대단결의 정신은 반제국·반봉건 혁명의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난다. 민중의 영도하에 지성인, 청년 학생, 양심적인 종교인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계속해서 민족해방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각 나라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 요구는 변함이 없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현 한국의 사정은 어느 나라보다도 복잡하고 어려운 민족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남과 북의 분단상태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문제 해결의 첫 단계로 민족의 대단결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민족의 대단결 없이 민족통일이란 추상적 이념에 지나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구호일 뿐이다. 그리고 민족통일 없이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할 수 없다. 현재 남에서도 민족자주성에 대한 ‘무드’가 진전되고 있다고 본다.

제5회 남북고위급회담의 기조발언에서 북의 연형묵 총리는 “오늘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외세의존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와 민족자주성 수호의 중요성을 분명히 증명한다. …… 우리 민족의 운명이 남의 손 안에 있고 남의 군사적 보호 밑에서 유지된다 하면 그와같은 민족은 치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북의 자세는 오랫동안 일관된 정책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남의 자세도 많이 변하고 있다 하겠다. 예를 들면 제5회와 제6회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남측 당국자의 발언을 보거나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선언’ 중에서 “한반도의 제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 협의로 자주적인 해결이라야 한다”는 발표를 보면 민족통일의 자주적 성격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합의서’ 챕터에 있어서 미국의 압력을 거부했고, 베이커 국무장관의 ‘6개국 협의체’ 제안도

거부한 것을 보면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한국 정부는 종속적 입장에서 독자적 대북협상 공간을 확보하는 계기”를 모색하는 듯 싶다.

신민족주의의 성격으로 민족의 자주성을 들 수 있다. 사실 민족주의를 말할 때 민족자주성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문제의 본질은 민족자주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배경에서도 보았듯이 민족주의는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데서 시작했다. 실학운동에서 중국의 주자학파를 반대한 것이나 김옥균의 개화운동, 독립협회운동, 동학농민혁명, 3·1 애국운동 그리고 항일무장투쟁 등에서 일관된 정신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19세기나 20세기의 민족주의 운동은 외세의존의 사대주의에 대항한 민족주의 운동이었다. 외세의존은 민족주의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승만의 ‘대전 정치협상’과 박정희의 ‘한일통상조약’은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합방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나같이 자기 나라의 주권과 존재를 남에게 넘겨준 매국행동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제국은 총독부를 세워놓고 한국을 직접 통치했고, 미국은 남한에 군사정권을 세워서 표면적으로는 독립국인 척하면서 신식민지정책을 쓰고 있는 것뿐이다. 크고 작은 한국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한미국대사관의 내정간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왜 그 모양인가? 18세기 독일의 계몽주의자 ‘헤르터’에 의하면 민족 의식은 인류를 구분함에 있어서 인간의 마음 속에 깊이 심어져 있는 자타를 구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했다. 또 역사가 신채호 선생은 민족의식은 “비아(남)에 대하여 아(나)의 의식인데, 나라 하고 남이라 함은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로시아, 법국, 미국 등을 비아(남)라고 한다”는 것이다. 즉 내 나라와 남의 나라를 의식적으

로 구별한 것이다. 민족의식은 ‘아’와 ‘비아’의 구별뿐만 아니라 좀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옹호하고 보장하는 의식화된 현실을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식은 자기 민족의 요구와 이해 관계의 자각인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민족의식은 민족의 요구와 이해 관계에 대한 자각뿐만 아니라 민족 고유의 감정, 정서, 의지, 심리 등 여러가지 의식형태까지도 포함된다.

이와같이 민족의 의식화에 따라서 민족자주성에 대한 자아 판단과 처세가 엄청난 차이를 노출게 된다. 근자의 예를 들면 3·1 애국운동에 동참했던 김구, 혁운형 두 분은 끝까지 민족자주성을 주장하다가 희생한 애국자들인데 최남선, 이광수 등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의식이 박약하여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매국노로 굴러떨어졌다. 의식문제의 차이는 이처럼 심각한 것이다.

민족자주의식이란 이념을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는 민족의 주인되는 민족 자체가 자기의 운명을 통치 지배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족의 운명을 통치 지배하되 자기에게 유리하게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이다.

우리나라는 자연지형 관계로 이웃나라의 침략을 수없이 당했다. 그러면서도 민중들의 의지와 지혜로 의적을 물리치고 독립국가로 오랜 세월을 지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본을 찾아보기 어렵다. 민족의 생명은 무수한 어려움과 이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노력과 투쟁의 과정이고, 민족의 의지력의 시험과정인 것이다. 아무리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손으로 지배하고 싶어도 개척하려는 투쟁정신 없이 이룩될 수 없다.

이와같은 개척과 투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애족심이 강해야 한다. 그런 정신 없이 민족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최남선, 이광수 등의 민족개량주의가 매국노로

떨어진 것은 이런 정신이 박약했기 때문이다.

재언하면 오늘의 민족주의는 민족의 공동의식과 저항의식에서 차원을 높이어 자기 민중에 대한 자부심과 애족심으로 무장하고 민족운명을 지배 개척하는 것이라야 하겠다.

신민족주의의 특수한 성격의 하나는 민족주의가 자기 민족만이 잘 살겠다란 협소한 국수주의가 아니고, 전인류 사회의 발전과 안전을 위한 인간해방의 국제성을 가진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아직도 제국주의와 대국주의 세력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약소국을 탄압하고 침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아직도 이런 습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다와 파나마 공화국을 침략하는 대국주의의 행세는 중미와 남미 일대를 지배하겠다는 과거의 전통을 계속하자는 것이고, 페르시아만 전쟁은 중동 일대를 통치하자는 정책이고, ‘핵사찰’을 구실로 북한 연변을 습격하자는 제안은 소련의 붕괴를 뒤따라 동북 아시아 지역에 미국 세력을 확장하겠다는 노골적인 제국주의 방침을 폭로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새로운 민족주의 시대로 변혁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 세력이 이라크를 무자비하게 폭격했고 파괴했으나 이라크는 양보하지 않았다. 그와같은 무자비한 폭력적 행동이 전세계를 놀라게 했고, 특히 미국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체험한 전쟁의 고통이 사라지기 전 다시 이라크 전쟁의 충격으로 미국 시민은 정신적, 심리적 고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테러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의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소련은 자기들의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했다. 미국이 이와같은 대국주의의 모순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소련의 뒤를 따를 것인가 하는 토론은 이미 미국 지성계에서 또 종교계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난 5월 5일 론토에서 캔자스시티 시장은 “미국의 절대

다수 인구가 살고 있는 큰 도시의 현 상황은 연방정부의 지원없이 복고 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약문제, 범죄문제, 주택문제 등등이 개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레이건과 부시 정권은 도시문제를 무시했다. 도시문제가 해결 안되면 미국의 장래는 암담하다”고 비난했다.

지난 5월 7일 미주리 홀튼에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전세계 민주화를 위해서 미국이 솔선해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현 세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반대이다. 냉전체제가 종식됐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의 치열한 경제경쟁은 더 악화되고 있다. 미일 경제관계, 미국과 EC의 경제관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본질로 인해서 벗어날 수 없는 사정이 아닌가 싶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이나 영국은 자기들의 세계패권을 유지키 위해서 일본과 구라파의 세력 팽창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감소, 군축을 꺼리면서 세계 핵무기를 독점하겠다는 펜타곤 백서까지 발표한 것을 볼 때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도 계속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뱃심인 것이다. 표면으로는 평화적 외교적 수단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대통령 재선에 있어서 이라크 전쟁의 승리자로, 그리고 그런 군사행동을 영웅시하면서 국내정책을 무시한 태도가 계속 된다면 미국의 앞날이 어둡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 제국주의가 제 2 차대전 후 식민지를 포기하고 제국의 운명을 자기의 손으로 종식시킨 것은 결코 영국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국제환경 때문이었다. 오늘의 미국도 그런 사정에 봉착하고 있다 하겠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신민족주의의 자세는 국제적 모순을 해결하면서 전인류의 생존을 앞세우고 인간해방, 환경보존, 평화유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1980년 5월에 한국에서 대미인식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자 82년 9월 미국 공보원이 주최한 한미수교 1백년 기념 강연에서 주한 미국 대사 리차드 워커는 한국 민족주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은 “적대적인 경쟁을 염두에 두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비현실적인 시각이며,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훼손할지도 모르는 민족적 자기 중심의 표현이다”라고 했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한국인들을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논자들, 즉 정치적 행동주의자들, 이상주의자들 또 광신적 국수주의자들”이라고 모독했다.

여기 대한 대답으로 당시 서울대학교 정치학 교수였고 현재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자문으로 시무하는 김학준 박사는 “우리 거례를 향하여 민족주의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자살을 권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민족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자주화의 과제는 반미 자주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자주적인 민족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미국의 한국 지배에 원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삼 척동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민족주의의 당면한 과제는 미국과 한국의 종속관계를 속히 정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21세기는 ‘팍스 아메리카’로 장식된 20세기의 반복이 있을 수 없다. 제 3 세계의 민족주의 이념으로 나타난 민족자주성으로 세계는 발전될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의 민족주의도 이와같은 세계 흐름 속에서 확고부동한 민족독립 정신을 장악해야 할 것이다.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90년대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즉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세대에게 지워진 민족적인 사명이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현 세계는 각 민족국가가 독립하고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들의 손으

로 개척하겠다는 자주성의 시대인 것이다. 민족자주성, 곧 새로운 민족주의의 시대이다. 새로운 민족주의, 민족의 자주성, 그것이야말로 오늘의 현실을 말한다.

자주성이란 무슨 의미인가? 자주성의 성격은 자유와 평등을 포함한다. 자유의 의미는 사람이 외부의 통치를 받는 행동과 동작의 제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평등의 의미는 사람의 균형 교환의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이와같은 자유와 평등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된다. 동물과 별 차이가 없다. 사람이 자주성을 가져야 사람다운 행실을 할 수 있다.

자유는 외부의 구속과 통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위환경, 자연환경까지도 자기에게 이롭게 지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주성은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란 것을 명시하게 한다.

자주성은 개인의 경우나 민족단위의 경우나 마찬가지다. 과거 우리 민족은 자주성을 잊고 사대주의를 했기 때문에 외부 세력에게 예속됐었다. 외부세력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자주성에 대한 의식화가 요구된다. 자주성에 대한 의식화 없이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자기에게 유익한 입장에서 세계를 대하고 자연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변혁시킬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민족주의 정립과정에 있어서 신학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한다면 민족자주성의 회복, 사대주의 굴레에서 탈피하여 민족의 독립을 수립한다는 정신은 구약의 구원신앙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인 구약의 구원신앙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과 직결된 신앙 이념이지만 그 한계를 초월해서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될 때 구약의 구원신앙의 우주성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구약의 구원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그 우주성이 실현된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선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을 약속한 셈이다. 이념적으로 보아서 신약성서의 천국 선포와 지상천국 건설의 희망과 새 민족주의를 정리하여 특히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통일된 조국, 자주적 조국, 비핵지대 중립의 조국, 민주화된 조국, 애국애족하는 조국과의 상충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예수가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란 경고와 민족의 통일이 없이 우리 민족의 소망은 없다란 이념은 종말적 선포로 그 뜻이 비슷하다 하겠다. 천국을 이룩하는 주력으로 예수는 당시 사회구조에서 소외된 ‘그룹’을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신민족주의의 주력도 민중을 그들의 주력으로 인정한다. 민족의 해방, 인류의 해방자는 민중이란 것은 그야말로 성서적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민중의 구별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혁명은 예수와 민중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피지배자는 지배자를 포함한 전민족의 해방자로 역사케 된다. 우리의 민족주의의 재정립은 이와같은 위치에서 탐구해야 하며, 그 방도는 애국애족의 입장을 취하는 민족적 자세이며, 전인류를 사랑하는 성서적 자세가 합류되어 발전될 수 있다고 믿어 진다. □

## 특별강연

## 정신대 : 역사와 민족의 고난

윤정옥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 은퇴교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여러분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어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이번 일은 순전히 저의 불찰입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대의 문제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언제부터 끌려갔는가, 둘째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셋째 가서 무엇을 했는가, 넷째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다섯째 일본의 패전 후 어떤 처리를 받았는가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50년이 넘는다고 추측되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대의 시작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낱말 개념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대’라는 말은 본시 ‘근로 정신대’를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당시 조선과 일본 내의 군수공장이나 탄광에서 노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정식으로 ‘여자 정신 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이 공포된 것은 1944년 8월 22일이지만 이미 그 전에 여러가지 이름으로 데려갔습

니다. 이 여자 정신 근로령은 일본 왕의 이름으로 공포된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지금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내용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쓰이고 있는 ‘종군 위안부’(從軍慰安婦)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는 일본 군인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하여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18세에서 20세까지의 미혼녀를 계획했던 모양이나 그렇게 해서는 수요를 채울 수 없어서 어리게는 14세의 소녀로부터 30세 정도의 아기 어머니까지 폭력으로 끌어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소위 종군 위안부를 정신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나라에는 해방을 맞을 때까지 위안부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국봉사대, 애국보국단, 근로봉사대, 그리고 후에 정신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제 말기에는 정신대가 위안부를 의미할 정도로 군인들의 성욕 처리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에서는 노동을 한 여성들은 ‘근로 정신대’라고 부르고 있고, 일본에서 말하는 종군 위안부를 말할 때는 ‘정신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후자인 종군 위안부입니다.

## I. 언제부터 끌려갔는가?

정신대 문제 연구자에 따라서는 정신대의 시작을 남경 대학살(南京大虐殺)이 일어난 1938년으로 잡는가 하면, 중일전쟁(中日戰爭)이 일어난 1937년으로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상해사변(上海事變)이 일어난 1932년을 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더 올라가서 1919년 창립된 일본의 관동군과 거의 그 역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볼셰비키(Bolshevik)혁명이 일어난 1917년경 일본은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는다는 이름 아래 당시 소만 국경지대에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시베리아 출병(出兵)이라 합니다. 이때 ‘가라유끼’(唐行)라 불리운 많은 일본 여성들이 이 군인들을 상대했습니다. ‘가라유끼’란 ‘외국에 간다’라는 뜻으로 ‘가라’(唐)는 외국을 말했습니다. 이들은 창녀(娼女)로 대부분이 빈곤한 집에서 팔려 사창이나 공창이 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 중에 조선 여성도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베리아 출병중에는 싸우다 죽은 병사들보다 성병으로 죽은 병사들이 더 많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동북부에 출병한 일본 육군은 중국 침략을 계획하고 관동군을 창립하여 당시의 만주에 장기로 주둔시킬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때에 일본 육군은 중국과의 전쟁을 계산했고, 시베리아 출병시의 경험을 살려 일본 창녀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것이 조선의 미혼녀라는 것입니다. 이 설은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김일면(金一勉)이 쓴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天皇의 軍隊와 朝鮮人慰安婦, 1976년 1월 31일)에 나옵니다.

정신대가 시작된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는 큰 차가 있습니다. 1938년 남경 대학살 후로 잡는 견해는 일을 저지르고 수습책으로 정신대 정책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937년이나 1932년 설은 시베리아 출병 경험을 살려 중일전쟁이나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동시에 민간업자들과 손을 잡고 때와 장소에 따라 필요에 대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919년 설은 일본의 관동군이 만주에 주둔하는 동기를 침략 계획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미혼여성을 일본군 상대로 계산했다는 사실은 일본이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정신대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견해는 결론부분에서 자세히 논하려 합니다.

## Ⅱ. 정신대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사실 1938년 남경 대학살 직후 세상의 창피거리가 된 일본은 급히 위안소를 설치하고 정신대를 끌어갔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위안소의 군의(軍醫) 자격으로 징병된 사람이 아소 데쓰오(麻生 徹夫)라는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이 군의는 중국과 동남아와 남태평양의 섬들에 있는 정신대 수를 약 8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라후네 대의사(荒船代議士)는 14만 8천명을 잡습니다. 필자는 약 20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소 군의는 물론 아라후네 대의사도 위안소는 전쟁터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답사한 바에 의하면 위안소는 당시 일본 영토였던 사할린에서 오끼나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본열도와 조선반도에까지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위안소가 반드시 일선의 군인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와 큐슈의 탄광에서 중노동하는 조선인 남성들과 중국인, 대만인, 일본인 감독들과 그의 직원들을 위해서 있었고, 비행장 건설이나 철도 부설, 지하 군수공장 건설과 같은 군용시설 건설을 위해 집단으로 일본 군인과 조선 남성들이 있는 곳에는 위안소가 건립되었습니다. 이런 위안소 중에 널리 알려진 곳이 나가노켄(長野縣)의 마쓰시도 대본영(松代大本營)에 있는 위안소입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지바켄(千葉縣) 가시와시(柏市)에 건설되었던 비행장 공사장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곳이 셋이고, 마쓰도(松戸)에도 위안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지바켄의 남쪽 해군기지에서 해군 소속 위안소를 관리한 옛 해군 소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지역에 기사라즈(木更淺), 다떼야마(館山), 모바라(茂原) 등 여섯 군데 위안소가 있었다고 합

니다. 나라깽(奈良縣) 야나기보도에 있는 야마도(大和) 해군 항공기지에도 두 군데 있었던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외에 훗가이도의 탄광과 비행장 건설 공사장과 철도 건설장, 큐슈의 탄광에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규슈 지꾸호(築豊) 지구에 있었던 위안소를 보면 금년 2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20군데 위안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꾸호 지구는 1939년경부터 조선 남성들이 강제 연행된 곳이었는데 조선인 여성이 속아서 혹은 강제로 이들을 상대하기 위하여서 끌려온 곳입니다. 위안소 이름도 ‘조선관’, ‘취심’(醉心), ‘야마도야’(大和屋) 등이었다 합니다. 이와같은 탄광지역의 위안소에 있었던 여성들은 ‘탄광 위안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도야마깽의 후지고시 군수공장 등에 간 여성들은 편리상 ‘기업 위안부’라 합니다. 현재까지 근로 정신대나 정신대였던 분들이 중언한 바에 의하면 군수공장으로 가면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속여 모집한 후 부산 등에서 일본행 배를 태우기 전에 나아가 들고 인물이 좋은 소녀들은 따로 취급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는 군수공장에서 3년쯤 일을 하니 오사까에 있는 위안소로 보내졌다 는 중언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위안소가 몇 군데였고, 위안부가 몇 명쯤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조선에도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구에 한 곳, 부산에 한 곳이었습니다. 대구의 것은 주민에 의해 알게 되었지만 부산의 위안소는 그곳에 있었던 정신대의 중언에 의한 것입니다. 그곳은 영도에 있었는데 육군과 해군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오끼나와는 유일하게 본토전이 있었던 곳으로 오끼나와 열도 거의 모든 섬에 군이 있었고 군이 있었던 곳에는 위안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동북부를 답사하였는

데 연길(延吉), 도문(圖們), 동령(東寧); 하얼빈 등지에서 60세가 넘은 조선족에게 물어보면 거의 예외없이 정신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한(恨)을 품고 있었습니다.

관동군 본부에서 제일 처음에는 조선 여성 한 사람이 하루에 상대할 수 있는 수를 29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중일전쟁이 확대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태평양 전쟁이 터졌습니다. 현재까지 정신대였던 분으로 우리 협의회에 신고해 온 분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평균 하루에 30명에서 40명입니다. 적은 날에는 20명 정도이고, 많을 때는 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양(瀋陽)에서는 일본 여인이 65명까지 세고 기절한 일이 있고, 오끼나와에서는 조선 여인이 하루에 100명을 상대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녀들은 그대로 죽어간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정신대의 수를 조사하는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위안소의 흔적만을 더듬어서 짐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외에 기차나 배로 현지로 가는 도중 폭격을 당하거나 어뢰에 맞았던 일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군대 안에는 여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탄약 몇 켤개이라는 식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군마나 군견의 생사는 알아도 정신대의 수는 알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인원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사실은 1944년부터 1945년 사이에는 인천이나 부산같은 큰 항구에서 제대로 된 배에 실려 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작은 항구였던 여수와 같은 곳에서도 불안한 어선에 실려 갔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신대의 수를 10만에서 20만이라고 하지만 좀더 조사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 III. 정신대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항목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일차적인 임무는 일본군과 일본의 침략전에 참가했던 모든 조직에 속했던 남성들의 성욕 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와 위안소의 관리자와 어떤 부대의 지휘를 받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탄광과 공장의 경우는 어떤 업자와 어떤 기업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임무는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이 많은 정신대 여성들이 거의 나이어린 미혼녀였다는 것과 지금과는 달리 정조를 생명보다 중요 여기는 유교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 혹은 군대빨래를 하면, 혹은 간호원의 조수가 되면 하루 세끼 흰 밥을 배불리 먹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속아서 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또는 집 안에서까지 폭력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도중에 기차 속에서 혹은 배 안에서 저들이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적지 않은 여성들이 바닷물에 혹은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다다미 석 장 정도의 방이 배당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좁은 공간에서 성(性)의 동물로 취급받게 됩니다. 화장실에 갈 때 외에는 방 밖에 나갈 자유가 없고, 동료들과 만날 자유가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6개월쯤 지나면 동료들과 조를 지어 외출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신품(新品)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장교가 먼저 들어왔다고 합니다. 조선 정신대로서 이때에 순순히 말을 들은 소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피가 나도록 구둣발로 채이고 뺨을 맞고 총 개머리판으로 얻어맞

곧 했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되어 도망치다 잡히면 두 번 다시 도망할 수 없게 고문을 당하거나 구타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울산에 살고 계신 부산 영도 위안소에 계셨던 윤씨는 도망하다 불잡혀 총부리로 궁둥이를 어떻게 찔렸는지, 그리고 초기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던 탓으로 지금도 그 자리가 움푹 패여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신 중국 길림에 계셨던 황씨의 증언은 이러합니다. 처음에는 ‘신품’이라 해서 성병이 없는 줄 알고 군인들이 ‘삭구’라고 불렀던 콘돔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후 약 한 달이 지나서부터는 성병치료를 위해 606호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주사를 맞으니 너도 나도 하혈을 심하게 했답니다. 그때 어린 정신대들은 자신들이 임신해 있었던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본 군대는 성병을 무서워해서 일주일에 한번은 성병검사를 한 모양입니다. 정신대가 걸리는 성병은 대부분의 경우가 매독이었는데, 두 번까지는 격리시켜 치료하여 주었지만 세번째 걸리면 없어졌다고 합니다. 필자는 하얼빈 731부대에서 매독에 걸린 위안부들을 생체실험했다는 군인의 이야기를 듣고 세번째 매독에 걸린 정신대들이 어디에 갔겠나 하는 것을 상상하고 전율을 느끼었습니다. 하얼빈의 731부대에 있는 ‘침화 일군 731부대 죄증 진열관’(侵華 日軍 731部隊 罪證 陳列館)의 관장인 한효(韓曉)의 논문에는 남녀를 접촉시켜 실험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황씨의 증언에 의하면, 황씨가 한 번은 봄이 말이 아니였는데 어떤 일본 군인이 와서 황씨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욕적인 짓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황씨가 “네 뚱을 먹으라고 하면 먹었지 그 짓은 못한다”고 했더니 그 군인은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5중의 명령을 하는 것이다. 첫째로 텐노 헤이까, 둘째가 사령관, 셋째가 연대장, 넷째가 부대장, 그리고 내 명령이다”라고 하며 어찌나 두들겼는지 혀를 길게

내밀며 앞으로 고꾸라졌다고 합니다.

황씨는 이 경험으로 너무 매를 맞으면 혀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고, 진짜 황씨는 그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좋아하는 빛깔도,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너희들이 어찌 되나 두고 보자. 내가 원수를 갚고 말 것이다”라는 일념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할머니 식당’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황씨는 아무의 도움도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서 일을 합니다. 일본의 도움은 개인적인 것이라도 물론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의 도움도 거절했습니다.

위안소는 일본이 이미 공창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선인 정신대는 몇 종의 명예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은 너무 엄격한 순결교육을 받았고, 일본 군인들은 줄줄이 상관들에게서 너무 학대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분풀이를 할 수 있는 상대는 식민지인 조선의 여인인 정신대였고, 그리고 일본의 군인들은 남성 우월주의자들로 강자로서의 사내임을 과시할 수 있는 곳을 정신대에서 찾았습니다. 따라서 극단의 이 대립은 일본민족이 조선민족에게 가하는 강간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속여서 혹은 폭력으로 끌고와서 가두어놓고 줄지어 서서 10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소리치는 그 광경은 실제로 집단 강간 이요, 윤간(輪姦)이었습니다.

이 ‘임무’외에 패전의 파국으로 몰리는 일본군의 탄약을 나르기도 했고, 빨래도 했고, 오끼나와 같은 곳에서는 1945년 초부터 미군의 공습이 심해지자 산에서 먹을 것을 구해와서 먹을 것을 장만해야 했습니다.

#### IV. 그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첫째로 신고한 분들의 증언과 연구된 바를 읽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정신대들은 조선 여인이라는 정체성이 말살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씨개명 때 성은 같았어도 이름은 조선식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정신대들이 많았는데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안소에서는 조선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루꼬’, ‘아이꼬’식의 일본 이름입니다. 아니면 아예 이름 없이 번호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충남 대천(大川)에 살고 있는 노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음은 옷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조선 옷은 그대로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양복을 입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복 윗도리에 몸빼를 입은 곳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한 노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있었던 중국 오태산이라는 곳에서는 일본군이 팔로군(八路軍)을 포로로 잡아오면 정신대에게 일본 옷을 입게 하고 오비까지 매고 ‘일본 국방부인회’(日本 國防婦人會)라고 쓴 어깨띠까지 두르게 하고 팔로군을 죽이는 장면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돌아오면 정신대로 하여금 일본 옷을 입고 술을 따르게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차이가 심한 점이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먼저 전혀 어떤 형식으로도 보수를 받지 못한 정신대가 있습니다. 중국 오태산에 계셨던 노씨가 그 예입니다. 다음으로는 군표를 받은 곳이 많습니다. 가격은 졸병의 경우 1엔도 있고, 1엔 50전도 있었답니다. 오끼나와에 강제연행을 당했던 남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저들은 현찰을 썼다고 합니다. 돈을 받아도 쓸 데도 없고 하여 어떤 분은 동족인 조선인 정신대에게 10엔까지 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본 군대에 있어서는 위안소가 돈벌이의 수단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동북 연변자치구 우호 방중단(東北 延邊自治區 友好訪中團)과 함께 찾아간 동령(東寧) 남쪽 시몬즈(石門子)에 있는 위안소에서는 특별 매전세 면제표(特別 賣錢稅 免除票)를 발부하였습니다. 약 50명의 군인 중에서 10명 정도의 군인이 이것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면 1엔 50전 하는 위안소의 입장료가 1엔이었습니다. 위안소에서는 매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매상고를 보고했고, 그 매상고에 따라 군대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빗나가지만 중국에 있었던 일본 군대의 또 하나의 재원은 아편이었고, 고통을 잊으려던 위안부 중에는 아편 중독자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 V. 일본의 패전 후 정신대 처리

패전의 소식에 접하자 제일 먼저 일본군이 한 일은 소속부대에 정신대에 관한 모든 서류를 없애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모든 하부 관청에 철저한 소각(燒却) 내지 파기(破棄)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일본군은 황군이라 하여 일본 왕인 천황(天皇)의 군대로 그 조직 내에 여성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왕이 자기의 군대에 있는 적자(嫡子), 즉 군인에게 하사품으로 정신대를 내린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국내외에 알려지기를 결코 원치 않았을 것이며, 연합군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수치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않은 부대에서는 이러한 이유에 덧붙여 순전히 물건이었던 정신대가 이제는

불필요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굴이나 참호에 넣고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동경에서 한 병사도 자기의 부대에서도 그랬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싸이판에서는 자기들과 함께 자결하기를 강요하였고, 지금 지바께 다떼야마시에 사는 일본 위안부 시로다(城田) 스즈꼬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군은 흔히 일본 위안부만을 데리고 조선 위안부는 현장에 버려둔 채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사할린에서는 일본군이 가족들과 일본 위안부들만을 데리고 기차로 도망치는 기색을 안 조선 정신대들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기차 앞에 서서 두 손을 흔들며 같이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기차는 정신대들을 치며 그저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 타 죽은 정신대들도 있다고 합니다. 범죄를 숨기기 위해 더욱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조선 정신대는 중국, 대만, 필리핀의 경우와 다릅니다. 우리는 조선 정신대 정책에서 일본의 조선 식민지 정책이 집약되어 있는 것을 발견 합니다. 즉 ① 민족의 정기 꺾기 ② 민족성 말살 ③ 민족 쇠망책이 그것입니다.

민족정기 꺾기는 일본이 우리가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태백산맥의 정상에 쇠말뚝을 박은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또 창경궁의 지형을 바꾸고 이름은 그대로 둔 채 동물들을 그곳에 데려다가 동물원을 만들고 창경원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행위는 풍수지리를 믿는 조선민족의 기를 꺾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민족성 말살은 일본이 침략 초기부터 무궁화와 태극기를 실물로나 그림으로나 갖는 것을 금한 것으로도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우리 말을 없애고 일본어를 국어라고 억지쓰고, 마지막으로는 창씨개명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런 정책은 민족의 정체를 뿐 리째 뽑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다른 정책들도 그러했지만

이 정책도 침략 초기부터 최후까지 남아 있던 것으로 이은왕(李垠王)을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은 방자 여사와 강제로 혼인시킨 것으로, 그리고 일제 말에 가서는 내선결혼(內鮮結婚)을 극구 장려한 것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선반도를 병참지(兵站地) 삼아 대륙침략을 시도한 일본은 우리의 땅, 그 안의 자원, 그 안의 노동력, 기술 등 전부를 이용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아가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뿐만 아니라 민족의 씨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 정책이 징용, 징병, 학도병, 정신대 등으로 수없이 많은 임신가능한 젊은이들을 끌어가 완전히 물건으로 쓰다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민족으로 그리고 여성으로서 이중의 고통스러운 명예를 걸어진 사람들이 정신대였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중적으로 고난을 당한 이들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요, 민족의 주인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해방 후 50년 이상이나 잊혀져 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들을 두 번 죽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이들이 당연히 차지해야 할 역사와 민족의 주인공 자리를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대 문제 앞에는 남녀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조선민족의 남성은 자기들의 짹에게 그러한 굴욕을 맛보게 했다는 의미에서 수치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의 정신대에게 역사와 민족의 주인공의 자리를 찾아드리 는 일은 곧 우리가 욕된 과거에서,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자리에서 해방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일본 안에 사는 재일동포는 무슨 이유로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일본은 사죄는 커녕 세금을 받으면서도 이등국민으로 차별하여 취업과 취학에서 차별합니다.

동포들은 남과 북으로 갈리어 일본 안에서도 38선이 있습니다. 남한의 경제는 완전히 일본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 이전을 해 주지 않아 수출을 하려면 일본 부속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일본문화는 별 저항없이 남한으로 들어와 가라오깨가 판을 치고 큰 상점에는 일본 물건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가 하면 젊은 주부들은 일본 부엌도구로 부엌을 갈아치웁니다. 강남의 젊은이들은 뜻도 모르는 일본노래를 부릅니다. 해방 47년이 된 오늘 우리는 일본에서 해방되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해방 후 치욕적인 일제시대를 역사적으로 처단하였다면 오늘날 이런 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965년의 한일 평화협정과 같은 또 하나의 매국적인 협정을 하지 않았다면 일본 남성이 감히 기생관광으로 이 나라를 다시 찾고 지금 우리 젊은 여성의 ‘짜빠유기’가 되어 일본으로 매매춘(賣買春)을 하러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정신대 문제는 결코 과거의 지나간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대 문제에는 일제시대의 식민지 정책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제대로 매듭지어지면 우리는 우리 역사의 새로운 장(章)을 여는 것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에서는

1. 정신대의 진상을 규명하라.
2. 정신대 만행을 공개하라.
3. 사죄하라.
4. 본인과 유가족에게 보상하라.
5. 추모비를 세우라.
6. 역사 교과서에 정신대 사실을 실어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

는 6개 항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6개 항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정부와 우리가 적극 힘을 합해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신대였던 분들은 예외없이 병주머니여서 멀지않아 모두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두 손 놓고 일본에게만 하라고 해서 일본이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A급 전범자인 도죠 히데끼(東條 英機)의 미망인에게 매월 80만엔을 지금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PKO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치욕적인 역사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정신대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을 알면서 일본에게 요구하고, 우리도 추모비를 세우고, 우리의 교과서를 고쳐서 젊은 세대들에게 제대로 역사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이었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

■ 제1 패널 민족통일을 위한 신학의 정립

## Theology of Community

Andrew Sung Park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United Theological Seminary

It is sheer joy for all of us just to look forward to the reunification of Korea. We anticipate that the reunification will take place within this 90s. It is task of overseas Koreans to prepare for the inevitably coming reunification which will transpire soon. Among overseas Korean organizations, the church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institutions which can concretely make ready for the advancement of the reunification.

The preparation involves two tasks. One is enhancement for the event of reunification. This includes changing the U. S. policy toward Korea so that the U. S. may withdraw its troops from Korea and may not obstruct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The other is to lay the necessary groundwork for a harmonious living of North and South Koreans after reunification. Unlike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Korea needs an orderly reunion that complements each other.

This work will focus on the issue of planning for reunification by presenting a theology of community. Political theologians such as Johannez Metz, Dorothee Soelle, Jürgen Moltmann reject the privatized meaning of faith. As the Scripture is the product of Christian community, so is Christian faith. Thus, any theology which is not communal should be repudiated. A theology ought to be eucharistic.

Community in Latin was a noun of quality from *communis*, denoting 'fellowship or community of relations'. The word in medieval Latin was, like *universitas*, used in the sense of 'a body of fellows or fellow townsmen'.<sup>1)</sup> The word community is a body of those having common or equal rights or ranks, as distinguished from privileged classes or a body of individuals organized into a political, municipal, or social unity.<sup>2)</sup> The theology of community is to intend to embody the reign of God through the body of individuals whose political, economic, social, religious goals are common. It does not separate religion from other dimensions of life.

The Korean church has emphasized the community of believing, not the community of living together. The theology of community aims at bringing forth the balance between believing and living. In this work, we will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theology of community as living.

In the name of German reunification, Western Germany swal-

lowed up Eastern Germany and has suffered from plenty of indigestive problems. When North and South Korea are united, Korea should be one nation for betterment. We should not allow that for the past 45 years, the two Koreas have vainly suffered the separation. Since each has built up its own system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the two, using their past experiences, can set up a new mode of system which combines the strength of socialism and capitalism to such a degree that other countries may follow suit. In light of the theology of community, this writer attempts to delineate a third social and religious system for Korea.

The alternative community is the local community of ecological soundness and the community of semi-corporate living, highlighting self-government and self-sustenance.

Socialism is a planned economy. Socialist society is more economically democratic than capitalist society. According to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major defects of its own socialism are the rigid control of a state over enterprises, the bureaucratic barriers between the different departments or regions, and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state and those of the enterprise.<sup>3)</sup>

Capitalism is an unplanned economic system. It has been operated by the principle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n this system, "profit" is religion. We know that the spirit of capitalism is not harmonious with the teaching of Jesus. The parable of the laborers in the vineyard(Mt. 20:1-16) particularly contradicts the

spirit of capitalism. In God's vineyard, all the laborers who came to work different hours are equitably paid.

North Korea is a socialist state. The state owns the means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and private property is officially disparaged. South Korea is a capitalist state. Individuals chiefly own the means of production and make investment, distribution, and the exchange of wealth. When North and South Korea merge, a third system can emerge : a local community – centered system. North Korea needs to move from the ownership of the state to the ownership of communities ; south Korea needs to move from the ownership of individuals to the ownership of communities. It means that a village in countryside or Bahn in an urban area must be the center of socio – economic activity. While acknowledging private property, these communities can own the means of production or reproduction such as tractors, agricultural instruments, construction equipment, various kinds of transportation, tools, and so on. However, it must be left to the will of people whether a community chooses to have such a semi – communal lifestyle. This type of lifestyle must be encouraged perhaps via various rewards. There is a significant reason why this type of semi – corporate living is necessary in the coming years. The dream of the indefinite economic growth of capitalist lifestyle has been defied since ecological crises threatened the very survival of humankind. The present economic dream of many capitalist countries for infinite growth must be disenchanted, and adopt an ecological model of progress. The model needs to be a semi –

corporate community in its economic orientation, and a democratic community in its political character.

## I. Sound Ecological Community

The world is unable to economically grow indefinitely. According to Lester Brown of the Worldwatch Institute, there are two contrasting views of the state of the world : economic views and ecological views. Economic views are concerned about savings,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They do not worry about natural constraints on human economic activity but the expansion of economic opportunities. This type of views prevails in the worlds of industry and finance, nationa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sup>4)</sup>

On the other hand, ecological views care about the relationship of living organisms with each other and their environments. For them, all growth processes are circumscribed within the natural parameters of the earth's ecosystem.<sup>5)</sup> Ecological views contend that continuing the single - minded pursuit of growth will eventually lead to economic collapse.<sup>6)</sup> Before too late, we should adapt an ecological view without deserting the poor in their plight.

The Worldwatch Institute reports that we have crossed one natural threshold, a dramatic change in climate. But we can still avoid crossing a second threshold : the level of atmospheric CO<sub>2</sub> that will result in an unprecedented and irrevocable change in

climate.<sup>7)</sup> Cars, furnaces, other equipment which burn fuels emit five billion tones of CO<sub>2</sub> into the atmosphere, a global rate of one ton per person.<sup>8)</sup> The longpredicted warming of the earth caused by the increase of the CO<sub>2</sub> level is under way.<sup>9)</sup> Another terrible disaster is the depletion of the ozone layer due to chlorofluorocarbon(CFC) productions. In 1987, an ozone hole about twice the size of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as found over Antarctica each September and in 1988, an ozone hole about the size of Greenland was found over the Arctic.<sup>10)</sup>

Water shortage and damage are becoming serious. More than ninety – nine percent of fresh water is deposited in the icebergs, glaciers, and underground ; less than one percent in lakes, rivers, and soil. Within a few decades, most of the underground water deposited over thousands of years has been overdrawn. On an average in the U. S., fresh water discharge surpasses recharge by the ratio of 3 : 1.<sup>11)</sup>

According to Noel Brown, North American director of the U. N. Environment program, we have a full – occupancy planet, and today 80% of deforestation results from population growth.<sup>12)</sup> World population is growing by ninety – two million people each year, roughly equal to adding another Mexico.<sup>13)</sup> By 2050, the present world's population (5.4 billion) will double (10 billion).<sup>14)</sup> With the present population – growth rate, by the year 2050, the U. N. estimates an additional 5.9 million sq km of land (the total size of today's protected natural areas) will have to be turned over to roads, urban uses, and farming.<sup>15)</sup> Two thirds of the human family

is hungry, partly because of inequitable distribution (85% of the world's income goes to 23% of its population ; by contrast, more than 1 billion people living in absolute poverty survive on less than \$1 a day)<sup>16)</sup>, but increasingly because of falling per capita food production.<sup>17)</sup> In spite of the fivefold rise in world economic output since 1950, 1.2 billion people live in absolute poverty today more than ever.<sup>18)</sup> As the 90s began, the ranks of the hungry have increased.<sup>19)</sup>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not be entrapped in the destructive cycle of the futile illusion of unlimited economic growth in the name of economic development. To prepare the reunification, both North and south Korea need to be an ecologically concerned society, through which Korea may set an example for other nations. Such an ecologically salutary society needs a new set of measuring progress.

## II. New Society and New Measurement of Growth

In the past, GNP was the sole indication of the advancement of a nation. At the present, new ways of Measuring progress are being developed. According to Lester Brown, there are two interesting recent efforts in the new attempts : the Human Development Index(HDI) devis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ISEW) designed by Herman Daly and John Cobb. The Human Development Index is a combination of three indicators : longevity (life expectancy at birth), knowledge

(literacy rates), and command over resources required for a decent life (gross domestic product).<sup>20)</sup> The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considers not only average consumption but also distribu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sup>21)</sup> After treating the consumption component of the index for distributional inequality, ISEW factors in several environmental costs related to economic mismanagement, such as natural resource depletion, loss of wetland, loss of farmland, the cost of noise, air and water pollution. It is the most sophisticated indicator of progress available for the state of the United States.<sup>22)</sup>

The human family needs to shift the focus of the improvement of life from economic growth to a new mode of the quality of life : measurement for 'humanizing progress'. The present way of economic growth does not resolve the problem of poverty but increases it by widening the gap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The humanizing progress shifts the goal of development from growth in economic wealth (vertical growth) to growth in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and in human and environmental health (horizontal growth). It proposes global economic improvement within the boundary of environmental self – sustenance.

The theology of community suggests that North and South Korea aim not to increase GNP but to promote the progress in humanization. Rising incomes and expenditure are important to improving well – being in a low – income country. But the current persuit for economic growth is wrongly headed. Despite the increase in world economic output, millions of people live in

poverty today. This means that mere economic growth will not resolve the problem of poverty, but hurts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well-being of the world. Humanizing progress in all dimensions of life, including salub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can be the goal of healthy growth in tongil Korea(Korea of reunification).

### III. Corporate Lifestyle

The idea of a local community-centered system in a sound ecological sphere is an economically democratic society. It envisions an alternative system to capitalism and socialism, embracing the strengths of both systems. In terms of the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and capital, this community upholds capitalism. In terms of sharing the means of production, it adopts socialism. This idea corresponds to that of the moshav in rural Israel.

In Israel, there are two outstanding rural community lifestyle: the kibbutz and the moshav. The kibbutz is a cooperative, self-sufficient, and egalitarian community. Members possess no private property and receive no wages. Instead, their needs of housing, health care, education, vacations, and pocket money are supplied by the community. All members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budget allocation, and alternative lifestyles. There are over 260 kibbutzim in Israel, comprising nearly 3 percent of its population.<sup>23)</sup>

The moshav is a democratic and self-governing community

based on the idea of the delegation of authority. In it, each family as the basic unit possesses its own household and farms its own land, but major economic and social needs are cooperatively met. The cooperatives system deals with marketing and supply collectively and provides education, medical, and cultural services. There are approximately 450 moshavim, constituting 4 percent of Israel's population. Each moshav comprises about 60 families.<sup>24)</sup>

While the moshav, being popular, flourishes, the kibbutz declines in its financial strength. The 280 kibbutzim owe \$4 billion.<sup>25)</sup> While the kibbutzim suffer from the inefficiency of cooperative work, moshavim flourish because they are basically private enterprises.

Some of important moshav principles are ① comprehensive coordinated, and integrated agricultural planning, ②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t the village level including everyone in the settlement, and ③ settlements based on family – sized farms.<sup>26)</sup> First, comprehensive agricultural planning connotes that all services are available to farmers at the village level : planning for their production program ; credit for obtaining specified inputs ; all the production services(irrigation, drainage, pruning) to put the production program into effect ; and marketing services. Coordinated agricultural planning means the harmonization of local planning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the vertical coordination of planning. Integrated planning indicates that the main goal of planning is its implementation at the village and farm levels.

Second, the center of planning and implementation is the village with all its farms rather than the individual farmer. Third, the family – type farm may be the most efficient for various types of culture and the most adaptable to the development milieu. Collective farming has generally not been a success because of the lack of individual participation. The structure of the moshav allows for a combination of individualism and cooperation.<sup>27)</sup>

John B. Cobb, Jr. and Herman E. Daly recently published a monumental book on a new vision of a global community, *For The Common Good : Redirecting the Economy Toward Community, the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Future*. An impressive cooperative opus between a theologian and an economist suggests “a community of communities.” They provide one of most thorough visions for an alternative society based on the Whiteheadi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principles. “A community of communities” they envision is to decentralize the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of the government to a local level and to move toward a self – sufficient society,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socio – economically achievable.<sup>28)</sup> They contend that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will occur through decentralization of the economy. Their emphasis is on the economic dimension of reformation. Also, their idea underscores a theocentrism from a biospheric perspective.

The moshav is a viable, functioning system, and tongil Korea can draw a few guidelines for forming such a semi – corporate community. First, the family is the basic and independent finan-

cial unit. A local community – centered system can share comprehensive, coordinated, and integrated agricultural or urban planning. The urban planning may range from child caring to job search and training at the loc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Second, the local community – centered system implements the planning. It includes sharing the tools and equipment of productions and reproductions. In an agricultural setting, the means of production can be tractors, combines, trucks, and other kinds of machinery. In an urban setting, this connotes sharing transportation (truck, bus, van), sharing urban housing, and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Third, such a community espouses all efforts of self – sustenance and self – government such as in “a community of communities.” These efforts include supporting a co – op type of environment – oriented markets which sell local vegetables and products. In the U. S., “The average food item travels 1,300 miles from where it is grown to where it is consumed. Shipping a truckload of produce across the country costs up to \$4,500. In addition, a dollar spent on local foods circulates in the local economy, generating \$1.81 to \$2.78 in other business.”<sup>29</sup> The purpose of the local community – centered system is not only to enhance self – sustenance, but also to support self – government with the vision of a new way of living. Economic self – sustenance elicits political self – government with the vision of a new way of living. Economic self – sustenance elicits political self – government.

#### IV. Eucharistic Theology

The Church has been a primarily religious community, delimiting its scope of fellowship and activit basically to the religious realm. The Church should edify people to move toward a cooperative living community and should practice a corporative lifestyle. If the Korean church takes the Communion seriously, and if it takes its commitment to the advancement of the reign of God seriously, it needs to share our economic and socio – political activity together. The Church should be more than a Sunday community. If Christians share our eternal hope together, we can share our living together to materialize it.

The early Jerusalem Christians had “breaking of bread” daily in private houses(Acts 2:46). One of the reasons for “breaking of bread” daily was to support the needy. The act signifies a continuation and a reminder of the Lord’s Supper.<sup>30)</sup>

The Church is the eucharistic community of sharing faith and bread together. It is the community of be – lieving and living. To satisfy these two elements, the Church should exhort and exemplify a type of corporate living in this world. If we believe in the Eucharist, we should live out the Eucharist. That is, the Church should move toward a living – believing community rather than be just a believing religious community. Communal lifestyles of living have a long tradition in Christianity, particularly conspicuous in the monastic movement and diverse religious communi-

ties. As such a corporate lifestyle for celibates is optional, a semi-corporate lifestyle for the married should be optional in church life.

Since Martin Luther's idea of the two kingdoms ruled Western society, the Church has retreated into the world of religion. For him, God has established two kingdoms, one ruled by the law and the other ruled by the gospel. It connotes that Christians should not expect the state to be ruled by the gospel, and rulers must not rule over the kingdom of the gospel. This idea of dualism has been imbedded in the civilization of the Western world and has separated the realm of religious life from secular life.

This dualistic idea has created a strange phenomenon of the separation of the Christian kingdom and God's kingdom. For example, of the 350 million Latin Americans, 90 to 95 percent of the people consider themselves Christians.<sup>31</sup> Also 92 percent of the population in the Philippines are Christians.<sup>32</sup> But these countries are far from approximating the reign of God, suffering the most deep-seated injustice in the world. The injustice in Christian countries results from the dichotomy of believing and living. The theology of community endeavors to bind these two together. The dualistic traditional mission strategy must be read-dressed if the Church is earnest about the establishment of God's reign on earth.

The Church cannot afford to leave the matter of the whole world in the hands of rulers. It does not mean that the Church should be directly involved with the politics of the world. The

Church, however, needs to have its vision of the future for the reign of God in its long range strategy of mission. Just waiting for God's intervention into history for establishing God's kingdom Cannot be an option for the Church. The church should concretely prepare for God's reign. It should radically shift its controversial theological theme of eschatology from "when the eschaton comes" to "how the eschaton comes."

In conclusion, one of the tasks of the Korean church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is to prepare the way of the reunified lifestyle by edifying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about a corporate living and by practicing it at the church level. A cooperative lifestyle is theologically essential and ecologically mandatory. A semi-corporate community is a viable one in tongil Korea.

The theology of community suggests that any Christian idea or doctrine apart from community living is not Christian. The core of the theology of community is the communion and its embodiment is communal living. This communal living in the context of the Korea reunification constitutes a wholesome ecological community and an semi-corporate community. By envisioning this optional semi-corporate living at a local community level and by exemplifying its practice at a church level, the Korean church can build a bridge on the path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tongil Korea needs to be politically democratic, economically cooperative, and ecologically self-sustaining with a new set of measuring progress. □

\* Note \*

- 1) The Compact Edition o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2 vols.(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I: 702
- 2) Ibid.
- 3) "Deci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Reform of the Economic Structure,"(Adopted by the 12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t 1st Third Plenary Session on October 20, 1984), P. IV.
- 4) Lester R. Brown, "The New World Order", in State of the World 1991, p. 5.
- 5) Ibid.
- 6) Ibid., p. 6.
- 7) Lester R. Brown and Sandra Postel, "Thresholds of Change", In State of the World 1987, p. 9
- 8) Ibid., p. 14
- 9) Lester R. Brown and Christopher Flavin, "The Earth's Vital Signs", in State of the World 1988, p. 3.
- 10) Lester Brown and Christopher Flavin, "The Earth's Vital Signs", p. 4. Sharon Bagley et al., "A Gaping Hole in the Sky," Newsweek, 11 July 1988, p. 22.
- 11) C. Dean Freudenberger, Food For Tomorrow?(Minneapolis :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p. 51.
- 12) Eugene Linden, "Population : The Uninvited Guest," Time, 1 June 1992, P. 54.
- 13) Sandra Postel, "Denial in the Decisive Decade" in State of World 1992, p. 3.
- 14) Eugene Linden, "Population", p. 54.
- 15) Ibid.
- 16) Sandra Postel, "Denial in the Decisive Decade", p. 4.
- 17) Lester R. Brown, "The New World Order", p. 16.
- 18) Sandra Postel and Christopher Flavin, "Reshaping the Global Economy", in State of the World 1991, p. 188.
- 19) Brown, "The New World Order", p. 16.
- 20) Ibid., p. 9. U. N.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21) Ibid., p. 10. Herman E. Daly and John B. Cobb, For The Common Good,

appendix.

- 22) Ibid., p. 11.
- 2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acts About Israel(Jerusalem : Information Division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85), p. 13.
- 24) Ibid.
- 25) Daniel Williams, "Capitalism Sprouts at Kibbutzim," Los Angeles Times, 22 June 1991, pp. A1, A16, & A17.
- 26) Maxwell I. Klayman, The Moshave in Israel(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70), p. 250.
- 27) Ibid., pp. 250 – 253.
- 28) Herman E. Daly and John B. Cobb, Jr., For The Common Good(Boston : Beacon Press, 1989).
- 29) Sam Passmore, "Hendrix Turns to Arkansas Produce," Arkansas Gazette 10 June 1987.
- 30)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Revised by Cyril C. Richardson, Wilhelm Pauch, and Robert T. Handy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me, 1959) p. 22.
- 31) Esther and Mortimer Arias, The Cry of My People(New York : Friendship Press, 1980), p. 2.
- 32) 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1991, p. 743.

## 민족통일을 위한 기독자의 과제

김근영

평양 신학원 학생, 전도사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

저는 이처럼 ‘북미기독학자 26 차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의 참가를 허락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기회에 ‘민족 통일을 위한 기독자들의 과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이 기회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과 해외 교우 형제들에게 조국의 북녘에 있는 교우들의 뜨거운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 북, 남, 해외에서 모여오신 교우 형제들의 모습을 대하니 새삼스럽게 조국이 당하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가 정의롭고 평화롭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단란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우리 나라 땅을 하나로, 거기서 살 우리 민족도 단일민족

으로 창조하시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하나의 풋줄을 이어가며 단일민족으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창조하며 화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외세로 인하여 백두산으로부터 한나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지맥으로 잇닿아 있는 우리 강토는 두 동강이 나고, 우리의 부모처자는 남북으로 헤어져 서로 소식 한 장 전하지 못한 채 근 반세기에 이르는 욕된 분단의 세월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분별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어찌 필설로 다 혜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본래부터 하나가 아니고, 둘로 되여 있었던들, 서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은 우리 겨레가 아니었던들 아픔은 이다지도 견디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도 어찌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통일강산 그대로이고, 저 뭇세들은 분단의 장벽도 아랑곳없이 북으로, 남으로 날아대고 있으나 우리 겨레들은 이 시각에도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른 원한의 군사분계선, 민족의 혈맥을 끊어놓은 콘크리트 장벽을 저주하며 망향의 한을 달랠 길 없어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북녘땅에 위치하고 있는 아호비산맥의 두루산으로부터 시작된 림진강의 물은 오늘도 민족분단의 설움을 안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분단과 민족의 분별은 이 민족 안의 그 어떤 내부모순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분별은 어디까지나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며, 민족의 통일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동서 고금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악의 세력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법이요, 화근은 뿌리뽑히기 마련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진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은 기필코 하나로 통일되고야 말 것이며, 모두 함께 통일된 강산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시요”(엡 4:3)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 전해진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이 이 통일에로 도달하게 하는 그 기초를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기초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영원한 사랑의 체현자이신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성하는 것들 속에, 모든 사건들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느님께서 지키시고, 하느님께서 무소부재하신 이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이며 통일의 기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되시는 그이만이 오직 하나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섬긴다는 여기에 또 하나님의 통일의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훌륭한 통일의 기초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며 몸에 생명을 주는 숨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몸에, 그 지체들인 신도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을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또 그가 역사하시는 한 모든 지체, 모든 몸은 하나로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이의 몸입니다. 머리가 있는 이상 몸이 있기 마련이며, 머리와 몸의 결합은 하나님의 전일체 형성의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도 역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데서는 활동무대도 다를 수 있고, 생활양식과 삶의 방법도 다를 수 있으며, 주의 주장과 사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소망, 하나의 목표, 즉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의 국토도 하나이고 우리의 민족도 하나이며, 통일에 대한 우리의 지향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혈통을 지닌 단일민족이며, 우리 조국도 하나의 지맥으로 잇닿아 있는 하나의 강토입니다. 그 어떤 힘으로써도 하나인 우리 민족을 서로 다른 두 민족으로 갈라놓을 수 없으며, 한 몸뚱아리와도 같은 우리 조국을 둘로 토막쳐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은 절대로 둘로 갈라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기초가 있다는 믿음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약속과 경륜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22)고 교훈하시였습니다. 하늘나라도, 우리의 통일도 우리 자신들의 노력과 투쟁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여러분! 분별은 매국이요, 통일은 애국이며 분별은 죽음이요, 통일만이 살길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우리 강토 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 5:9)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

으며, 평화적 전제가 없이는 평화적 통일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칼을 쳐서 보슴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약 4:3) 할 때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롬 2:10).

여기서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은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하기에 지금 온 겨레가 이것을 열렬히 찬동하며, 그의 리행 여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서’를 철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단계적인 군축을 실현하며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그만두고 동족을 적으로 명기한 ‘국가보안법’ 철폐, 방북 통일인사들을 석방함으로써 첨예한 대결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가 루적됐던 오해와 불신을 가실 수 있고, 신의있는 대화를 할 수 있으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육간의 뉴 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단결을 이룩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몸도 녹일 길이 없지만 둘이 같이 자면 서로 몸을 녹일 수 있다. 혼자서 막지 못할 원쑤도 둘이서는 막을 수 있다. 세 겹으로 줄을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전 4:11-12)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어느 동네나 가정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지탱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면 우리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사랑과 제도, 정견과 신앙, 재산 유무의 차이를 초월해서 모두 다 단결해야 합니다. 민족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기독교인이나 불교인도 모두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위한 통일의 한 길에서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또한

그 어느 당파나 단체도 자기의 리해관계와 주의주장을 절대화하거나 ‘누가 누구를’ 하는 대결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큰것을 위하여 작은것, 전체의 리익을 위하여 개별적인 리익을 복종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사상과 제도를 걸고 적대시하거나 차이점만 내세우면서 서로 가 배척한다면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수 없고 필경에는 외세의 통락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의 뜻을 품고 나서는 사람이라면 설사 지난 날 어떤 죄과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과거 불문의 원칙’에서 넓은 도량과 아량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제자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마 18: 22)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웅졸하거나 편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이건 또 지난 날의 잘못이 크건 작건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과는 다함께 손잡고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문제는 남을 쳐다보거나 남의 장단에 춤을 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의 주인들입니다. 동풍이 불건, 서풍이 불건, 태평양 바람이 불건, 씨비리 바람이 불건 우리는 절대로 혼들림없이 반석과 같이 굳건히 서서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것은 인류역사가 실증하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찌기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갈지라

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롬 9:3)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에 앞서 민족의 한 성원입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제인 조국통일을 위한 성업에 한 몸 바쳐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모두가 한 뜻씩 기여를 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세대에 나라의 통일을 이루하지 못하고 분단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넘겨준다면 조선의 그 어느 민족주의자도, 그 어느 공산주의자도,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어이 우리 세대에 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1995년을 통일의 희년으로 맞이합시다.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군병들의 의로운 행로에는 언제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며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한국 기독교 통일신학 운동의 사회전기

서 광 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장 및 조직신학 교수

### I. 통일신학 : 분단신학의 극복

남한에 있어서 통일의 문제가 기독교 신학의 문제로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0년대, 즉 광주항쟁과 제5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에서였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지도력은 1970년대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정착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하느님의 선교로 인식하고, 한국의 모든 민주화 운동세력과 연계하여 실천적 신학운동을 전개하였다.

1980년대 한국 기독교의 통일운동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인식되고 있다. 민주화의 자연요인은 항상 한국의 분단상황이라는 것이 역대 정권의 논리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단구조’에서 발생한 ‘분단논리’에 의하여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분단논리에 의하여 인권이 유린당해야 했고, 노동운동의 제약을 받아 왔고, 군비확장과

군비경쟁과 군사독재를 정당화시켜 왔던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 통일신학 운동은 분단구조 안에서 신음하는 한국 민중의 한맺힌 울부짖음의 한 가운데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군사독재 정치하에서 한국 민중의 고통에 참여하고, 도시빈민들과 삶을 함께 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삶과 죽음에 동참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부르짖는 학생들과 함께 군사재판을 받고 감옥의 처형을 당하면서 한국 민중의 고난의 소리, 한맺힌 울부짖음과 몸부림에 동참하고 응답하는 신앙과 행동이 신학화되면서 민중신학운동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민중신학운동은 통일신학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한국 민중의 현실은 분단구조의 현실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신학은 민중신학의 일부분이며 결국 분단신학과 분단논리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일신학의 과제는 우리 안에 팽배한 분단논리의 극복이며, 분단신학을 비판하는 비판신학으로 출발하여 민족의 통일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신학화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인식한 것이다. 한국의 통일신학은 정치신학과 해방신학 그리고 민중신학의 맥락에서 형성되고, 선교신학의 실천적 과제로서 행동화된다는 것이다. 통일신학은 민족의 분단이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과 이로 인한 민중의 고통의 시각에서 성서를 읽고 하느님의 말씀이 오늘의 민족의 분단상황에서 보여주시는 희망의 길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 II. 한국 기독교 1988년 선언

1988년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은 한국 기독교의 통일신학

운동을 집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선언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수차례에 걸친 전국 협의회가 필요했고, 통일 운동과 통일신학 운동에 헌신하는 신학자들의 신학적 노력과 신앙적 결단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 교회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통일문제협의회에 모여서 수렴한 신학적 작업을 선언문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이 선언문에 담긴 신학적 지향성은 한국 교회공동체의 신학적 결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선언문의 통일신학은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한국 교회공동체의 집단적 신학화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신학은 정치적 실천과 연결되는 실천적 신학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공동체의 집단적이며 공동체적인 사색과 분석과 종합의 과정이라는 신학함의 또다른 가능성과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1988년 평화통일 선언문의 신학적 시각은 첫째로, 한국 교회의 통일 운동을 한국 기독교가 지난 100년 동안 수행해 온 선교신학의 맥락에서 파악한 것이다. 그것은 정치신학적 테두리 안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인 바 19세기 말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봉건과 반외세라고 하는 이중적 투쟁의 맥락에서 민족개화와 해방의 복음으로 해석하고 수용한 한국 기독교 민중의 신앙적 인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정치신학은 일제 식민지 치하로부터의 민족주체성의 회복과 민주주의적 독립국가 형성을 향한 민족주의적 투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정치신학적 맥락에서 그 선교적 사명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역사 안의 기독교로 그 정체성을 파악하여 왔던 것이고, 그 역사의 맥락에서 통일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파악하고, 분단의 극복과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선교적 사명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평화

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느님 나라 운동과 연결된다는 신학적 인식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둘째로, 통일신학은 평화신학의 맥락에서 그 정당성을 가진다고 인식한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정치신학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는데, 한국 기독교의 민족주의 운동은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 운동이었으며, 침략과 전쟁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이 아니라 민족주체성 회복과 평화를 위한 민족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의 한국 교회의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은 평화운동과 하느님의 선교의 맥락에서 파악되었던 것이다. 평화를 전쟁 없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삶의 과정으로 인식함으로써 통일운동 역시 평화운동의 맥락에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신학자들은 한국 기독교의 통일운동을 이러한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통일운동이 평화와 상반되고 대립되는 것이라면 신앙과 신학의 이유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신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평화는 통일을 위한 방법이며 수단일 뿐 아니라, 통일의 목적 역시 하느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평화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평화를 만드는 일이고, 하느님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신학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통일신학자들은 분단의 고통에 가장 아프게 시달리는 민중의 시각에서 분단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므로 통일신학은 여성신학과 민중신학의 맥락에서 진행된다. 통일신학은 민중의 해방, 한국 민중과 여성들이 품고 있는 분단의 한을 풀고 치유하는 선교적 실천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중을 소외시킨 통일정책이나 운동이 있어서는 안되고, 반민중적인 통일이란 더욱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민중적 통일운동과 반민중적 정책 수립과 통일을 반대하고 이

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분단을 빌미로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온 것처럼, 통일을 빌미로 민중을 더 이상 노예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민중해방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민중에 의한 민중참여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중의 사회적·정치적 억압과 착취와 노예화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통일논의도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통일신학자들의 신학적 각성은 우리의 분단구조를 구조적 죄악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라 하겠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강요된 비리이며 부조리이다. ‘원죄’란 다름 아닌 사회적 구조악이며, 개인과 집단이 숙명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이며 원천적인 죄악이라는 뜻이다. 분단이라는 죄악은 세계 강대국의 냉전체제라고 하는 죄악의 결과인 동시에, 분단은 또한 모든 구조악의 원인이라 는 인식이다. 그러므로 분단으로부터의 해방은 정치적인 해방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구원의 차원이 있는 것이다. 분단의 극복은 정치적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영성의 문제라는 것이고, 분단의 죄를 극복하고 용서받는 마음과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섯째로, 통일신학의 핵심은 분단구조의 ‘원죄’에 대한 회개운동으로 보는 테 있다 하겠다. 분단은 정치적인 대립과 군사적인 대결, 그리고 동족상잔이라고 하는 민족적 비극을 경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 깊이 형제 자매를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증오와 적대감의 군사문화, 미움과 폭력과 살인의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 내었던 것을 깊이 인식한다. 우리 가슴 속에 사무쳐 있는 증오와 살인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세기 가까이 갈라져서 살아왔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워왔고 아직도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 우리

의 죄책감, 미움과 증오의 죄책감을 진정으로 고백함이 없이 평화와 화해와 통일의 길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 회개운동의 신학적인 도전인 것이다.

### III. 통일 희년의 선포와 당면한 몇 가지 딜레마

1988년 한국 기독교 평화통일 선언은 1995년, 해방 50년과 분단 50년이 되는 해를 통일 희년의 해로 선포하고, 교회의 일치와 민족교회로서의 인식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내외에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이 선언문은 과감하게 몇 가지 구체적이고도 포괄적인 정책들을 남북 정부에 건의하였다. 그것은 다섯 가지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기본원칙들과 함께 제시된 것들이다. 다섯 가지 원칙 가운데 첫번째 세 가지는 1972년에 발표된 이른바 7·4 공동성명의 원칙, 즉 ①자주, ②평화, ③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의 3대 정신이고, 우리가 첨가한 것은 인도주의적 원칙과 민중 우선의 원칙이었던 것이다.

1988년 선언문은 발표되자마자 북조선 기독교연맹의 지지를 받았고, 같은 해 4월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 교회 평화대회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한국 평화통일 운동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였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운동이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환으로 인식된 것은 1984년 10월 일본 도잔소에서 개최된 세계 교회협의회 주최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정의 협의회’가 그 기점이 된다. 그 이후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 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기독교도연맹과 접촉을 가지면서 1986년 9월 스위스 글리온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상봉하고 성만찬을 나누는 역사적 계기가 생겼던 것이다.

이어서 1988년 11월 제 2차 글리온 회의에서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것은 남북한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합의 작성된 문서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큰것이지만 그 중대성은 정치적인 문제를 1988년 선언문의 정신 아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합의했다는 것일 것이다. 글리온 회의는 1990년 12월 제3차 회의로 모이게 되는데 남북 교회가 연대해서 통일 희년을 앞당기는 선교적 사명을 다짐하고 남북 교회의 모임을 외국에서가 아닌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다짐하는 중요한 문서를 채택했던 것이다. 글리온 접촉 이외에도 1989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1990년 7월 동경에서 그리고 1991년 10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에큐메니칼 협력의 틀 안에서 꾸준한 만남과 대화와 협의가 있어 왔던 것이다.

한국 기독교의 평화통일을 향한 희년운동의 과정을 살펴보면 1984년 도잔소 회의를 기점으로 한 ‘모색과 대화의 시기’를 1기라고 할 수 있겠고, 1988년에 이어 세 번에 걸친 글리온 회의를 ‘희년운동의 출발의 시기’로 본다면 1991년 서울대회 이후 통일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제3기를 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1992년 2월말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총회에 초청된 북조선 기독교도연맹 대표의 불참은 남북 교회의 한국 안에서의 만남의 어려움을 통감하게 하였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의 북한 방문은 또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남북 교회의 통일운동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8년 한국 기독교의 평화통일 선언문이 발표된 아래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무엇보다도 괄목할 만한 것은 1991년 12월 남북한 당국은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같은 달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가서명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1988년 한국 기독교의 평화통일 선언에서 주장한 제원칙들과 조치들이 합의서에 전폭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앞서 작년(1991년) 9월 18일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소련과 동구권의 변화와 이른바 냉전의 종식과 동서독의 통일 그리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성 등을 경험하면서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과 도전과 구상을 회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의 통일신학이 모색하고 있는 신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는가 하는 문제부터 생각한다면, 통일신학을 접근하는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정치신학적 접근이라든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시각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위에서 밝힌 1988년 선언문의 기본적 시각들 –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통일신학의 시각과 접근 방향에 있어서는 패러다임의 변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더욱이 통일신학의 접근이 분단구조의 죄책 고백으로 출발하여 회개와 용서, 화해와 결단의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기본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하는 데는 변화가 없다. 다만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딜레마를 지적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평화통일문제에 접근하는 패러다임 모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른바 흡수통일의 문제이다. 우리는 1991년 여름(8월) 서울에 모여서 통일 희년을 구상하면서 선언하기를 남과 북 어느 쪽에 의한 흡수통일도 반대한다고 하였다.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면 흡수통일에 대하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의 일각에서는 흡수통일의 비용이 남한에 부과된다면 현재 남한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북조선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 의한 흡수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통론인 것이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각, 남한과 미국의 시각은 지금을 경제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북조선의 국제적 고립이 계속되고 경제적 문제가 악화됨으로써 급기야는 내부적 붕괴가 가속될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흡수통일을 피하는 길은 이른바 평화공존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남북 합의서의 정신이 바로 남북 상호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피차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안하는 것이다(제 1 장 1, 3절). 그리고 경제적으로 협력하여 자립 경제를 수립해 나가도록 서로 돋자는 것이다. 남과 북의 경제협력의 기틀과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북조선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일을 촉진시켜야 하고, 국제적 협상의 성공으로 경제성장의 기틀을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연방제나 국가연합 등의 정치체제에 대한 토론 이전에 먼저 남과 북이 사회변혁을 통하여 민주화되고 개방사회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남에 있어서 진전되고 있는 민주화의 과정이 가속화되고 자본주의의 승리를 구가하기 이전에 남한사회의 내부적 모순을 극복하는 사회·정치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에 있어서는 동구 공산주의 사회의 몰락과 내부적 붕괴의 위기에 대처하는 경제체제의 개혁과 민주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통일을 향한 오늘의 과제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흡수통일이냐 아니면 평화공존이냐, 흡수통일이냐 아니면 남과 북 각각의 민주화를 향한 체제개혁이냐 하는 것이다. 개혁 없는, 민주화의 노력 없는 통일은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역사적인 경험에서 고민하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딜레마는 우리의 자주성과 평화정착의 문제이다. 이 딜레마는 핵무기와 연관된다. 한국 기독교의

입장은 한국의 비핵화이며 비핵지대화이다. 우리는 1988년 선언문에서 “핵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남북한 양측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평화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북조선 당국이 세계기구의 핵사찰에 응한 것을 환영하면서 또 동시에 한국의 자주성을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의 국민적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평화유지의 길을 찾기 위해 남북한 당국이 상호간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철칙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무기에 의한 평화의 교란과 민족파멸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민족과 국가의 자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무서운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신뢰의 문제가 우리의 딜레마이다. 상호 신뢰구축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이며, 또 동시에 남북 교류의 문제이다. 남북 교회는 글리온 제2차 모임의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한민족의 분단으로 맺어진(발생한)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와 남북간의 각종 교류는 인도주의적 요청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만남과 교류는 현재의 군사적, 정치적 대결상태를 외면하거나 방치한 채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통일의지의 약화와 좌절을 가져올 위험마저 있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과제의 수행과 남북간의 각종 교류는 통일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1988년 11월 25일).

군사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신뢰구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민간 교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뢰구축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계속되는 회담과 만남을 통해서 상호간의 신뢰구축이 형성되기를 바랄 뿐이고,

군사·정치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그리고 실질적인 군비축소와 불가침의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신뢰구축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신뢰구축은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모든 통로를 통해서 상호간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길을 모색하고, 불가침과 평화공존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서만 신뢰가 형성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신뢰하는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관심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남과 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평화와 민족이 하나되는 길,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살아나가는 길,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믿음과 희망으로 논의하는 끈질긴 노력에서 이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

# A socio – biography of a Theologian in the Divided Korea

David Kwang – Sun Suh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July 4th 1972 — 1992**

On July 4th, 1972, two decades ago, I was taking part in the American diplomats July 4th celebration on the US Embassy compound when the American ambassador delivered the news about North – South Communiqué on the reunification of Korea. I would have no idea why this particular day was chosen by both North and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nor do I know whether we should celebrate this particular day when the wall of division falls down suddenly one summer. But I know most of you living in this country are coming from the celebration of July 4th weekend with mixed emotions particularly after the Los Angeles incidents only two months ago but with a high hope that the folks back home on the mother land will soon come together to

live in peace in a truly independent and free country. Either by providence or by the history – minded planners of this conference, we are here together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July 4th Joint Communique agreement of North – South Korea on our national reunification.

This is only to tell you that I am greatly honored to speak on our theological struggles toward peace and reunification of our mother land as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is scholarly organization which is now youthfully come of age.

July 4th, however, in recent years has gone into low profile if not totally ignored in Korea. The American July 4th has gone into low profile in Korean scene since the increasing anti – American sentiments among the Korean students in connection with the Kwangju Uprising of 1980 and other political – economic issues.

The Korean July 4th has been nearly forgotten until the recent development of North – South dialogues, because the July 4th Joint Communique of 1972 has been exploited by the Park Jung Hee regime for the solidification of his military dictatorial powers. When the announcement of the agreement and rapprochement between the two hostile political and ideological entities was heard, almost simultaneously the louder announcement of martial laws and emergency decrees of Yushin Government was imposed upon the hopeful populace of the South. No sooner than we celebrated and welcomed the Korean July 4th announcement, we had to begin struggling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ial regim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Two decades before the Korean July 4th and two decades after, we have been ruled by the so – called ‘logic of division.’ With this logic of division the Korean war was justified. With this logic of division and war, the mutual hatred and aggression and military build up and foreign troop occupation and nuclear armament – all of these attempts on mutual annihilation have been justified. With this logic of division, the military dictatorship is unavoidable. And as soon as the July 4th agreement was announced, with this logic of division all form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the South was forbidden by the series of emergency decrees of the Park Jung Hee regime. With the logic of division, freedom of expression in academia or in the press or even in the prayers said in the public worship services in the church was taken away. And the logic of division justified and reinforced the dominant ideologies of anti – communism and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s logic of division hardened the hearts of the people. We have lost the words to communicate with the other in theory and in gesture. The other is always enemy and has to remain as enemy. The stronger you express your hatred of the other, the more loyal subject you would become. This is true in the Christian communities. The stronger an anti – communist you become, you are the more faithful believers of the Christian religion. We preach from the pulpit every Sunday to love your enemies but with notable exception of brothers and sisters in the North. The

logic of division is grown out of the culture of division, and the culture of division brewed the culture of hatred and mistrust.

#### **February and July 1988**

Many would remember the year 1988 as the year of Seoul Olympic. But a very few would remember that this the year when the Roh Tae Woo government was inaugurated and even only a few would remember that in July (7th) President Roh announced that North Korea would no longer be considered an enemy but an ally to cooperate with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reunification. Only a few Christians around the world realize that in the last day of February of the same year, the member church delegates of 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unanimously adopted a historical document called “Declaration of the churches of Korea on Notional Reunification and peace.”

The Declaration is a mission statement of the Korean churches – a Christian mission to care and heal the hardened and wounded hearts of the Korean people with full of ‘han’ and suffering caused by the division. It is a theological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ideological and social struggles of the Korean people to live in harmony with basic human rights in a free and democratic, independent society. Doing theology in the socio – political context of present Korean history cannot avoid the question of division – performing the priestly role of healing the wounds of hardened heart and broken bodies and the prophetic role of proclaiming the reign of God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And in the process of doing theology in the 1970's and 80's we could not escape from our people's struggl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as we struggle for democracy we could not escape from the question of national division. Theologically we had to deal with the logic of division which has created the culture of hatred and mistrust.

As we, the drafters of the Declaration, approached the problem of division, we began with our troubled hearts. The division is certainly our political burden, across the we had to bear. The division if indeed a root cause of our mutual hatred and mistrust. The division is a structural, if not an original sin most pervasive in our cultural and political life. Our hearts are troubled because we must love our brothers and sisters but at the same time we are forced to hate the others. We are troubled because we must not trust the Christian brothers and sisters and their presence but we must also trust i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most difficult circumstances of human history. We have come to realize that without the change of hearts, a radical change of hearts, that is, without the confession of our sins of hatred and mistrust, we cannot approach to the mission of pea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We have confessed that our sin of mutual hatred and mistrust comes from the cardinal sin of mistrust in God. We have confessed that "The Christians in both north and south have made absolute idols of the ideologies imposed by their respective systems. This is a betrayal of the ultimate sovereignty of God(exodus 20:3 – 5), and is a sin, for the church must obey

the will of God rather than the will of political systems(Acts 4 : 19)."

This confession of sins of division and mutual hatred, this call for repentance of the Christians is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Declaration which Christians and non – Christians alike would accept. They would say that the other side had sinned more, and the other side must repent first. and if the outher side admit the sin first then we might think about our repentance. But without the change of hearts, the people have urged the political negotiation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We only hoped that in the process of talking and negotiating we might come to the point of a total change of hearts. However, on the contrary to hope, as we proposed the reduction of arms and withdrawal of US troops, out oponets argued that we cannot do that unless the other would become trustful. Nonetheless, this call for repentance of the sins of division is a theologically central issue toward reconciliation and for the trust buliding for mutual dialogue and peace negotiations. Otherwise, our govrnmental level talks would have become another war talks ot subdue the other with power and scheme.

### **Basic Principles and Proposals**

In the Christian declaration of 1988, with this call for repentance and confession of sins, as a sole representative of peoples's cr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set forth five basic prinsiples in pursuit of peace and reunificat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irst three principles were those articulated in the July 4th Joint Communiqué, namely ① independence, ② peace, and ③ great national unity transcending the differences in ideas, ideologies and systems. In addition to these, the Declaration added two more in the process of all dialogue, negotiation and action for reunification.

④ “a humanitarian basis”, namely “Reunification must bring about not only the common good and benefit of the people and the nation, but must provide the maximum protection of human freedom and dignity. Since both nation and people exist to guarantee human freedom and welfare, while ideologies and systems also exist for the sake of the people, primary consideration must always be given to humanitarian concerns and measures, which must never be withheld for any reason.”

⑤ “Minjung principle”, namely, “In every step of the discussion process to plan for reunification, the full democratic participation of all the people must be guaranteed. Most importantly, participation must be guaranteed for the minjung, who not only have suffered the most under the division, but who – despite the fact that they constitut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 have consistently been alienated and excluded from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in society.”

On the basis of the above five(5) principles, the Declaration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to the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1. for the healing of the wounds caused by division, urged both sides' to facilitate the reunion of the separated families, visitations and free choice of residence, etc.
2. for the promotion of the people's genuin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and movement for the peace and reunification, asserted that "neither government, north or south, has the right to exercise a monopoly on information about the other nor to monopolize the discussion on reunification," and that freedom of speech for the discussion for establishing a policy of reunification must be guaranteed. And on the humanitarian basis of reunification movement of the churches, the Declaration urged the both governments to abide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
3. for a wider national unity of the Korean people, the Christians urged the both sides to terminate their mutual hostility and aggressive inclinations and proposed exchanges, visits and open communications as well as joint scholarly research in such areas as language, history, geography, biology and natural resources. Here the Declaration included the urgent needs for economic exchanges.
4. for the reduction of military tensions and the promotion of peace on the peninsula the Declaraton proposed (a) a conclusion of peace treaty with a non - aggression pact which would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b)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troops and the dissolving of the United Nations Com-

mand in Korea, (c) a parallel reduction in military strength, and (d) the removal of all nuclear weapons deployed on the peninsula or targeted in its direction.

5. for the realization of national independence, the Declaration states that it is imperative for the Korean people to protect their independence and self determination, “so there must be no outside interference or dependency upon neighboring nations or the superpowers in negotiations, conferences. or international agree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adopted the year 1995 as the “Jubilee Year”, the 50th year of national liberation and the division of Korea setting forth the “Great March toward Reunification,” and urged the Christians at home and abroad to be united in this arduous movement.

### The Berlin Walls and Barbed wires of DMZ

The Declaration was immediately responded with welcoming notes by the (north) Korean Christians Federation but with hostility and criticisms by some of the conservative wing of the member churches. It seemed that the government decided to ignore the document. In April of the same year(1988) the world ecumenical body came to Korea showing its solidarity with the ‘Jubilee movement’ which the Korean church had inaugurated. And in November of that same year, Christian delegates repre-

senting (north) Korean Christians Federation and (south) Korean Nationa Council of Churches met in Glion, Switzerland to discuss Christian churches commitment toward reconcili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respective churches' work for reunification. In the meantime, Christian delegates representing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US and Candadian churches as well as Japanese churches visited North Korean Christian communities, bringing the welcomming news about house churches in pyongyang and the building of Bongsu church and the scenes of worship services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in three years' time (between 1988 and 1991), Christian leaders of north and south met in washington D. C. (April, 1989), in Tokyo(July 1990), in Glion, Switzerland for the third time (December, 1990)and in Toronto, Canada(October, 1991).

Of course we do not forget the effort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 in North America to bring the North Korean Christian scholars to its anual meeting in May 1990 for a dialogue with South Korean Christian Professors Fellowship members. Prdfessor Park Soon Kyung was one of the participants in that meeting and was later imprisoned for her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She was accused of 'glorifying' the Juche ideology of the north as she was making comparisons between Christian theological terms with the north Korean ideologies.

However, the south Korean Chistians were greatly disappointed when the visitation of the north Korean Christian leaders to

Seoul for the KNCC's 1992 General Assembly meeting in February was not materialized. It was a firm agreemen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Christians at the third Glion meeting in Switzerland in December, 1990 that the Christian Meetings of north and south will henceforth meet in Pyongyang and Seoul alternately. Instead, a south Korean local presbyterian minister, Kwak Sun Hee was invited to visit the north Korean Christian community last fall (1991) and General Secretary of KNCC, Kwon Ho Kyung went to visit the north just last spring (1992). But there is no prospect that the christians of north and south will meet in our own land for common worship and for the Table Fellowship. We are still hoping that in our next August international prayer service for reunification north and south Korean Christians could exchange delegates to Seoul and Pyongyang.

As we declared the year 1995 our Jubilee year for the second liberation an reunification and joined the Great March toward the Jubilee Year, the world around us has been changing and mood of the country for the movement toward reunification has also been changing.

Internationally : ① The end of Cold War, ② Implos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③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unification of Germany, ④ The fall of socialist countries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 ⑤ the explosion of the Gulf War.

Inter-Korea relationship : ① Opening of the prime minister level conference and exchange of agreement on peace, reconciliation and exchanges, ② Two Koreas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③ Talks between the North Korea and Japan, ④ IAEA inspection of north Korean nuclear plants and US proposal for the north – south mutual inspection.

### Some Hard Questions at the Boarder

A penultimate question is : Would the barbed wire across the 200 miles DMZ fall down like the Berlin wall, suddenly one summer? But the most immediate question is whether Korea will and should be unified like Germany. Some would argue that because ① south Korean economy is stronger than that of the north and can afford the cost of reunification, ② the fall of socialist allies of the north, and ③ the idea of federation, namely 1 nation and 2 systems, would not work in the homogeneous Korean situation, ‘absorption’ of the north by the south is only a matter of time of course there are scholars who argue that Korea is historically and culturally different from Germany : Germany fought and lost the war, but had no internal war such as the Korean War ; and until the last century it was governed by a federal system, etc. And most recently they argue that the cost of reunification is too dear to risk. Furthermore, the north Koreans are vehemently against the reunification in German model.

In this situation, and in response to this dilemma, the participants of 1991 Christian conference on the Jubilee in Seoul declared that the ecumenical body would oppose any form of ‘absorption’ either by the north or the south. The participants

from home churches and abroad agreed that the unchanging paradigm for reunification of Korea is peace with justice and freedom. This is, as I see it, an another affirmation on the ‘peaceful coexistence’ of two Koreas. It is to honor and respect mutually the integrity of the other system. And it is to render economic and technological assistance for the development and welfare of the ‘weaker’ side. All of these would be possible only in the atmosphere of mutual trust and reconciliation :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exchanges of people and scholarly research, reduction of armed forces. International peace can be maintained like in the personal relationship when justice relation of mutuality is established. And mutuality is obtained when two sides would become equally matured. The south Koreans would check the temptation of becoming complacent about the “victory” of the capitalistic system and urge the political development toward more democratization – releasing the political prisoners and abolish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other measur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obstacle to the firm establishment of peace and justice in the south Korean society. By the same token, the Christians and intellectuals in the south urge the north Korean social transformation which would recognize the crisis of former socialist countries in central and northern Europe. We would submit that only the democratic reforms would overcome the present crises which communist world has had encountered in past few decades.

Another hard dilemma which we are facing now as we review

and look back on our struggle in the reunification movement is whether we want reunification or division with ‘peaceful coexistence’ In the later half of th 1980’s, ecumenical community in the south was struggling to push and pull the nation toward the urgent need for peace and reunification as well as for democratic development. It was a struggle against the force of ‘anti – reunification’ Now, the situation has changed. After the end of Cold war was anouced and the Berlin wall was fallen down, a new confidence in reunification by ‘absorption’ became most apparent. A new confidence might have overcome the so – called ‘red complex’, a fear for communism, and propagate a superiority complex over against the north, economically and idelogically. And it is quite obvious that the US Is behind the south Korean shceme toward the ‘absorption’ model of reunification, aggressively interfering with the north – south dialogues and the north Korean and Japanese rapprochment, etc. The argument looks as though you need a formula of peaceful coexistence when you have a strong and dangerous enemy on the other side, but when you have no strong counterpart with no strong allies, it is open to invasion and conquest econmically, politically and even militarily. But it is our ecumenical churches’ stance to oppose such “absorption” model of south taking over the north, and propose for the time being, a true sense of “peaceful coexistence.” But we are not against the reunification as such,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 crucial matter to keep the destruc- tive nuclear power in check. against political or economic

absorption and conquest. The choice is not between reunification and division, but between the different processes toward reunification.

The third dilemma which we face at present as we struggle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eace ad mutual trust has to do with the national integrity and independence. On the one hand it is a matter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selfdetermination to keep and develop the nuclear technology for whatever purpose, but It is our national pride to have the skill and know – how to develo the nuclear power in our hand, either in north or in south. This is the matter of nationalism and sovereignty and independnece and self – determination. But at the same time we must avoid the nuclear holocaust. This is the matter of peace and national survival as important as nationalism, sovereignty, national independence and self – determination. For it is the question of survival of the Korean people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As we struggle to achieve our national goal for reunification on the basis of mutually agreed policies and principles, more and more we come to realize that we cannot maintain status quo but we need a total transformation. We cannot reach the state of reunification with our present systems and life styles and cultures and ideologies and religions. As Vaclav Havel, the President of Czechoslovakia, said, “sooner or later politics will be faced with the task of finding a new, postmodern face.”(from a speech given at the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Switzerland on February 4, 1992, printed in the New York Times, March 1, 1992). A person with a new,

postmodern face is a free person confident in her and his own subjectivity who trust individuality of the othes as his/her own. A person with the postmodern face would queston the modern faith in generality, objectivity and universality, but trust more in particularity, subjectivity and difference. And as president Havel puts it, this person does not belive in ideology and sociological statistics, but in real people. "He must trust not only an objective interpretation of reality, but also his own soul; not only an adopted ideology, but also his own thoughts; not only the summary reports he receives each morning, but also his own feeling" (from the same source).

When Jesus came to Galilee,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God, he said :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repent, and belive in the good news."(Mark 1:14, 15) Without the change of heart of the people on both sides, that is, without a total transformation of our respective societies, we cannot expect to over come the present state of national division and mutual enmity. A repentance, a change of heart, a transformation in belief systems, life styles and ideologies and political systems would only open a way to new possibilities, different perspectives and new models and paradigms. Thus, our movement for reunification is not only a search for some political arrangements of getting the separted people together or of drawing up a new map or a new flag, but it is a movement of heart, a spiritual movement. In this sense it is a Christian mission to change our society to bring the reign of God in our social and

political life together. □

##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본 통일신학

김 윤 옥

서울 기독교 여성 평화연구소 소장

### I. 들어가는 말

한스 킹은 ‘신학의 새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토마스 쿤의 정의를 빌어서 말하고 있다. 즉 패러다임이란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 기법 등의 전체적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부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신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한 결과 패러다임 변화는 “낡은 패러다임이 위기적 상태에 있고 새 패러다임이 출현할 때” 일어난다고 보았다. 단 시대적 상황에서 기독교의 정체성(identity) 위기란 일차적으로 기독교 메시지의 위기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주체들과 제도들의 위기라는 것이다(Johann B. Metz).<sup>1)</sup>

한국의 통일신학은 민족분단에 대한 기독교의 책임적 해석인 상황신학으로 대두된 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세 단계, 즉 승공→북한선교

→ 화해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졌는데, 현재로 이 세 가지 유형은 공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sup>2)</sup>

이 글에서는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통일신학을 형성할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여기서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신학을 전개한다는 것은 통일신학의 내용이 성서가 밝혀주는 살롬(Shalom)의 빛에서 규정되어야 함을 뜻한다. 성서의 살롬은 정의로운 평화(시 72, 85 : 10), 모든 생물의 온전성이 총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실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의 살롬의 성취를 저해하는 주요인 가운데 하나인 분단의 극복과 민중여성으로 대표되는 피억압자의 해방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신학의 과제가 될 것이다.

분단이 반평화적인 것이라고 규정될 때 분단상황 속에서 가장 반평화적 위치에 놓인 계층이 누구인가를 밝혀내고, 이들의 삶의 자리로부터 신학적 성찰이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반평화적인 분단구조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가부장 문화로 중층적 억압을 당하는 이는 민중여성이다. 그러므로 통일신학은 바로 지금도 생존권과 가부장적 압제 때문에 ‘통일 같은 것은 배부른 사람들의 놀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민중여성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세계는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한 국가들의 위기와 자본주의 생활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국체제(일본의 군사력도 문제시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나)와 경제적으로는 미, 일, EC 등의 다극적 체제의 과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한국은 분단상황 아래에서 발전했던 예속 자본주의 사회의 패행적 측면을 안고 현재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과정에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기층 민주주의의 틀, ‘대등 권위’(다렌도

르프) – 다양한 구성원들, 즉 여성,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이 모두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대의제(代議制) – 가 토론되고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남한의 진보적 운동이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면 독일보다 더 잔인하고 치참한 자본주의적 흡수통일이 될 것이며, 남한의 여러 모순이 종폭되어 북한이 이루어 놓은 성과까지도 무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이 될 가능성을 계기로 북이나 남이나 자기 입장을 고수할 수는 없게 되었고, 민중을 중심적 주체로 신중간층을 주변적 주체로 하여 비계급적 이슈, 즉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기층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sup>3)</sup> 이러한 과학적 전제를 보아도 앞으로의 통일신학은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패러다임 형성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앞의 전제를 놓고 통일신학의 방법론을 주제, 주체, 성격의 순으로 살펴보고(2항), 통일신학이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3항).

## II. 방법론

### 1. 주제 : 정의로운 평화와 통일

통일신학이 논의되던 초기(1980년대 초)에 신학적 주제로서의 ‘통일’ 문제는 성서에서 직접 그 근거를 도출해 내기가 어려웠으므로 깊이 논의가 되지 못했고, 다음 단계로는 고대 이스라엘의 분단상황과 한반도의 분단상황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통일신학의 내용, 즉 분단 원인, 분단 극복의 방법 및 목적을 전개해 왔다.<sup>4)</sup> 그러나 이런 방법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스라엘과 한반도 사이에 존재하는 시대적 사회구조적 간극 때문에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의 유사성을 통한 도식적 유비(類比)는 방법론상의 문제점으로 지

적받기도 했다.<sup>5)</sup>

몇몇 신학자들은 성서의 살롬의 실현을 선교신학적으로 해석하여 대전제로 다루고 있으나,<sup>6)</sup> 아직은 구체적인 신학화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평화는 온갖 좋은 개념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므로 구약에서도 지배자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이 현실모순을 은폐하기 위하여 살롬을 선포했던 것으로 미루어 평화는 반드시 정의의 개념과 함께 신학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분단구조의 극복을 주제로 하는 통일의 민족사적 신학적 당위성을 해명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고,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부정적 요소의 제거, 즉 분단구조, 분단사고, 분단이데올로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신학적 작업이 주류를 이루어 와서 요한 갈통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가 아니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를 주제로 삼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신학이 살롬의 관점에서 전개되려면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삶의 제도의 정착’, 즉 ‘적극적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통일은 그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신학의 방법론은 신식민지 사회의 극복을 문제삼는 해방신학적 요소와 종속 차본주의 체제의 계급모순을 문제삼는 민중신학적 요소, 그리고 최저하부의 민중여성의 경험에서 시작하여 지배 – 피지배의 힘의 논리를 문제삼는 한국 여성신학의 요소를 상호매개함으로 성립될 것이다.

## 2. 주체인 ‘민족’의 해석 문제

7·4 공동성명 이후 통일 원칙에서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중요시되어 왔다. 신학적으로는 ‘민족’ 개념을 ‘민중’ 개념과 결합시켰으며, 한국 여신학자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의 ‘여신학자 선언’(Declaration of Korean

Women Theologians on the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ople, 1988)도 통일의 주체를 여성민중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을 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문제로 파악하고, 정치적－주관적 민족 이해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국가 수립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분단의 중층적 피해자인 ‘가난한 민중여성 지향의 선택적 결단’<sup>7)</sup>이 통일신학의 주체 개념에 들어가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주체는 민중여성의 관점에서 ‘민족’이어야 신학적으로 타당하다. 즉 그리스도인은 화해를 위하여 부름받고 있는 존재(고후 7 : 17 – 19)라고 할 때 ‘화해’란 철저한 회개와 기득권 포기가 전제된다. 즉 정의가 서서 하나님의 법과 화해란 관계에서만이 사람 사이의 화해가 성립이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본래적 화해의 출발점에서 누락되면 안되는 존재가 가난한 민중여성이다.

주체인 민족(민중)은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주체이다. 신학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과 같이 살도록 부름받고 있다 (마 5 : 43 – 44). 오늘날 원수란 이념과 제도와 사상을 달리하는 사람으로 해석될 것이다. 통일신학에서 ‘민족’을 주체로 설정할 때 이 민족은 그러므로 문화적－객관적 민족이 아니라 정치적－주관적 민족이며, 원수 사랑의 민족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새 인간상, 새 민족의 출현을 지향한다(엡 2 : 14 – 15). 그러므로 통일된 국가의 민족은 옛 민족이 아니라 ‘새 민족’(Heino Falke)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새 민족이란 사회주의 이념에 고정화된 민족도 아니요, 자본주의의 생활력에 노예가 된 민족도 아니며, 성차별하는 민족도 아니다. 정치적 통일이나 경제적 통합의 차원에서만 통일을 논한다면 이것은 흡수통일의 메커니즘을 가지기 때문에 통일신학만이 새 민족 탄생의 영역을 가능케 한다.

### 3. 성격

통일신학은 통일운동의 전개에 따른 실천을 전제로 했던 하나의 상황신학이다. 민중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은 성서를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매우 광범위한 상황에서 읽는다. 그리고 그 상황은 성서 자체의 상황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서 오늘의 상황을 재해석하고 신앙의 실천을 결단한다. 이러한 ‘상황의 능동성’이 통일신학에서도 중요하다.

거짓 평화를 폭로하고 정의의 평화를 선포하던 예언자의 메시지(미 3장, 램 6장,겔 13장 등), 궁극적 평화의 새 나라 선포(사 11장), 분단을 극복하고 성취할 새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환상(겔 37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해의 복음(엡 3장), 원수 사랑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자격(마 5장) 등 성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라는 하나님의 보편적 목적을 계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성서 해석에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서에서 직접 끌어내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성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신앙이라는 반사경’을 통해야만 현실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신학의 성격은 ① 민족의 분단상황이 가난한 민중과 여성들의 삶을 왜곡시키는 세계적 구조악이라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며 ② 당파성을 가진 실천의 신학이며 ③ 화해와 평화의 신학이다. 살롬은 ‘완전하게 한다’의 어원을 가지며, 개인과 공동체의 온전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러므로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려는 화해가 이루어짐으로써만이 가능하다.

## III. 통일신학의 주제들

통일신학의 주제들은 그 성격상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네 가지, 즉 ①

교회 간신 ② 반군사주의 ③ 희년운동 ④ 이데올로기 해체로 요약하겠다.

### 1. 교회 간신

민중과 민중여성을 주체로 한 관점에서 통일신학이 정립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자체 간신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교회가 자본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이며 권위주의와 위계질서의 온상이 되어 있다면 사회를 향하여 발언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는(남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지의 한국 교회도) 남성과 목회자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안수 거부, 남녀간 위계질서에 입각한 교회행정 등은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이다. 강단의 설교도 남성 시각에서의 설교이며, 성서 해석이나 신앙 지도도 남성의 입장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교회 성장의 대부분의 용어들이 군사언어이며(전도작전, 전도전략, 총동원주일 등), 부유한 대교회 지향적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본래적 공동체 –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복귀하는 교회 간신의 신학이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 반군사주의

샬롬의 신학으로서의 통일신학은 군축, 반핵, 반군사주의 문화를 주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여성이나 민중의 관점에 설 때 막대한 군사비가 여성이나 민중의 복지비와 관련되어 있으며, 성폭력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신학적으로도 “살인하지 말라”(출 20:13)는 계명에 위배되는 군비 확장은 근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것이다. 군축을 통한 민중 복지의 실현과 사회의 모든 억압의 근원이 되고 있는 무기 확장과 군사주의 문화를 신학적 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3. 희년운동

1988년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분단 50년인 1995년을 희년의 해로 선포했고, 이것을 WCC와 북한교회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희년 선포(례 25장)의 정신인 노예의 해방, 자유, 평등, 토지의 원상복구라는 명제 중에서 ‘50년 분단의 무름’<sup>8)</sup>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해 왔다. 통일에만 초점을 두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평화와 여성의 관점으로는 참된 살롬의 실현인 희년, 즉 노예의 해방, 평등, 빚의 탕감, 땅의 원상복구 등의 경제정의적, 생태학적 해석이 더 중요하다.

특히 남의 자본주의와 북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희년적 경제체제는 어떠한 것인지를 신학화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은 ‘포도원 일꾼과 품삯의 비유’(마 20:1-16)의 오후 5시에나 일자리를 얻은 사람보다도 못한 처지에 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아침에 일자리를 얻은 일꾼이나 5시에 일자리를 얻은 일꾼이나 필요에 따라 분배하신다. 이러한 경제정의의 장치가 마련될 사회개혁을 통일신학은 신학적 주제로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4. 이데올로기 해체

통일신학은 교회内外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해체시켜야 한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공동안보’의 가치관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온상인 이원론(dualism)을 신학에서 해체해야 하며, 인간 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생태학적 가치관으로 해체해야 하며, 그밖에도 발전 이데올로기, 유교 이데올로기 등등 모든 사유 체계의 유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탄력성을 억압하고 고정화시키는 이데올로기를 해체하여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공동체적이고, 상호 관계적이며, 생명 애호적이고, 약자 편애적이며, 그리고 상생(相生)적인 가치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신학은 다양하게

인간성을 속박하고 제한하고 억압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해체작업을 주제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

#### IV. 결론

한반도의 민족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신학은 통일신학이라는 영역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 통일신학은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승공 → 북한선교 → 화해’로 모형 변화를 해 왔다. 동시에 냉전의 종식과 남북의 유엔 가입 및 합의서 채택이라는 변화를 보면 통일신학은 앞으로 새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성과 평화의 관점의 신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을 전망하는 것이란 7·4 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이 삼위일체적 연관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며, 희년이 실현되는 것이다. 통일은 평화와 정의와 평등한 사회체제를 한반도에 이룩하기 위한 요건이지 통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민족을 반평화적 상태에 두는 분단의 극복이란 점에서 과정적인 것이다.

통일신학의 패러다임 전환은 그러므로 앞으로는 평화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희년신학, 생태신학적 전망으로 새 민족공동체 형성과 새 민족, 새 민중, 새 인간 형성에 기여하는 대로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

#### \* 주 \*

- 1) 한스 킹, 「현대신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재순 역, 한국신학연구소, 1989. pp. 45–58.
- 2) 손규태, 「평화통일과 기독교 사상」, 〈기독교사상〉, 1992년 4월호(400호 기념호), 대한기독교서회, pp. 49–58 참고.

- 3) 심포지엄 「변화된 세계에서 대안적 가치체계의 모색」, 〈신학사상〉, 1992년 봄호, 한국신학연구소, pp. 124 – 161.
- 4) 임태수, 「이스라엘의 통일신학」, 〈신학사상〉, 1990년 겨울호.  
김경호, 「고대 이스라엘 남북왕조의 갈등」,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민중사, 1990.
- 5) 김창락,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사 – 통일의 노력과 그 실패의 역사」, 〈신학사상〉, 1990년 겨울호, pp. 899 – 901.
- 6) 서광선, 「통일신학 : 분단신학을 넘어서」, 「남북한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p. 115 이하.  
박종화, 「민족통일의 성취와 통일신학의 성립」, 「남북한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p. 118 이하.  
손규태, 「한반도의 평화신학을 위한 윤리학적 접근」, 「한반도의 평화신학 정착」, 강남출판사, 1989. pp. 225 – 226.
- 7) 박종화는 위의 논문에서 ‘민중지향의 선택적 결단’이라고 했으나 ‘민중’에게 다시금 가부장적 압제를 받고 있는 민중여성이 최하층임을 인식해야 한다.
- 8) 김용복,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선포」, 「남북한 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pp. 354 – 358.

■ 제2 패널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자주성 확립

## National Consciousness and Globalism

- Toward an Ideological Synthesis for Unified Korea and Beyond

Han Shik Park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eorgia

### I. Purpose of the Paper

In the wake of the post – Cold war era, inter – Korea relations have experienced profound transformations leading the world to anticipate national reunification. President George Bush of the United States expressed his optimism on the occasion of a state visit to South Korea that “the day will inevitably come when this last wound of the Cold War struggle will heal ..... Korea will be whole again.”<sup>1)</sup> This optimism is shared widely not only by the world’s Korea watchers but by the Koreans themselves. While many suggest that Korea will be reunited following the German precedent, some believe that the Korean case is so fundamentally different that it will follow a different course. The present paper

is not intended to dwell on the controversy, nor is it designed to add yet another speculative scenario.

This paper is written on the premise that a meaningful and lasting reunification will not be viable without a consensus building on political belief systems that encompasses the political cultures of both communities. This premise is predicated upon the realization that the two systems in either side of the DMZ are not expected to undermine the very survival of their political systems themselves along with their bases of legitimacy. The successively held inter-Korea talks at the prime ministerial level and all other conciliatory gestures have been managed within the boundary in which each of the ruling regimes expects to benefit from these maneuvers; but as soon as either side faces unwanted development tilting against its interest or toward the other's favor, conciliatory gestures will be disrupted indicating that the negotiations are guided basically by a zerosum game. Thus, this mutually exclus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gimes on the peninsula must explore a shared value system designed to facilitate a 'positive-sum' relationship whereby both benefit from their interactions.

In light of the above, this paper attempts the following : ① to discern the nature of the political-historical milieu that provides the context in which an ideological synthesis must emerge; ② to ascertain the contrasting patterns of political cultures exhibited by the two Korean regimes; ③ to examine the global environment to which a national identity and a new ideology must

adapt itself ; and ④ to offer a normative construct that might lay the foundation for a new ideology needed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beyond.

## II. The Erosion of the Cold War World Order System

It is now evident that the era of Cold War politics has ended. But there seems to be little consensus on the causes of such a change. The demise of the communist bloc cannot be interpreted simply as the victory by the capitalist in the ideological warfare ; a more direct cause might have been in its inherent inability to meet the basic needs and rising expectations of the people. Furthermore, the demise of some socialist system must not lead us to the conclusion that capitalism is an ideal ideology to guide human behavior and the course of social development. Two facts remain undisputable : First, there are oppressing problems being developed in the advanced capitalist systems themselves including human and social degeneration as well as ecological deterioration ; Second, the socialist idea of equality and its notion that each human being is entitled to basic needs thus distributive justice is still sound in some Third World socialist systems where socialism has been adapted to indigenous conditions including the Asiatic systems of China, Vietnam, and North Korea. These factors notwithstanding, however, the global community has created an ideological vacuum where human values and belief systems are rapidly becoming irrelevant to contemporary politics.

The process of value neutralization in human conduct has been accelerated by the myth of science on the one hand and the universal human desire for material affluence on the other. Indeed, the contemporary human being seems to be guided by material self-interest rather than by any value system. In fact, the concept of 'rationality' is perceived as being value neutral as the concept is defined as the pursuit of interest maximization. Considering that classical philosophers regarded self-interest pursuing behavior as irrational and altruistic(benevolent) behavior as rational, the drastic conceptual transformation speaks a great deal about modern civilization. The contemporary value neutrality syndrome may have been a powerful underlying current behind the erosion of socialism and the age of ideology itself. Under the market culture, we are expected to behave in a highly predictable way in which choice making is dictated by the market mechanism of cost/benefit assessment, and there is no overriding value that supersedes material gain. In this sense, human beings may have become little more than physical objects and their behaviors are explicable by the law of physics.

In this ideological vacuum, the boat carrying the human species has lost its canvas, and humans themselves are making their journeys without a map. The unguided journey is destined to end in a catastrophe as all the ill-symptoms in the health of ecology, social systems, and human minds are indisputably heading toward a self-inflicted extinction.<sup>2)</sup>

### III. Ideology and Human Aspirations

An ideology functions as an institutional means intended to cope with human problems and to realize human aspirations. It induces certain values and conducts, while discouraging others ; it provides legitimacy for certain forms of governance while prohibiting others. In other words, an ideology is a code book that any political system must have, and it should therefore be the crystallization of collective aspirations in the membership of society. Thus, as long as there are human aspirations for development, there should be ideology. Then, what are and what should be today's human aspirations so important that they must be incorporated into a new ideology that must emerge from the ideological vacuum? This question has to be addressed before we attempt to prescribe an ideology for the specific case of Korea.

Human aspirations may be perceived in terms of two categories : problem solving and social engineering.<sup>3)</sup> Problem solving involves the identification, diagnosis, and treatment. Contemporary problems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 among them are universality and human degeneration. They are universal in that all peoples in the world share similar problems as evidenced by ecological deterioration, threat to global security by the proliferation of destructive weapons, and degeneration of social structures. These problems pose a certain threat to the very survival of human species itself. However, solving these problems is not

the ultimate achievement of human aspirations. Society must be engineered in a normatively desirable direction toward the realization of human development, social harmony, and global peace.<sup>4)</sup> The two challenges of problem solving and social engineering are not necessarily sequential; that is, one may not wait for problem solving to be complethe before venturing social engineering. Social engineering can in fact be an effective strategy to solving certain problems.

To the extent that we have a common fate as fellow travellers on this planet, Korean problems cannot be isolated entirely from the problems of the global community, although they may have their unique additional problems. Indeed, the Korean peninsula seems to be the microcosm of the global society as far as the diversity and intensity of the problems are concerned. The two Koreas combined might represent a range of diverse life situations that encompass the world itself. Thus, a key to solving the Korean problems might be ifnstrumental to developing ideas and strategies to address the world problems themselves.

#### IV. The plight and character of the Korean people

In this century, the 70 million Korean people have gone through a great variety of personal and national experiences. Politically, they have lived through a dynastic rule, a most thorough exploitation by colonialism, a division of the country along with separation of families in the magnitude of 10 million, one of

the bloodiest civil wars in human history, unstable democracies in the South and a most centrist xenophobia in the North for nearly half a century resulting in mutually incompatible sets of values and beliefs as well as political systems. No other people in the world have experienced such a profound historical diversity. economically, the people have experienced extreme poverty having to suffer routine starvation in every Spring, feudal as well as colonial exploitations, and finally relativ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recent decades. A variety of economic systems have been experimented with on the Korean peninsula ranging from an intense form of capitalist competition to an extreme kind of planned economy. In the arena of social life, the Korean people have experienced the disruptive process of urbanization, the transition of family institution, internationalization in the South and indigenization in the North. Culturally, the diversity of experience is even more acute. As somy say, each of the cultural systems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Christianity has exhibited even more extreme manifestation in Korea than it has in the society of its origin : Korean Confucianism being more confucian than that in China, Buddhism is more buddhist than one in India, and Christianity is more christian that it is in the West. In this way, Koreans have been deeply influenced by ideas and values that are so fundamentally contrasting and divergent. The two ideologies being advocated and practiced today, Juche in North Korea and democracy in the south might well be as diverse and different as any set of ideologies that have existed in history.

While diverse experience exists in both the physical and metapsysical arenas, what is truly intriguing is the fact that the heterogeneous attributes in the society and culture have seldom generated serious confrontation or chaotic disunity. Whith the exception of the untested case of Juche versus South Korean democracy, almost all the contrasting forces have coexisted harmoniously : There has been no religious confrontation although the Buddhist, Christian, and Confucian populations are nearly equally matched in numbers. It will not be unusual for a Korean to participate in Confucian rites for ancestor worship, marry in a Christian wedding, and be buried by Buddhist rituals.

Paradoxical to the heterogeneous national attributes discussed above is the fact that the Korean people share similar national characteristics in such salient areas as language, race and ethnic identity. Whereas the dividing attributes are of the kind that have been articulated rather than ascribed, the consensual characteristics cannot be altered by will of the people or government policies. It is therefore vital to explore avenues in which these common national characteristics can be exploited selectively to cultivate national consciousness and ideological foundation. The process of identifying and selecting consensual nat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guided by ideals and aspirations of the Korean people. Then we must first address the question of what ideals and aspirations might be established. What ideals and aspirations can one prescribe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 era of globalism?

First and foremost ideal has to be the restoration and/or pre-

servation of human dignity. Thus, the aspiration of creating a community in which human kind is dignified is not limited to the Korean people but is common to all mankind. As alluded to earlier, human dignity requires the material condition of basic needs, the social condition of belongingness and opportunities, and the political condition of choice making. One aspires to have sufficient food, adequate shelter, and security from political and environmental adversities in order to ensure physical survival. One must also aspire to secure psychological comfort by belonging to other human beings by gaining access to economic and social opportunities. Finally, human beings must claim the position of masterhood over their natural,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Secondly, in a world so torn by artificial parameters such as national interest and ethnic and ideological differences, one must reach for peace. Ideally, peace must refer to something more than the absence of conflict. It must mean harmonious coexistence in which relationships are guided by a positive game. The tormented history of Korea makes the Korean people especially long for meaningful peace. In fact, there might not be another people that has suffered as much from conflict, division, distrust, and the anxieties of a zero – sum game. This experience may richly qualify them to be able to articulate ideas of peace and construct approaches toward its realization.

## V. The Korean National Identity : A People of Contradictions

Today's world political climate shows a resurgence of ethnic and national consciousness as evidenced by the republics of the former Soviet Union, Yugoslavia, and the Kurds of Iraq. Most multi-ethnic systems are showing signs of rebellious and at least disconforming behaviors toward their traditional political centers. This tendency suggests that ethnic and national groups may show the appearance of assimilation into the predominant political culture during the Cold Ear era but the disguised appearance can be unveiled as the externally imposed suppression itself is lifted.

A nation, unlike a political system, is an "imagined political community" which provides a civil society with cohesion and psychological integration.<sup>5)</sup>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belongingness can be so strong that personal sacrifice including life itself is often absorbed by members of the nation. Members have mysterious and compelling attachment to the nation in such a manner that any behavior or attitude in defiance of group norms is condemned. The degree to which a people has an inward sense of cohesiveness is determined by a number of inherent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 Among other factors, ethnic homogeneity, longevity of national history, and external hostility might be included as the most crucial determinants of

national consciousness.

The Koreans ar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homogeneous peoples in the world ; In fact, The Book of Rankings compiled by George Kurian ranks Korea the highest of all nations on the ethnic homogeneity index.<sup>6)</sup> It is not only the ethnic make – up of the Korean people that is homogeneous, but their norms and behavioral patterns tend to be uniformly exclusive as well. This tendency is richly documented by overseas Koreans who have maintained cultural and ethnic purity while living abroad for generations often forming ‘Korea Towns’ or ethnic regions. They insist on using their language and preserving cultural values and life styles. One might note in this context that Koreans who have lost or are unable to attain language proficiency in the ‘mother tongue’ are severely and unqualifiable condemned. Furthermore, to live in Korea as a foreigner is widely considered to be most difficult because the Koreans are seldom prepared to accept any foreigner as one of them.

These ethnic characteristics coupled with the longevity of the nation as a cohesive entity have provided the people with an unwavering sense of belongingness.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Korean history is marred by successive domination by superior powers surrounding the peninsula has reinforced the inwardly sentiment of national consciousness.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 Korea has had to survive the hostile environment due to its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has helped the people learn to be adaptive to changing and different environments. The seemingly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of salient national consciousness and adaptability may have resulted in generating a form of dualism : unwavering egocentrism and at the same time accommodating (and some times submitting to) foreign influence. Thus, Korean politics has exhibited inconsistencies between appearances and contents : democracy in institutional appearance and authoritarianism in the behavioral content ; absolute loyalty in appearance and calculated opportunism in the cultural content.

The 'imagined' nation, Korea, therefore, can be said to have earned a set of characters through her history, and they can provide the underlying foundation upon which a national ideology might be formulated. These characteristics as established above include a series of seemingly contradictory attributes : diversity of experience and homogeneity of ethnicity ; metaphysical quality and practical rationality ; collectivism in appearance and individualism in content ; exclusiveness toward foreign objects and accommodation of alien influence. Because of the extreme level of these diverging attributes, extremely contrastion patterns of behavioral and institutioal manifestations have been different life situations in the two Korean communities.

### **1. Collectivism versus Individualism**

The Korean culture stemming basically from Confucianism is inherently collective – oriented. Hedonistic selfishness is condemned and collective interest supersedes personal interest. Although industrial and urban development may have destroyed

collectivism in its purest form, valuse of collectivity, be it the family or state, are still placed above individual interest as a matter of moral imperative. However, the thorough saturation of South Korea with capitalist and market culture has produced what is referred to as the “rational” actor who is essentially an individualist. The rational actor in south Korea has been instrumental to economic expansion through exploring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law of survival of the fittest has favored the ‘rational actor’ who is self – centered and aggressive in pursuing individual interest in south Korea. Yet, one should note that no matter how ‘rational’ the actor may be, he/she cannot avoid cultaral condemnation if the selfish pursuit of interest undermines collective interest of the family, social and cultural organizations, and the state. In other words, the context of South Korean development may have steered the individual to behave for self – interest, but it failed to eradicate the normative ideal of collective goods. As a result, a sort of dualism has evolved in the South Korean ‘personality’: collective orientation as an ideal value and hedonistic individualism as a practical guide.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has never departed from the Confucian collectivism as she has not been exposed to the Kind of capitalist and market culture in which ‘rational’ behavior is induced. Individual interest should never deviate from state and societal interest ; In fact, individual worth is determined by the extent to which he/she makes contribution to the collective good. According to the Juche idea, individuals can overcome limita-

tions and become perfected by attaining the ‘social – political – life’ of the state in a similar way that the Christian individual achieves salvation and eternal life through losing oneself in God.<sup>7)</sup>

## **2. Ethnocentrism versus Internationalism**

As discussed earlier, the Korean people by virtue of their ethnic homogeneity tend to be closed – minded and exclusive. Yet, the fact that Korea is geopolitically vulnerable to external influence has made the people more adaptive and accommodative. Thus, the two opposing predispositions have been instilled in the political cultures of north and South Korea whereby the North has formed its orientations centered around ethnocentrism, while the South has fostered internationalism. The contrast is extreme and casually felt by visitors of both societies ; North Korean Juche is based on a de facto recognition of racial superiority as evidenced by the notion promoted in North Korea that human history has originated from the ancient land of Korea and its people have been destined to keep human civilization from falling into the ‘yoke of imperialism.’ As the emancipator of all the oppressed peoples of the world, the ‘Great Leader’ is claimed to be a global leader, indicating that his immediate people, koreans, have the uncommon quality of providing the world with such a leadership. This ethnocentrism has been promoted effectively by the regime through policies of information control and manipulation of political socialization of the masses.<sup>8)</sup>

South Korea, by contrast, has been subjected to intensive and extensive foreign influences. In terms of the spiritual life, Western religions of diverse hues have settled in South Korea; materially, products from various origins of the world have found their market in Korea; political institutions of all kinds have been transplanted from other countries. Ideas and values have been transferred to South Korea through the proliferation of foreign publications.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come to South Korea leaving some wrinkles in the society and culture. A multitude of international events have been convened not only in the area of sport such as the Olympics but in the art and commercial arenas as well. All these combined have changed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people in a profound manner, and they have learned the hard reality that Korea is merely one of many countries and many cultures, a humbling experience that induces internationalism.

### **3. Spiritual Determinism versus material Determinism**

It is truly ironic that Marxist materialism has led the North Korean ideology to a sort of spiritual determinism, while Western capitalism has become instrumental to the practice of a kind of material determinism in South Korea. One might object to this blunt observation, but fact remains valid that material power has become almost omnipotent in the South, and the Juche idea of the North centers around the notion that human spirit has the power to determine the fate of man and history.

Juche claims that the human being is uniquely different from other species in that it is only man that has chajusong, the ability to manage one's life independently of material,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In fact, there is little resemblance between the marxist perception of man and society, on the one hand, and Juche's conception of human nature and its relationship to the material forces of production and the symbolic environment of the society, on the other.<sup>9)</sup>

Considering that confucian values tend to favor the spiritual and human dimensions of social life, as opposed to the material success, North Korea's Juche might be considered relatively more consistent with traditional culture, but whether the desired national consciousness should be traditional or modern is a debatable question.

#### **4. Traditionalism versus modernism**

With the risk of over-simplification, one can say that North Korea is past and inwardly oriented, whereas South Korea is more future and outwardly oriented. When the North Koreans compare their life condition, they tend to compare their present situation with their ancestors' rather than other societies. Visitors to North Korea invariably develop the impression that the atmosphere of the society has not changed from the time of national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The prevalence of anti-Japanese sentiment, the exclusive use of the Korean characters in all publications, the clothes people wear, and popular literature

and arts are all oriented toward traditionalism and nationalism.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is motivated toward modernization which often translates into Westernization. The streets of Seoul and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in South Korea show remarkable resemblance to the manifestations of Western societies. What is traditional is often regarded as being backward and undereveloped to the extent that modernization tends to be defined in terms of the eradication of traditional values and ways of life.

In search of a new national consciousness, one must realize that not all traditional elements are underdeveloped. By the same token, one must also realize that not all Westrn or modern elements are corrupt or inhumane. Here, one must exercise a great deal of caution in choosing what is worth preserving and what is worth adopting. The exercise of this caution can only be possible with a normative conception of a desirable ideology.

## VI. Normative Values and Ideas for a New Ideology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re is national consciousness surging throughout the world in this post – Cold War era, the global community has clearly become an indivisible and intgral single unit. The most dramatic development in this respect is the emergence of a global market in which national boundaries are becoming obsolete. Needless to say, the human species share one ecosystem on a planet which has shown signs of deterioration

beyond recovery, and we are forced to accept a common fate in matters of security. In short, the global community has emerged and the extent of its interdependence is growing. No nation can be a viable member of the world system without being assimilated into and becoming an integrated part of the global community.

When a community is formed as in the case of the formation of the global community, cultural norms and values are simultaneously articulated. A culture is the symbolic expression of patterned relationships that emerge in the process of community building. Then, what are the norms and values that emerge from the formation of the global community? In other words, what is the nature of the global culture (globalism) in the context of the contemporary global society?

The primary actor in the global community is the individual,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body politic. In fact, sovereign state will become increasingly obsolete as individual members of the global community find alternative functional entities that maintain cohesiveness and solidarity. One of such entities is the ethnic group. Ethnic and national consciousness has surged forcefully following the decline of the Cold War politics as evidenced by the republic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in Eastern Europe. The impetus underlying German reunification might also be seen in light of the resurgence of national consciousness. Societies with ethnic diversity are expected to experience turmoil due to their claims for distributive justice as was witnessed

in the racial riot in Los Angeles in April – May 1992. As ethnicity is an ascriptive quality, ethnic animosities and mutual disagreement cannot be settled easily through bargaining or negotiation. What is demanded by ethnic minority groups is not limited to distributive fairness but it involves a claim to human dignity. Human dignity on the part of the individual requires the universal and inalienable human rights, among them are the rights to life and choice. For a set of good reasons, ethnicity has been undermined as being insignificant or even irrelevant for the last a few decades. The Cold War order was based on the confrontation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both of which were in defiance of ethnicity. Capitalist classification of people was based on achievement in competition, and it distinguished the achievers from the non – achievers ; whereas Marxist socialism classified population into classes. In either case, ethnicity had no room to stage its legitimate place in the world.<sup>10)</sup> But with the changing world order, ethnicity has found a new light in the growing global community. It is in this historical context that the issue of ethnic identity and national consciousness will find a rightful place in the politics of reunification of Korea.

Given the fact that highly sophisticated weapons are already in the possession of undetermined and unidentified hands, and weapons proliferation will continue to be at an explosive pace, and the human species is at a crossroad : If we fail to solve the ethnic and national problems, humans are indeed doomed. As observed above, any effort to resolve ethnic problems requires

more than bargaining or negotiation which is meant for only cases of disagreement on the allocation of quantitative values. Viewed from this perspective, one might note that it will take no less than a miracle to expect a negotiated settlement between the two Korean regimes. What is needed is not negotiation but genuine efforts for peacemaking.

Negotiations may be useful for the postponement of conflict but it itself is not a process of peacemaking because peace is more (other) than the absence of conflict. The concept of peace (or any other concept) Should be defined in terms of what it is rather than what it is not. Therefor, to define peace casually in terms of the absence of conflict is wrong. Conflict resolution may be necessary but it is not what peacemaking is about. Peace refers to harmony in which diverse parts find ‘oneness’ through the perfection and coordination of the constituent parts. In this case, each of the parts becomes better off through overcoming its individuality and becoming integrated or assimilated into the whole. A perfect analogy may be made in musical harmony. Upon painstaking trials and learning during rehearsals, different musical instruments in a symphonic group will be able to produce a harmony of ‘oneness’. Toward this creation, each part has to perfect its function not in isolation from others but in coordination with them. This coordination must avoid domination by any part but find a rightful place in the totality. The conductor’s job here is to envision the state of harmony and induce each part toward the realization of the vision. The conductor in this case is

analogous to political leadership. The leader is one who interprets the music (composition) and help the community of musicians in pursuing the realization of the vision. In this case, the vision is and ideology. The ideology in today's context needs to be globalism.

In short, globalism is an idea in which human development at the individual level and peace at the collective level are promoted. In view of the contrasting national characters as exhibited by the two Korean regimes in the context of globalism, what then ought to be the direction in which a new ideology may be formulated, an ideology that might not only facilitate the process of national integration but could contribute to the goals of a peacemaking global community? In this regard, one might prescribe the nature of national consciousness for the Korean people in terms of what it should not be and what it should be.

### **1. From Domination to Accommodation**

Desires of one system should not be imposed on the other in an attempt to dominate the other. As clarified in advancing the concept of peace, domination has no place in the pursuit of integration through harmony. There may be values offered by either of the regimes in Korea that might be more conducive to the aforementioned globalism but they must be legitimized as values rather than as means of domination. Despite the appearance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regimes on the peninsula in the post – Cold War politics, it is undeniable that neither side

has ever expressed willingness to compromise its insistence on being righteous vis a vis the other side.

## **2. From a Zero — Sum to a Positive — Sum Game**

As clearly evidenced in the notion of peace, a harmonious relationship should facilitate mutual adjustment and reinforcement. By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through integration, each of the two sides must expect to be better off than the status quo.

The reality in the history of inter – Korea relations is that each side has sought its basis of legitimacy in repudiating the existence of the other, thus the relationship being one of mutual exclusiveness or a zero – sum game.<sup>11)</sup> Conversely, accepting the other side's proposals is automatically construed as a defeat, and any proposal when it is originated from the other side is to be habitually rejected regardless of the content of the proposal itself. This parasitic mentality must be cured if there is to be any progress toward national integration.

## **3. Basic Needs as a Condition of Human Dignity**

Any ideology to be persuasive should be founded on the universal valve of human dignity. Human dignity, as alluded to earlier, involves at the very minimum the right to basic needs. No national consciousness or political ideology can be justified if it defies the very physical existence. One must live first before pursuing any other component of dignified life. For this, one

must insist on the production of sufficient food and shelter as well as security. Whether one might pursue self-sufficiency or look to other systems to obtain these basic requirements is an important question. In this regard, there seems to be a sharp disagreement between North Korea's Juche and South Korea's ideas for modernization. It would seem that self-reliance to the extent possible without curtailing productivity and resource expansion might be a meaningful goal for any system.<sup>12)</sup> This is because one should be able to make decisions guiding one's own behavior.

#### **4. The Right to Choose and Human Dignity**

As human beings cannot find dignity without securing certain autonomy from not only the physical world but from social and political capricious manipulations, one might insist on the choice right. Choice making should be what human behavior itself is all about. If a person behaves only in accordance with someone else's plans, desires, and preferences, such a person is literally called a slave. To the extent that the life of a slave is not consistent with human dignity, the right to make choice must be regarded as a requisite for a dignified life. Choice making requires among other things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s, information about them, preference ordering on the part of the chooser, and the absence of political restrictions on choice making behavior.

Thus, the range of alternatives in terms of both their quantity and the qualitative diversity must be maximized. This means at

least that diverse ideas and ideologies, as well as social organizations and cultural associations, should be protected and even promoted including those critical of the political establishment. Furthermore, extensive and unrestricted flow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alternatives should be insisted in our search for a new ideology.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have ample room for improvement in this regard, and the monolithic system of the pyongyang regime becomes especially vulnerable to this criticism.

##### **5. Distributive Justice**

The right to choice making can be severely undermined by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as well as political power. In fact, a desirable ideology should ensure a broad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values not only for choice making but equality itself. One should not forget that socialism may have faltered seriously in recent years but the very value of equality advocated by the same ideology should not be discarded, for without economic and social equality human dignity itself becomes meaningless. Yet, one should not be naive enough to expect a perfectly equal society, nor should one consider such a society even desirable. Then, how may the extent of inequality that is allowable be determined? We will turn to this question later. For now, as we compare the two korean regimes, one will be struck by the sharp differences in patterns of distribution.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egalitarian systems in the world, at least measured by in-

dices of income distribution by household or occupational categories; and South Korea suffers from an increasingly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due in part to uncontrolled land speculations. Income discrepancies and a certain degree of economic inequality might be conducive to healthy competition but distributive inequality should be contained within the limit of not provoking social injustice.

#### **6. The Achievement Society**

The question of “allowable” degree of inequality was raised above. The rationale was that it may facilitate healthy competition and promote work ethics through positive incentives as the case has been widely used in defense of free market and capitalism. Yet no viable definition of the threshold has been persuasively presented. One definition being offered here is that inequality should not be inheritable and, by the same token, the structure of inequality in a society should be changeable by the dynamics of individual achievement. When distributive injustice, thus social and human injustice, is immune to individual achievement, it constitutes a form of “structural violence” threatening the very stability of the regime. Thus, an ideal ideology should incorporate in itself a distributive mechanism whereby economic and social rewards are based on achievement and social contribution rather than ascription and personal connections. In this regard, both Korean regimes seem to be seriously deficient. The Koreans are inherently a homogeneous ethnic group minimizing

ascriptive differences in order for an achievement based regard system to be made effective.

## **7. The Environment**

Human dependence on the natural environment is unavoidable, yet it has always been a human aspiration to expand the ability to alleviate the adversities of nature. In fact, technological development itself has largely been and should continue to be geared in the direction of 'controlling' the natural environment without destroying it. Unfortunately, today's technologies are seemingly designed to promote human leisure (or perhaps laziness) and 'conquer' (destroy) the nature's ecosystem. To this extent, technological evolution has been misguided. Ironically, it is the thechnologically and industrially developed societies that contribute to a greater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 cursory comparison of the two Korean regimes would lead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the North that has been more successful in avoiding environmental decay. However, it is of vital importance for North Korea to make conscientious efforts to avoid ecological deterioration as it pursues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tnt ; whereas, South Korea might shift its policy from indiscriminate industrial growth to a comprehensive environment policy.

## **8. Institutionalization**

The simple fact that a person's longevity has an absolute limit and a society or political community endures beyond the human

life span is often forgotten. Laws and principles guiding a society must not be designed to satisfy any individual's personal ambition. When principles and legislative ideas are personal ambition. When principles and legislative ideas are conceived, they need to be centered on the life of society and must be future oriented. In this sense, laws and guiding principles must be autonomous from any specific individuals. Instead, patterns of government or relationships ought to be institutionalized, as opposed to be personalized.

Koreans are notoriously incapable of distinguishing principles and 'ideal types' from concrete cases in which specific persons are involved. For both Koreas and their people in general, laws are made to rationalize and justify individual persons or empirical situations of their choice. The fact remains that each of the leaders (mostly presidents) of South Korea has changed the state's constitution itself in order to accommodate his political ambitions or personal desires. Similarly, North Korean politics (and political ideas) has evolved around its leader to the extent that he has become in the political culture an immortal being. This syndrome of personalization of politics is not limited to the level of national government; it is pervasive at all levels of government. Further this syndrome is not contained within the public sector; indeed,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even universities and religious groups especially in the South are highly personalized, leaving laws and regulations merely for cosmetic appearances.

The lack of institutionalization or the practice of personalization of politics leads to certain factionalism and recurring instability and legitimacy crises. At the same time, this breeds charismatization and possible deification of political leader, and promotes nepotism and other forms of corruption as amply demonstrated in both political systems.

If a new ideology is to avoid the same trap of personal politics and all the shortcomings accompanying it, it is imperative for the new ideology to cultivate a political culture (and practice) of depersonalization and move toward viable institutionalized politics.

#### **9. Communicative Capability**

The ultimate goals of human dignity and global peace cannot be approached without extensive and intensive communication by individuals and groups with different values and priorities. Communication is necessary where understanding is desirable ; it is misunderstanding that is the primary source of conflict at all levels of the society. Understanding is not agreement ; in fact, agreement does not require understanding. Because disagreement and differences lead to confrontations, the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is necessary to avoid conflict. But the real significance of communication is far reaching and instrumental to peace-making.

Communication is the exchange of values as opposed to mere facts. Different values and opinions that might even be mutually

incompatible must find a common basis through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For communication to be effective and meaningful, there are a few requisite conditions. First, empathy is required, as it is defined as one's ability to 'put oneself in someone else's shoes' Without this attitudinal quality, communication can only result in one-sided assertions and misunderstanding. Secondly, one must also be open-minded in that one is ready to accommodate other' views and opinion and opinions and willing to adjust his/her own perspectives. Third, for obvious reasons, the absence of constraint (political or otherwise) on communication must be preserved.

Viewed from the definition and conditions for communication, one has to conclude that both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gimes are utterly unprepared for meaningful communication. The two sides' motivations and orientations behind their contacts and negotiations seem to suggest that they are not empathetic. Rather, they are self-centered, closed-minded, and unwilling to compromise their positions. In addition, within their own societies, especially the North, there appear to be numerous constraints upon the expression of ideas and values.

#### **10. Radical Relativism**

The admission of relativism in values and positions on the part of the communicator is a necessary requirement for viable communication. As long as values and opinions are held to be dogmatic, communication cannot work as a vehicle for peacemak-

ing. Unfortunately, the cold – War political culture coupled by the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divided regimes of Korea has instilled in the political orientations for both sides dogmatic views about each other, leaving little room for compromise. The long – held impasse in inter – Korea relations has been due in part to the zero – sum nature of the competition for system legitimacy.

The context of world politics has changed in that relations of political and non – political entities are no longer guided by the ideological nexus. No longer does the legitimacy for a political regime depend on its ability to denounce the ideology of its adversarial regime. It is therefore of vital significance for the two Korean regimes to move their bases of regime legitimacy from mutual rejection to a broader and common basis by incorporating the notion of human dignity. A political system, then may be regarded legitimate if it can be supportive of and instrumental to enhancing human dignity. Both Korean regimes should realize that each has some areas of strength as well as weakness in their pursuit of human dignity ; yet better, they should realize that they can even complement each other as they indeed represent a variety of different attributes that must first find their rightful places in order to begin building eventual, lasting harmony.

## VII. Conclusion

With the waning of the Cold war world order, the East – West

ideological nexus has been dismantled leaving an ideological vacuum. Contending views and claims about a new world order have never produced an authoritative assessment of the current situation. Amidst this global transition, the inter – Korea relation have evolved to a point where interactions have progressed at a breathtaking pace. Yet, the nature of differences and the condition of impasse between the two Korean regimes are such that all the dramatized ministerial talks seem to be producing little tangible result for peaceful reunification. This paper was written on the premise that an ideology is the road map designed to guide the course of social change, and that it is imperative for Korea, and for that matter for the global community, to advance a new ideology.

Efforts were made in this paper to first discern the contrasting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Korean regimes which would be helpful in diagnosing the sources of problems in interregime dialogues. Secondly, further efforts were made to identify the kinds of values and ideas that can be used in developing a new ideology that might facilitate not only a meaningful course of Korean reunification but more ambitiously could provide some insights for the emerging global community itself. The view that a desirable ideology should promoth dignity for human individuals and peace for the community is put forth. The ten – point proposal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mple room for improvement and change in both of the systems, and that the challenge of generating such an ideology lies ahead for the Ko-

rean people. □

\* Note \*

- 1) The New York Times, January 7, 1992.
- 2) For a further analysis of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on this very premiss, see Han S. Park, Human Needs and Political Development (Cambridge : Schenkman Publishing co., 1984)
- 3) The term 'social engineering' is adopted from Eugene Meehan's work, Value Judgement and Social Science (Homewood : The Dorsey press, 1969).
- 4) The concept of human development is persuasively espoused by steve Chilton as he exploits culture as the locus of development in his recent book, Defining Political Development (Boulder : Lynn Rienner Publishers, 1988).
- 5) The concept of 'imagined political community' is adopted from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ew York : Verso, 1983), pp. 15 – 16.
- 6) In the same book, the author ranks both North and South Korea as being the only countries with 100% ethnic homogeneity.
- 7) The notion of the 'social political life' has been advanced by Juche theorist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by Kim Jong Il in his speech entitled 'Some Questions on the Juche Idea' in 1986. For a concise exposition of the idea of 'eternal life', see Koh Rim, Ch'u che cholhak won ron (Introduction to Juche Philosophy) published in pyongyang in 1989.
- 8) The consistent purpose of the massive 33 volume history book series entitled Chosun Chon Sa published in 1979 – 1982 was to convey the idea that Korea is a chosen land and its people are destined to liberate the humanity from imperialist oppression.
- 9) There are numerous publications on Juche's interpretation of human nature, In Book I of the massive book series published in Pyongyang in 1985 by multiple authors entitled Widaehan Chuche Sasang Chong Suh, Li Sung Joon introduce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the ideology.
- 10) For a further exposition of this analysis, refer to Stephen Ryan, Ethnic Conflic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artmouth : Dartmouth Publishing Co., 1990). p. xix
- 11) For a comparison of the bases of legitimacy of the two regimes, see Han S.

Park and Kyung A. Park, "Bases of Regime Legitimacy in North and South Korea" *Korea Observer* (Vol. 18, No. 3, Autumn 1987), pp. 321 – 343.

12) For a discussion on the relevance of 'self – reliance' for security, refer to Han S. Park and Kyung A. Park, "Ideology and Security : Self – Reliance in China and North Korea" in Edward Azar and C. I. Moon, eds., *National Security in the Third World* (Cambridge, England : University Press, 1988).

##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는 민족주의의 정립을 위한 모색

박승덕

평양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 I. 머리말

저는 먼저 우리 대표단을 초청해주고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동포 학자, 기독교인들의 만남을 실현해 준 북미 기독학자회 윤길상 회장님과 임원선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족의 통일과 기독교신학의 발전을 위한 정력적 탐구와 꾸준한 노력의 로정에서 스물여섯번째의 대회를 맞이한 북미 기독학자회의 전체 학자 여러분들에게 북부조국에 있는 학자, 기독교인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이 대회의 연단을 빌어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려고 합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북과 남은 근 반세기에 걸친 불신과 대결의 비극적인 과거와 결별하고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 시켰습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통일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전환적인 사변입니다.

지금 조선의 온 강토와 해외교포사회에서는 통일운동의 열기가 세차게 분출하고 있으며 통일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민족사의 흐름은 도도히 굽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주체사상 신봉자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의 대화를 진지하게 해 나가며 민족적 단합과 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방도를 공동으로 모색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민족관과 통일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통일운동에서 협력하고 단결해 나갈 공통적인 기초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민족관을 밝히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에 대한 리해를 정립하고 민족통일의 근본방도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민족관에서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맑스주의 민족관의 역사적 제한성을 극복하고 등장한 것이 주체사상의 민족관입니다.

맑스주의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하였던 것만큼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첫째 가는 징표로 하여 민족을 리해하였으며 민족의 발생도 자본주의 시장의 형성과 결부시켜 보았습니다. 지난 시기 맑스주의 유물사관에서는 모든 사회현상의 기초에는 계급들의 경제적 리해관계가 놓여있고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민족의 계급에 종속되였으며 민족해방문제가 계급해방문제에 귀속되었습니다.

사회적 집단 가운데서 민족이 차지하는 특출한 지위와 역사창조활동에서 민족이 갖는 커다란 역할을 응당하게 보지 못하고 민족해방문제의 독자적 성격을 간과한 맑스주의적 견해는 리론적으로 미숙한 것이였으며 실천적으로 그 진리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

는 맑스주의를 지도리념으로 하였던 일련의 이전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민족정책의 실패를 가져 온 하나의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주체사상은 민족이 하나의 사회적 생명체이고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을 이룬다는 것을 해명하였으며 민족통일은 민족적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사업이며 민족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데 조국통일의 근본방도가 있다는 것을 밝혀 줍니다.

## Ⅱ.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

민족은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하여 온 사람들의 공고한 사회적 집단이며 사회생활의 기본단위입니다. 계급국가의 발생과 더불어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연계가 밀접해지는 과정에 독자적인 사회적 집단을 이루는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민족은 장구한 기간에 걸쳐 각이한 사회제도의 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질성을 면면히 이어온 가장 공고한 사회적 집단입니다. 봉건제도가 자본주의 제도로 바뀌면 령주와 농노계급은 없어지고 자본가 계급과 프로레타리아트가 생겨나듯이 한 사회제도가 다른 사회제도로 교체되면 사회의 기본계급은 변하지만 민족은 변함없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합니다. 앞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과정에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고 무계급사회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민족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민족이 계급에 비하여 훨씬 공고한 집단이며 그 존재기간이 가장 오랜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민족은 오랜 역사적 과정에 걸쳐 사람들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기본단위로 존재하고 발전하여 왔습니다. 민족국가의 테두리를 이루고 살아나가는 것은 사회제도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의 생활이 영위

되는 기본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계급들도 나라와 민족 안에서 살기 마련이며 민족관계와 동떨어진 계급관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활동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민족은 사회생활과 역사창조활동의 가장 주되며 기본적인 단위로 됩니다.

쏘련의 붕괴와 더불어 세계의 양극체제가 몰락하고 다극화의 방향으로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민족적 뉴대와 민족의식이 얼마나 공고하며 혁사적 운동에서 민족공동체가 발휘하는 생활력이 얼마나 큰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개 민족의 독자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민족들의 창조적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동질성은 피줄과 언어, 영토의 공통성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피줄과 언어, 영토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기본징표로 됩니다. 하나의 민족은 그에 고유한 피줄기의 공통성, 언어와 심리에서 표현되는 문화의 공통성, 영토의 공통성에 의하여 다른 민족과 구별됩니다.

피줄, 언어 및 심리는 민족집단에 체현된 공통성이며 영토는 민족의 삶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공통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론하고서야 인간의 활동과 생활을 론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야 인간생활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하여 론할 수 있는 것처럼 민족의 징표를 고찰하는 데서도 먼저 민족집단 자체의 특성인 피줄, 언어 및 심리를 고찰하고 다음에 민족생활의 환경인 영토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민족의 기본징표를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더우기 경제제도와 정치제도가 민족을 특징짓는 징표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와 정권에 대

한 장악관계는 계급을 특징짓는 기본징표입니다. 서로 다른 계급을 망라하고 있는 민족이 정권에 대한 장악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제도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제도에 의하여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민족은 계급을 규정하는 징표와 질적으로 다른 징표에 의하여 구분되는 사회적 집단이며 서로 다른 여러 계급들을 포함하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집단입니다.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민족을 구분하는 징표로 된다고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분렬되어 서로 다른 사회제도에서 살고 있는 하나의 민족을 두 개 민족으로 보게 되며 이러한 견해는 민족정책에서 커다란 후과를 빚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 동부 독일의 리론가들과 위정자들이 동독과 서독은 서로 다른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민족은 들이라고 하면서 민족분열 로선을 취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당한 사실이 뚜렷한례증으로 됩니다.

민족은 하나의 사회적 생명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은 다른 민족에 대하여 독자적인 생활의 공동체로 살며 발전해 나가는 산 집단입니다. 민족은 독자적인 사회적 집단으로 생존하고 번영하려는 요구를 가지며 그것을 집단의 공동의 생활력으로 실현해 나갑니다. 독자적인 민족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가지며 그것을 민족의 집단적인 생활력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서 민족의 사회적 생명이 표현됩니다. 민족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생명을 가진 존재, 간단히 말하여 사회적 생명체입니다.

자주성은 민족의 사회적 생명입니다. 민족의 사회적 생명은 독자적인 집단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와 그것을 자신의 생활력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서 나타나는 것만큼 그것은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성질인 자주성으로 표현됩니다.

민족의 자주성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집니다. 그 하나는 다른 민족에 예속되거나 동화되는 것을 반대하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민족의 힘에 의존하는 것을 반대하며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민족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 수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성을 고수하여야 민족의 통성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민족의 몰락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남긴 고귀한 진리입니다.

자주성은 민족의 집단적 생명입니다. 민족적 자주성은 독자적인 집단으로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민족공동의 집단적인 생활력으로 실현해 나가는 성질인 것만큼 무엇보다도 집단적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민족의 성원인 개인들은 민족공동의 요구에 자기의 요구를 일치시키고 민족집단의 생활력에 자신의 힘을 합칠 때 민족적 자주성을 체현하게 됩니다.

민족의 집단적 생명은 민족성원들의 개인적 생명의 모체입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운명은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만 개척되는 것만큼 민족의 집단적 생명 속에서만 민족의 성원인 개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족의 집단적 생명이 있고서야 개인적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민족성원들의 개인적 생명이 발전하여야 민족의 집단적 생명이 발전확대되기 때문에 민족은 그 성원들의 발전에 최대한의 관심과 배려를 돌리게 됩니다.

민족적 자주성은 민족성원들을 하나의 생명체에 결합시키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됩니다. 민족을 이루는 개인들은 민족의 집단적 생명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이 강력한 자주적 생명체로 되는 데 절

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자기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조국애와 애족의 감정을 가지고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민족의 집단적 생명의 요구인 동시에 개인적 생명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민족의 집단적 생명이 개인적 생명의 모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족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어야 개별적 사람들의 자주성도 실현될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이 남에게 예속되면 누구든지 식민지노예의 처지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자주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민족적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민족과 그 성원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요구로 됩니다.

### III. 민족통일은 민족적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사업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국제관계를 주도하였던 대국들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의사에 어긋나게 조선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근 반세기에 걸치는 오랜기간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민이 제 2 차 대전을 도발한 원흉의 하나인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을 위하여 오래 동안 투쟁해 온 것만큼 전후에 우리 나라는 응당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로 부흥되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외세의 간섭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처럼 둘로 갈라져야 할 내적요인은 없습니다.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토 위에서 한 피줄을 이어받으며 같은 언어를 가지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꽂피워 온 우리 민족이 무엇 때문에 둘로 갈라지겠

## 습니까?

민족내부의 계급적 대립을 민족분렬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 다 계급적 대립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민족의 분렬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북과 남에서 있는 서로 다른 두 사회제도는 민족분렬의 원인인 것이 아니라 민족분단의 후파인 것입니다. 분렬은 민족의 존립과 발전의 합법칙적 경향에 어긋나는 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며 민족 전체의 커다란 불행입니다.

민족을 분렬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생명체인 민족의 허리를 잘라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족의 집단적 생명의 전일성을 파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민족의 분렬은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며 전체 인민에게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고 있습니다.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사적 과제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민족통일은 우리 세대의 지상의 과업으로 되고 있으며 민족공동의 발전을 위한 필연적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량분된 민족적 생명의 통일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힘을 합쳐 민족의 자주성을 확대발전시켜나가 겨레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업이 바로 민족통일입니다. 민족통일은 무엇보다도 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생명의 전일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토의 량단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사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벌려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기체에 비유하면 혈관이 끊어지고 기관과 조직의 운동의 통일성이 손상되어 전반적으로 생명의 전일성이 파괴된 것과 같습니다. 민족의 생명

인 자주성이 통일적으로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족적 동질성이 유지되어 도 공고화되여 나갈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생명의 통제 밑에서만 그 육체적 생명이 사회적 리익에 맞게 유지발전될 수 있는 것처럼 민족의 사회적 생명인 자주성의 통일적인 조절작용이 있어야 민족의 육체적 생명을 이루는 피줄의 공통성과 순수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징표를 이루는 언어 및 심리에서 표현되는 문화의 공통성은 민족자주성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으며 자주성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성이 보장될 때 민족어의 순수성과 민족심리의 고유성을 비롯하여 민족문화의 특성이 보존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족통일은 민족적 생명의 량분을 극복하고 피줄과 문화의 공통성을 회복하여 민족의 생명을 전일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하여 민족 전체의 사활적인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민족통일은 또한 민족의 생명활동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족은 그에 기초한 생명활동을 버리게 되며 이러한 활동은 민족의 풍성과 번영의 담보로 됩니다. 나라의 분렬은 민족의 통일적인 생명활동을 파괴하고 있으며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은 모든 민족성원들을 민족자주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활동을 공동으로 벌려 나가게 합니다. 민족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발전을 위하여 분투할 사람들을 키워낸 것은 민족의 끝없는 발전과 무궁한 번영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됩니다.

민족의 분렬은 민족 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서로의 계급적 리념에 집착하여 민족공동의 자주리념에 텁각한 인간육성사업을 통일적으로 벌려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민족의 통일적인 생명활동의 연속성을 분단시키는 커다란 위험으로 됩니다. 민족의 통일은 이러한

위험을 막고 대를 이어 민족주체적인 인간들을 공동으로 키워냄으로써 민족의 끊임없는 융성번영을 확고히 담보합니다.

민족의 통일은 민족공동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고 민족경제의 자립적 위력을 높이게 합니다. 민족의 발전된 생산력과 자립적 경제력은 인민들의 물질적 수용률 원만히 충족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정치와 자위적인 국방의 물질적 기초로 됩니다. 나라의 분렬은 오랜 역사에 걸쳐 형성된 민족경제의 전일적인 구조와 내적이 련계를 파괴하고 자원과 자금, 자재와 로력을 통일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리념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면 북과 남에 서로 다른 경제제도가 있는 조건에서도 민족경제의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켜 민족공동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민들의 복리는 더욱 증진되고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국제 경쟁력은 보다 높아 질 것입니다.

민족통일은 민족공동의 인간육성과 생산력 발전을 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통일적인 정치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분렬은 국제무대에서까지 동족끼리 대결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민족의 통일이 실현되면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정치외교활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존엄과 권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민족통일은 또한 민족의 생명활동의 터전, 환경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라의 분렬은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에 걸쳐 강한 민족자주의식과 우수한 민족심리, 아름다운 민족어와 빛나는 문화전통, 슬기롭고 용감하고 근면한 생활양식을 창조해 온 터전인 삼천리 금수강산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민족의 공동의 생활환경인 국토의 량단은 민족의 통일적인 생명활동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형성과 발전은 민족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의 분산성과 고립성이 극복되고 그것들 사이의 련계와 통일이 강화되어 나가는 과정임을 넘두에 둘 때 령토의 분렬은 민족발전의 전진적 경향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족의 통일은 북남지역들 사이의 생활적인 련계와 통일을 회복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민족공동의 발전을 힘있게 다그칠 것입니다. 민족통일은 민족생명의 요구로부터 나서는 과제인 것만큼 민족 전체의 자주적 리익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족이 각이한 계급과 계층,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들은 다같이 민족의 집단적 생명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만큼 민족적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민족의 집단적 생명은 그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민족성원들의 대결이 아니라 화합을 필요로 하고 분렬이 아니라 통일을 요구하며 배척이 아니라 협조를 원합니다.

북과 남이 서로 대립되는 계급적 리익을 대변하는 사상과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민족적 자주성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데서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 안에서 계급적 리익이 대립된다고 하여 민족공동의 요구와 지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대립되는 계급은 하나의 민족으로 될 수 없고 민족적 동질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비롯한 많은 민족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계급적 대립으로 하여 서로 싸우던 세력들도 외적이 침략해 오면 그들 사이의 투쟁을 중단하고 계급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월하여 민족적으로 단결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나섰습니다.

민족내부에 계급적 사상과 사회제도의 대립이 있어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주성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화합과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며 민

족공동의 풍성번영을 위하여 서로 지지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외세의 강요로 인한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도상의 대립이나 사상과 리념의 차이보다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통하여 공고화된 민족적 공통성이 더 큽니다.

개별적인 계급, 계층의 리익보다는 같은 민족으로서 자주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공동의 요구가 비할 바 없이 더 중요합니다.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인 것만큼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떠나서는 어떤 계급과 계층도 자기의 리익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계급적 사상과 사회제도가 있는 조건에서도 민족의 자주성과 동질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완전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북과 남에 서로 대립되는 사상과 제도가 현실적으로 있는 조건에서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련방제입니다.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조국통일방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는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천명하시였습니다. 고려민주련방 공화국 창립방안은 바로 이러한 련방제 방식의 민족통일 방안입니다.

민족내부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어느 일방이 타방에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방법으로서는 민족통일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문제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인간의 사상은 그의 자주성을 대표한 것만큼 남에게 자기의 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인간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 입

니다.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고수하려고 하는 현 실정에서 민족 내부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강제적 방법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위험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나라의 현 조건에서 누가 누구를 먹는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고 한다면 민족내부의 적대관계를 격화시키고 새로운 파국적인 민족적 재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 발전의 현 단계에서 가장 절박하게 나서는 과제는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성을 통일적으로 고수하는 것인만큼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한 나라의 통일을 선차적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국통일이 곧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하나의 사회제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민족적 통일과 제도상 통일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 통일은 민족적 공통성과 자주성에 기초한 조국통일이며 제도상 통일은 하나의 사회정치제도에 의한 조국통일입니다. 민족적 통일에서는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련방제 방식의 조국통일이 이루어지며 제도상 통일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사회제도를 세우는 방식으로 조국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민의 리상은 조국의 민족적 통일뿐만 아니라 제도상의 통일까지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분렬과 함께 민족내부의 제도상 차이까지 극복되어야 단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요구가 보다 원만하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적 통일을 실현하고 일정한 역사적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도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회제도가 개조되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관련됨

니다.

사회의 발전은 자연을 정복하는 자연개조운동과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는 인간개조운동과 사회관계를 합리적으로 개변하는 사회개조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발생적 견지에서 볼 때 인간이 에너르기를 가져올 수 있는 원천은 자연밖에 없으므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개조운동을 벌려 물질적 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물질적 부에 기초해서만 인간은 자신을 사상·문화적으로 발전된 보다 힘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산력과 사람들의 문화수준이 일정한 높이에 이를 때 사회관계의 공고한 체계인 사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발생적 견지에서 본 사회발전의 중요한 합법칙성입니다. 따라서 정치제도를 비롯한 사회제도를 개조하는 사업은 자연개조사업인 경제의 발전과 인간개조사업인 문화의 발전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 반세기에 걸친 나라의 분렬로 인하여 북과 남 사이에 조성된 문화와 경제발전에서의 차이를 줄이며 그 통일성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지 않고 사회제도부터 먼저 통합하려 하는 것은 사회발전법칙에 어긋납니다. 먼저 민족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주객관적 조건을 성숙시킨 후에 제도상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분렬된 민족에서 온 나라에 대한 정치적 지휘권을 확립해나가는 순차와 관련됩니다.

조국의 통일은 온 나라에 대한 통일적인 정치적 지휘권의 확립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과 남에 서로 다른 계급적 리익을 구현한 정부가 서있고 쌍방이 다 그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온 나라에 대한 정치적 지휘권을 확립하려면 민족공동의 리익을 옹호하는 련방국가를 세우고 그 정치적 권한을 온 나라에 보편적으로 확립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련방국가의 통일적인 정치적 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순차로 됩니다. 이러한 련방국가의 정치적 지휘권은 특정한 계급의 리익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공동의 리익을 대변합니다. 정치적 지휘권을 계급과만 관련시키는 것은 일면적인 견해입니다.

련방국가 안에서 일정한 역사적 기간에 걸쳐 민족적인 뉴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민족주체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정치력량을 강화해 나가면 북과 남의 제도상 차이를 현저히 줄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가 마련되면 전체 조선인민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따라 하나의 사회제도와 정권을 선택하고 그 정치적 지휘권을 확립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셋째로, 사회적 운동이 발전하는 역사적 단계와도 관련됩니다.

사회적 운동은 낮은 단계에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사회적 변혁의 주되는 과제를 내세우고 올바른 전략전술을 구사하여야 합니다. 민족적 통일과 제도상 통일을 놓고보면 전자는 민족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입니다. 리론적 견지에서 볼 때 외래 제국주의의 예속 밑에 있는 나라들에서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민족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비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사회적 운동으로 됩니다. 실천적 경험으로 보아도 식민지 나라들에서는 먼저 민족해방을 실현하고 다음에 계급해방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먼저 민족적 통일을 이룩하고 다음에 제도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 운동이 발전하는 역사적 단계에 맞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족적 통일을 먼저 실현하고 제도상 통일을 후에 이룩하는 것은 사회적 운동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그 투쟁대상을 극소화하는 전략전술적 원칙으로 보

아도 합리적입니다.

사회적 운동에서 낮은 단계의 과업보다 높은 단계의 과업을 먼저 실현하려고 하게 되면 한편으로 낮은 단계에서 운동의 동력으로 되는 세력을 투쟁대상으로 만들어 동력을 약화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낮은 단계에서 극복하게 되는 세력까지 투쟁대상에 합쳐져 투쟁대상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민족적 통일을 제도상 통일보다 앞세워야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지향하는 광범한 통일애국세력을 동력으로 하여 한 줌도 못되는 분렬 매국세력을 타파하고 민족의 발전을 다그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체 조선인민이 민족적 통일을 현 단계의 주되는 과제로 내세우고 투쟁하며 제도상의 통일은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민족적 통일을 이룩하기 전에 제도상의 통일을 실현할 때 민족이 어떠한 불행과 비극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통일 독일의 심각한 통일 후유증과 엄혹한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IV. 민족적 자주성의 가치 밑에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은 통일운동의 절박한 과제

사회적 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주체의 운동이며 주체의 활동은 일정한 리념에 의하여 지휘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민족적 주체의 운동이며 이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목적의식적 역할에 의해 서만 통일위업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인 것만큼 이 운동을 향도하는 리념은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이 민족의 사회적 생명을 이루기 때문에 민족공동의 근본요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외세에 의한 나라의 분렬로

민족의 생명이 량단되여 있는 우리 조국의 경우에 이러한 근본요구는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리념은 일반적으로 민족운동을 향도하는 리념으로 되며,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민족의 경우에는 더우기나 그러합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리념을 본래적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족주의는 여러가지 변천을 겪어왔습니다.

원래 민족주의는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죠아 민족운동 시기에 민족의 자주적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구라파에서는 자본가 계급이 민족주의의 가치를 들고 민족시장과 민족국가의 형성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흥 부르죠아지가 민족주의의 구호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 계급만의 리념이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시기에는 인민대중의 리익과 부르죠아지의 리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으며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죠아지가 반동화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적 도구로 되었습니다. 부르죠아지는 자기의 계급적 독재와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을 합리화하는 데 민족주의를 악용하였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본가 계급은 자신의 힘이 약할 때에는 자기 나라와 자기 지역에 대한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반대하는 데 민족주의를 리용하였습니다. 전자는 몬로주의에서 표현되었으며 후자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의 국수주의와 독일의 나치즘에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반동적 부르죠아지의 민족주의는 민족 리기주의와 민족 배타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흥 부르죠아지의 민족주의

와 반동화된 부르조아지의 민족주의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주의를 주장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은 계급적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족적 리익과 자기의 계급적 리익을 대립시키지 않으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계급의 리익보다 우선시하며 더 귀중히 여깁니다.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되고 나라의 독립이 침해될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근로인민대중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자주적인 생활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심각히 느끼는 세력이 근로인민대중입니다.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민족의 생명이 곧 자신의 생명으로 되며 민족의 운명이자 곧 자기의 운명으로 되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 언제나 헌신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민족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피땀을 흘린것은 근로인민대중이였습니다. 반동통치 계급들은 저들의 특권적 지위가 위태롭게 되면 외래 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것도 서슴치 않았지만 근로인민대중은 결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사회세력은 근로인민대중입니다. 착취계급은 자기의 계급적 특권을 옹호하는 리기주의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전 민족의 리익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주의야말로 민족의 독립과 발전, 나라의 통성과 번영을 위한 참다운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강화발전을 통하여 사회적 진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역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주의는 가장 진보적인 민족주의로 됩니다.

본래적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주의에서 가장 완성되고 전형적인 형태로 표현됩니다.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주의는 본

질에 있어서 민족공동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민족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사상입니다. 참다운 민족주의,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주의는 진정한 국제주의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주의가 옹호하고 실현하는 자주성은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성질인 것 만큼 남에 대한 예속을 배격할 뿐 아니라 남을 지배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남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따라서 자주성에 기초하여야 자기 민족의 자주적 리익을 고수할 수 있고 다른 민족과의 친선과 협조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단위로 하여 인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매개 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동시에 인류라는 대집단에 속하여 있는 것만큼 일국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민족자주적인 것과 세계공통적인 것의 관계를 옳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의 생명도 자주성이고 인류의 생명도 자주성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일국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민족자주적인 것과 세계 공통적인 것을 조화롭게 결합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발전의 현 단계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기본단위로 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여 나가는 것만큼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는 데 기초하여 인류의 자주성을 옹호하여야 하며 자기 나라의 부강 발전을 이루하는 데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국제적인 것과 세계 공통적인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국적인 것과 민족자주적인 것이 발전풍화되는 과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형성발전되게 됩니다.

자기의 부모형제와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민족과 나라

를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민족의 운명에 무관심한 사람이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이바지할 수 없습니다. 참다운 민족주의자만이 진정한 국제주의자로 될 수 있습니다. 현시기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주의, 진보적인 민족주의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적 기초와 사상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역사가 자주의 궤도를 따라 나아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온갖 나라와 민족들의 온갖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현 시대의 기본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극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 이러한 기본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기본추세는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안받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민족주의의 리념이 현 시대의 역사적 과정에 객관적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주의는 시대적 기초와 함께 사상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사상사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각이한 사회사상 조류들이 출몰하였지만 그들 모두가 주로 계급이나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사상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시기의 사회주의 사상은 로동계급의 해방을 주되는 과제로 삼았으며 기독교 신학은 개인의 구원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개인과 계급으로만이 아니라 민족으로 존재합니다. 더우기나 민족은 가장 공고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존재하는 사회적 집단이며 역사 창조활동의 생활력 있는 단위라는 점을 넘두에 둘 때 민족에 초점을 두고 과학적인 사상리론을 전개하는 것은 인류해방사상을 발전 풍부화하기 위한 요구로 나섭니다. 참다운 민족주의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간을 해방하

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해방사상을 완성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현시기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류의 사상발전 과정에 인식사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보적 민족주의의 고유한 내용과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하려는 민족의 근본요구를 반영한 사상입니다.

진보적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으로 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민족의 통일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철학, 정치학, 교육학, 경제학을 비롯한 모든 사회과학의 근본리념의 하나로 되여야 합니다. 사회과학의 리념을 계급과만 결부시키는 것은 일면적인 견해입니다. 진보적인 사회과학은 마땅히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사회와 역사발전에서 민족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한 리론입니다.

진보적 민족주의는 민족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일 뿐 아니라 민족을 초점에 놓고 사회와 역사에 대한 리해를 주는 지식, 리론으로 되여야 합니다. 이러한 리론은 사회적 집단 가운데서 민족이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와 역사적 운동에서 민족이 노는 커다란 역할에 기초하게 됩니다. 사회적 집단과 사회관계, 사회적 운동과 사회생활의 합법칙성을 취급하는 철학, 사회학, 역사학,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제 영역에서 진보적 민족주의의 리론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와 역사발전에서 민족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취급하는 것이 과학의 보편적 성격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민족은 계급과 같이 보편적인 사회적 집단이며 민족의 운동발전에는 보편적인 합법칙성이 작용합니다.

셋째로, 민족을 초점에 놓고 사회와 사회생활, 사회적 운동과 역사적 사건 등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사회현상과 역사적 운동에는 계급, 대중과 함께 민족과 관련한 측면과 경향이 있습니다. 민족을 중심에 놓고 사회와 역사를 고찰하고 해설할 때 사회와 사회생활, 사회적 운동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족을 초점에 놓고, 인식방법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고찰방법과 통일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보충으로 됩니다. 민족을 초점에 놓는 것은 특히 사회현상과 역사적 사건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됩니다.

이처럼 진보적 민족주의는 민족의 근본요구를 반영한 사상, 사회와 역사에서 민족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한 리론, 민족을 초점에 놓는 인식방법이 결합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진보적 민족주의는 민족을 위주로 한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입니다. 진보적 민족주의를 이러한 체계로 전일적으로 전개하고 발전 풍부화하는 것은 민족통일을 절박한 과제로 안고 있는 조선의 모든 학자, 지성인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는 민족주의의 기능과 역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민족적 자주성에 기초하여 주체를 강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민족적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운동은 민족적 주체의 운동입니다. 민족적 주체의 준비 정도와 역할에 따라 조국통일의 승패가 좌우되게 됩니다. 사회적 운동에서는 주체의 자주적 요구가 높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마련되면 주체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을 통하여 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사회적 운동

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변혁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진보적 민족주의는 민족적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상 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됩니다 다시 말하여 진보적 민족주의에 의거할 때 민족적 자주성에 기초하여 주체를 강화하는 문제도, 그 역할을 높이는 문제로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 주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합니다. 그 하나는 민족의 주체를 형성하고 그 결합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민족적 주체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투쟁이 아니라 외세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해방투쟁이며 민족 내부의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민족적 단합을 위한 애국투쟁입니다. 따라서 민족통일의 주체를 형성하는 데서는 북의 사회주의자와 남의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를 구분하는 것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국자와 매국자, 통일세력과 분렬세력, 민족자주 세력과 외세의존 세력을 가르는 것이 문제로 됩니다. 민족의 주체를 형성하는 데서 기준으로 되는 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민족주의를 지지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 입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급적인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다같이 손잡고 민족의 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민족의 주체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결합수준을 높여 주체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체의 결합과 통일은 일정한 리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족의 자주적 요구를 반영한 민족공동의 사상인 민족주의는 민족적 주체의 결합과 통일의 리념적 기초로 됩니다. 진보적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주체를 결속하고 그 통일을 강화하려면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민족반역자와 매국노를 내놓고는 정견과 신앙, 계급적인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나라와 민족

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민족대단결입니다.

민족의 기본력량을 이루는 로동자와 농민, 인테리들이 서로 협조하고 단결하여 민족의 강력한 자주적 주체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착취계급에 속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외래침략 세력과 결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동력의 한부분으로 포섭하고 그와 단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외래 독점재벌이나 외래 침략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민족적 량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고취하여 외래 침략세력과의 관계를 끊고 민족의 편에 서도록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될수록 쟁취하여야 합니다.

민족적 대단결의 기치 밑에서 주체의 결합 수준과 조직화 수준을 높여 민족통일의 주체적 량력을 강화하여야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이 통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주체를 형성하고 그것을 단결된 강력한 량력으로 만드는 것은 민족통일을 자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됩니다.

민족의 주체를 형성하고 그 결합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민족적 주체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은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로 됩니다.

의식수준은 주체의 준비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로 되며 주체의 조직화 수준을 안받침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됩니다. 주체의 활동과 투쟁의 수준도 그 의식수준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민족적 주체를 이루는 성원들의 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주체의 전반적 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 주체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정신적 기초는 진보적 민족주의입니다. 진보적 민족주의가 민족적 주체에 대한 교육교양의 기능을 훌륭

히 수행하려면 한 편으로는 민족자주의식을 내세워야 하며 다른 편으로는 민족문화지식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민족자주의식을 확고하게 지닐 때 민족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민족자주의식으로 사람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조국애와 애국주의의 감정, 민족적 긍지와 자존심, 우수한 특징의 고유한 민족심리를 배양하며 사대주의와 민족 허무주의를 반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 주체의 성원들로 하여금 민족문화지식을 전면적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됩니다. 사람들이 민족문화지식을 깊이있게 가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의 역사와 지리, 경제와 문화, 조선인민의 풍습을 잘 알도록 하며 특히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의 우수한 투쟁전통과 가치있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체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성원들을 민족자주의식과 민족문화지식으로 교육교양하는 것은 민족적 주체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여 주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주체적인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됩니다. 북과 남의 모든 학자들과 인테리들은 모든 민족성원들을 정신적으로 보다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업에서 서로 련대하고 협력함으로써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족적 주체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편으로 모든 동포들이 민족통일을 위한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른 편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민족통일을 위한 주체의 역할은 그 행동의 통일성과 일치성이 보장될 때 몇 배로 커집니다. 분산되고 조직화되지 못한 행동은 힘의 량비를 가져오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하나의 대오에서 조직적으로 일치된 행동을 벌려나갈 때 민족통일을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 각종 동포들이 민족주의의 리념에 맞게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공동 행동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북남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 발효된 조건에 당면하여 나라 안에 있는 외국의 군대와 군사기지를 철거시키고 군축을 실현하며 핵사찰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동포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지연시키는 각종의 책동과 민족적 주체의 통일적 행동을 가로막는 남조선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온갖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적 주체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보적 민족주의의 요구대로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체의 본질적 속성은 자주성과 창조성인 것만큼 주체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 속성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활동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진보적 민족주의는 민족적 자주성을 옹호하고 민족의 창조적 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자주적 리익과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민족통일은 우리 겨레의 자주적 위업인 것만큼 거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자주적 입장장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독자적으로 사고하며 우리 민족의 주권과 독자적 신

념에 따라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통일은 창조적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창조적 립장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교조주의와 남에 대한 기계적 모방을 반대하고 자신의 경험을 중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 겨레가 진보적 민족주의의 가치 밑에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여 민족적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나간다면 나라의 통일도상에서 극복 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 수 없습니다. 슬기롭고 용감하여 존엄있고 힘있는 우리 민족은 민족통일의 대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

## 조국통일과 민족의식

이 삼 열

서울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조국의 통일이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 국가의 통일일 뿐만 아니라, 수천년간 함께 살아왔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으로 갈라졌던 같은 민족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의 토대가 되는 공통 분모를 민족의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현실적인 두 개 국가의 체제나 이념, 각기의 이익보다는 민족 전체의 운명과 이익, 발전을 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민족우선의 의식과 원칙이<sup>1)</sup> 없이는 상당한 정도로 이질화되고 적대화된 남북의 두 나라가 통일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7·4 공동성명에서도 통일을 이룩하는 원칙으로 민족자주의 원칙과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하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3대원칙 가운데 두 가지로 삼았는데 이것은 이러한 민족적 원칙들이 없이는 사실상 통일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시대를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이러한 민족의식과 민족적 원칙들은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 합의서는 화해나 불가침 교류협력의 근거를 ‘온 겨레의 염원’이나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과 같은 민족적 원칙에 두고 있다.

이처럼 통일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의 토대가 되는 민족의식과 민족적 원칙들이 남북 양측에 의해 선언적으로 주장되고, 통일의 규범으로서 긍정되어 온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되지만, 과연 남북의 동포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통일을 이루기에 충분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우선의 원칙들을 지켜왔고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까지의 분단상황과 대결체제가 민족의 염원이나 공동이익 같은 민족의식과 민족적 원칙들을 존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크게 배반하여 왔으며, 남북에 나뉘어 사는 우리 동포들은 분단체제와 대결체제의 유지에 직, 간접적으로 공헌하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언이나 규범으로서 내세우는 민족의식이나 민족적인 원칙들과 분단체제하에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내보이고 있는 민족의식이나 민족사상 속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또한 흔히 민족이나 민족주의와 같은 개념들을 즐겨 사용하면서도 어떤 민족의식과 민족주의를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그 구체적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막 연하며 추상적인 민족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개념과 목표를 가진 민족의식을 개발하고 함양하는 것이 오늘의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제 분단 시대의 왜곡된 민족주의나 일방적 민족의식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며 실천하는 바른 민족의식을 형성하자면 그 개념과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

가?

## I. 분단을 극복하는 민족의식 : 민족의 삶(Life of Nation)

먼저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시대 민족의 독립과 자주, 존엄과 번영을 구가했던 민족주의 정신을 1945년 해방된 조국에서 얼마만큼 계승하였으며 발전시켜 왔는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경우를 살펴볼 때 미군정하에서 민족주의 세력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과 대결이라는 명분으로 상당한 정도로 억압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해방 이후 상당기간 동안 민족주의라는 말 자체가 금기시 되어 왔고, 민족주의는 곧 반미주의며, 반미주의는 곧 용공주의라는 식으로 왜곡 선전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sup>2)</sup> 말하자면 해방 이후 미소의 분단정책으로 수립된 분단체제하에서는 민족 전체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족주의나 민족의식은 탄압되었으며 따라서 민족의 통일과 외세의 배격을 외친 민족주의자들이 수난을 당하게 되었다. 자연히 민족의 사슬이 된 38선을 제거하고 해방된 조국의 통일을 이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1948년 김구는 이렇게 말했다. “위도로서의 38선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지만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으로서의 38선은 일갈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어찌 그뿐이랴, 대중의 기아가 있고, 가족의 이산이 있고, 동족의 상잔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sup>3)</sup>

김구는 남북 협상을 위해 38선을 넘으면서,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고 외쳤으나 그는 결국 홍탄

에 쓰러지고 말았다. 민족주의 세력의 수난은 친일 세력의 잔존과 등장, 반민특위의 해체 등으로 연결되었으며 분단 초기부터 민족주의적인 민족의식은 왜곡되고 굴절될 수밖에 없었다.

분단체제에서 분단국가의 이념이나 목표에 연합하게 되는 민족주의나 민족의식은 자국민의 결속과 적대국에 대한 대결의식 고취에 이용하게 된다. “국내적으로 민족주의는 국민 대중을 결속하고 단결시키는 기능도 가지는 한편, 민중을 억압하고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고 독재체제를 굳히는 데 악용되는 합리화와 명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송건호는 분단국가에서의 민족주의가 반민주적 방향으로 이용되었음을 지적했다.<sup>4)</sup>

우리는 60년대와 70년대에 고조되었던 민족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등이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와 외국 자본에 영합하는 종속적인 경제개발에 이용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상과 편견마저도 강하게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분단시대의 역사를 살아 온 우리 민족에게 이제 분단을 극복하면서 통일을 가져와야 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진정한 민족의식은 무엇일까? 필자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를 민족주의(nationalism)로 표현하는 것을 꺼리며 민족주의보다는 ‘민족의 삶’(Life of Nation)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그냥 민족주의라는 표현만으로는 공격적이며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구별짓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서 형성된 반민주적 분단체제적인 논리가 왜곡된 민족주의와 혼합되어 있어 자칫 역기능을 발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가 민족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민족주의나 민족의 우월감이 아니라 ‘민족의 삶’에 대한 공정과 관심이어야 한다”<sup>5)</sup>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족의 삶과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깊은 관심을 보이셨다(출 3:9). 누구나 다 민족주의자가 될 수 없지만, 민족

의 삶에 대해서는 그 민족성원이면 누구나 책임과 이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그토록 분단시대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통일의 시대를 맞으려 열망하는 것도, 이 분단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삶이 마비된 채 올바르게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정치와 경제발전이 왜곡되고 마비됨은 물론, 동족상잔과 민족파멸의 위험이 상존하고, 자기의 안보를 위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제거해야만 하는 반평화적 구조 속에서 민족의 삶은 불구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 요구되는 민족의식은 곧 분단체제 속에서 왜곡되고 억압되며 불구가 된 민족의 삶을 회복시키며 온전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 II. ‘민족의 삶’을 위한 민족의식의 전개

민족의식은 민족의 삶을 유지시키며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며 필수적인 의식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족의식은 무엇보다도 민족이라는 것을 존립시키는 데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민족의 정체성 (Identity)

민족의 생명은 무엇보다 언어와 혈통, 문화, 예술 같은 동질적인 요소들을 보유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될 때 지켜질 수 있다. 우리가 한글의 사용이나 전통의 존중, 민족문화나 예술을 유지시키려는 목적도 바로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체성을 잊지 않고 지키려는 데 있다.

그러나 분단 반세기 동안 단절된 상황에서 남북의 언어와 문화가 어

느 정도 이질화되어 온 것은 하루속히 교류와 공동체회복을 통해 극복되면서 동질화를 이루어야 한다. 물론 민족의 정체성은 반드시 하나의 민족국가(Nation State)를 이루지 않아도 유태인들이나 중국인들처럼 유지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한처럼 적대적이며 이질적인 분단체제로 나뉘었을 때는 문화적인 동질성이나 민족정체마저도 위협을 당한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민족의 공동체와 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분단 상황은 가족의 이산과 고향과 조상친척들로부터의 단절로 인해 민족의 정체는 커녕, 가족이나 가문의 정체성도 회복할 수 없는 악조건임을 통澈히 느껴야 한다. 우리가 이산가족의 재회나 재결합, 학술, 예술, 언론, 문화의 교류를 촉진시키려는 이유는 바로 민족의 삶에 가장 기초적 조건이 되는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며 확립시키려는 데 있다.

## 2. 민족의 주체성 (Subjectivity)

민족의 삶은 타민족의 지배나 억압을 받고서는 결코 바르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민족은 그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 주체성은 오늘과 같은 세계현실 속에서는 반드시 민족국가로서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할 때만이 발휘될 수 있다. 더구나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진 민족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는 필히 국가적 주권을 가져야 한다.

민족의 주체성은 정치적인 독립과 주권을 그 조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자결권 이외에도 경제적인 자립성이나 군사적인 자주성을 아울러 의미한다. 우리가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휴전협정 체제를 하루속히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이유는 이 길을 통해서만 남북의 긴

장완화나 평화공존과 함께 민족의 자주성과 정치적 군사적 자결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6)</sup>

분단체제로서는 어느 쪽에서도 자주성과 주체성을 가질 수 없었으며, 통일을 통해서 보다 완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실증을 우리는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였다.

### 3. 민족의 공복성 (Common Welfare)

‘민족의 삶’은 대내적인 정체성과 대외적인 주체성을 확립한 외에도, 민족구성원들 사이의 공동의 복지(Common Welfare)가 실현될 때에 보장되며, 그 꿈을 실현하는 생동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해도 민족내부에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소외와 차별로 인한 불균형과 갈등이 심각하다면, 혹은 민족 전체의 생계와 교육, 건강을 외채나 구걸이 없이 유지할 수 없다면, 민족의 삶이 제대로 유지되거나 보장된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의 위협이야말로 민족의 안보나 주체성에 침식작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양쪽은 이제부터라도 경제적 협력과 합작을 촉진시켜 상부상조하고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여, 민족 전체의 삶을 보장하는 민족경제의 확충과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과감하게 남북의 군수산업과 군비를 축소하여 민족의 인력과 자원을 사회복지와 민족공동의 경제발전 계획에 투입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민족의식은 민족의 존립과 발전, 공동의 복지와 번영을 넘어서서 타민족을 지배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더구나 타민족에 대한 침략이나 간섭은 있을 수 없고 우리 민족사에서 있어 본 적도 없다.

우리의 민족의식은 철저하게 평화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민

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며 공동의 복지를 건설하는 길이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베트남식의 전쟁에 의한 통일도 아니요, 어느 한 쪽을 굴복시키는 독일식 흡수통일도 아닌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 정의와 평화가 함께 실현되는 통일을 한반도에서 창출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

### III. 민족통일의 의식과 이데올로기 문제

민족의 삶을 보장하는 민족의식은 동질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고 공동의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는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성취를 통해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분단시대의 양국가와 체제가 가진 이데올로기의 이질성과 적대성이 바로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통일을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되는 현실을 안고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과연 민족의 동질성이 이념의 이질성을 극복하여 하나를 이를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자고 선언했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대결과 적대의식을 극복할 수 있으며 화해와 공존통일을 실천할 수 있는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너무나 경직되고 적대적이어서 타협이나 협상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지배이데올로기는 타협이나 수렴을 허용치 않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결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허용치 않으며 사회주의 통제경제는 결코 사유재산제나 기업 이윤의 자유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결코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이나 독재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인민 민주주의적 계급독재 국가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의 정

치세력화나 복수정당제를 인정하지 않는다.<sup>7)</sup> 북쪽의 주체사상은 외국 자본의 침투나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치 않으며 남쪽의 개방사회는 민주집중제나 수령중심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양체제는 아직도 국내법이나 정치 현실에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흡수통합하려는 자세와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기 측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발상과 의식은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우선으로 여기는 발상과 의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남북합의서의 1장 1조도 실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각기 상대방의 체제를 부인하고 전복시키려는 법률적인, 정치적인 구조와 조건들을 과감히 시정해 가야 할 것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이나 이번의 남북합의서가 가진 유일한 문제는 선언만 되고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원인이야 여러가지로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는 민족의 전체 이익과 역사적 미래를 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민족우선의 원칙과 의식이 철저하거나 충분치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하겠다.

민족의 삶은 이데올로기나 체제의 수명보다 길며 영구하다는 사실을 보다 철저히 의식할 필요가 있다.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바로 그 시대적 상황과 현실의 반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하는 것일 수 없고 항상 시대와 함께 새롭게 변용될 수 있고 양적인 변화는 질적인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음이 역사적 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대립물들이 상황과 조건의 변화와 함께 무수히 변증법적인 통일과 종합을 이루어 갔다고 일찍이 헤겔과 마르크스는 역사철학을 통해 갈파한 바가 있다.

사실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19세기 초 유럽에 등장했을 때 이들은 서로를 보완시키려 한 것이었지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가치관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결코 자유주의는 자유 한 쪽만을, 사회주의는 평등 한 쪽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조화시키는 원칙과 방법이 계층적 이익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차이와 대립이 생겼을 뿐이었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와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비판과 제안들을 대폭 수용하여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적 자유주의로 발전했으며, 균등한 분배와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시켜 나갔다.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나 시민사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통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소련과 동구의 나라들은 강력한 국가통제와 계급혁명을 통해 어느 정도 산업화와 평등사회를 이룩하였으나 시민들의 자유를 신장시키거나 의회 민주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오늘날 실패의 경험을 한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자들은 한결같이 공산주의가 일당독재와 관료적 사회주의의 길로 나간 것이 잘못된 일이었으며, 이것은 짜르지배의 러시아가 가진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레닌이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길이었을 뿐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오늘날 유럽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러한 변혁과 수렴을 시도하면서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수정과 종합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남북한의 이념적 모델이었던 유럽의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양체제와 이념은 왜 대결과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공존과 화해와 통합을 이를 수 없다고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남과 북은 오늘날 현실적인 체제의 문제들과 민중들의 삶의 요구에 대응키 위해서도 우리의 이념과 체제를 수정하여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 있다.

남한 사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삶의 권리를 골고루 보장하기 위해 서도 더 이상 토지나 부동산과 생산수단 금융자산을 무제한 독점소유 케 하는 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북한 사회는 인민대중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생산력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적 소유 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시장경제의 조정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sup>8)</sup>

무엇보다도 우리는 민족의 삶과 공동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서 양측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개혁하면서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변증 법적으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북쪽은 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주의로, 남쪽은 보다 더 사회적인 민주주의로 개혁하고 발전시킬 때에 민족통일에 장벽이 되었던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없었던 이념적 통일과 수렴도 우리 민족의 통일과 함께 창조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

#### \* 주 \*

- 1)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의 통일선언의 5대 원칙
- 2) 강만길, “송건호의 한국 민족주의론”, 「송건호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두레, 1986.
- 3) 백범사상 연구소, 「백범어록」, 1973. p. 261.
- 4) 송건호, “분단하의 민족주의”, 「민족통일을 위하여」, 1986.
- 5) 이삼열, “평화의 복음과 통일의 사명”,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햇빛, 1991. p. 341.
- 6) 이삼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균축의 방향”, 위의 책, 1969.
- 7)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정치론」,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5.
- 8) 이삼열, “통일의 철학과 철학의 통일”, 1991. 8, 한국철학회 발표 논문.

##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자주성의 확립

박명철

재독 한인교회 목사

### □ 일러두기(Vorbermerkungen)

나에게 주어진 위의 주제 속에는 두 개의 주요한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조국통일’이요, 다른 하나는 ‘민족자주성’이다. 내가 여기서 시도하는 바는 이 두 개의 용어가 통일을 중심으로 다루어질 때 통용되는 의미를 규명하면서 양자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본 세미나의 주제인 ‘새 신학적 전기의 확립과 통일을 위한 민족의식’에 관련하여 신학적 접근 가능성을 시도코자 한다. 이 때 나는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의 통일 기본원칙(1988년 2월 총회 결의문)을 검토하고, 현단계 민족자주에 기초한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 기독교의 과제를 생각하고자 한다. 나는 여기서 발표시간의 제약성(약 30분간) 때문에 문제제기와 토론을 위하여 주제중심의 형식으로 발표한다.

## I. ‘민족자주’<sup>1)</sup>에 관하여

### 1. 자주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의미는 구속과 예속을 거부하는 ‘자유한 존재’의 본성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에서는 인간의 속성 중 하나로 ‘자주성’을 들고 있다. 주어진 사회적 제 조건에서부터 자신을 해방코자 하는 ‘사회적 존재’의 속성을 뜻한다. 이것은 민중신학자 고 서남동의 ‘자력적 구원론’과 비교해 볼 수 있다.<sup>2)</sup> 자주는 인간을 규정하고 속박하는 그 모든 것 – 그것이 정치체제든, 경제구조든, 사상적 이념이든, 문화적 유산이든 그 모든 것 – 을 거부하고 본래적인 자기의 모습, 곧 자유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이 민족과 결부될 때 ‘민족자주’로 표현되고 있다.

### 2. ‘민족자주’는 국제사회의 사법적 의미로 표현한다면, 민족권 (Völkerrecht)과 상통한다.

민족권은 자국 내 소수민족이나 그리고 국제적으로 타민족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민족자결’을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sup>3)</sup> 민족자결의 내용 속에는 문화적으로 각 민족의 언어, 풍습, 종교, 전통 등을 향유하는 권리와 정치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권리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활과 생존을 위한 물질적 자원, 천연자원, 경제력 등에 대한 소유와 처리의 권리를 포함한다. 민족자결권은 외세의 정치적 침략과 경제적 착취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자국 내 소수민족을 인종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그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만약 그것이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그룹 이기주의가 될 때 배타적 국수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민족권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이익과는 관계없는 ‘특권’이 될 때 자국 내 소수 집권세력의 특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것이 자국민의 인권침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sup>4)</sup> 그렇기 때문에 ‘민족자결권’은 불평등한 세계질서 속에서 약소민족의 제권리를 보호하는 요소가 되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이 자국 내 소수민족이나 국민에게 유효한 내용이 되려면 보편적 인간의 요구인 ‘인권’이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야 그 악용을 막을 수 있다.

### 3. ‘민족자주’는 7·4 공동성명이나 최근 남북한 정부간의 합의서 내용에서 보듯 민족통일 원칙의 기본항목이 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자주 원칙’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양 정부는 통일을 자국 내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그 성취도 민족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남북한 분단의 주요원인은 1945년 미소의 한반도 분단 강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단의 원인에 따라 40년 이상 남북간에 갈등의 체제를 재생산해 왔다.

이에 따라 민족자주의 통일원칙은 이중적 과제를 갖는데, 외적으로는 ‘분단원인’ 제거와 내적으로는 남북한에서 발전되어 온 ‘분단체제’를 제거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이다. 현재 외적 분단원인은 고르바초프의 ‘개방’과 ‘개혁’정책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세계질서에 따라 한반도 분단원인을 제거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 같은 변화된 국제환경을 자기 민족의 통일에 유리하게 이용하여 통일을 성취했다. 독일과 비교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분단 이후 재생산 발전되면서 뿌리를 내린 남북한 갈등체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족자주’를 통일을 위한 주요가치로 내세우는 이유로는 ‘외세’에 대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그 타당성의 근거로는

‘민족의 공동이익’ 하에 남북한이 하나됨이다. 그러나 ‘민족이익’에 대하여서는 그 해명이 필요한데, 이것이 남북한 양 정부의 이익이나 소수 특권세력의 이익이 아니기 위해서는 그 민족이익이 민족구성원이나 인간보편적 이익과 일치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민족자주’ 통일원칙이 민족성원 전체의 공감된 통일원리로 정립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II. 조국통일에 대하여

### 1. ‘조국통일’은 통일의 구심점을 ‘조국’에 두고 있는데, 조국의 사회적 성격이 선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조국’의 이름으로 타민족국가에 대한 침략전쟁, 자국 내 민족성원에 대한 학살, 지배·착취를 해 온 부정적 요인이 또한 있기 때문이다.<sup>5)</sup> 이에 따라 조국이 민족통일의 이상이 되려면 조국의 사회적 성격이 뚜렷하게 해명된 후 사용됨이 바람직하다.

### 2. 민족통일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민족통일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고려케 되는 바는 어째서 인간이 ‘민족’이란 단위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며, 그 민족공동체가 그들의 성원들로 하여금 하나로 결속하게 하는 요소란 무엇인가이다. 곧 민족성원들이 ‘민족’에서 자기 동일성(Selbst identität)을 발견케 하는 요소란 무엇인가? 이같은 요소들은 민족자주의 통일원칙과 어떤 연관을 맺는가?

우리는 ‘민족의 동일성’<sup>6)</sup>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문화적 요소로서, 언어, 풍습, 공통된 심리, 역사적 전통 등에서 민족적 동일성을 찾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경제·사회적 요소로

서 민족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에서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민족국가의 자기 동일성을 ‘자본주의’에 일치시키는 경향이나 북한에서 ‘사회주의’에 두는 경향과 비슷한 것이다. 문화적 요소는 민족성원들 사이에 공통된 삶의 양식을 제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응집력의 기초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에서 남북한 분단과 단절로 인한 민족의 이질화와 격차를 줄이고 회복케 함은 민족통일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민족동질성의 다른 한 요소로서 민족국가의 사회적 성격은 그 구성원들이나 사회적 그룹, 계급들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통일사회를 지향하는 기본적 요소이다. 그 사회적 성격 속에는 국가폭력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적 그룹들의 보호, 독점적 소유관계나 불균등한 소유관계(사유든 국가소유든)로부터 오는 불평등과 불이익에 대한 기회균등한 참여와 공유의 권리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포함한다. 민족통일의 기본가치를 문화적 ‘민족의식’에 역점을 둘 것인가, ‘사회적 의식’에 둘 것인가는 양자택일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sup>7)</sup> 이상의 두 요소는 민족사회를 인간적 사회로 만드는 두 축으로 나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요소가 배제될 때 민족공동체는 서구의 문화적 제국주의에 흡수되어 민족적 주체성을 상실할 수가 있고, 사회적 요소가 배제될 때 배타적 국수주의나 독재의 전체주의에 빠질 위험성은 항존한다. 민족자주가 통일의 원칙이 되고 있는 한 외적으로는 외세에 대한 자결권으로 작용하고, 내적으로는 민족성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민족내적 요소로서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은 검토되어 져야 할 과제이다.

### 3. 남북한의 통일이란 체제를 달리하는 두 ‘사회간의 결합’ 형태를 갖는다.

통일이 흡수통합이나 무력강점에 의한 어느 일방에 의한 통일이 아

닌 한 그려하다. 통일의 구체적 실현은 정치질서, 경제제도, 불균등한 경제력 등의 상호격차와 차이점을 법적·제도적으로 조정·개선·제정함으로 양 사회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제도적 통일의 사안들은 각 분야마다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며, 이것 자체가 통일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하나의 과제이다. 제도적으로 사회적 통합이 가시화될 때 우리는 분단구조의 보이는 형태가 구체적으로 해소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 III.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통일 원칙들에 대한 재고(再考)

비단 남북한간에 제도적 통일이 가시화된다 하더라도 그 통일사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얼마나 인간적 사회인가는 시험되고 평가되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다. 1988년 2월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가 결의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의 선언’에 따르면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기본원칙으로서 7·4 공동성명에 표명된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외에 ‘인도주의적 배려와 조치의 시행’ 최우선 원칙과 민족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참여 보장’ 원칙을 추가로 제시했다.

한국 NCC가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민족통일의 목표도 인간화된 사회요, 통일의 과정도 ‘인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도적 조치의 최우선적 시행의 요구는 통일과정이 얼마나 ‘인간적’인가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제시되고 있다. 어느 면으로 7·4 공동성명의 3대 통일원칙외에 인도주의적 조치의 시행원칙과 민중의 통일과정에의 참여원칙의 추가 제시는 간접적으로 남북한 위정자들의 통일정책과 협상과정에 대한 비판이 된다. 이는 민족통일이 인간화된 사회가 아닌 한 냉혈인간의 사회

가 될 수 있고, 민족성원 전체의 참여가 없는 통일은 남북한 집권세력 간의 ‘정부 대연합’(die grö ße Regierungs koalition) 형태의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요,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NCC의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선언’은 그러나 한국 교회들이 이상으로 삼고 있는 통일민족국가의 사회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자유’,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용어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들은 NCCK 5대 통일원칙을 설명키 위한 보조역할로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현단계에서 미래의 통일사회의 초석이 될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기본적 입장을 정리하고 제시함은 금일의 통일진행과정에 한국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요, 과제로 본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해 민족성원 전체의 의사와 총의를 모아가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해방 후 남북한간의 갈등은 서로 사회적 성격을 달리한 데에 근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일원칙 논의에서 보면 – NCCK도 예외가 아님 – 사회적 갈등의 해소방안으로 7·4 공동성명의 세째 원칙,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민족적 대단결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미래의 통일社会의 성격을 대표해 줄 기초개념이 되는가? 술한 비판의 약점이 있지만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주의=사회정의’로 대별되곤 하는데, 통일이 되면 ‘민주주의’ 요소도, ‘사회정의’ 요소도 불필요한 사회가 되는가? 동족애를 기초로 한 민족구성원간의 사랑의 연대가 ‘민족적 대단결’의 원리라면 민족성원간의 억압과 차취 구조는 이미 사라져버렸어야 함이 당연하다. 민족통일을 합리적으로 시도하고 인간적 통일사회를 세우려면, 남북한 양 체제의 가치있는 사회적 기초원리들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적극 활용하면서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함이 현실적이다.

## IV. 결론

인간이 자주적인 존재가 되고자 함이나 민족차별에 의한 세계구조 속에서 자주한 민족이 되고자 함은 그 성격상 ‘인간해방’운동이다. 인간은 문화적 양식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고 향유한다. 민족공동체는 공통된 생활양식을 통하여 민족성원들에게 자신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부여한다. 이것이 민족성원들로 하여금 민족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을 갖게하고, 민족사회(=민족국가)를 형성케 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문화적 요소만을 가지고는 민족구성원의 다양한 사회적 성격의 그룹과 계급을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인간적인 사회적 요소와 공유된 문화적 요소가 서로 결합할 때 민족통일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때 민족자주의 인간해방 에토스는 불의한 세계질서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동시에 ‘민족’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국민을 억압하는 그 모든 것에 도전케 한다. 민족해방과 민중해방은 이런 뜻에서 ‘자주’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

### \* 주 \*

- 1) 북한의 주체철학에서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을 ‘자주성’, ‘창조성’ 그리고 ‘의식성’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이 글에서 ‘민족자주성’ 대신 ‘민족자주’로 바꿔 사용함은 그렇게 함으로 주체철학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 ‘민족자주’를 한정하지 않고자 함에 있다.
- 2) 서남동은 민중신학이 중언코자 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돈하고 있다. “민중이 자기를 결정하는 외부적 조건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며 자기에 대한 결정

내지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인용 : 서남동, "두 이야기의 합류", in:NCC신학위원회 간, 「민중과 한국신학」, S. 259). 그에게 있어서 인간을 규정·제약하는 객관적 사회의 조건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력으로 해방해감이 자력적 구원의 내용이 되고 있다.

- 3) 이에 대하여서는 1966년 UN의 인권협약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것은 '민족권'을 핵심적 테마로 다루고 있다. 1948년 UN의 인권헌장이 주로 개인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면, 1966년의 것은 '민족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음이 큰 차이이다.
- 4) 예를 들어 2차대전 이전 '민족자결'은 서구 제국주의 나라들이 그들의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국의 개입을 배제하는 구실이 된 바 있고, 최근에는 자국 내의 소수민족탄압(예를 들어 터키, 이란, 이라크 국경지대의 '쿠텐' 소수민족 문제, 혹은 유고의 '민족분쟁', 중동의 '팔레스타인' 문제 등)이나 제3세계의 인권탄압에 대한 외부의 지원과 연대를 막는 구실이 되는 경우를 보고 있다.
- 5) K. Marx와 F. Engels의 '공산당 선언'에서는 "노동자에겐 조국이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볼셰비키주의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시 반전(反戰)구호로서 "조국의 패배를 위하여!"를 내세웠다. 우리의 경우 6·25 동족상쟁의 전쟁을 북한에선 '조국해방전쟁'으로 명명하고 있다. 나의 견해로는 '조국'보다 '민족'이 보편적 개념이 되고 있기에 이하의 글에서는 '조국' 대신 '민족'을 사용코자 한다.
- 6) 김일성은 민족동일성의 요소로서 '하나의 핏줄', 동일한 '언어', '영토', '역사', '문화생활의 공통성'을 들고, 이 가운데 언어를 최우선적 가치로 꼽았다(「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s. 1). 스탈린의 경우 민족구성의 다섯 가지 기본요소를 지적하고 있는데, '언어', '영토', '경제적 삶', '문화공동체', '심리적 공통성'이다.

A. Kosing 는 '민족성'(Nationalität)과 '민족'(국가; Nation)와의 개념상의 차이를 구분하고, 민족성이란 단순히 민족국가 형성 이전 단계의 속성이 아니라 국가형성 이후에도 민족국가의 기본적 가치로서 '사회적 의식'과 함께 국가발전을 이끄는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그의 견해는 K. Marx가 '민족성'과 '민족'을 국가형성단계 이전의 속성으로 규정하고, 국가형성 이후에는 '사회적 의식'에 의하여 사회발전이 진행된다

는 견해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비교, 그의 책, *Nation in Geschichte and Gegenwart*, Berlin 1976).

A. Kosing 은 비단 ‘민족의식’과 ‘사회의식’ 두 축을 사회(국가사회) 발전의 요소로 분석했지만, 동독의 SED 정책에 있어서 그는 민족의 문화적 요소들을 ‘사회주의’ 정책 실현의 도구화함으로 ‘사회의식’에 ‘민족의식’보다 우선권을 부여했다. 이같은 경험은 북한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와 비교될 수 있다. 그 내용은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아’ 표현함이다 (『김일성 저작선집』, 제3권, S. 130; 정치용어사전,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 S. 336을 보라).

- 7) 한국 민족주의 흐름의 경향을 보면 ‘시민권’(인권) 쟁취라고 하는 ‘사회적 의식’에 자기 동질성을 설정하고 있음을 본다. 이같은 관점에서 근대사 이전의 중국·몽고·일본의 침략시, 이에 저항한 민족의 운동을 막연한 ‘애국론’에 기초한 것으로 민족운동에서 제외하는 경향이요(강만길, “한국 현대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in:『민족주의와 기독교』, 민중사, S. 8.과 비교), 전제군주 체제의 복귀를 추구했던 의병운동 또한 그러하다 (강만길, Ebd.; 정창결, “백성의식, 평민의식, 민중의식”, in:『한국민중론』, S. 172.와 비교하라). 송건호의 경우 민족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자기 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만을 친양하고 민족의 특성만 강조하고 민족정신, 민족열을 주장하는 민족운동을 ‘쇼비니즘적’이라고 언급한다(송건호, “한국 민족주의탐구”, in:『이우정 회갑기념 논문집』, S. 214.을 보라).

북한의 주체 사회주의에서는 민족통일을 위하여 민족의 문화적 동일성을 중요하게 간주한다. 그들은 역사발전에서 자기 민족이 이룩하여 놓은 민족적 전통을 비롯한 문화적 유산을 부인하고 말살하는 것을 ‘민족 허무주의’, ‘노예적 굴종사상’의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다(비교, 정치용어사전, “민족허무주의”, S. 258).

## 폐회 설교문

## 신앙은 생명적이어야

빌립보서 2:1-5

장성환

캐나다 토론토 한인연합교회 목사

복카치오의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세 아들들에게 반지 하나씩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은 착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준 반지 중 하나만 참반지이고 다른 것은 가짜였습니다. 세 아들들은 저마다 아버지에게서 참반지를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 아들 모두가 반지를 가진 것을 알게 되고 어느 것이 진짜 반지인가가 문제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결하는 노련한 재판관의 말인즉 “어느 반지가 참반지인지는 모르지만 착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사는 사람의 반지가 진짜가 아니겠는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또 북에서나 남에서 예수를 믿던 기독교의 교리나 신조의 정통성을 위한 논의나 모색보다, 착하고 아름답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일이 소중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두 분 목회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한 분은 제가 봄담고 있었고 또 목회한 기독교 복음 교회 초대 목사인 최태용 목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한 분은 광주에서 목회하신 동부교회 백영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920년대라고 하면 기독 교계는 선교사들이 제왕이나 귀족처럼 복음을 앞세우고 기세를 부리던 때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실패한 후여서 일본 제국주의는 금수처럼 우리 강토나 사람들을 삼킬 듯 억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1925년에 한 청년이

“신앙은 생명적이어라.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것이어라.”

하고 외치면서 나섰습니다. 1920년에서 10년 동안 하늘에서 온 소리를 받았기에 〈천래지성〉(天來之聲)이란 잡지를 등사판을 지고 다니면서 냈고, 그 다음 1930년에서 1945년까지 이 세상 복판에 이 신앙진리를 전파해야 한다고 「영과 진리」라는 책자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 겨울, 교회를 세워야 하겠다고 해서 ‘기독교 조선 복음교회’를 창설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이때는 참으로 가난한 농민대중과 노동자의 문제가 금후 조선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대한농민회를 조직했습니다.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추대되기도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납북되어 갔습니다. 저는 이 어른에게서 한국 땅에 씨 뿌려진 복음의 참 열매를 봅니다.

“신앙은 생명적이어라.”

3·1운동의 좌절로 말미암아 뜻있는 이들이 다 해외로 나가던 때, 그렇지 않으면 산중이나 신비주의로 흐를 때, 이 겨례의 혼을 진작(振作)

시켜 생명력을 주어야 하겠는데 그것이 신앙에서 온다고 “신앙은 생명적이어라”고 했으니, 얼마나 역사적이며 고난을 예상한 참 기독교의 길인가 말입니다.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

학문성에 견디지 못하는 신학은 그것이 인간의 사변이거나 남의 신학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갈고 닦아서 자기의 피와 살이 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남에게 소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내촌(內村)의 수제자 이건만 그것을 마다하고 일본신학을 거쳐 조선 최초의 바르티안(Barthian)이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인 조선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것이어라”에서 그의 신학과 생애의 전모가 잘 드러납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사상이 불온하다고 공장이나 농토에서 쫓겨나던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의 입에서, 이 땅은 조선 땅인데, 이 공장은 조선인이 세운 공장인데, 그것은 복간도나 아라사나 멀리 하와이나 미주로 쫓겨가던 이들의 입에서 한 두 마디씩 나오던 한탄의 구호였습니다. 그것을 최 목사는 신앙의 소신으로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것이어라” 했으니, 이 속에는 두 가지 외적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회를 정신적으로 저능화하던 선교사들에 대한 항거요, 또 하나는 일본제국주의의 어용인 일본 교단과 야합하던 한국의 대 교단들에 대한 항거입니다. 이 음성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외쳐진 구호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깊은 호수에 던져진 조약돌의 파문처럼 울려 가야 하는 민족의 궁지를 가진 외침입니다. 지난 날 한국의 토착화를 위해서나, 오늘 통일을 향한 한국 통일신학의 조명에 있어서 한국 땅에

서 태어난 이 외침은 깊이 성찰되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광주 땅에 태어난 백영흠(白永欽) 목사입니다. 그는 동부교회(東部敎會)를 일생을 두고 시무한 분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부자(父子)간 둘이서 처음 데모한 분이기도 합니다. 1960년에서 1970년 대 광주 동부교회의 예배는 실로 다듬어지고 닦여진 참 경건하면서도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주일마다 600명에서 800명의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의 예배가 아침 6시에 진행이 되어도 한 아이도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분의 성찬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느낌을 가진다고들 말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진실한 말씀의 종이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명설교가이면서도 한 권의 설교집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김재준 목사님과 이은상 선생의 서문이 쓰여진 「江을 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몇 편의 설교와 평신도들에게 기독교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이라는 제호 아래 “기독교 신관”, “기독론”, “성신론”, “은혜론”, “성경론”, “교회론”, “천국론”, “영생” 등 항목을 기록한 간이 조직신학책 같은 소책자 한 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책 속에서 성령론을 이야기 하면서,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도하신다(Lead).

성령은 우리의 위안이 되신다(Comfort).

성령은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Power).

오늘 우리는 금후 통일한국 땅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신학적 과제에 대한 토론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최종은 성령이 지도하는 한국신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북’과 ‘남’의 것을 넘는 ‘동’과 ‘서’의 것을 넘어서 ‘하나’에로 나가는 통일신학일 것입니다.

니다.

정말로 성령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제도가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위안만이 만민이 위안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깊은 인간성의 모순에서 고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령은 저들을 위안해 주며 또 저들은 위안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저는 이 26차 기독학자 대회의 마지막에서 성령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힘이 우리 민족의 통일과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서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 기울이고 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활~~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을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이 마음이 세계를 하나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남과 북을 한 마음이 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성찬의 시간이 왔습니다. □

## 부 록

사반세기 이상에 걸친 본회의 역사가 정리·편찬되어야 할 요구가 크게 대두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과 재력 때문에 현 임원단은 이 작업을 완수하지 못한 채, 지난 27년간 본 회의를 위하여 애써 오신 역대 임원 및 이사들의 명단과 연차대회 장소를 소개할 뿐이다.

### 1. 역대임원

• 1967 ~ 70년

회장: 손명걸 부회장: 이승만 총무: 서광선

• 1970 ~ 72년

회장: 김용복 부회장: 이승만 총무: 서광선

• 1972 ~ 74년

회장: 이승만 부회장: 강위조 총무: 동원모

이사: 장혜원, 강영훈, 김형일, 김용복

• 1974 ~ 76년

회장: 강위조 부회장: 장혜원 총무: 동원모

이사: 조순승, 김동수, 이상철, 이승만

• 1976 ~ 78년

회장: 선우학원 부회장: 이상철 총무: 김동수

이사: 동원모, 김병서, 김상호, 이승만, 강위조

• 1978 ~ 80년

회장: 동원모 부회장: 함성국 총무: 김병서 회계: 이혜선  
이사: 김희섭, 류시홍, 임순만, 선우학원

• 1980 ~ 82년

회장: 김병서 부회장: 함성국 총무: 이상현 회계: 안중식  
이사: 김민자, 박상증, 류시홍, 동원모,

• 1982 ~ 84년

회장: 함성국 부회장: 류시홍 총무: 이인숙 회계: 백숙자  
이사: 김민자, 한완상, 이화수, 서경석

• 1984 ~ 86년

회장: 류시홍, 부회장: 백숙자, 총무: 남재현, 회계: 홍근수  
이사: 서경석, 홍순관, 최리나, 김고광, 함성국

• 1986 ~ 88년

회장: 백숙자 부회장: 홍순관 총무: 서경석 회계: 정춘수  
이사: 김일평, 김찬희, 이은주, 최창수, 류시홍

• 1988 ~ 91년

회장: 안중식 부회장: 윤길상 총무: 정춘수 회계: 장화인  
이사: 이일영, 강위조, 박한식

• 1991 ~ 93년

회장: 윤길상 부회장: 장화인, 조현정 총무: 이상성(91~92),  
장재식(92~93) 회계: 김혜선(91~92), 구춘서(92~93)  
이사: 안중식, 강은홍, 곽노윤, 김인식, 김정호, 박승호, 박한식,  
윤대섭, 이상현, 이일영, 이정용, 이원규, 정춘수

## 2. 대회장소

1967 — Pittsburgh, Pennsylvania

1968 — Evanston, Illinois

1969 — Detroit, Michigan

1970 — Washington, D. C.

1971 – New York, New York  
 1972 – St. Louis, Missouri  
 1973 – St. Louis, Missouri  
 1974 – New York, New York  
 1975 – Dallas, Texas  
 1976 – Chicago, Illinois  
 1977 – St. Bernadino, California  
 1978 – Toronto, Ontario, Canada  
 1979 – Boston, Massachusetts  
 1980 – Washington, D. C.  
 1981 – Stony Point, New York  
 1982 – St. Bernadino, California  
 1983 – Evanston, Illinois  
 1984 – Stony Point, New York  
 1985 – Washington, D. C.  
 1986 – Nyack, New York  
 1987 – Toronto, Ontario, Canada  
 1988 – Los Angeles, California  
 1989 – Convent station, New Jersey  
 1990 – Beijing, China  
 1991 – Stony Point, New York  
 1992 – Hemstead, New York  
 1993 – Washington, D. C.

### 3. 논문집 출판 특별기금 후원자 명단 (존칭생략)

이원규	장화인	선우학원	류시홍	김동수
백숙자	강위조	이일영	최종수	동원모
최수용	현봉학	김원삼	강문국	유원화
백승호	임병진	안중식	곽노윤	장재식
윤대섭	차원태	조현정	주동진	손명걸
이승만	함성국	강은홍	김인식	정춘수
박승호	박한식	윤길상	홍순관	구춘서
이정용	이상현	유태영	지명관	

## 기독교와 주체사상



엮은이 / 북미주 기독학자회

펴낸이 / 최 병 천

펴낸곳 / 신앙과 지성사

1993년 4월 26일 초판 펴냄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연희 3동 353-89

전화 / 335-6579 323-9867

등록 / 제 9-136호 (88. 1. 13)

값 / 7,000 원

## 그리스도교 문화를 꽂 피우기 위한 진정한 한 알의 밀알 – 신앙과 지성의 책들

희년맞이를 위한 통일성구연구

### 하나된 세상 하느님 나라

이효삼·송병구 지음 / 3,000원

젊은 목회자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통일운동의 길을 제시해 준다.

농촌교회 선교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 우리나라 농촌사회와 변화와 농촌교회

충주·중원지역 선교현장 실태조사위원회 지음 / 3,500원

감리교 선교국의 지원으로 위기의 시대를 맞은 농촌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공동으로 위기의 농촌교회 선교를 모색하고 농촌사회를 연구조사한 것이다.

가난한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 긴 사연 짧은 얘기

강명순 역음 / 3,500원

더이상 빼앗길 것도 없고 더이상 줄 것도 없는 벼랑 끝에서 날마다 아픔을 쓸어내리는 가슴앓이의 주인공 10대에서 70대까지 여성들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한,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사랑하는 이웃의 이야기 모음집.

청년을 위한 성서연구

### 청년과 성서이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지음

김찬국·김득중 감수 / 3,200원

성서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안목을 여는 데 초점을 둔 청년을 위한 청년이 쓴 성서연구.

365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메시지

### 예수와 함께 세상 속으로

장기천 지음 / 4,800원

세상 속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사랑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하느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장기천 감독의 열정적인 호소가 담긴 설교집.



# **CHRISTIAN FAITH AND JUCHE PHILOSOPHY**

---

**Christian and Jucheian Dialogue for  
Reunification of Motherland**

**1989-92 Annual Conferences  
Collected Papers, Sermons and Prayers.  
The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  
in North America, Inc.**

This is a corrected  
English text of Introductory note  
and three articles in the Christian  
Faith and Juche Philosophy :  
Christian and Juchean Dialogue for  
Reunification of Motherland

1989-92 Annual Conferences  
collected Papers, Sermons and Prayers.  
The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 in North America, Inc.

This Booklet replaces the English texts which appear  
on pages 20-27, 264-280, 299-315, and 326-358.

---

**correction**

---

1. p. 63 Warteary Seminary → Wartburg Seminary
2. p. 182의 주는 p. 160 하단에 표기되는 것임. → “본 논문은 다음장 ‘주체사상의 종교관’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발표자가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부한 논문임.”  
footnote of p. 182 should be moved to bottom of p. 160. → “This Essay is that speaker previously distributed to the participants to help explain the religious thought of Juche Ideology.”
3. p. 79. \* Note
  - 1)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eds.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Vol Ⅱ, 1935 – 1959 New York :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1965, p. 28.
  - 3)Yur-Bok Lee and Wayne Patterson, eds, One Hundred Years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882 – 1982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6), p. 106.
  - 4)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ed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Ⅱ, 1939 – 1959. pp. 379 – 80.

## Introductory Note

The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 in North America, Inc. (AKCS), is a gathering of concerned Christian scholars and church people who are engaged in the teaching, research, and church leadership of both laity and clergy. The Association was formed in 1967 under the leadership of Reverend Myong Gul Son. In the summer of 1967, I had just finished the first year of my theological education at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s Perkins School of Theology. Myong Gul Son had just returned to his alma mater in order to pursue a doctorate in Theology. He had been a student at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in the late 1950's and had subsequently worked in Korea as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Student Christian Movement. As a concerned and experienced clergy who worked in the area of student movement, it was very natural for Myong Gulson to see the need to unify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graduate and theological schools in Canada and the U. S. for mutual support, fellowship, and the enhancement of academic progress.

Since the first gathering of the Association on Thanksgiving weekend of 1967, at the campus of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in Pittsburgh, Pennsylvania, the nature and purpose of this group came to emerge as follows :

"..... the purpose is to provide a means whereby mutual assistance among Korean Christians in North America may be achieved. Its

purpose is also to promote Christian concerns on the crucial issues of the times and to encourage academic activities among Korean scholars."

(Section 2, Article I. By-Laws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 in North America, Inc.)

As a result of such concerns and overall purpose, the Association has dealt with various issues and subject matters with both a Christian and an academic consciousness from the onset. Issues such as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theologic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questions regarding Korean immigration to the U. S. and Canada; and the role and ministries of the church within the immigrant community are examples of the topics the Association has discussed in the past. However, the Association has been deeply aware that the Korean division and military stand-off are the root cause of the hardships and complexity of issues that the Korean people have had to face.

At the 22nd Annual Conference held in Los Angeles, California, in May, 1988, the Association met under the theme, "The Separated Families and the Era of Division." Red Cross officials from both sides of the homeland were invited to share their perspectives. But it was during the era when North Koreans could not easily obtain the entry visas to the U. S. Thus, while the North Korean delegates could not attend, a Red Cross delegate from South Korea came to present their position. The conference heard the stories of those who had worked to reunite the separated families.

After this conference, the Association could not wait any longer to tackle the various socio-political and humanitarian issues resulting from the division of their homeland. Therefore, it began to deal with issues related to reunification of the homeland. This

volume is a compilation of the papers, sermons, and some prayers shared at the 1989-92 Annual Conferences. Unfortunately, not all of the presentations made at the conferences have been preserved in script. Nonetheless, the majority of the presentations can be found in this anthology.

The 23nd Annual Conference attempted to initiate a dialogue between Jucheans and Christians under the theme of "Minjung Theology and Juche Philosophy as a Viable Thought Toward Reunification," June 1-3, 1989, Elizabeth College, Convent Station, New Jersey. However, the invited presenters from both sides of Korea were not able to attend the conference.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of the South dictated that it would not be prudent for the invitees to attend the conference which would be dealing with controversial, even 'dangerous' and 'taboo' subject matter. Although four North Korean invitees went to Beijing to obtain entry visas to the U. S., their application was not honored.

In spite of the situation at home, Professor Song Ki Deuk of Mokwon University, Daejon, was willing to come to take part in this first attempt at Korean Christian and Jucheian dialogue. With the unexpected absence of the North Korean delegates, Professor Sunoo Hakwon and the Reverend Hong Dong Gun shared their respective understandings of Juche philosophy. Consequently, Professor Song's paper was the only presentation preserved in written form. His paper is found in Part I of this compilation.

The closing statement of the Conference is also found in Part I. It was written by an appointed committee, and was adopted as the official statement of the Conference.

Although the Conference's original plan was thwarted, it was a deeply shared feeling that the Association should continue to attempt to open dialogue with the long-separated brothers and sisters in the North in order to develop a mutual understanding

and to heal the wounds caused by the division. A heartfelt awareness of the reunification issue was enhanced by the Poongmul Nori of the New York Christian Youth's Cultural Troupe and the songs, lyrics of both North and South, sung by the choral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Music alumni. The frustrated participants then passed a motion to hold the 24th Annual Conference in a neutral place where the delegates from both the South and North could attend.

Therefore, the 24th Annual Conference was held August 9-11, 1990, at the Shangri-La Hotel, Beijing, China. Although none of the South Korean delegates could attend, this was the conference where the delegates from North America and North Korea were able to develop a deep sense of solidarity,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as brothers and sisters who had grown up in utter separation. It was a watershed event where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oneness transcending the ideological differences under which their perspectives had been formed and shaped over forty years. Part II of this anthology presents the papers, sermons, and prayers shared at the Beijing Conference.

The 25th Annual Conference took place May 28-30, 1991, Stony Point, New York, under the theme "Christian Responsibility for the Formation of a New National Community." This was the first conference in history where Christians and Juche philosophers met together on the U. S. soil from both sides of the divided homeland, Japan, Germany, Canada, and the U. S. Eight North Korean Christian leaders and seven South Korean delegates were able to attend. Prior to this conference some U. S. universities, research foundations, and ecumenical bodies had successfully invited North Korean Christian leaders and government officials to the U. S. However, in those cases, the contact between North Koreans and Korean-Americans had been very

limited and restricted. In contrast, at the 25th Annual Conference, all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mingle freely, enjoying complete, unfettered contact.

At this historical gathering of Koreans,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reaffirm their unity as Koreans and celebrate the sheer fact that they were together. Part III of this anthology presents the papers, sermons, and prayers shared at this event. However, the words on the pages cannot convey the excitement and the celebratory mood of the gathering. It was a shared and definite feeling for everyone, which confirmed that "blood is thicker than water". Once again, the emotional climate was intensified by North and South Korean songs performed by musicians, delegates, and by the Poongmul Nori-Han Madang.

Part IV, the concluding section of this compilation, consists of the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Conference which was held July 9-11, 1992, at Hofstra University, Hempsted, New York. The theme was "Formation of a New Theological Paradigm and National Consciousness for Reunification". Except for the sermon by Dr. Lee Sang Hyun, Professor of Theology a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delivered at the opening worship service, all the presentations were obtained in written form for this publication.

In the last four annual conferences, the Association has attempted to bring Christians and Juche philosophers together. This attempt has been made in hope of developing an environment and climate in which the long imbedded distrust, suspicion, hatred, and even fear among 'us' might be overcome, thus making room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I am personally convinced that this attempt has been successful. Those who have met face to face have been able to overcome prejudices and fixed notions against the other and consequently

experience harmony and empathy based on the common historical, cultural (including linguistic), and national roots which are older and deeper than are the ideological differences of the last half century.

What has been said of the specific conferences is true for all of them. The printed word cannot adequately convey the mood and spirit of any and all of the conferences. However, it has been evident that the ideological differences which have divided us into two opposing sides can easily be melted away by the awareness of a much deeper, wider, higher, and older common cultural uniqueness which we as Koreans share.

As we met, having personal contact during meals and talks, and as we sang and danced together to the rhythm and sounds of traditional folk music played on instruments from the past, we experienced fellowship. The fear and distrust built up over the past four decades were replaced with the rich feeling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love between brothers and sisters.

It is our hope and desire that we, who are concerned about our present national predicament and the future destiny of our homeland, will be able to find some viable means to recover our ethnic and cultural common ground. It is only through this that we will be able to heal the wounds of the past caused by the division. Ultimate emotional unification can only occur in conjunction with political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In this spirit, we present these papers, sermons, and prayers composed by our compatriots from both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from overseas.

In Peace,

Kil Sang Yoon

## Theology of Community

Andrew Sung Park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United Theological Seminary

It is sheer joy for all of us just to look forward to the reunification of Korea. We anticipate that the reunification will take place within this 90s. It is task of overseas Koreans to prepare for the inevitably coming reunification which will transpire soon. Among overseas Korean organizations, the church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institutions which can concretely make ready for the advancement of the reunification.

The preparation involves two tasks. One is enhancement for the event of reunification. This includes changing the U. S. policy toward Korea so that the U. S. may withdraw its troops from Korea and may not obstruct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The other is to lay the necessary groundwork for a harmonious living of North and South Koreans after reunification. Unlike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Korea needs an orderly reunion that complements each other.

This work will focus on the issue of planning for reunification by presenting a theology of community. Political theologians such as Johannez Metz, Dorothee Soelle, Jürgen Moltmann reject the privatized meaning of faith. As the Scripture is the product of Christian community, so is Christian faith. Thus, any theology which is not communal should be repudiated. A theology ought

to be eucharistic.

Community in Latin was a noun of quality from *communis*, denoting 'fellowship or community of relations'. The word in medieval Latin was, like *universitas*, used in the sense of 'a body of fellows or fellow townsmen'.<sup>1)</sup> The word community is a body of those having common or equal rights or ranks, as distinguished from privileged classes or a body of individuals organized into a political, municipal, or social unity.<sup>2)</sup> The theology of community is to intend to embody the reign of God through the body of individuals whose political, economic, social, religious goals are common. It does not separate religion from other dimensions of life.

The Korean church has emphasized the community of believing, not the community of living together. The theology of community aims at bringing forth the balance between believing and living. In this work, we will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theology of community as living.

In the name of German reunification, Western Germany swallowed up Eastern Germany and has suffered from plenty of indigestive problems. When North and South Korea are united, Korea should be one nation for betterment. We should not allow that for the past 45 years, the two Koreas to continue suffer the separation. Since each has built up its own system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the two, using their past experiences, can set up a new mode of system which combines the strength of socialism and capitalism to such a degree that other countries may follow suit. In light of the theology of community, this writer attempts to delineate a third social and religious system for Korea.

The alternative community is the local community of ecological soundness and the community of semi - corporate living, highlighting self-government and self-sustenance.

Socialism is a planned economy. Socialist society is more economically democratic than capitalist society. According to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major defects of its own socialism are the rigid control of a state over enterprises, the bureaucratic barriers between the different departments or regions, and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state and those of the enterprise.<sup>3)</sup>

Capitalism is an unplanned economic system. It has been operated by the principle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n this system, "profit" is religion. We know that the spirit of capitalism is not harmonious with the teaching of Jesus. The parable of the laborers in the vineyard(Mt. 20:1 - 16) particularly contradicts the spirit of capitalism. In God's vineyard, all the laborers who came to work different hours are equitably paid.

North Korea is a socialist state. The state owns the means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and private property is officially disparaged. South Korea is a capitalist state. Individuals chiefly own the means of production and make investment, distribution, and the exchange of wealth. When North and South Korea merge, a third system can emerge : a local community-centered system. North Korea needs to move from the ownership of the state to the ownership of communities ; south Korea needs to move from the ownership of individuals to the ownership of communities. It means that a village in countryside or Bahn in an urban area must be the center of socio – economic activity. While acknowledging private property, these communities can own the means of production or reproduction such as tractors, agricultural instruments, construction equipment, various kinds of transportation, tools, and so on. However, it must be left to the will of people whether a community chooses to have such a semi – communal lifestyle. This type of lifestyle must be encouraged perhaps via

various rewards. There is a significant reason why this type of semi-corporate living is necessary in the coming years. The dream of the indefinite economic growth of capitalist lifestyle has been defied since ecological crises threatened the very survival of humankind. The present economic dream of many capitalist countries for infinite growth must be disenchanted, and adopt an ecological model of progress. The model needs to be a semi-corporate community in its economic orientation, and a democratic community in its political character.

## I. Sound Ecological Community

The world is unable to economically grow indefinitely. According to Lester Brown of the Worldwatch Institute, there are two contrasting views of the state of the world: economic views and ecological views. Economic views are concerned about savings,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They do not worry about natural constraints on human economic activity but the expansion of economic opportunities. This type of views prevails in the worlds of industry and finance, nationa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sup>4)</sup>

On the other hand, ecological views care about the relationship of living organisms with each other and their environments. For them, all growth processes are circumscribed within the natural parameters of the earth's ecosystem.<sup>5)</sup> Ecological views contend that continuing the single-minded pursuit of growth will eventually lead to economic collapse.<sup>6)</sup> Before too late, we should adapt an ecological view without deserting the poor in their plight.

The Worldwatch Institute reports that we have crossed one natural threshold, a dramatic change in climate. But we can still

avoid crossing a second threshold : the level of atmospheric CO<sub>2</sub> that will result in an unprecedented and irrevocable change in climate.<sup>7)</sup> Cars, furnaces, other equipment which burn fuels emit five billion tones of CO<sub>2</sub> into the atmosphere, a global rate of one ton per person.<sup>8)</sup> The longpredicted warming of the earth caused by the increase of the CO<sub>2</sub> level is under way.<sup>9)</sup> Another terrible disaster is the depletion of the ozone layer due to chlorofluoro-carbon(CFC) productions. In 1987, an ozone hole about twice the size of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as found over Antarctica each September and in 1988, an ozone hole about the size of Greenland was found over the Arctic.<sup>10)</sup>

Water shortage and damage are becoming serious. More than ninety – nine percent of fresh water is deposited in the icebergs, glaciers, and underground ; less than one percent in lakes, rivers, and soil. Within a few decades, most of the underground water deposited over thousands of years has been overdrawn. On an average in the U. S., fresh water discharge surpasses recharge by the ratio of 3 : 1.<sup>11)</sup>

According to Noel Brown, North American director of the U. N. Environment program, we have a full – occupancy planet, and today 80% of deforestation results from population growth.<sup>12)</sup> World population is growing by ninety – two million people each year, roughly equal to adding another Mexico.<sup>13)</sup> By 2050, the present world's population (5.4 billion) will double (10 billion).<sup>14)</sup> With the present population – growth rate, by the year 2050, the U. N. estimates an additional 5.9 million sq km of land (the total size of today's protected natural areas) will have to be turned over to roads, urban uses, and farming.<sup>15)</sup> Two thirds of the human family is hungry, partly because of inequitable distribution (85% of the world's income goes to 23% of its population ; by contrast, more than 1 billion people living in absolute poverty survive on less

than \$1 a day)<sup>16)</sup>, but increasingly because of falling per capita food production.<sup>17)</sup> In spite of the fivefold rise in world economic output since 1950, 1.2 billion people live in absolute poverty today more than ever.<sup>18)</sup> As the 90s began, the ranks of the hungry have increased.<sup>19)</sup>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not be entrapped in the destructive cycle of the futile illusion of unlimited economic growth in the name of economic development. To prepare the reunification, both North and South Korea need to be an ecologically concerned society, through which Korea may set an example for other nations. Such an ecologically sound society needs a new set of measuring progress.

## II. New Society and New Measurement of Growth

In the past, GNP was the sole indication of the advancement of a nation. At the present, new ways of measuring progress are being developed. According to Lester Brown, there are two interesting recent efforts in the new attempts : the Human Development Index(HDI) devis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ISEW) designed by Herman Daly and John Cobb. The Human Development Index is a combination of three indicators : longevity (life expectancy at birth), knowledge (literacy rates), and command over resources required for a decent life (gross domestic product).<sup>20)</sup> The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considers not only average consumption but also distribu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sup>21)</sup> After treating the consumption component of the index for distributional inequality, ISEW factors in several environmental costs related to economic mismanagement, such as natural resource depletion, loss of wetland, loss of farmland, the cost of noise, air and water pollution.

It is the most sophisticated indicator of progress available for the state of the United States.<sup>22)</sup>

The human family needs to shift the focus of the improvement of life from economic growth to a new mode of the quality of life : measurement for 'humanizing progress'. The present way of economic growth does not resolve the problem of poverty but increases it by widening the gap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The humanizing progress shifts the goal of development from growth in economic wealth (vertical growth) to growth in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and in human and environmental health (horizontal growth). It proposes global economic improvement within the boundary of environmental self - sustenance.

The theology of community suggests that North and South Korea aim not to increase GNP but to promote the progress in humanization. Rising incomes and expenditure are important to improving well - being in a low - income country. But the current pursuit for economic growth is wrongly headed. Despite the increase in world economic output, millions of people live in poverty today. This means that mere economic growth will not resolve the problem of poverty, but hurts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well - being of the world. Humanizing progress in all dimensions of life, including salub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can be the goal of healthy growth in tongil Korea(Korea of reunification).

### III. Corporate Lifestyle

The idea of a local community-centered system in a sound ecological sphere is an economically democratic society. It envisions an alternative system to capitalism and socialism, embracing the strengths of both systems. In terms of the private own-

ership of property and capital, this community upholds capitalism. In terms of sharing the means of production, it adopts socialism. This idea corresponds to that of the moshav in rural Israel.

In Israel, there are two outstanding rural community lifestyle : the kibbutz and the moshav. The kibbutz is a cooperative, self – sufficient, and egalitarian community. Members possess no private property and receive no wages. Instead, their needs of housing, health care, education, vacations, and pocket money are supplied by the community. All members participate in decision – making, budget allocation, and alternative lifestyles. There are over 260 kibbutzim in Israel, comprising nearly 3 percent of its population.<sup>23)</sup>

The moshav is a democratic and self – governing community based on the idea of the delegation of authority. In it, each family as the basic unit possesses its own household and farms its own land, but major economic and social needs are cooperatively met. The cooperatives-system deals with marketing and supply collectively and provides education, medical, and cultural services. There are approximately 450 moshavim, constituting 4 percent of Israel's population. Each moshav comprises about 60 families.<sup>24)</sup>

While the moshav, being popular, flourishes, the kibbutz declines in its financial strength. The 280 kibbutzim owe \$4 billion.<sup>25)</sup> While the kibbutzim suffer from the inefficiency of cooperative work, moshavim flourish because they are basically private enterprises.

Some of important moshav principles are ① comprehensive, coordinated, and integrated agricultural planning, ②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t the village level including everyone in the settlement, and ③ settlements based on family – sized farms.<sup>26)</sup> First, comprehensive agricultural planning connotes that all services are available to farmers at the village level : planning for

their production program ; credit for obtaining specified inputs ; all the production services(irrigation, drainage, pruning) to put the production program into effect ; and marketing services. Coordinated agricultural planning means the harmonization of local planning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the vertical coordination of planning. Integrated planning indicates that the main goal of planning is its implementation at the village and farm levels. Second, the center of planning and implementation is the village with all its farms rather than the individual farmer. Third, the family-type farm may be the most efficient for various types of culture and the most adaptable to the development milieu. Collective farming has generally not been a success because of the lack of individual participation. The structure of the moshav allows for a combination of individualism and cooperation.<sup>27)</sup>

John B. Cobb, Jr. and Herman E. Daly recently published a monumental book on a new vision of a global community, *For The Common Good : Redirecting the Economy Toward Community, the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Future*. An impressive cooperative opus between a theologian and an economist suggests "a community of communities." They provide one of most thorough visions for an alternative society based on the Whiteheadi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principles. "A community of communities" they envision is to decentralize the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of the government to a local level and to move toward a self-sufficient society,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socio-economically achievable.<sup>28)</sup> They contend that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will occur through decentralization of the economy. Their emphasis is on the economic dimension of reformation. Also, their idea underscores a theocentrism from a biospheric perspective.

The moshav is a viable, functioning system, and tongil Korea

can draw a few guidelines for forming such a semi-corporate community. First, the family is the basic and independent financial unit. A local community-centered system can share comprehensive, coordinated, and integrated agricultural or urban planning. The urban planning may range from child caring to job search and training at the loc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Second, the local community-centered system implements the planning. It includes sharing the tools and equipment of productions and reproductions. In an agricultural setting, the means of production can be tractors, combines, trucks, and other kinds of machinery. In an urban setting, this connotes sharing transportation (truck, bus, van), sharing urban housing, and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Third, such a community espouses all efforts of self-sustenance and self-government such as in "a community of communities." These efforts include supporting a co-op type of environment-oriented markets which sell local vegetables and products. In the U. S., "The average food item travels 1,300 miles from where it is grown to where it is consumed. Shipping a truckload of produce across the country costs up to \$4,500. In addition, a dollar spent on local foods circulates in the local economy, generating \$1.81 to \$2.78 in other business."<sup>29</sup> The purpose of the local community-centered system is not only to enhance self-sustenance, but also to support self-government with the vision of a new way of living. Economic self-sustenance elicits political self-government with the vision of a new way of living. Economic self-sustenance elicits political self-government.

#### IV. Eucharistic Theology

The Church has been a primarily religious community, delimiting its scope of fellowship and activity basically to the religious

realm. The Church should edify people to move toward a cooperative living community and should practice a corporative lifestyle. If the Korean church takes the Communion seriously, and if it takes its commitment to the advancement of the reign of God seriously, it needs to share our economic and socio-political activity together. The Church should be more than a Sunday community. If Christians share our eternal hope together, we can share our living together to materialize it.

The early Jerusalem Christians had “breaking of bread” daily in private houses(Acts 2:46). One of the reasons for “breaking of bread” daily was to support the needy. The act signifies a continuation and a reminder of the Lord’s Supper.<sup>30)</sup>

The Church is the eucharistic community of sharing faith and bread together. It is the community of belief – believing and living. To satisfy these two elements, the Church should exhort and exemplify a type of corporate living in this world. If we believe in the Eucharist, we should live out the Eucharist. That is, the Church should move toward a living-believing community rather than be just a believing religious community. Communal lifestyles of living have a long tradition in Christianity, particularly conspicuous in the monastic movement and diverse religious communities. As such a corporate lifestyle for celibates is optional, a semi-corporate lifestyle for the married should be optional in church life.

Since Martin Luther’s idea of the two kingdoms ruled Western society, the Church has retreated into the world of religion. For him, God has established two kingdoms, one ruled by the law and the other ruled by the gospel. It connotes that Christians should not expect the state to be ruled by the gospel, and rulers must not rule over the kingdom of the gospel. This idea of dualism has been imbedded in the civilization of the Western world and has

separated the realm of religious life from secular life.

This dualistic idea has created a strange phenomenon of the separation of the Christian kingdom and God's kingdom. For example, of the 350 million Latin Americans, 90 to 95 percent of the people consider themselves Christians.<sup>31</sup> Also 92 percent of the population in the Philippines are Christians.<sup>32</sup> But these countries are far from approximating the reign of God, suffering the most deep-seated injustice in the world. The injustice in Christian countries results from the dichotomy of believing and living. The theology of community endeavors to bind these two together. The dualistic traditional mission strategy must be read-dressed if the Church is earnest about the establishment of God's reign on earth.

The Church cannot afford to leave the matter of the whole world in the hands of rulers. It does not mean that the Church should be directly involved with the politics of the world. The Church, however, needs to have its vision of the future for the reign of God in its long range strategy of mission. Just waiting for God's intervention into history for establishing God's Kingdom cannot be an option for the Church. The church should concretely prepare for God's reign. It should radically shift its controversial theological theme of eschatology from "when the eschaton comes" to "how the eschaton comes."

In conclusion, one of the tasks of the Korean church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is to prepare the way of the reunified lifestyle by edifying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about a corporate living and by practicing it at the church level. A cooperative lifestyle is theologically essential and ecologically mandatory. A semi-corporate community is a viable one in tongil Korea.

The theology of community suggests that any Christian idea or

doctrine apart from community living is not Christian. The core of the theology of community is the communion and its embodiment is communal living. This communal living in the context of the Korea reunification constitutes a wholesome ecological community and an semi-corporate community. By envisioning this optional semi-corporate living at a local community level and by exemplifying its practice at a church level, the Korean church can build a bridge on the path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tongil Korea needs to be politically democratic, economically cooperative, and ecologically self-sustaining with a new set of measuring progress. □

\* Note \*

- 1) The Compact Edition o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2 vols.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I: 702
- 2) Ibid.
- 3) "Deci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Reform of the Economic Structure," (Adopted by the 12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t 1st Third Plenary Session on October 20, 1984), P. IV.
- 4) Lester R. Brown, "The New World Order", in State of the World 1991, p. 5.
- 5) Ibid.
- 6) Ibid., p. 6.
- 7) Lester R. Brown and Sandra Postel, "Thresholds of Change", In State of the World 1987, p. 9
- 8) Ibid., p. 14
- 9) Lester R. Brown and Christopher Flavin, "The Earth's Vital Signs", in State of the World 1988, p. 3.
- 10) Lester Brown and Christopher Flavin, "The Earth's Vital Signs", p. 4. Sharon Bagley et al., "A Gaping Hole in the Sky," Newsweek, 11 July 1988, p. 22.
- 11) C. Dean Freudenberger, Food For Tomorrow? (Minneapolis :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p. 51.

- 12) Eugene Linden, "Population : The Uninvited Guest," *Time*, 1 June 1992, p. 54.
- 13) Sandra Postel, "Denial in the Decisive Decade" in *State of World 1992*, p. 3.
- 14) Eugene Linden, "Population", p. 54.
- 15) *Ibid.*
- 16) Sandra Postel, "Denial in the Decisive Decade", p. 4.
- 17) Lester R. Brown, "The New World Order", p. 16.
- 18) Sandra Postel and Christopher Flavin, "Reshaping the Global Economy", in *State of the World 1991*, p. 188.
- 19) Brown, "The New World Order", p. 16.
- 20) *Ibid.*, p. 9. U. N.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21) *Ibid.*, p. 10. Herman E. Daly and John B. Cobb, *For The Common Good*, appendix.
- 22) *Ibid.*, p. 11.
- 2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acts About Israel*(Jerusalem : Information Division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85), p. 13.
- 24) *Ibid.*
- 25) Daniel Williams, "Capitalism Sprouts at Kibbutzim," *Los Angeles Times*, 22 June 1991, pp. A1, A16, & A17.
- 26) Maxwell I. Klayman, *The Moshave in Israel*(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0), p. 250.
- 27) *Ibid.*, pp. 250 – 253.
- 28) Herman E. Daly and John B. Cobb, Jr., *For The Common Good*(Boston : Beacon Press, 1989).
- 29) Sam Passmore, "Hendrix Turns to Arkansas Produce," *Arkansas Gazette* 10 June 1987.
- 30)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Revised by Cyril C. Richardson, Wilhelm Pauch, and Robert T. Handy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59) p. 22.
- 31) Esther and Mortimer Arias, *The Cry of My People*(New York : Friendship Press, 1980), p. 2.
- 32) *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1991*, p. 743.

## A Socio - Biography of a Theologian in the Divided Korea

David Kwang - Sun Suh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July 4th 1972 — 1992**

On July 4th, 1972, two decades ago, I was taking part in the American diplomats July 4th celebration on the U. S. Embassy compound when the American ambassador delivered the news about North-South Communique on the reunification of Korea. I would have no idea why this particular day was chosen by both North and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nor do I know whether we should celebrate this particular day when the wall of division falls down suddenly one summer. But I know most of you living in this country are coming from the celebration of July 4th weekend with mixed emotions particularly after the Los Angeles incidents only two months ago but with a high hope that the folks back home on the motherland will soon come together to live in peace in a truly independent and free country. Either by providence or by the history-minded planners of this conference, we are here together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July 4th Joint Communique Agreement of North-South Korea on our national reunification.

This is only to tell you that I am greatly honored to speak on our theological struggles toward peace and reunification of our motherland as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is scholarly

organization which is now youthfully come of age.

July 4th, however, in recent years has gone into low profile if not totally ignored in Korea. The American July 4th has gone into low profile in Korean scene since the increasing anti-American sentiments among the Korean students in connection with the Kwangju Uprising of 1980 and other political – economic issues.

The Korean July 4th has been nearly forgotten until the recent development of North-South dialogues, because the July 4th Joint Communique of 1972 has been exploited by the Park Jung Hee regime for the solidification of his military dictatorial powers. When the announcement of the agreement and rapprochement between the two hostile political and ideological entities was heard, almost simultaneously the louder announcement of martial laws and emergency decrees of Yushin Government was imposed upon the hopeful populace of the South. No sooner than we celebrated and welcomed the Korean July 4th announcement, we had to begin struggling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ial regim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Two decades before the Korean July 4th and two decades after, we have been ruled by the so – called ‘logic of division.’ With this logic of division the Korean war was justified. With this logic of division and war, the mutual hatred and aggression and military build up and foreign troop occupation and nuclear armament – all of these attempts on mutual annihilation have been justified. With this logic of division, the military dictatorship is unavoidable. And as soon as the July 4th agreement was announced, with this logic of division all form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the South was forbidden by the series of emergency decrees of the Park Jung Hee regime. With the logic of division, freedom of expression in academia or in the

press or even in the prayers said in the public worship services in the church was taken away. And the logic of division justified and reinforced the dominant ideologies of anti-communism and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s logic of division hardened the hearts of the people. We have lost the words to communicate with the other in theory and in gesture. The other is always enemy and has to remain as enemy. The stronger you express your hatred of the other, the more loyal subject you would become. This is true in the Christian communities. The stronger an anti-communist you become, you are the more faithful believers of the Christian religion. We preach from the pulpit every Sunday to love your enemies but with notable exception of brothers and sisters in the North. The logic of division is grown out of the culture of division, and the culture of division brewed the culture of hatred and mistrust.

#### **February and July 1988**

Many would remember the year 1988 as the year of Seoul Olympic. But a very few would remember that this was the year when the Roh Tae Woo government was inaugurated and even only a few would remember that in July (7th) President Roh announced that North Korea would no longer be considered as an enemy but as an ally to cooperate with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reunification. Only a few Christians around the world realize that in the last day of February of the same year, the member church delegates of 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unanimously adopted a historical document called "Declaration of the Churches of Korea on National Reunification and Peace."

The Declaration is a mission statement of the Korean churches – a Christian mission to care and heal the hardened and wounded

hearts of the Korean people with full of ‘han’ and suffering caused by the division. It is a theological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ideological and social struggles of the Korean people to live in harmony with basic human rights in a free and democratic, independent society. Doing theology in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present Korean history cannot avoid the question of division – performing the priestly role of healing the wounds of hardened hearts and broken bodies and the prophetic role of proclaiming the reign of God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And in the process of doing theology in the 1970’s and 80’s we could not escape from our people’s struggl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as we struggle for democracy we could not escape from the question of national division. Theologically we had to deal with the logic of division which has created the culture of hatred and mistrust.

As we, the drafters of the Declaration, approached the problem of division, we began with our troubled hearts. The division is certainly our political burden, a cross that we had to bear. The division is indeed a root cause of our mutual hatred and mistrust. The division is a structural, if not an original sin most pervasive in our cultural and political life. Our hearts are troubled because we must love our brothers and sisters but at the same time we are forced to hate the others. We are troubled because we must not trust the Christian brothers and sisters and their presence but we must also trust i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most difficult circumstances of human history. We have come to realize that without the change of hearts, a radical change of hearts, that is, without the confession of our sins of hatred and mistrust, we cannot approach to the mission of pea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We have confessed that our sin of mutual hatred and mistrust comes from the cardinal sin of mistrust in God. We have

confessed that “The Christians in both North and South have made absolute idols of the ideologies imposed by their respective systems. This is a betrayal of the ultimate sovereignty of God (Exodus 20:3 – 5), and is a sin, for the church must obey the will of God rather than the will of political systems(Acts 4:19).”

This confession of sins of division and mutual hatred, this call for repentance of the Christians is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Declaration which Christians and non – Christians alike would accept. They would say that the other side had sinned more, and the other side must repent first. And if the other side admit the sin first then we might think about our repentance. But without the change of hearts, the people have urged the political negotiation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We only hoped that in the process of talking and negotiating we might come to the point of a total change of hearts. However, on the contrary to our hope, as we proposed the reduction of arms and withdrawal of U. S. troops, our opponents argued that we cannot do that unless the other would become trustful. Nonetheless, this call for repentance of the sins of division is a theologically central issue toward reconciliation and for the trust building for mutual dialogue and peace negotiations. Otherwise, our govrnmental level talks would have become another war talks to subdue the other with power and scheme.

### **Basic Principles and Proposals**

In the Christian Declaration of 1988, with this call for repentance and confession of sins, as a sole representative of people’s cr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set forth five basic principles in pursuit of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irst three principles were those articulated in the July 4th Joint

Communiqué, namely ① independence, ② peace, and ③ great national unity transcending the differences in ideas, ideologies and systems. In addition to these, the Declaration added two more in the process of all dialogue, negotiation and action for reunification.

④ “a humanitarian basis”, namely “Reunification must bring about not only the common good and benefit of the people and the nation, but must provide the maximum protection of human freedom and dignity. Since both nation and people exist to guarantee human freedom and welfare, while ideologies and systems also exist for the sake of the people, primary consideration must always be given to humanitarian concerns and measures, which must never be withheld for any reason.”

⑤ “Minjung principle”, namely, “In every step of the discussion process to plan for reunification, the full democratic participation of all the people must be guaranteed. Most importantly, participation must be guaranteed for the minjung, who not only have suffered the most under the division, but who – despite the fact that they constitut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 have consistently been alienated and excluded from the decision – making processes in society.”

On the basis of the above five(5) principles, the Declaration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to the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

1. for the healing of the wounds caused by division, urged both sides’ to facilitate the reunion of the separated families, visitations and free choice of residence, etc.,

2. for the promotion of the people’s genuin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and movement for the peace and reunification, asserted that “neither government, North or South, has the right to exercise a

monopoly on information about the other nor to monopolize the discussion on reunification," and that freedom of speech for the discussion for establishing a policy of reunification must be guaranteed. And on the humanitarian basis of reunification movement of the churches, the Declaration urged the both governments to abide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

3. for a wider national unity of the Korean people, the Christians urged the both sides to terminate their mutual hostility and aggressive inclinations and proposed exchanges, visits and open communications as well as joint scholarly research in such areas as language, history, geography, biology and natural resources. Here the Declaration included the urgent needs for economic exchanges.

4. for the reduction of military tensions and the promotion of peace on the peninsula the Declaration proposed (a) a conclusion of peace treaty with a non-aggression pact which would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b)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troops and the dissolving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c) a parallel reduction in military strength, and (d) the removal of all nuclear weapons deployed on the peninsula or targeted in its direction.

5. for the realization of national independence, the Declaration states that it is imperative for the Korean people to protect their independence and self determination, "so there must be no outside interference or dependency upon neighboring nations or the super-powers in negotiations, conferences, or international agree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adopted the year 1995 as the "Jubilee Year", the 50th year of national liberation and the division of Korea setting forth

the "Great March toward Reunification," and urged the Christians at home and abroad to be united in this arduous movement.

### The Berlin Walls and Barbed wires of DMZ

The Declaration was immediately responded with welcoming notes by the (North) Korean Christians Federation but with hostility and criticisms by some of the conservative wing of the member chuches. It seemed that the government decided to ignore the document. In April of the same year(1988) the world ecumenical body came to Korea showing its solidarity with the 'Jubilee movement' which the Korean church had inaugurated. And in November of that same year, Christian delegates representing (North) Korean Christians Federation and (South) 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met in Glion, Switzerland to discuss Christian Churches' commitment toward reconcili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respective churches' work for reunification. In the meantime, Christian delegates representing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U. S. and Candadian Churches as well as Japanese Churches visited North Korean Christian communities, bringing the welcomming news about house chur-ches in Pyongyang and the building of Bongsu Church and the scenes of worship services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in three years' time(between 1988 and 1991), Christian leaders of North and South met in Washington D. C. (April, 1989), in Tokyo(July 1990), in Glion, Switzerland for the third time (December, 1990) and in Toronto, Canada(October, 1991).

Of course we do not forget the effort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 in North America to bring the North Korean Christian scholars to its annual meeting in May 1991 for a dialogue with South Korean Christian Professors Fellowship

members. Professor Park Soon Kyung was one of the participants in that meeting and was later imprisoned for her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She was accused of 'glorifying' the Juche ideology of the North as she was making comparisons between Christian theological terms with the North Korean ideologies.

However, the South Korean Christians were greatly disappointed when the visitation of the North Korean Christian leaders to Seoul for the KNCC's 1992 General Assembly Meeting in February was not materialized. It was a firm agreemen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Christians at the third Glion meeting in Switzerland in December, 1990 that the Christian Meetings of North and South will henceforth meet in Pyongyang and Seoul alternately. Instead, a South Korean local presbyterian minister, Kwak Sun Hee was invited to visit the North Korean Christian community last fall (1991) and General Secretary of KNCC, Kwon Ho Kyung went to visit the North just last spring (1992). But there is no prospect that the Christians of North and South will meet in our own land for common worship and for the Table Fellowship. We are still hoping that in our next August International Prayer Service for reunification North and South Korean Christians could exchange delegates to Seoul and Pyongyang.

As we declared the year 1995 our Jubilee year for the second liberation and reunification and joined the Great March toward the Jubilee Year, the world around us has been changing and mood of the country for the movement toward reunification has also been changing.

Internationally : ① The end of Cold War, ② Implos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③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unification of Germany, ④ The fall of socialist countries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 ⑤ the explosion of the Gulf War.

Inter-Korea relationship : ① Opening of the prime minister level conference and exchange of agreement on peace, reconciliation and exchanges, ② Two Koreas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③ Talks between the North Korea and Japan, ④ IAEA inspection of North Korean nuclear plants and U. S. proposal for the North-South mutual inspection.

### Some Hard Questions at the Boarder

A penultimate question is : Would the barbed wire across the 155 miles DMZ fall down like the Berlin wall, suddenly one summer? But the most immediate question is whether Korea will and should be unified like Germany. Some would argue that because ① South Korean economy is stronger than that of the North and can afford the cost of reunification, ② the fall of socialist allies of the North, and ③ the idea of federation, namely 1 nation and 2 systems, would not work in the homogeneous Korean situation, ‘absorption’ of the North by the South is only a matter of time of course there are scholars who argue that Korea is historically and culturally different from Germany : Germany fought and lost the war, but had no internal war such as the Korean War ; and until the last century it was governed by a federal system, etc. And most recently they argue that the cost of reunification is too dear to risk. Furthermore, the North Koreans are vehemently against the reunification in German model.

In this situation, and in response to this dilemma, the participants of 1991 Christian Conference on the Jubilee in Seoul declared that the ecumenical body would oppose any form of ‘absorption’ either by the North or the South. The participants from home churches and abroad agreed that the unchanging paradigm for reunification of Korea is peace with justice and freedom.

This is, as I see it, an another affirmation on the ‘peaceful coexistence’ of two Koreas. It is to honor and respect mutually the integrity of the other system. And it is to render economic and technological assistance for the development and welfare of the ‘weaker’ side. All of these would be possible only in the atmosphere of mutual trust and reconciliation :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exchanges of people and scholarly research, reduction of armed forces. International peace can be maintained like in the personal relationship when justice relation of mutuality is established. And mutuality is obtained when two sides would become equally matured. The South Koreans would check the temptation of becoming complacent about the “victory” of the capitalistic system and urge the political development toward more democratization – releasing the political prisoners and abolish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other measur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obstacle to the firm establishment of peace and justice in the South Korean society. By the same token, the Christians and intellectuals in the South urge the North Korean social transformation which would recognize the crisis of former socialist countries in central and northern Europe. We would submit that only the democratic reforms would overcome the present crises which communist world had encountered in past few decades.

Another hard dilemma which we are facing now as we review and look back on our struggle in the reunification movement is whether we want reunification or division with ‘peaceful coexistence’. In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ecumenical community in the South was struggling to push and pull the nation toward the urgent need for peace and reunification as well as for democratic development. It was a struggle against the force of ‘anti-reunification’. Now, the situation has changed. After the

end of Cold War was announced and the Berlin Wall was fallen down, a new confidence in reunification by ‘absorption’ became most apparent. A new confidence might have overcome the so-called ‘red complex’, a fear for communism, and propagate a superiority complex over against the North, economically and ideologically. And it is quite obvious that the U. S. is behind the South Korean scheme toward the ‘absorption’ model of reunification, aggressively interfering with the North-South dialogues and the North Korean and Japanese rapprochement, etc. The argument looks as though you need a formula of peaceful coexistence when you have a strong and dangerous enemy on the other side, but when you have no strong counterpart with no strong allies, it is open to invasion and conquest economically, politically and even militarily. But it is our ecumenical churches’ stance to oppose such “absorption” model of South taking over the North, and propose for the time being, a true sense of “peaceful coexistence.” But we are not against the reunification as such, but against political or economic absorption and conquest. The choice is not between reunification and division, but between the different processes toward reunification.

The third dilemma which we face at present as we struggle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mutual trust has to do with the national integrity and independence. On the one hand it is a matter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self-determination to keep and develop the nuclear technology for whatever purpose,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 crucial matter to keep the destructive nuclear power in check. It is our national pride to have the skill and know – how to develop the nuclear power in our hand, either in North or in South. This is the matter of nationalism and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and self-determination. But at the same time we must avoid the nuclear holocaust. This is the

matter of peace and national survival as important as nationalism, sovereignty, national independence and self-determination. For it is the question of survival of the Korean people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As we struggle to achieve our national goal for reunification on the basis of mutually agreed policies and principles, more and more we come to realize that we cannot maintain status quo but we need a total transformation. We cannot reach the state of reunification with our present systems and life styles and cultures and ideologies and religions. As Vaclav Havel, the President of Czechoslovakia, said, "sooner or later politics will be faced with the task of finding a new, postmodern face."(from a speech given at the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Switzerland on February 4, 1992, printed in the New York Times, March 1, 1992). A person with a new, postmodern face is a free person confident in her and his own subjectivity who trust individuality of the other as his/her own. A person with the postmodern face would question the modern faith in generality, objectivity and universality, but trust more in particularity, subjectivity and difference. And as President Havel puts it, this person does not believe in ideology and sociological statistics, but in real people. "He must trust not only an objective interpretation of reality, but also his own soul ; not only an adopted ideology, but also his own thoughts ; not only the summary reports he receives each morning, but also his own feeling"(from the same source).

When Jesus came to Galilee,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God, he said :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repent, and believe in the Good News"(Mark 1:14, 15). Without the change of heart of the people on both sides, that is, without a total transformation of our respective societies, we cannot expect to overcome the present state of national division

and mutual enmity. A repentance, a change of heart, a transformation in belief systems, life styles and ideologies and political systems would only open a way to new possibilities, different perspectives and new models and paradigms. Thus, our movement for reunification is not only a search for some political arrangements of getting the separated people together or of drawing up a new map or a new flag, but it is a movement of heart, a spiritual movement. In this sense it is a Christian mission to change our society to bring the reign of God in our social and political life together. □

# National Consciousness and Globalism

-Toward an Ideological Synthesis for Unified Korea and Beyond

Han Shik Park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eorgia

## I. Purpose of the Paper

In the wake of the post-Cold war era, inter-Korea relations have experienced profound transformations leading the world to anticipate national reunification. President George Bush of the United States expressed his optimism on the occasion of a state visit to South Korea that "the day will inevitably come when this last wound of the Cold War struggle will heal..... Korea will be whole again."<sup>10</sup> This optimism is shared widely not only by the world's Korea watchers but by the Koreans themselves. While many suggest that Korea will be reunited following the German precedent, some believe that the Korean case is so fundamentally different that it will follow a different course. The present paper is not intended to dwell on the controversy, nor is it designed to add yet another speculative scenario.

This paper is written on the premise that a meaningful and lasting reunification will not be viable without a consensus building on political belief systems that encompasses the political cultures of both communities. This premise is predicated upon the realization that the two systems in either side of the DMZ are not expected to undermine the very survival of their political

systems themselves along with their bases of legitimacy. The successively held inter-Korea talks at the Prime Ministerial level and all other conciliatory gestures have been managed within the boundary in which each of the ruling regimes expects to benefit from these maneuvers ; but as soon as either side faces unwanted development tilting against its interest or toward the other's favor, conciliatory gestures will be disrupted indicating that the negotiations are guided basically by a zerosum game. Thus, this mutually exclus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gimes on the peninsula must explore a shared value system designed to facilitate a 'positive-sum' relationship whereby both benefit from their interactions.

In light of the above, this paper attempts the following : ① to discern the nature of the political-historical milieu that provides the context in which an ideological synthesis must emerge ; ② to ascertain the contrasting patterns of political cultures exhibited by the two Korean regimes ; ③ to examine the global environment to which a national identity and a new ideology must adapt itself ; and ④ to offer a normative construct that might lay the foundation for a new ideology needed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beyond.

## II. The Erosion of the Cold War World Order System

It is now evident that the era of Cold War politics has ended. But there seems to be little consensus on the causes of such a change. The demise of the Communist bloc cannot be interpreted simply as the victory by the capitalist in the ideological warfare ; a more direct cause might have been in its inherent inability to meet the basic needs and rising expectations of the people. Furthermore, the demise of some socialist system must not lead us to

the conclusion that capitalism is an ideal ideology to guide human behavior and the course of social development. Two facts remain undisputable : First, there are oppressing problems being developed in the advanced capitalist systems themselves including human and social degeneration as well as ecological deterioration ; Second, the socialist idea of equality and its notion that each human being is entitled to basic needs thus distributive justice is still sound in some Third World socialist systems where socialism has been adapted to indigenous conditions including the Asiatic systems of China, Vietnam, and North Korea. These factors notwithstanding, however, the global community has created an ideological vacuum where human values and belief systems are rapidly becoming irrelevant to contemporary politics. The process of value neutralization in human conduct has been accelerated by the myth of science on the one hand and the universal human desire for material affluence on the other. Indeed, the contemporary human being seems to be guided by material self-interest rather than by any value system. In fact, the concept of 'rationality' is perceived as being value neutral as the concept is defined as the pursuit of interest maximization. Considering that classical philosophers regarded self-interest pursuing behavior as irrational and altruistic(benevolent) behavior as rational, the drastic conceptual transformation speaks a great deal about modern civilization. The contemporary value neutrality syndrome may have been a powerful underlying current behind the erosion of socialism and the age of ideology itself. Under the market culture, we are expected to behave in a highly predictable way in which choice making is dictated by the market mechanism of cost/benefit assessment, and there is no overriding value that supersedes material gain. In this sense, human beings may have become little more than physical objects and their behaviors are

explicable by the law of physics.

In this ideological vacuum, the boat carrying the human species has lost its canvas, and humans themselves are making their journeys without a map. The unguided journey is destined to end in a catastrophe as all the ill-symptoms in the health of ecology, social systems, and human minds are indisputably heading toward a self-inflicted extinction.<sup>2)</sup>

### III. Ideology and Human Aspirations

An ideology functions as an institutional means intended to cope with human problems and to realize human aspirations. It induces certain values and conducts, while discouraging others ; it provides legitimacy for certain forms of governance while prohibiting others. In other words, an ideology is a code book that any political system must have, and it should therefore be the crystallization of collective aspirations in the membership of society. Thus, as long as there are human aspirations for development, there should be ideology. Then, what are and what should be today's human aspirations so important that they must be incorporated into a new ideology that must emerge from the ideological vacuum? This question has to be addressed before we attempt to prescribe an ideology for the specific case of Korea.

Human aspirations may be perceived in terms of two categories : problem solving and social engineering.<sup>3)</sup> Problem solving involves the identification, diagnosis, and treatment. Contemporary problems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 among them are universality and human degeneration. They are universal in that all peoples in the world share similar problems as evidenced by ecological deterioration, threat to global security by the proliferation of destructive weapons, and degeneration of social struc-

tures. These problems pose a certain threat to the very survival of human species itself. However, solving these problems is not the ultimate achievement of human aspirations. Society must be engineered in a normatively desirable direction toward the realization of human development, social harmony, and global peace.<sup>4)</sup> The two challenges of problem solving and social engineering are not necessarily sequential; that is, one may not wait for problem solving to be complete before venturing social engineering. Social engineering can in fact be an effective strategy to solving certain problems.

To the extent that we have a common fate as fellow travellers on this planet, Korean problems cannot be isolated entirely from the problems of the global community, although they may have their unique additional problems. Indeed, the Korean peninsula seems to be the microcosm of the global society as far as the diversity and intensity of the problems are concerned. The two Koreas combined might represent a range of diverse life situations that encompass the world itself. Thus, a key to solving the Korean problems might be instrumental to developing ideas and strategies to address the world problems themselves.

#### IV. The Plight and Character of the Korean People

In this century, the 70 million Korean people have gone through a great variety of personal and national experiences. Politically, they have lived through a dynastic rule, a most thorough exploitation by colonialism, a division of the country along with separation of families in the magnitude of 10 million, one of the bloodiest civil wars in human history, unstable democracies in the South and a most centrist xenophobia in the North for nearly half a century resulting in mutually incompatible sets of

values and beliefs as well as political systems. No other people in the world have experienced such a profound historical diversity. Economically, the people have experienced extreme poverty having to suffer routine starvation in every spring, feudal as well as colonial exploitations, and finally relativ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recent decades. A variety of economic systems have been experimented with on the Korean peninsula ranging from an intense form of capitalist competition to an extreme kind of planned economy. In the arena of social life, the Korean people have experienced the disruptive process of urbanization, the transition of family institution, internationalization in the South and indigenization in the North. Culturally, the diversity of experience is even more acute. As some say, each of the cultural systems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Christianity has exhibited even more extreme manifestation in Korea than it has in the society of its origin : Korean Confucianism being more confucian than that in China, Buddhism is more buddhist than one in India, and Christianity is more christian than it is in the West. In this way, Koreans have been deeply influenced by ideas and values that are so fundamentally contrasting and divergent. The two ideologies being advocated and practiced today, Juche in North Korea and democracy in the South might well be as diverse and different as any set of ideologies that have existed in history.

While diverse experience exists in both the physical and metaphysical arenas, what is truly intriguing is the fact that the heterogeneous attributes in the society and culture have seldom generated serious confrontation or chaotic disunity. Whith the exception of the untested case of Juche versus South Korean democracy, almost all the contrasting forces have coexisted harmoniously : There has been no religious confrontation although the Buddhist, Christian, and Confucian populations are nearly

equally matched in numbers. It will not be unusual for a Korean to participate in Confucian rites for ancestor worship, marry in a Christian wedding, and be buried by Buddhist rituals.

Paradoxical to the heterogeneous national attributes discussed above is the fact that the Korean people share similar national characteristics in such salient areas as language, race and ethnic identity. Whereas the dividing attributes are of the kind that have been articulated rather than ascribed, the consensual characteristics cannot be altered by will of the people or government policies. It is therefore vital to explore avenues in which these common national characteristics can be exploited selectively to cultivate national consciousness and ideological foundation. The process of identifying and selecting consensual nat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guided by ideals and aspirations of the Korean people. Then we must first address the question of what ideals and aspirations might be established. What ideals and aspirations can one prescribe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 era of globalism?

First and foremost ideal has to be the restoration and/or preservation of human dignity. Thus, the aspiration of creating a community in which human kind is dignified is not limited to the Korean people but is common to all mankind. As alluded to earlier, human dignity requires the material condition of basic needs, the social condition of belongingness and opportunities, and the political condition of choice making. One aspires to have sufficient food, adequate shelter, and security from political and environmental adversities in order to ensure physical survival. One must also aspire to secure psychological comfort by belonging to other human beings by gaining access to economic and social opportunities. Finally, human beings must claim the position of masterhood over their natural,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Secondly, in a world so torn by artificial parameters such as national interest and ethnic and ideological differences, one must reach for peace. Ideally, peace must refer to something more than the absence of conflict. It must mean harmonious coexistence in which relationships are guided by a positive game. The tormented history of Korea makes the Korean people especially long for meaningful peace. In fact, there might not be another people that has suffered as much from conflict, division, distrust, and the anxieties of a zero – sum game. This experience may richly qualify them to be able to articulate ideas of peace and construct approaches toward its realization.

## V. The Korean National Identity : A People of Contradictions

Today's world political climate shows a resurgence of ethnic and national consciousness as evidenced by the republics of the former Soviet Union, Yugoslavia, and the Kurds of Iraq. Most multi-ethnic systems are showing signs of rebellious and at least disconforming behaviors toward their traditional political centers. This tendency suggests that ethnic and national groups may show the appearance of assimilation into the predominant political culture during the Cold War era but the disguised appearance can be unveiled as the externally imposed suppression itself is lifted.

A nation, unlike a political system, is an “imagined political community” which provides a civil society with cohesion and psychological integration.<sup>5)</sup>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belongingness can be so strong that personal sacrifice including life itself is often absorbed by members of the nation. Members have mysterious and compelling attachment to the nation in such a manner that any behavior or attitude in defiance of group norms

is condemned. The degree to which a people has an inward sense of cohesiveness is determined by a number of inherent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 Among other factors, ethnic homogeneity, longevity of national history, and external hostility might be included as the most crucial determinants of national consciousness.

The Koreans ar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homogeneous peoples in the world; in fact, The Book of Rankings compiled by George Kurian ranks Korea the highest of all nations on the ethnic homogeneity index.<sup>6)</sup> It is not only the ethnic make-up of the Korean people that is homogeneous, but their norms and behavioral patterns tend to be uniformly exclusive as well. This tendency is richly documented by overseas Korean who have maintained cultural and ethnic purity while living abroad for generations often forming 'Korea Towns' or ethnic regions. They insist on using their language and preserving cultural values and life styles. One might note in this context that Koreans who have lost or are unable to attain language proficiency in the 'mother tongue' are severely and unqualifiably condemned. Furthermore, to live in Korea as a foreigner is widely considered to be most difficult because the Koreans are seldom prepared to accept any foreigner as one of them.

These ethnic characteristics coupled with the longevity of the nation as a cohesive entity have provided the people with an unwavering sense of belongingness.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Korean history is marred by successive domination by superior powers surrounding the peninsula has reinforced the inwardly sentiment of national consciousness.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 Korea has had to survive the hostile environment due to its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has helped the people learn to be adaptive to changing and different environments. The seemingly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of salient national consciousness and adaptability may have resulted in generating a form of dualism : unwavering egocentrism and at the same time accommodating (and some times submitting to) foreign influence. Thus, Korean politics has exhibited inconsistencies between appearances and contents : democracy in institutional appearance and authoritarianism in the behavioral content ; absolute loyalty in appearance and calculated opportunism in the cultural content.

The 'imagined' nation, Korea, therefore, can be said to have earned a set of characters through her history, and they can provide the underlying foundation upon which a national ideology might be formulated. These characteristics as established above include a series of seemingly contradictory attributes : diversity of experience and homogeneity of ethnicity ; metaphysical quality and practical rationality ; collectivism in appearance and individualism in content ; exclusiveness toward foreign objects and accommodation of alien influence. Because of the extreme level of these diverging attributes, extremely contrasting patterns of behavioral and institutional manifestations have been different life situations in the two Korean communities.

### **1. Collectivism versus Individualism**

The Korean culture stemming basically from Confucianism is inherently collective-oriented. Hedonistic selfishness is condemned and collective interest supersedes personal interest. Although industrial and urban development may have destroyed collectivism in its purest form, values of collectivity, be it the family or state, are still placed above individual interest as a matter of moral imperative. However, the thorough saturation of South Korea with capitalist and market culture has produced what is referred to as the "rational" actor who is essentially an

individualist. The rational actor in South Korea has been instrumental to economic expansion through exploring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law of survival of the fittest has favored the 'rational actor' who is self-centered and aggressive in pursuing individual interest in South Korea. Yet, one should note that no matter how 'rational' the actor may be, he/she cannot avoid cultural condemnation if the selfish pursuit of interest undermines collective interest of the family, social and cultural organizations, and the state. In other words, the context of South Korean development may have steered the individual to behave for self-interest, but it failed to eradicate the normative ideal of collective good or As a result, a sort of dualism has evolved in the South Korean 'personality': collective orientation as an ideal value and hedonistic individualism as a practical guide.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has never departed from the Confucian collectivism as she has not been exposed to the kind of capitalist and market culture in which 'rational' behavior is induced. Individual interest should never deviate from state and societal interest; in fact, individual worth is determined by the extent to which he/she makes contribution to the collective good. According to the Juche idea, individuals can overcome limitations and become perfected by attaining the 'social-political-life' of the state in a similar way that the Christian individual achieves salvation and eternal life through losing oneself in God.<sup>7)</sup>

## **2. Ethnocentrism versus Internationalism**

As discussed earlier, the Korean people by virtue of their ethnic homogeneity tend to be closed-minded and exclusive. Yet, the fact that Korea is geopolitically vulnerable to external influence has made the people more adaptive and accommodative.

Thus, the two opposing predispositions have been instilled in the political cultures of North and South Korea whereby the North has formed its orientations centered around ethnocentrism, while the South has fostered internationalism. The contrast is extreme and casually felt by visitors of both societies ; North Korean Juche is based on a de facto recognition of racial superiority as evidenced by the notion promoted in North Korea that human history has originated from the ancient land of Korea and its people have been destined to keep human civilization from falling into the ‘yoke of imperialism.’ As the emancipator of all the oppressed peoples of the world, the ‘Great Leader’ is claimed to be a global leader, indicating that his immediate people, Koreans, have the uncommon quality of providing the world with such a leadership. This ethnocentrism has been promoted effectively by the regime through policies of information control and manipulation of political socialization of the masses.<sup>8)</sup>

South Korea, by contrast, has been subjected to intensive and extensive foreign influences. In terms of the spiritual life, Western religions of diverse hues have settled in South Korea ; materially, products from various origins of the world have found their market in Korea ; political institutions of all kinds have been transplanted from other countries. Ideas and values have been transferred to South Korea through the proliferation of foreign publications.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come to South Korea leaving some wrinkles in the society and culture. A multitude of international events have been convened not only in the area of sport such as the Olympics but in the art and commercial arenas as well. All these combined have changed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people in a profound manner, and they have learned the hard reality that Korea is merely one of many countries and many cultures, a humbling experience that induces

internationalism.

### **3. Spiritual Determinism versus Material Determinism**

It is truly ironic that Marxist materialism has led the North Korean ideology to a sort of spiritual determinism, while Western capitalism has become instrumental to the practice of a kind of material determinism in South Korea. One might object to this blunt observation, but fact remains valid that material power has become almost omnipotent in the South, and the Juche idea of the North centers around the notion that human spirit has the power to determine the fate of man and history.

Juche claims that the human being is uniquely different from other species in that it is only man that has chajusong, the ability to manage one's life independently of material,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In fact, there is little resemblance between the Marxist perception of man and society, on the one hand, and Juche's conception of human nature and its relationship to the material forces of production and the symbolic environment of the society, on the other.<sup>9)</sup>

Considering that confucian values tend to favor the spiritual and human dimensions of social life, as opposed to the material success, North Korea's Juche might be considered relatively more consistent with traditional culture, but whether the desired national consciousness should be traditional or modern is a debatable question.

### **4. Traditionalism versus Modernism**

With the risk of over-simplification, one can say that North Korea is past and inwardly oriented, whereas South Korea is more future and outwardly oriented. When the North Koreans compare their life condition, they tend to compare their present

situation with their ancestors' rather than other societies. Visitors to North Korea invariably develop the impression that the atmosphere of the society has not changed from the time of national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The prevalence of anti-Japanese sentiment, the exclusive use of the Korean characters in all publications, the clothes people wear, and popular literature and arts are all oriented toward traditionalism and nationalism.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is motivated toward modernization which often translates into Westernization. The streets of Seoul and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in South Korea show remarkable resemblance to the manifestations of Western societies. What is traditional is often regarded as being backward and underdeveloped to the extent that modernization tends to be defined in terms of the eradication of traditional values and ways of life.

In search of a new national consciousness, one must realize that not all traditional elements are underdeveloped. By the same token, one must also realize that not all Western or modern elements are corrupt or inhumane. Here, one must exercise a great deal of caution in choosing what is worth preserving and what is worth adopting. The exercise of this caution can only be possible with a normative conception of a desirable ideology.

## VI. Normative Values and Ideas for a New Ideology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re is national consciousness surging throughout the world in this post-Cold War era, the global community has clearly become an indivisible and integral single unit. The most dramatic development in this respect is the emergence of a global market in which national boundaries are becoming obsolete. Needless to say, the human species share one ecosystem

on a planet which has shown signs of deterioration beyond recovery, and we are forced to accept a common fate in matters of security. In short, the global community has emerged and the extent of its interdependence is growing. No nation can be a viable member of the world system without being assimilated into and becoming an integrated part of the global community.

When a community is formed as in the case of the formation of the global community, cultural norms and values are simultaneously articulated. A culture is the symbolic expression of patterned relationships which emerge in the process of community building. Then, what are the norms and values that emerge from the formation of the global community? In other words, what is the nature of the global culture (globalism) in the context of the contemporary global society?

The primary actor in the global community is the individual,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body politic. In fact, sovereign state will become increasingly obsolete as individual members of the global community find alternative functional entities that maintain cohesiveness and solidarity. One of such entities is the ethnic group. Ethnic and national consciousness has surged forcefully following the decline of the Cold War politics as evidenced by the republic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in Eastern Europe. The impetus underlying German reunification might also be seen in light of the resurgence of national consciousness. Societies with ethnic diversity are expected to experience turmoil due to their claims for distributive justice as was witnessed in the racial riot in Los Angeles in April – May 1992. As ethnicity is an ascriptive quality, ethnic animosities and mutual disagreement cannot be settled easily through bargaining or negotiation. What is demanded by ethnic minority groups is not limited to distributive fairness but it involves a claim to human dignity. Human

dignity on the part of the individual requires the universal and inalienable human rights, among them are the rights to life and choice. For a set of good reasons, ethnicity has been undermined as being insignificant or even irrelevant for the last a few decades. The Cold War order was based on the confrontation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both of which were in defiance of ethnicity. Capitalist classification of people was based on achievement in competition, and it distinguished the achievers from the non-achievers ; whereas Marxist Socialism classified population into classes. In either case, ethnicity had no room to stage its legitimate place in the world.<sup>10)</sup> But with the changing world order, ethnicity has found a new light in the growing global community. It is in this historical context that the issue of ethnic identity and national consciousness will find a rightful place in the politics of reunification of Korea.

Given the fact that highly sophisticated weapons are already in the possession of undetermined and unidentified hands, and weapons proliferation will continue to be at an explosive pace, and the human species is at a crossroad : If we fail to solve the ethnic and national problems, humans are indeed doomed. As observed above, any effort to resolve ethnic problems requires more than bargaining or negotiation which is meant for only cases of disagreement on the allocation of quantitative values. Viewed from this perspective, one might note that it will take no less than a miracle to expect a negotiated settlement between the two Korean regimes. What is needed is not negotiation but genuine efforts for peacemaking.

Negotiations may be useful for the postponement of conflict but it itself is not a process of peacemaking because peace is more (other) than the absence of conflict. The concept of peace (or any other concept) should be defined in terms of what it is

rather than what it is not. Therefore, to define peace casually in terms of the absence of conflict is wrong. Conflict resolution may be necessary but it is not what peacemaking is about. Peace refers to harmony in which diverse parts find ‘oneness’ through the perfection and coordination of the constituent parts. In this case, each of the parts becomes better off through overcoming its individuality and becoming integrated or assimilated into the whole. A perfect analogy may be made in musical harmony. Upon painstaking trials and learning during rehearsals, different musical instruments in a symphonic group will be able to produce a harmony of ‘oneness’. Toward this creation, each part has to perfect its function not in isolation from others but in coordination with them. This coordination must avoid domination by any part but find a rightful place in the totality. The conductor’s job here is to envision the state of harmony and induce each part toward the realization of the vision. The conductor in this case is analogous to political leadership. The leader is one who interprets the music (composition) and help the community of musicians in pursuing the realization of the vision. In this case, the vision is an ideology. an ideology in today’s context needs to be globalism.

In short, globalism is an idea in which human development at the individual level and peace at the collective level are promoted. In view of the contrasting national characters as exhibited by the two Korean regimes in the context of globalism, what then ought to be the direction in which a new ideology may be formulated, an ideology that might not only facilitate the process of national integration but could contribute to the goals of a peace-making global community? In this regard, one might prescribe the nature of national consciousness for the Korean people in terms of what it should not be and what it should be.

### **1. From Domination to Accommodation**

Desires of one system should not be imposed on the other in an attempt to dominate the other. As clarified in advancing the concept of peace, domination has no place in the pursuit of integration through harmony. There may be values offered by either of the regimes in Korea that might be more conducive to the aforementioned globalism but they must be legitimized as values rather than as means of domination. Despite the appearance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regimes on the peninsula in the post-Cold War politics, it is undeniable that neither side has ever expressed willingness to compromise its insistence on being righteous vis-a-vis the other side.

### **2. From a Zero-Sum to a Positive-Sum Game**

As clearly evidenced in the notion of peace, a harmonious relationship should facilitate mutual adjustment and reinforcement. By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through integration, each of the two sides must expect to be better off than the status quo.

The reality in the history of inter-Korea relations is that each side has sought its basis of legitimacy in repudiating the existence of the other, thus the relationship being one of mutual exclusiveness or a zero-sum game.<sup>11)</sup> Conversely, accepting the other side's proposals is automatically construed as a defeat, and any proposal when it is originated from the other side is to be habitually rejected regardless of the content of the proposal itself. This parasitic mentality must be cured if there is to be any progress toward national integration.

### **3. Basic Needs as a Condition of Human Dignity**

Any ideology to be persuasive should be founded on the uni-

versal value of human dignity. Human dignity, as alluded to earlier, involves at the very minimum the right to basic needs. No national consciousness or political ideology can be justified if it defies the very physical existence. One must live first before pursuing any other component of dignified life. For this, one must insist on the production of sufficient food and shelter as well as security. Whether one might pursue self-sufficiency or look to other systems to obtain these basic requirements is an important question. In this regard, there seems to be a sharp disagreement between North Korea's Juche and South Korea's ideas for modernization. It would seem that self-reliance to the extent be possible without curtailing productivity and resource expansion might be a meaningful goal for any system.<sup>12)</sup> This is because one should be able to make decisions guiding one's own behavior.

#### **4. The Right to Choose and Human Dignity**

As human beings cannot find dignity without securing certain autonomy from not only the physical world but from social and political capricious manipulations, one might insist on the choice right. Choice making should be what human behavior itself is all about. If a person behaves only in accordance with someone else's plans, desires, and preferences, such a person is literally called a slave. To the extent that the life of slave is not consistent with human dignity, the right to make choice must be regarded as a requisite for a dignified life. Choice making requires among other things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s, information about them, preference ordering on the part of the chooser, and the absence of political restrictions on choice making behavior.

Thus, the range of alternatives in terms of both their quantity and the qualitative diversity must be maximized. This means at

least that diverse ideas and ideologies, as well as social organizations and cultural associations, should be protected and even promoted including those critical of the political establishment. Furthermore, extensive and unrestricted flow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alternatives should be insisted in our search for a new ideology.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have ample room for improvement in this regard, and the monolithic system of the Pyongyang regime becomes especially vulnerable to this criticism.

##### **5. Distributive Justice**

The right to choice making can be severely undermined by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as well as political power. In fact, a desirable ideology should ensure a broad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values not only for choice making but equality itself. One should not forget that socialism may have faltered seriously in recent years but the very value of equality advocated by the same ideology should not be discarded, for without economic and social equality human dignity itself becomes meaningless. Yet, one should not be naive enough to expect a perfectly equal society, nor should one consider such a society even desirable. Then, how may the extent of inequality that is allowable be determined? We will turn to this question later. For now, as we compare the two Korean regimes, one will be struck by the sharp differences in patterns of distribution.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egalitarian systems in the world, at least measured by indices of income distribution by household or occupational categories; and South Korea suffers from an increasingly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due in part to uncontrolled land speculations. Income discrepancies and a certain degree of economic inequality might be conducive to healthy competition

but distributive inequality should be contained within the limit of not provoking social injustice.

## **6. The Achievement Society**

The question of “allowable” degree of inequality was raised above. The rationale was that it may facilitate healthy competition and promote work ethics through positive incentives as the case has been widely used in defense of free market and capitalism. Yet no viable definition of the threshold has been persuasively presented. One definition being offered here is that inequality should not be inherited and, by the same token, the structure of inequality in a society should be changeable by the dynamics of individual achievement. When distributive injustice, thus social and human injustice, is immune to individual achievement, it constitutes a form of “structural violence” threatening the very stability of the regime. Thus, an ideal ideology should incorporate in itself a distributive mechanism whereby economic and social rewards are based on achievement and social contribution rather than ascription and personal connections. In this regard, both Korean regimes seem to be seriously deficient. The Koreans are inherently a homogeneous ethnic group minimizing ascriptive differences in order for an achievement based regard system to be made effective.

## **7. The Environment**

Human dependence on the natural environment is unavoidable. Yet it has always been a human aspiration to expand the ability to alleviate the adversities of nature. In fact, technological development itself has largely been and should continue to be geared in the direction of ‘controlling’ the natural environment without destroying it. Unfortunately, today’s technologies are

seemingly designed to promote human leisure (or perhaps laziness) and ‘conquer’ (destroy) the nature’s ecosystem. To this extent, technological evolution has been misguided. Ironically, it is the technologically and industrially developed societies that contribute to a greater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 cursory comparison of the two Korean regimes would lead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the North that has been more successful in avoiding environmental decay. However, it is of vital importance for North Korea to make conscientious efforts to avoid ecological deterioration as it pursues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whereas, South Korea might shift its policy from indiscriminate industrial growth to a comprehensive environment policy.

#### **8. Institutionalization**

The simple fact that a person’s longevity has an absolute limit and a society or political community endures beyond the human life span is often forgotten. Laws and principles guiding a society must not be designed to satisfy any individual’s personal ambition. When principles and legislative ideas are conceived, they need to be centered on the life of society and must be future oriented. In this sense, laws and guiding principles must be autonomous from any specific individuals. Instead, patterns of government or relationships ought to be institutionalized, as opposed to be personalized.

Koreans are notoriously incapable of distinguishing principles and ‘ideal types’ from concrete cases in which specific persons are involved. For both Koreas and their people in general, laws are made to rationalize and justify individual persons or empirical situations of their choice. The fact remains that each of the leaders (mostly presidents) of South Korea has changed the state’s constitution itself in order to accommodate his political ambi-

tions or personal desires. Similarly, North Korean politics (and political ideas) has evolved around its leader to the extent that he has become in the political culture an immortal being. This syndrome of personalization of politics is not limited to the level of national government ; it is pervasive at all level of government. Further this syndrome is not contained within the public sector ; indeed,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even universities and religious groups especially in the South are highly personalized, leaving laws and regulations merely for cosmetic appearances.

The lack of institutionalization or the practice of personalization of politics leads to certain factionalism and recurring instability and legitimacy crises. At the same time, this breeds charismatization and possible deification of political leader, and promotes nepotism and other forms of corruption as amply demonstrated in both political systems.

If a new ideology is to avoid the same trap of personal politics and all the shortcomings accompanying it, it is imperative for the new ideology to cultivate a political culture (and practice) of depersonalization and move toward viable institutionalized politics.

#### **9. Communicative Capability**

The ultimate goals of human dignity and global peace cannot be approached without extensive and intensive communication by individuals and groups with different values and priorities. Communication is necessary where understanding is desirable ; it is misunderstanding that is the primary source of conflict at all levels of the society. Understanding is not agreement ; in fact, agreement does not require understanding. Because disagreement and differences lead to confrontations, the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is necessary to avoid conflict. But the real significance

of communication is far reaching and instrumental to peace-making.

Communication is the exchange of value as opposed to mere facts. Different value and opinions that might even be mutually incompatible must find a common basis through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For communication to be effective and meaningful, there are a few requisite conditions. First, empathy is required, as it is defined as one's ability to 'put oneself in someone else's shoes'. Without this attitudinal quality, communication can only result in one-sided assertions and misunderstanding. Secondly, one must also be open-minded in that one is ready to accommodate other' views and opinions and willing to adjust his/her own perspectives. Third, for obvious reasons, the absence of constraint (political or otherwise) on communication must be preserved.

Viewed from the definition and conditions for communication, one has to conclude that both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gimes are utterly unprepared for meaningful communication. The two sides' motivations and orientations behind their contacts and negotiations seem to suggest that they are not empathetic. Rather, they are self-centered, closed-minded, and unwilling to compromise their positions. In addition, within their own societies, especially the North, there appear to be numerous constraints upon the expression of ideas and values.

#### **10. Radical Relativism**

The admission of relativism in values and positions on the part of the communicator is a necessary requirement for viable communication. As long as values and opinions are held to be dogmatic, communication cannot work as a vehicle for peacemaking. Unfortunately, the Cold-War political culture coupled by the hos-

tile relations between the divided regimes of Korea has instilled in the political orientations for both sides dogmatic views about each other, leaving little room for compromise. The long-held impasse in inter-Korea relations has been due in part to the zero-sum nature of the competition for system legitimacy.

The context of world politics has changed so that relations of political and non – political entities are no longer guided by the ideological nexus. No longer does the legitimacy for a political regime depend on its ability to denounce the ideology of its adversarial regime. It is therefore of vital significance for the two Korean regimes to move their bases of regime legitimacy from mutual rejection to a broader and common basis by incorporating the notion of human dignity. A political system, then may be regarded legitimate if it can be supportive of and instrumental to enhancing human dignity. Both Korean regimes should realize that each has some areas of strength as well as weakness in their pursuit of human dignity ; yet better, they should realize that they can even complement each other as they indeed represent a variety of different attributes that must first find their rightful places in order to begin building eventual, lasting harmony.

## VII. Conclusion

With the waning of the Cold War world order, the East-West ideological nexus has been dismantled leaving an ideological vacuum. Contending views and claims about a new world order have never produced an authoritative assessment of the current situation. Amidst this global transition, the inter-Korea relation have evolved to a point where interactions have progressed at a breathtaking pace. Yet, the nature of differences and the condition of impasse between the two Korean regimes are such that all

the dramatized ministerial talks seem to be producing little tangible result for peaceful reunification. This paper was written on the premise that an ideology is the road map designed to guide the course of social change, and that it is imperative for Korea, and for that matter for the global community, to advance a new ideology.

Efforts were made in this paper to first discern the contrasting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Korean regimes which would be helpful in diagnosing the sources of problems in interregime dialogues. Secondly, further efforts were made to identify the kinds of values and ideas that can be used in developing a new ideology that might facilitate not only a meaningful course of Korean reunification but more ambitiously could provide some insights for the emerging global community itself. The view that a desirable ideology should promote dignity for human individuals and peace for the community is put forth. The ten-point proposal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mple room for improvement and change in both of the systems, and that the challenge of generating such an ideology lies ahead for the Korean people. □

\* Note \*

- 1) The New York Times, January 7, 1992.
- 2) For a further analysis of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on this very premiss, see Han S. Park, Human Needs and Political Development (Cambridge : Schenkman Publishing co., 1984)
- 3) The term 'social engineering' is adopted from Eugene Meehan's work, Value Judgement and Social Science (Homewood : The Dorsey press, 1969).
- 4) The concept of human development is persuasively espoused by Steve Chilton as he exploits culture as the locus of development in his recent book, Defining Political Development (Boulder : Lynn Rienner Publishers, 1988).

- 5) The concept of ‘imagined political community’ is adopted from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ew York: Verso, 1983), pp. 15 – 16.
- 6) In the same book, the author ranks both North and South Korea as being the only countries with 100% ethnic homogeneity.
- 7) The notion of the ‘social political life’ has been advanced by Juche theorist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by Kim Jong Il in his speech entitled ‘Some Questions on the Juche Idea’ in 1986. For a concise exposition of the idea of ‘eternal life’, see Koh Rim, Ch'u che cholhak won ron (*Introduction to Juche Philosophy*) published in pyongyang in 1989.
- 8) The consistent purpose of the massive 33 volume history book series entitled *Chosun Chon Sa* published in 1979 – 1982 was to convey the idea that Korea is a chosen land and its people are destined to liberate the humanity from imperialist oppression.
- 9) There are numerous publications on Juche's interpretation of human nature, In Book I of the massive book series published in Pyongyang in 1985 by multiple authors entitled *Widaehan Chuche Sasang Chong Suh*, Li Sung Joon introduce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the ideology.
- 10) For a further exposition of this analysis, refer to Stephen Ryan, *Ethnic Conflic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artmouth : Dartmouth Publishing Co., 1990). p. xix
- 11) For a comparison of the bases of legitimacy of the two regimes, see Han S. Park and Kyung A. Park, “Bases of Regime Legitimacy in North and South Korea” *Korea Observer* (Vol. 18, No. 3, Autumn 1987), pp. 321 – 343.
- 12) For a discussion on the relevance of ‘self – reliance’ for security, refer to Han S. Park and Kyung A. Park, “Ideology and Security : Self – Reliance in China and North Korea” in Edward Azar and C. I. Moon, eds., *National Security in the Third World* (Cambridge, England : University Press, 1988).